

# 비교한국학

## COMPARATIVE KOREAN STUDIES

---

VOL.30 NO.1 APRIL 2022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EXECUTIVE OFFICERS 2020.9.1.~2022.8.31.

<b>President</b>	Wu, Chan-je(Sogang University)
<b>Vice Presidents</b>	Kim, Yang-sun(Hallym University) Kim, Jung-hee(Seoul National University) Ryu, Bo-sun(Kunsan University) Min, Eun-k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Soo-jeong(Myongil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Yang, Jin O(Daegu University) Woo, Rim-geol(Shandong University) Yoo, Sung-ho(Hanyang University) Yoon, Sang-in(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Myeong-ho(Kyunghee University) Lee, Wook-yeon(Sogang University) Cho, Sung-won(Seoul Women's University) Ham, Jeung-Im(Donga University)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 Argentina/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 USA/English Literature)
<b>Secretary-financial General</b>	Choi, Sung-Min(Kyunghee University) Yoon, In-sun(Hanbat University)
<b>Research Planning</b>	Kwon, Hyeok-ryul(Jilin University) Kim, Seo-young(Kwangwoon University) Kim, Seok(Konkuk University) Kim, Ye-rim(Yonsei University) Noh, Dae-won(Jeju National University) Moon, Hye-won(Ajoo University) Pak, Dong-Ho(Kyunghee University) Park, Soo-ye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Joo-taek(Kyeonghee University) Sim, Won-seop(Dokkyo University) Yang, Dong-kook(Sangmyeong University) Um, Sung-won(CHA University) Lee, Yun-Jong(Sogang University) Lee, Chae-Won(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Hyeong-kwo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ng, Cheol-hwan(Yonsei University) Jeong, Ggeut-byeol(Ewha Women's University) Jeoung, Eui-jin(Sangmyeong University) Cho, Kang-sok(Yonsei University) Choi, Chang-Reuk(Nanjing University) Yeo, Tae-Chon(Dongduk Women's University)
<b>Journal Editor</b>	Oh, Hyung-yup(Korea University)
<b>Editorial Board</b>	2020.9.1.~2022.8.31
Kang, Yong-hoon(Incheon University)	Kim, Gi-Bong(Kyonggi University)
Kim, Dong Gyu(Yonsei University)	Kim, Te-Gyung(Kyunghee University)
Kim, Ho-young(Hanyang University)	Do, Yoon-Jung(Inha University)
Park, Sung Ho(Kyunghee University)	Park, In-Seong(Catholic University of Pusan)
Yoon, Hye-joon(Yonsei University)	Lee, Kyung-soo(Chung-Ang University)
Lee, Jae-bok(Hanyang University)	Chang Seijin(Hallym University)
Jeong, Seung-hoon(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Jung Eui-jin(Sangmyung University)	Cho, Man-soo(Chungbuk University)
Cho, Jae-ryong(Korea University)	Jin, Joo-young(Soon Chun Hyang University)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 published three times a year in April, August, and December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Membership is open to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The annual membership dues including subscription to the journal are 30,000 won (US \$30) for individual members and 50,000 won (US \$50) for institutional members. Manuscripts for publication and correspondences including change of address should be sent to the IACKS official contact point (E-mail : [newiacks@empal.com](mailto:newiacks@empal.com)).

# 비교한국학

## COMPARATIVE KOREAN STUDIES

---

VOL.30 NO.1 APRIL 2022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was organized in 1991 in Berlin and incorporated in 1992 in Paris to promote and develop Korean Studies in the world through interdisciplinary and comparative research.

이 학술지는 202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권두언 / 9

**| 특집기획 | 팬데믹 사회의 비교한국학적 접근**

노대원 · 이소영 · 황임경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15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장하원 · 임성빈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들 ————— 43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생태계

**|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 담론의 충돌과 접합 - 식민지 문학의 비교한국학**

이혜원 유랑 체험의 심화와 정신적 고양의 도정 ————— 73  
릴케와 백석 시의 비교 연구

표정옥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 ————— 107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

**| 비교한국학 리뷰 |**

선민서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 139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에 대한 서평

---

## 일반논문

- 류정민    풍경과 기억 ————— 171  
이제현의 사(詞) 문학과 동아시아의 양층언어(diglossia) 환경
- 양윤의 · 차미령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 197
- 리둥메이 · 김성 · 완예리    번역사회학 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 문학의  
번역 및 수용 양상 ————— 227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 윤은성 · 이경수    김종삼 시에 나타난 메시지와 청취자(聽取者) 주제 ——— 253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혁 / 287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 293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294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 297  
논문 투고 신청서 / 299  
편집위원회 규정/ 301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304  
논문 심사 요지서 / 307  
연구 윤리 규정 / 308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313

Preface / 9

| Special Topic | Comparative Korean Studies Approach to a Pandemic Society

Vulnerability Studies in Precarious Times

————— Noh, Dae-won · Lee, Soyoung · Hwang, Im-Kyung ——— 15  
Transdisciplinary Investigation o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Masks in the Era of COVID-19 ————— Chang, Hawon · Yim, Sung Vin ——— 43  
Medical Masks and the Ecosystem of Masks

| Issue and Prospect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 |

Clashes and Conjugations of Discourses – Comparative Korean Studies in Colonial Literature

The Process of Wandering Life and Spiritual Uplift ————— Lee, Hye-won ——— 73  
A Competitive Study on Lilke's and Baekseok's Poems

A Study on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Ambivalence of

Modern Aesthetics and the Femininity of Otherness ————— Pyo, Jung-ok ——— 107  
Focusing on “The Birthmark” by Nathaniel Hawthorne and “Anhae(Wife)”  
by Kim Yu-jeong

*Comparative Korean Studies* Review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Modern Korean Studies Research Using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 Seon Minseo ——— 139

A Book Review on *Digital Humanities and Modern Korean Studies-Reading Korean Studies from a Digital Perspective*

---

---

## General Topic

The Bookish Landscapes ————— Jamie Jungmin Yoo ——— 171  
Yi Che-hyŏn's Travel Lyrics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The Exploration of the New Ontology in Kim Cho-yeop's Fictions  
————— Yang, Yuneui · Cha, Miryeong ——— 197

Production Construction and Reception Communication of Translation Text from  
the Perspective of Bourdieu's Theory of Sociology  
————— Li dongmei · Jin xing · Wang Yanli ——— 227

"Message" and "Listener-subject" that Appeared in Kim Jong-sam's Poetries  
————— Yoon, Eunseong · Lee, Kyungsoo ——— 253



## •권두언•

이번 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특집기획 ‘팬데믹 사회의 비교한국학적 접근’ 하에 두 편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들은 2021년 12월 6일 본 학회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43회 국내학술대회 및 제10차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에 발표된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국제비교학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한국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획이었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서는 상기 학술대회에 대응하는 특집기획으로 지난 호에 이어서 두 차례에 걸친 특집기획 하에 아래의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노대원 · 이소영 · 황임경의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대두와 더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생명의료윤리적 관점에서의 ‘취약성’ 개념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레비나스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버틀러, 파인만, 키테이 등의 논의 속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예상화된 한국 사회 내의 취약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종감염병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분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장하원 · 임성빈의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들: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생태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마스크’에 주목하여 지난 2년 동안 마스크라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 마스크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물질적 기반의 변화와 사회적 실천의 양식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회용 보건용 마스

크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적인 실천들에 주목하는 것은 신종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목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2015년 하반기부터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란을 통해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한국학 연구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논문, 혹은 한국학 연구의 전망을 갱신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기획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 ‘비교한국학의 쟁점과 전망’의 주제는 ‘담론의 충돌과 접합 - 식민지 문학의 비교한국학’이다. 식민지 문학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넘어서 동시대의 서구 문학과 충돌과 접합에 주목함으로써 비교한국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해원의 「유랑 체험의 심화와 정신적 고양의 도정 - 릴케와 백석 시의 비교 연구」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문단의 흐름과 백석의 시작 속에 나타나는 릴케의 영향 관계 등을 바탕으로 백석의 후기 시에서 드러나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해명하는 데 릴케 시와의 비교가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서 릴케와 백석의 유랑 체험을 중심으로 양자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정옥의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 -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는 근대라는 의미망 내에서 드러나는 여성성의 문제에 대하여 여성의 미의식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조망함으로써 너새니얼 호손과 김유정의 문학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미에 대한 근대적 담론의 영향 관계를 자본과 과학의 영향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비교한국학 리뷰’란에 실린 선민서의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에 대한 서평」은 한국학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서의 괄목할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최근의 디지털 인문학이 이루어온 성과와 한계를 점검

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한국학에서 디지털 인문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향후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인문학적 해석의 불충분함이 직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연구성과를 제출해야만 하는 연구 환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비교한국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일반 논문들도 ‘비교한국학’이라는 본 학회의 문제의식에 여러 고민할 지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현의 시가에서 나타나는 풍경의 요소가 전고와 진경 묘사 사이에서 어떠한 지평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논증해낸 류정민의 「The Bookish Landscapes: Yi Che-hyŏn's Travel Lyrics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김초엽 SF에 나타나는 새로운 몸, 마음,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윤리적, 실천적 의미를 분석해낸 양운의·차미령의 「김초엽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부르디외의 번역사회학적 시각에서 장혁주 문학의 중국 내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 리동메이·김성·완예리의 「번역사회학 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 문학의 번역 및 수용 양상」, 김종삼 시의 주체가 행하는 ‘청취’라는 행위에 주목하여 그의 형식미학 속에서 나타나는 청취라는 수행성, 혹은 청취를 통한 수행성의 의미를 밝혀낸 윤은성·이경수의 「김종삼 시에 나타난 메시지와 청취자 주체」 등이 그것이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선생님,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제43회 국내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편집위원회



|특집기획|

## 팬데믹 사회의 비교한국학적 접근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노대원 · 이소영 · 황임경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들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생태계

장하원 · 임성빈



#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노대원\*\* · 이소영\*\*\* · 황임경\*\*\*\*

1. 서론: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2. 취약성 개념의 철학적 이해
3. 취약성 개념의 재정립
4. 결론: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위하여

## | 국문초록 |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 개념은 상처, 손상, 해악, 불안정성, 약점, 연약함 및 유한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본래적 취약성에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양극화,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취약성까지 더해져 오늘날 개인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취약성 논의는 이 같은 다양한 삶의 조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라는 새로운 학제적 영역으로 발전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철학은 취약성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상처 입을 가능성’(vulnérabilité) 개념은 타자성의 윤리학(ethics of alterity)으로 일컬어지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출발해 ‘윤리적 전환’(the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6464).

\*\* 제1저자,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thical turn)의 핵심이 되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레비나스의 개념을 정치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취약성 연구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도록 했다. 버틀러는 취약성을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대신 저항의 실천들을 포함하는 구체화된 사회관계들로 고려하기를 제안했다.

생명의료윤리 논의에서 취약성은 지금까지 주로 자율성의 감소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확장된 관점을 요구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돌봄 논의는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 마사 파인만(Martha A. Fineman)은 자율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취약하고 관계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또한 에바 커테이(Eva. F. Kittay)는 인간의 취약성이 상호 돌봄의 관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역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취약성 개념의 이론적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카트리오나 매켄지(Catriona Mackenzie), 헝크 텐 하브(Henk Ten Have), 바바라 미스탈(Barbara A. Misztal) 등은 심화된 탐구와 범주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취약성 연구는 여전히 취약한 자들의 목소리와 서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주제어:** 취약성, 취약성 연구, 윤리, 자율성, 돌봄, 레비나스, 버틀러



## 1. 서론: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당대를 불안과 위기의 시대로 명명한다. 새로운 자본주의(New Capitalism)의 확산으로 불안정한 이 시대에는 표준화된 사회적 서사가 붕괴되며, 개인의 서사 또한 혼란과 위기에 처한다.<sup>1</sup> 불안정 노동, 변화에 대한 찬양, 불확실성은 삶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실존과 삶의 서사를 뒤흔든다. 개인의 삶과 서사는 삶의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이른바 ‘서사적 난파’(narrative wreck)<sup>2</sup>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인간의 본래적 취약성에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양극화, 기후 변화(위기), 신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취약성까지 더해져 오늘날 개인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이란 용어는 어원학적으로 라틴어 동사 ‘vulnerare’(상처를 입히다, 상하게 하다)와 명사 ‘vulnus’(상처)와 관련된다.<sup>3</sup>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상처 입을 가능성’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취약성은 상처 이외에도 손상, 해악, 불안정성, 약점, 연약함 및 유한성과 같은 의미와 연결된다. 보통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인간은 살아 있는 존재이자 동물로서 신체적으로 쉽게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한편으로 최근의 세계화, 기후 변화, 양극화, 사회적 갈등, 의료 기술 발전과 다양한 생명의료윤리 문제의 부상 등 자연 및 기술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성은 더욱 연구의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취약성은 인문학, 사회과학, 의학 및 생명과학 등의 학문분과에서 더불어 논의할 수 있는 초학제적 연구 주제로 떠올랐다.

<sup>1</sup> 리처드 세넷, 유병선 역, 『뉴캐피탈리즘』, 위즈덤하우스, 2009, 223쪽.

<sup>2</sup> 아서 프랭크, 최은경 역,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갈무리, 2013, 124-125쪽.

<sup>3</sup> Henk Ten Have,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Routledge, 2016, p.3.

최근에는 다양한 취약성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라는 새로운 학제적 영역으로 발전했다. 취약성 연구는 학계에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을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1973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취약성에 관한 200편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이 연구들은 주로 환경 의학, 지구적 환경 변화, 역학(epidemiology), 기후 변화,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에 발표되었다.<sup>4</sup>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1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취약성 연구를 서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취약성과 관련된 출판물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연구 주제도 다양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기후 변화, 적응, 회복력(resilience)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sup>5</sup> 이러한 서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취약성 연구는 근래 들어 더욱 중요한 연구 주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구 행성의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취약성 연구로도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취약한 삶’(Vulnerable Lives) 연구 프로젝트<sup>6</sup>는 그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2012~2014년, 핀란드 학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개별 인간 주체의 자율성이나 겉으로 드러난 의도와 행동보다는 의료 기술이나 약물, 주거지역 등 사회적·물질적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성이 인간의 취약한 삶에 어떤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과학기술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이들 연구의 결과물은 2018년 유럽사회복지학회의 학술상을 받았으며, 유럽 내에서 취약성을 주제로 한 여러 연구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촉매

<sup>4</sup> A. T. Fuller and Stephanie Pincetl, “Vulnerability studies: A bibliometric review,”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7.3, 2015, p.7.

<sup>5</sup> Kim, Byeong Je, Seunghoo Jeong, and Ji-Bum Chung, “Research trends in vulnerability studies from 2000 to 2019: Findings from a bibliometr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56, 2021.

<sup>6</sup> <https://blogs.helsinki.fi/vulnerablelives/>

역할을 하였다.

인문학과 어문학 분야에서도 취약성은 점차 시의성 있는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국제대회는 ‘취약한 시대’(Vulnerable Times)’를 주제로 열렸다. 당시 MLA 학회장 마리안느 허쉬(Marianne Hirsch)가 쓴 학술대회 주제 초청장에서 발표 논문은 “사회적 차이 및 일회용 삶; 트라우마, 기억 및 증언; 전쟁, 대량 학살 및 폭력; 정보, 제국 및 세계화의 효과; 망명 및 이주; 종, 기후 및 환경; 상호주체성, 상호육체성, 신체화 및 장애; 정서와 감각; 친밀감, 협력 및 연대; 저항과 행동주의; 정의, 개선 및 보상; 공공 예술과 인문학; 소멸 위기의 언어”<sup>7</sup>와 같이 매우 광범위한 인문사회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고 했다. 허쉬는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페미니즘 작업에서 파생되었다고 밝히며, 특히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상상의 행동과 저항의 형태를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학술대회의 목표를 설정하여 취약성 개념에 정치·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sup>8</sup> 허쉬의 이러한 제안은 취약성 개념과 취약성 연구가 기존의 의미와 분야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확장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국내의 취약성 관련 연구는 주로 개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국내 인문학계에서 ‘취약성/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은 먼저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sup>9</sup> 하지만 큰 관심을 얻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영문학, 사회철학, 여성철학, 윤리학, 영화기

<sup>7</sup> [https://apps.mla.org/pdf/pres\\_theme\\_invitation\\_2014.pdf](https://apps.mla.org/pdf/pres_theme_invitation_2014.pdf)

<sup>8</sup>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우리가 신체화된 종(embodied species)으로서 공유하는 취약성을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직면한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공유되거나 차등적으로 가해지는 취약성을 약점이나 희생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호의존성과 연대감에서 나오는 참여와 저항의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Ibid. 번역은 인용자.

<sup>9</sup> 서동욱,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1; 서동욱, 「들뢰즈와 레비나스에서 감각의 중요성 - 상처의 경험에 관해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0집, 한국현상학회, 2003.

호학, 포스트휴먼 연구 등 여러 영역에서 취약성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0</sup>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취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1</sup> 또한 의료인문학, 문학교육, 법문학비평, 포스트휴먼과 인간 향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취약성 관련 논의가 확장되어 왔다.<sup>12</sup>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성 연구를 확장시켜 실천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철학과 윤리학에서 취약성 개념을 널리 알린 레비나스의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레비나스의 취약성 개념을 정치철학적으로 재해석해내 최근 취약성 연구에 새로운

- 10 김동규, 「트라우마와 연대: 상처 받을 수 있음의 공공성」, 『대동철학』 제91권, 2020; 김동규,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대칭성과 비대칭성 윤리 사이에서」, 『哲學研究』 제158권, 2021; 김수정, 「인간 몸의 취약성과 그에 관련된 덕목들: 알라스타이어 매킨타이어의 「의존적인 이성적 동물」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4; 김은희,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사회계약론, 역량접근법, 돌봄 윤리의 대결」, 『철학연구』 122, 2018; 김영덕, 「취약성의 윤리와 돌봄: 사라 톨의 『깨끗한 집』」, 『신영어영문학』 67집, 2017; 김영덕, 「현대영미드라마에 재현된 취약성의 윤리: 오라일리 의 「의상 벗기」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0집, 2018; 이수진,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드러난 「약함(vulnerability)」의 영화 기표 연구」, 『기호학연구』 제63권, 2020;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 인정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2018; 조태구, 「인간적 취약함의 의미 - 인간 강화 시대의 인간」, 『가톨릭철학』 제 32호, 2019.
- 11 배현아, 「임상시험에서 취약성(vulnerability) 판단 기준 재정립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1; 유수정, 최슬비, 김은애, 「인간대상연구에서 취약성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생명윤리』 제21권 제 1호, 2020; 이은영,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의 함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획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7; 박민주, 「동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취약성 보호방안」, 『생명윤리』 제21권 제2호, 2020.
- 12 황임경, 「상처 입을 가능성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제25집, 한국의철학회, 2018; 노대원, 「힐링 담론과 치유의 문학교육 - 「상처 입을 가능성」과 「문화 의사」 개념을 통한 비판적 성찰」, 『국어교육연구』 제68집, 국어교육학회, 2018;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노대원 · 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 황정은 소설에 재현된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한 법문학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노대원, 「길 위의 포스트휴먼 - 박미하일 소설 「예율리」의 포스트휴먼 디아스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불씨를 지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생명의료 윤리, 페미니즘과 돌봄 윤리, 정치철학 영역에서 취약성 개념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취약성 개념이 이론적, 실천적 맥락에서 어떻게 심화되고 범주화될 수 있는지 최근의 논의를 정리한다.

## 2. 취약성 개념의 철학적 이해

### (1) 레비나스의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

학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취약성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 개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대 프랑스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로 레비나스 철학에 관한 논문과 연구서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해당 개념에 관한 단행본 연구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 고통과 타자 윤리학을 포함한 레비나스 철학은 강영안에 의해 주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sup>13</sup> '상처 입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철학 논문으로는 서동욱의 연구 작업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현대철학과 정신분석학에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개괄하여 검토하고<sup>14</sup>, 질 들뢰즈와 레비나스 철학에서 상처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교했다.<sup>15</sup> 시인이자 평론가이기도 한 서동욱의 연구와 소개에 힘입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연구 및 문학비평에서도 종종 이 개념을 언급하

<sup>13</sup>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손봉호는 1974년에 레비나스 철학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다.

<sup>14</sup> 서동욱,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1(서동욱,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세계의문학』 가을호, 1998의 수정·보완).

<sup>15</sup> 서동욱, 「들뢰즈와 레비나스에서 감성의 중요성 - 상처의 경험에 관해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0집, 한국현상학회, 2003.

며 문학 텍스트 해석에 활용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레비나스 철학은 취약성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의 주요 용어인 ‘상처 입을 가능성’(vulnérabilité) 개념은 타자성의 윤리학(ethics of alterity)으로 일컬어지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출발해 오늘날 ‘윤리적 전환’(the ethical turn)이라고 부르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경향과 비평과 예술적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6</sup> 레비나스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독일군 포로수용소 생활을 겪었으며 부모와 두 남동생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다. 그의 철학과 윤리학은 홀로코스트의 폭력과 상처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맥락에서 출현한 것이다.<sup>17</sup> 그는 사유가 이별과 폭력, 상처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그만큼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을 비롯해 고통과 상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레비나스의 취약성 개념은 주로 그의 대표작인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체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배고픈 인간이자 먹는 인간이고, 피부 안의 장기이며,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빵을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피부를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sup>18</sup> 이처럼 레비나스는 관념론적인 주체를 부정하고, 주체는 언제나 신체화된 주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주체를 타자의 고통에 응답(réponse)을 요청받고 책임(responsabilité)을 지는 윤리적 주체로 정의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 레비나스적 주체이다. 이러한 윤리적 급진성은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을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 취약성과 연약함보다는 주로 타인의 괴로움에 의해 상처 입는 일, 타인의 비참함을 느끼는 고통에 노출

<sup>16</sup> Jean-Michel Ganteau,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Vulnerability in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Routledge, 2015, pp.5-7.

<sup>17</sup> 강영안, 앞의 책, 29-30쪽; 김혜령,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진보적 수용」,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253쪽. 한편, 버틀러가 비판적으로 지적하듯, 레비나스는 시오니스트로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sup>18</sup> 에마뉘엘 레비나스, 문성원 역,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그린비, 2021, 169쪽. 강조는 원문.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도록 한다.<sup>19</sup>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책임과 상처 입을 가능성을 “모성”으로 자주 비유하기도 하는데, 타인에 대한 책임은 “타자들에 대한 대신함까지, 고통 받음까지 나아간다.”<sup>20</sup> 레비나스는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 사로잡히고, 타인을 위해 고통 받고, 타인을 위해 대신 설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했다. 타인을 위해 책임지고, 타인을 위해 대신 고통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체성의 ‘의미’라고 강조했다.<sup>21</sup> “타자는 상처를 주는 소명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향하도록, 그래서 주체의 정체성 자체로 향하도록 요구한다.”<sup>22</sup> 그러므로, 레비나스의 상처 입을 가능성은 쉽게 말해 ‘고통의 고통’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고통’이자 ‘타인의 상처에 대한 상처’로 요약할 수 있다.<sup>23</sup> 또한 “주체성은 상처받기 쉬움이다.”<sup>24</sup>라고 했을 만큼, 상처 입을 수 있는 주체(vulnerable subject)는 “타자를 - 위한 - 일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자이다.

오늘날 인문학의 윤리적 전환에서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은 핵심 용어이다. 이를테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위시한 현대 철학자들의 ‘환대’(hospitality)의 윤리학 역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에 빚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난민, 이주민 문제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안의 부상 탓에 더욱 조명을 받게 된 이 개념은 레비나스의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이 확장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버틀러는 레비나스의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을 정치철학적 사유에서 더욱 심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up>19</sup> 노대원, 『힐링 담론과 치유의 문학교육』, 123쪽.

<sup>20</sup>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165쪽.

<sup>21</sup> 강영안, 앞의 책, 79쪽.

<sup>22</sup>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169쪽.

<sup>23</sup> 와시다 키요카즈, 김주희 역, 『듣기의 철학: 고뇌하는 인간, 호모 파티엔스를 만나다』, 아카넷, 2014, 150쪽.

<sup>24</sup> 에마뉘엘 레비나스,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125쪽.

## (2) 버틀러의 취약성 이해

상처 입을 가능성으로부터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읽어낸 버틀러의 작업들은 ‘얼굴’에 대한 레비나스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sup>25</sup>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얼굴은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벌거벗음’의 상태이다.<sup>26</sup> 벌거벗은 얼굴은 내게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며 나의 주권적인 삶을 문제 삼는데, 이 명령이 지닌 권위는 타자의 힘이 아니라 도리어 타자의 비참함과 상처받을 수 있음에 기인한다.<sup>27</sup>

버틀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취약한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알아낼 목적으로 그 얼굴을 읽어낼 수 없으며 읽어내려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sup>28</sup> 얼굴은 입으로 환원될 수 없고, 입이 하는 어떤 발화로도 환원되지 못한다.<sup>29</sup> 그것이 전달하는 명령은 언어로 형식화하여 따를 수 있는 처방으로 즉시 번역되는 형태의 것이 아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그 범주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과잉과 불투명성을 표식하다면, 자기 인식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획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sup>30</sup> 버틀러는 그 불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윤리가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타자에게 말 걸기의 지평에서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sup>31</sup>

몸을 가진 인간은 상처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타자에게 말 걸지 않고서는

25 얼굴 개념이 최초로 레비나스에게서 등장한 것은 『시간과 타자』(*Le Temps et l'autre*)에서였고, 구체적인 이론화는 『전체성과 무한』(*Totalité et infini*)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도형, 『레비나스와 정치적인 것』, 그린비, 2018, 18-19쪽 참조.

26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99쪽.

27 김도형, 앞의 책, 28~29쪽.

28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190쪽.

29 위의 책, 192쪽.

30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77쪽.

31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제29권, 2018, 67쪽.



주체가 주체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sup>32</sup> 인간이 받는 상처가 예측 불가능하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지점에서 연대의 근본 조건이 등장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차이 나게 만드는 것에 의해, 바뀌 말해 우리의 단수성에 의해 서로에게 묶여있다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연대에 기초하여 취약한 존재의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법과 제도가 생산되고, 법과 제도의 생성을 자극하고 추동했던 무언가는 다시금 실정화되어 법과 제도 안으로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타자의 상처 입을 가능성은 매순간 남아 있고, 이로 인해 다시금 새로운 상처의 특이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기존 공공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로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임계 상황에 놓이게 된다.<sup>35</sup> 철학자 김동규는 이를 ‘임계적 현대의 공공성’이라 개념화한다.<sup>36</sup> 비주체였던 존재를 주체로 환대해야만 나의 주체성이 긍정되는 임계적 상황에서 나는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그간 당연시했던 나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한다.<sup>37</sup> 그런 견지에서 타자의 상처 입을 가능성은 새로운 공공성 창출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들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다.<sup>38</sup>

더 나아가 버틀러는 우리의 과제는 취약자로 정체화되는 계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구조적인 방식으로 폭력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 규정하여 설명하려 든다면 그것은 대상을 존중하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사업의 맥락에서 취약계층의 범주에 들어갈 테지만, 특정 인구군을 생존의 위기에 빠뜨

32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62쪽.

33 위의 책, 62쪽.

34 김동규, 「트라우마와 연대: 상처받을 수 있음의 공공성」, 『대동철학』 제91집, 2020, 48-49쪽.

35 위의 글, 49쪽.

36 위의 글, 49쪽.

37 위의 글, 50쪽.

38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현대문화이론연구』 제85집, 2021, 122쪽.

리는 구조적 폭력을 파악하고 견제하는 일이 그런 범주화를 통해 가능할지를 두고 그녀는 의문을 제기한다.<sup>39</sup> 취약계층으로 범주화된 이들에게서 사라진 권력이 이제 개입의 의무를 짊어진 온정주의적 돌봄의 권력이 되어 재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서 말이다.

만일 우리가 ‘취약성은 사회관계들을 연결하는 흐름이자 사회관계들을 지지하는 조건’이라는 통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형태의 실질적 평등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버틀러는 주장한다.<sup>40</sup> 우리는 취약성을 수동적인 무언가로 이해하는 대신 저항의 실천들을 포함하는 구체화된 사회관계들로 고려할 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무언가로 이해해야 한다.<sup>41</sup> 취약성이 구체화된 사회관계나 사회적 행동들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항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이리저리한 형태로 출현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취약성이 열어젖힌 저항의 현장들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2</sup>

### 3. 취약성 개념의 재정립

#### (1) 취약성 개념의 확장

서론에서 소개했듯이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용어는 상처(wound)를 뜻하는 라틴어 ‘vulnus’에서 유래한다. 보통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한다. 영어권의 경우 특히 의학이나 군사 영역에서 특정한 질병이나 위협에 민감하고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39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240쪽.

40 위의 책, 241쪽.

41 위의 책, 241쪽.

42 위의 책, 242쪽.

를 기술하는 용어로 오랜 기간 쓰였다. “감염에 취약한”(vulnerable to infections) 혹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취약한”(vulnerable to terrorist attacks) 등의 구절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표현이다.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를테면 1935년 11월 25일자 『조선일보』 논단에는 당시 런던에서 개최된 해군군축회의의 결과를 통해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脆弱性이란 무엇이나하야 『侵害를 바들수잇을 弱點』이라고 할까 하여간 그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또한 “脆弱性(발너라빌리티)의 大小에 應하야 兵力量에 差等を 붙이는 것이 安全感을 평등케 하는 所以다”라고 하고 있다. Vulnerability의 번역어로 취약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로 정치, 경제, 군사적 맥락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신문지면을 살펴보면 이런 경향은 9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된다.

하지만 오늘날 취약성은 이처럼 특정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위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일상 영역은 물론이고 학술 영역에서도 취약성에는 특별한 보호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규범적 의미가 덧붙여졌고, 이는 다시 취약성 개념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학술 영역에서 취약성 개념에 이런 가치 함축적 의미가 덧붙여진 데에는 레비나스와 버틀러가 취약성에서 ‘상처 입을 가능성’이라는 존재론적, 윤리적, 정치철학적 의미 지평을 발견하고 확장시킨 것에 크게 빚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으로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도 취약성의 규범적 의미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1979년의 벨몬트 리포트(The Belmont Report)에 처음 등장한다. 새로운 의료 기술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가난한 흑인들을 매독 연구에 동원한 터스키기 매독 사건 등에 의한 공적 논란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생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가 설립되고 벨몬트 리포트가 발표된다. 벨몬트 리포트는 인간 대상 연구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으로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 선행(Beneficence), 정의(Justice)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취약성은 세 원칙 모두와 연결된다. 즉,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 위중한 환자, 시설 수용인 등의 취약한 집단(vulnerable populations) 혹은 취약한 연구 참여자(vulnerable subjects)는 종종 자율적인 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금전적인 유인책이나 부당한 압력에 쉽게 노출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sup>43</sup> 비록 취약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벨몬트 리포트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취약성에 관한 논의를 처음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벨몬트 리포트에서 제시된 취약성은 어디까지나 자율성(autonomy)이라는 개념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취약성은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거나 자율성이 감소된 부정적인 상태이다. 이것은 이후에 전개될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취약성 논의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류 생명의료윤리 논의에서 취약성은 개별적 자율성의 감소,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감소나 부재라는 좁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그런 능력이 감소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대량 난민 사태 등 각종 위협의 증가는 취약성을 개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주류 생명의료윤리의 논의를 넘어서는 확장된 관점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페미니즘 진영의 취약성을 매개로 한 돌봄 논의는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에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다. 이는 취약성

<sup>43</sup> Henk Ten Have, op. cit., p.39.

을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자율성이 감소되거나 훼손된 상태라고 보는 주류 생명의료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페미니스트 법학자인 마사 파인만(Martha A. Fineman)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자유주의적 인간 존재론을 거부하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취약하고 관계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내부의 붕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불변하며 선천적인 특성이다. 또한 취약성은 보편적인 것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독특한 특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르고 처해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sup>44</sup> 결국 취약성은 보편적 혹은 구체적 차원 모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취약한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존성(dependency)은 필연적이다.

돌봄 이론가인 에바 커테이(Eva F. Kittay)는 의존성으로부터 취약성과 돌봄의 규범적 의미를 길어 올린다. 즉 인간이 취약하다는 사실과 취약한 인간을 돌봐야 한다는 당위를 의존성을 통해 연결한 것이다. 인간의 취약성 자체가 돌봐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함을 유발하는 본래적인 의존성이 취약한 타인을 돌봐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은 상호 돌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런 돌봄은 보편적인 의존노동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을 제공하는 ‘의존노동자’이기도 하다.<sup>45</sup>

이처럼 페미니즘에 의해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확장된 취약성의 개념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정치철학적 논의와도 공명한다. 누스바움의

<sup>44</sup> Martha A. Fineman, Anna Grear,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Ashgate Publishing, 2013, p.20.

<sup>45</sup> 에바 페터 커테이, 김희강·나성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135-148쪽.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역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누스바움이 생각하는 역량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뿌리 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및 윤리 사상이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적 존재인 인간의 허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런 허약한 존재를 위해 국가는 깨끗한 물과 공기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자원은 물론이고 공동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나 시민축제 등의 문화적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민이 자신의 선택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각자의 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본 것이다.<sup>46</sup> 누스바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상호 동등한 계약을 통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존 롤즈(John Rawls)의 사회계약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증 신체 장애인이나 인지 장애인과 같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이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자주 무시당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역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함에도 롤즈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7</sup> 누스바움은 인간의 본래적인 허약함과 의존성을 인정하고 취약한 이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결국, 누스바움에게 취약성이란 개인적 혹은 사회구조적 이유로 역량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취약한 이들을 돕고 보호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2) 취약성 개념의 심화 및 범주화

생명의료윤리에서 출발한 취약성 개념은 페미니즘과 돌봄 윤리, 그리고

<sup>46</sup> 마사 누스바움, 한상연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154-155쪽.

<sup>47</sup> 위의 책, 109쪽.

정치철학적 논의를 거치면서 재정립되고 확장되었다. 취약성은 자율성,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된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또한 취약성은 특별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제약을 받고 있는 특정한 역량을 증진시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힘을 길러줘야 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약성의 발현에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역시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나 취약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취약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취약성은 매우 다층적인 개념이다. 취약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실존적 요인부터 집단이나 국가, 전지구적 수준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은 종종 다루기 어려우며 절망에 빠져 있고 차별과 배제에 익숙하다는 부정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이해의 민감성, 자기 발전의 가능성 혹은 타인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는 긍정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취약성은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인 차원부터 상호 돌봄과 연대를 통한 자율성 증진과 역량강화(empowerment) 등의 능동적 차원까지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취약성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유연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그만큼 엄밀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취약성 개념의 이론적 모호함을 극복하고 실천적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취약성 개념 자체에 대한 보다 심화된 탐구와 범주화가 필요하며,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취약성을 인간의 본질적 조건에 근거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으로 보는 ‘존재론적(ontological) 취약성’과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선택

적이고 다양하고 이차적인 특성을 보이는 ‘특수한(special) 취약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취약성 중에서도 선천적/내재적/지속적 요인과 후천적/외부적/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을 구분하기도 한다.<sup>48</sup>

그 중에서 취약성과 관련하여 개념적인 발전을 이룬 연구로는 먼저 페미니즘 철학자인 카트리오나 매켄지(Catriona Mackenzie) 등에 의한 논의를 들 수 있다. 매켄지 등은 취약성을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그 실현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sup>49</sup> 첫째는 선천적(inherent) 취약성이다. 이것은 인간 조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취약성이다. 이런 종류의 취약성은 신체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근본 조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신체적 취약성이나 외로움, 고립감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질병이나 노화, 회복탄력성, 경제적 상태,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선천적 취약성의 발현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상황적(situational) 취약성이다. 이것은 특수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취약성, 즉 개인이나 집단이 처해있는 특정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취약성이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상황적 취약성에 노출된 것이다. 또 임시 거처에 의탁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쉽게 빠지게 된다. 게다가 제 3세계에서 이런 재난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셋째는 병리적(pathogenic) 취약성이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

---

<sup>48</sup> Henk Ten Have, op. cit., pp.72-73.

<sup>49</sup> Catriona Mackenzie, Wendy Rogers, Susan Dods,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7-9.



황에서 발현되는 취약성인데, 주로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부정의, 착취, 부도덕한 관계 등에 의한 것이다. 이는 상황적 취약성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에 수용된 인지장애인이 돌봄 제공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 상황적 취약성에 더해 병리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이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실에서 이런 취약성이 항상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존재론적, 상황적, 병리적 취약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얹혀서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자연 재해를 겪은 제3세계의 빈민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나 무관심으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나 주거, 의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또한 세 가지 분류에 더해 각 취약성은 그 상태에 따라 경향적(dispositional)일수도 있고 현재 벌어지는(occurrent)것 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출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임신부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때에는 산모의 건강 상태나 질병 경력, 사회경제적 상황, 의료 접근성, 출산과 관련한 지역적, 문화적 규범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경향적인 취약성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취약성을 구분하고 이에 걸맞은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매킨지 등에 의한 연구와 더불어, 생명의료윤리학자인 헝크 텐 하브(Henk Ten Have)에 의한 취약성 개념화 논의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역시 기존의 존재론적 취약성과 특수한 취약성의 구분이 취약성을 정형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삶의 특정한 시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취약성과 특수한 취약성은 중첩되기 때문이다. 또한 존재론적 취약성을 강조하다보면 특수한 취약성의 조건이 되는 다양한 맥락을 간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텐 하브는 철학적 관점에서 본 취약성과 정치적 관점에서 본 취약성을

고루 봐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적 관점에서의 취약성 논의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존재론적 취약성이라는 용어 대신 ‘인간학적(anthropological) 취약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존재론’이란 용어에는 윤리에 선행하는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는 함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 앞서는 자율적인 주체가 존재하고, 이런 주체는 자신의 의지대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과 연결된다. 그리고 주체가 자율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 역시 이런 주장으로부터 도출된다. 하지만 텐 하브는 존재론과 윤리는 구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율적인 주체와 취약한 주체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취약성의 바탕 위에 자율성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레비나스와 버틀러의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다.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과 행위를 촉발하는 규범의 차원을 지니며, 따라서 취약성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고, 타자를 돌보게 하며, 자율적인 주체로 발전시키는 ‘인간학적’ 특질인 것이다.<sup>50</sup>

그렇다면 철학적 관점의 인간학적 취약성은 정치적 관점의 취약성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텐 하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해를 입을 가능성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자원은 다양한 맥락에 따라 불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마련이고, 이런 상황에서 촉발되는 돌봄과 연대의 도덕적 책임은 또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하고 특수한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인간학적 취약성은 정치적 관점의 취약성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sup>51</sup>

---

<sup>50</sup> Henk Ten Have, op. cit., p.94.

마지막으로 사회학자인 바바라 미스탈(Barbara A. Misztal)의 논의를 살펴보고  
 록 한다. 미스탈은 취약성이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개념으로는 충분히 확립  
 되었지만 진정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개념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다고 주장  
 한다. 공통적인 용례나 정의가 없이 각 학문 영역마다 서로 다른 혼란스럽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  
 를 달성하는 데도 이런 개념의 복잡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그녀는  
 기존의 취약성 논의가 인간의 취약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성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의 인간이 사회적 삶 속에서 경험하는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52</sup> 미스탈이  
 제시하는 취약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sup>53</sup>

첫째, 일차적 형태의 취약성(the first form of vulnerability)이 있다. 이것은 타인  
 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보면 쉬  
 을 것이다. 아기의 생존과 안녕은 전적으로 돌보는 이에게 달려 있다. 한편  
 돌보는 이는 아기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인간  
 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취약성은 자율성과 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  
 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취약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책임  
 성이야말로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차적 형태의 취약성(the second form of vulnerability)이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인간 경험과 행위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미래에 대한

<sup>51</sup> Ibid., pp.115-117.

<sup>52</sup> Barbara A. Misztal, *The Challenge of Vulnerability*, Palgrave Macmillan, 2011, p.221.

<sup>53</sup> Ibid., p.8.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취약성인 것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취약성은 강화되고 있다.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미스탈이 제시하는 해법은 ‘약속’이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책무를 짊어지는 것이며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든 접근 방식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우리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안전이 보장되리라는 공통의 기대를 확립함으로써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삼차적 형태의 취약성(the third form of vulnerability)이 있다. 이것은 과거의 행위와 경험의 비가역성에서 비롯되며, 특히 과거의 트라우마나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과거의 고통에 매몰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이다. 용서는 과거가 현재의 가능성을 비가역적으로 결정하는 일을 막음으로써 잠재적으로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용서는 공동체 내의 대화를 통해 정의를 바로잡고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재생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용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의와 연대를 위한 초석이 되어 분열된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4. 결론: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취약성은 자율성이 감소된 예외적인 상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인간은 의존성과 관계성 때문에 본래부터 취약한 존재이며, 오히려 자율성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취약성

개념은 재정립되었다. 특히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상처 입을 가능성 개념을 정치철학적으로 전유한 버틀러의 취약성 논의는 이런 개념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취약성을 자율성의 감소나 부재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취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실천적 목표가 되지만, 취약성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취약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능동적인 목표로 전환되었다. 또한 각종 위험이 만연해 있는 전지구적 환경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회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이들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본질적인 취약성에 더해 상황적인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본 본질적인 취약성은 취약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을 우리 모두에게 부과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본 상황적인 취약성은 취약한 타자를 보호하고 돌보며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개념적인 발전을 통해 취약성에 내재해 있던 복잡성과 그에 따른 모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취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취약성을 냉철한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개념 연구는 취약한 자들의 일인칭 이야기를 중심에 두는 연구에 의해 그 적실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오늘날 각종 위험으로 인해 취약한 개인과 사회가 의미 있는 서사를 구성할 수 없는 ‘서사적 난파’ 상태에 빠져 있다면, 취약성에 대한 탐구는 결국 취약한 자들의 파편화된 이야기와 목소리로 우리를 이끈다. 그 안에서 취약성의 다양한 발현과 그에 따른 좌절 그리고 그것을 딛고 나갈 희망을 찾는 작업을 통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서사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개념적으로 탐구한 본 논문의 후속 작업은 취약한 자들을 생산해내는 사회의 지배 서사를 비판적으로, 또한 취약한 자들의 대항 서사를 실천적으로 논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 김도형, 『레비나스와 정치적인 것』, 그린비, 2018.
- 김동규, 「트라우마와 연대: 상처받을 수 있음의 공공성」, 『대동철학』 제91집, 2020.
- 김동규,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대칭성과 비대칭성 윤리 사이에서」, 『哲學研究』 제158권, 2021.
- 김수정, 「인간 몸의 취약성과 그에 관련된 덕목들: 알라스티어 매킨타이어의 『의존적인 이성적 동물』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4.
- 김영덕, 「취약성의 윤리와 돌봄: 사라 룰의 『깨끗한 집』」, 『신영어영문학』 67집, 2017.
- 김영덕, 「현대영미드라마에 재현된 취약성의 윤리: 오라일리의 『의상 벗기』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0집, 2018.
- 김은주,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 들뢰즈와 버틀러의 윤리적 주체화」, 『한국여성철학』 제29권, 2018.
- 김은희,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사회계약론, 역량접근법, 돌봄 윤리의 대결」, 『철학연구』 122, 2018.
- 김혜령,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진보적 수용」,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 노대원, 「길 위의 포스트휴먼 - 박미하일 소설 『예율리』의 포스트휴먼 디아스포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 노대원, 「힐링 담론과 치유의 문학교육 - ‘상처 입을 가능성’과 ‘문화 의사’ 개념을 통한 비판적 성찰」, 국어교육연구 제68집, 국어교육학회, 2018.
- 노대원 · 황임경, 「포스트휴먼, 바이러스, 취약성」,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 리처드 세넷 · 유병선 역, 『뉴캐피탈리즘』, 위즈덤하우스, 2009.
- 마사 누스바움 · 한상연 역,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 박민주, 「동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취약성 보호방안」, 『생명윤리』 제21권 제2호, 2020.
- 배현아, 「임상시험에서 취약성(vulnerability) 판단 기준 재정립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 『한국료윤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1.
- 서동욱, 「들뢰즈와 레비나스에서 감성의 중요성 - 상처의 경험에 관해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0집, 한국현상학회, 2003.
- 서동욱,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1.
- 아서 프랭크 · 최은경 역, 『몸의 증언: 상처 입은 스토리텔러를 통해 생각하는 질병의 윤리학』, 갈무리, 2013.
- 에마뉼엘 레비나스 · 김도형 · 문성원 · 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 에마뉼엘 레비나스 · 문성원 역,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그린비, 2021.
- 에바 페더 커테이 · 김희강 · 나성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 와시다 키요카즈 · 김주희 역, 『듣기의 철학: 고뇌하는 인간, 호모 파티엔스를 만나다』, 아카넷, 2014.
- 유수정 · 최슬비 · 김은애, 「인간대상연구에서 취약성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생명윤리』 제21권 제1호, 2020.
- 이소영, 「호모 파티엔스(Homo Patiens)의 서사와 인권 - 황정은 소설에 재현된 '상처 입을 가능성'에 대한 법문학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이수진,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드러난 '약함(vulnerability)'의 영화 기표 연구」, 『기호학연구』 제63권, 2020.
- 이은영,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의 함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획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7.
-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 인정에 대한 버틀러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0, 2018.
- 조태구, 「인간적 취약함의 의미 - 인간 강화 시대의 인간」, 『가톨릭철학』 제32호, 2019.
- 주디스 버틀러 ·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 주디스 버틀러 ·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 주디스 버틀러 ·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픽, 2018.
- 황인경, 「상처 입을 가능성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제25집, 한국의철학회, 2018.
- A. T. Fuller and Stephanie Pincetl, "Vulnerability studies: A bibliometric review,"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7.3, 2015.
- Barbara A. Misztal, *The Challenge of Vulnerability*, Palgrave Macmillan, 2011,
- Catriona Mackenzie, Wendy Rogers, Susan Dods, *Vulnerability: New Essays in Ethics and Feminist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Henk Ten Have, *Vulnerability: Challenging Bioethics*, Routledge, 2016.
- Jean-Michel Ganteau,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Vulnerability in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Routledge, 2015.
- Kim, Byeong Je, Seunghoo Jeong, and Ji-Bum Chung, "Research trends in vulnerability studies from 2000 to 2019: Findings from a bibliometr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56, 2021.
- Martha A. Fineman, Anna Grear, *Vulnerability: Reflections on a New Ethical Foundation for Law and Politics*, Ashgate Publishing, 2013.

## Vulnerability Studies in Precarious Times:

### Transdisciplinary Investigation on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Noh, Dae-won · Lee, Soyoung · Hwang, Im-Kyung | Jeju National University

Today, the lives of individuals are facing increasingly precarious conditions. The intrinsic vulnerability of human beings is added to social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ies caus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global capitalism, polarization, climate crisis, and new infectious disease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is related to the conception of wound, damage, harm, instability, weakness and finiteness. The discussion of vulnerability has developed into a new interdisciplinary field called ‘vulnerability stud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oday’s various living conditions.

Emmanuel Levinas’ philosophy is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made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popular. The concept of ‘vulnérabilité’ started from his philosophy, which is called the ethics of alterity, and became the core of the ‘ethical turn’. Judith Butler re-interpreted Levinas’ concept as a term of political philosophy and drew many people’s attention to the study of vulnerability. Instead of understanding vulnerability as passive condition, Butler proposed to consider it as a medium of solidarity involving practices of resistance.

In the biomedical ethics discussion, vulnerability was mainly understood as a decrease in autonomy, but it required an expanded perspective. The discussion of feminism and care represents this trend. M. A. Fineman rejects the autonomous human view and argues that humans are fundamentally vulnerable, relational, and dependent beings. In addition, care theorist E. F. Kittay argued that human vulnerability requires a relationship of mutual caring.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is also based on vulnerability.

In order to overcome the theoretical ambiguity of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Catriona Mackenzie, Henk Ten Have, and Barbara A. Misztal attempted in-depth exploration and



categorization. However, vulnerability studies still require more attention to the voices and narratives of the vulnerable.

**Key words** : Vulnerability, Vulnerability studies, Ethics, Autonomy, Care, Levinas, Butler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들\*,\*\*

보건용 마스크와 마스크 생태계

장하원\*\*\* · 임성빈\*\*\*\*

1. 들어가며: 마스크의 의미에서 마스크의 물질성으로
2. 코로나 사태가 드러낸 마스크의 연쇄
3. 보건용 마스크가 우세종이 되기까지
4. 보건용 마스크가 만들어내는 실천들
5. 나가며: '완벽한' 마스크에서 '좋은' 마스크로

### | 국문초록 |

마스크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사물로, 이번 팬데믹을 거치며 마스크는 중요한 방역 도구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그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마스크 쓰기 실천을 검토하되, 문화적 차원의 해석을 넘어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의 물질성, 즉 어떤 마스크들이 어떤 실천들과 관계들에 의존하여 만들어졌으며 어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4058286).

\*\* 이 논문은 2021년 12월 4일, 국제비교한국학회와 경희대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에서 저자 중 한 명인 장하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시대의 물질문화: 마스크를 중심으로'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정세권 선생님, 논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단 BK조교수.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실천들과 관계들을 만들어내는지 따라가 본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가 개인 보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다양한 마스크 중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물질적,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가 우세종이 되었고, 마스크의 가치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의 필터 성능이 되었다. 이러한 마스크의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매순간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플라스틱 마스크 폐기물이 끊임없이 생산된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경쟁하는 ‘다른’ 마스크가 우위를 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사회가 신종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에 더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물질성

## 1. 들어가며: 마스크의 의미에서 마스크의 물질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는 단연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눈에 띄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스크가 눈에 띄는 이유는 그것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존재 양식 자체가 이번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수개월 간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의 확산을 막아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스크는 의료 분야의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필수적인 개인 보호 도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로 간주되었으며,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한 방역 지침이 되었다. 이렇게 마스크의 위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마스크는 더 많이 생산되었고, 그 시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는 이번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가장 크게 변화한 사물로,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그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생경한 풍경이자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나 방역 당국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에 동참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한참 늦었을 뿐 아니라, 몇몇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로 인해 동아시아 사람들의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은 더욱 부각되었고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거리에서 모든 사

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닐고 있는 사진이 내걸렸고, 이러한 집단적 마스크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활발히 제시되었다.<sup>1</sup>

한국 사회의 마스크 쓰기 실천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인 질문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썼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대적인 마스크 쓰기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드러났다. 우선,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에는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꼽혔다.<sup>2</sup> 또한,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독감이나 감기 등이 유행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있었다. 이보다 더 최근의 사회적 맥락으로, 십수 년간 대기오염을 겪으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습관으로 자리잡혀 있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sup>3</sup>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면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보건용 마스크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다.<sup>4</sup> 여기에 더해, 신종 감염병이 처음 확산되는 시기에 정부와 매체의 대응이 마스크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확진자 수와 이들의 동선 정보가 세세하게 공개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고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상충하는

<sup>1</sup> Jeff Yang, 「A quick history of why Asians wear surgical masks in public」, 『QUARTZ』, 2014.11.19; Jasmine Chia, 「Meaning behind the mask; why the face mask is promoted in Asia but shunned in the West」, 『Thai Enquirer』, 2020.02.13; Madeline Joung, 「Face Mask Culture Common in East, New to West」, 『VOA News』, 2020.04.02; 이상의 언론 보도는 홍성욱, 「코로나 마스크의 다면성」, 『HORIZON』, 고등과학원, 2020. (<https://horizon.kias.re.kr/14772/>)에서 재인용하였다.

<sup>2</sup> 미국의 몇몇 주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anti-mask law)’을 시행할 정도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만연해있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금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홍성욱, 앞의 글,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sup>3</sup> 김재형, 「마스크 불확실성 시대의 마스크 시민권」,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2020; 김희원 · 최형섭, 「마스크 사태와 위험」, 『과학잡지 에피 12』, 이음, 2020; 홍성욱, 앞의 글.

<sup>4</sup> 김희원 · 최형섭, 앞의 글.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마스크를 써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물건으로 감각되었다는 것이다.<sup>5</sup>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사회의 마스크 쓰기 실천을 검토하되, 문화적 차원의 해석을 넘어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난 마스크라는 사물,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물질성(materiality)에 주목한다. 여기서 물질성은 어떤 사물에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속성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관계들과 실천들 속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효과(relational effect)이다.<sup>6</sup> 이러한 관점 하에 본 논문에서는 마스크의 속성이나 가치를 미리 상정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마스크들이 어떤 실천들과 관계들에 의존하여 만들어졌으며 어떤 실천들과 관계들을 만들어내는지 따라가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는가의 문제를 넘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방역 체제와 팬데믹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코로나 사태가 드러낸 마스크의 연쇄

어떤 사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연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

<sup>5</sup> 김재형, 앞의 글; 김희원·최형섭, 앞의 글; 홍성욱, 앞의 글.

<sup>6</sup> Latour, Bruno,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Law, John, *The Materials of STS*, Hicks, D. and Beaudry, Mary C.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terial Cultur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김은성,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갈무리, 2022.

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가시화된다. 2018년 여름, 봄철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고 화창한 날이 이어질 때,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지도 않는 시기에, 한국에서 마스크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물이었을 것이다. 약국이나 편의점마다 KF80이나 KF94 마스크와 방한용 면 마스크가 재고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또 집집마다 쓰다 남은 일회용 마스크들이 있었을 것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빈번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몇 번 거치며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폴리프로필렌과 펄프로 만들어진 일회용 마스크를 사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필터를 지닌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었다. 마스크의 기원을 찾자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20세기를 거치며 몇몇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동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등장하고 활용되긴 했지만, 이후 일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의료진들 사이에서 마스크 쓰기 실천이 유지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다.<sup>7</sup> 한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할 때면 면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위였다.<sup>8</sup>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보건용 마스크가 출현하기 전에도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마스크들이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물로서 존재했으며, 특히 면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는 한국에서 꽤 친숙한 사물이었다.

한국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필터의 성능이 표준화된 시험으로 입증된

7 김희원·최형섭, 앞의 글에서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동아시아의 마스크 착용 습관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해석한다.

8 김희원·최형섭, 앞의 글.



일회용 마스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신종 인플루엔자A(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이에 더해 2000년대 후반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보건 용도로 쓰이는 일회용 마스크들이 생겨난다.<sup>9</sup>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마스크는 지식경제부에서 관리되는 일반 공산품인 방한대, 노동부에서 관리되는 산업용 방진마스크,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마스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마스크는 다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호흡기 질병의 감염,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술용 마스크,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마스크 등이 있다.<sup>10</sup>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마스크들 중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만이 그에 장착된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거친다는 점이다. 분진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누설률 시험 등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면, 일회용 마스크는 필터 성능이 입증된 마스크가 된다.<sup>11</sup> 2009년 식약청은 <황사방지용 및 방역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를 준수한 마스크에는 KF(Korean Filter) 등급을 붙였다.<sup>12</sup> 세분화된 KF 등급은 마스크의 분진포집 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주는 성능이 입증된 KF80은 황

<sup>9</sup> 김희원·최형섭, 앞의 글; 홍성욱, 앞의 글.

<sup>10</sup>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 『황사·신종플루, 나를 보호해 줄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0.

<sup>11</sup>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청, 앞의 글. 분진포집 효율 시험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누설률 시험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sup>12</sup> 김희원, 「코로나19 시대의 일상 사물, 보건용 마스크의 역사」, 『기획회의』 527,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21, 38-43쪽.

사방지용 마스크, 각각 94%와 99% 이상 걸러주는 KF94와 KF99는 방역용 마스크로 분류된다. 이후 이들을 전부 묶어 ‘보건용 마스크’로 지칭하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더해, 2010년대에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와 제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신종플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마스크의 수요는 주춤했지만, 2013년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의 수요는 다시금 급격히 증가했다.<sup>14</sup> 연구 개발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마스크 제품이 활발히 만들어졌는데,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특허가 연평균 134건으로,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출원되었다는 점이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sup>15</sup>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마스크의 생산과 분배를 관리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sup>16</sup> 이처럼 특수한 필터가 장착되어 특정한 성능 시험들을 통과한 보건용 마스크가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는 물질적,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한국에서 KF 규격에 맞는 일회용 마스크는 곳곳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사물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보건용 마스크의 편재를 갑자기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로, 이때부터 서서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월 말부터 마스크 판매량이 수십

---

<sup>13</sup> 김희원, 앞의 글; 김희원·최형섭, 앞의 글

<sup>14</sup> 홍성욱, 앞의 글.

<sup>15</sup> 전지형·김성은·김희원·강미랑, 『호흡공동체: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에 응답하는 과학과 정치』, 창비, 2021, 42쪽.

<sup>16</sup> 김희원, 앞의 글.

배 증가했다는 점이다.<sup>17</sup> 이러한 시민들의 대대적인 마스크 쓰기 실천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한국의 방역 당국은 WHO의 지침을 참고하여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처럼 방역 당국이 일반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당시 방역 당국과 여러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는 데 주력했다.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민에게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sup>18</sup>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의 정례브리핑에서도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가 예방 수칙으로 강조되었다.<sup>19</sup> 즉, 건강한 일반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굳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한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정책은 국제 기구의 지침과 그것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뿐 아니라 당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2020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강조한 것은 K80 등급 이상의

- 
- 17 김민진·정홍준, “‘하루 500장씩 팔려요’... 우한폐렴에 약국 마스크 ‘불티’”, 『데일리팜』, 2020.1.25.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1232&REFERER=NP>); 신미진, “편의점서 마스크 동났다 ... ‘우한 폐렴’에 유통가 비상”, 『매일경제』, 2020.1.2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85844/>)
- 18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0.1.27.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19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2.10.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6139&tag=&Page=1](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366139&tag=&Page=1))
- 20 장하원, 「마스크가 답이다. 마스크가 방역 도구가 되기까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코로나19 데카메론2: 코로나 시대 사소하고 깊은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2021, 317-319쪽.

보건용 마스크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쓰면 된다는 점이었다.<sup>21</sup> 즉, 호흡기 질환 환자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의료진에게는 필터 성능이 특정 규격을 만족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그 외 일상 생활에서는 이러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공명한다. 이러한 정책은 그간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잘 작동해 온 WHO의 지침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할 보건용 마스크가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2020년 3월 OECD는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과 여러 국가들에서 보건용 등급인 N95 마스크의 가격은 급격히 치솟았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였다.<sup>22</sup> 설상가상으로 팬데믹 시기에 여러 산업 영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국제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스크 생산과 공급의 연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결국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세계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sup>23</sup>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2020년 2월 경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일상적인 사물로 존재하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한꺼

<sup>21</sup> 대한의사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대한의사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2020.2.12.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5220>)

<sup>22</sup> OECD, *The Face Mask Global Value Chain in the COVID-19 Outbreak: Evidence and Policy Lessons*, OECD, 2020.5.4.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2\\_132616-14i0j8ci1q&title=The-Face-Mask-Global-Value-Chain-in-the-COVID-19-Outbreak-Evidence-and-Policy-Lessons](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2_132616-14i0j8ci1q&title=The-Face-Mask-Global-Value-Chain-in-the-COVID-19-Outbreak-Evidence-and-Policy-Lessons))

<sup>23</sup> Keough, Sara B., “Masks and Materiality in the Era of COVID-19”, *Geographical Review* 111(4), 2021, pp. 558-570.

번에 보건용 마스크를 구해서 쓰기 시작하자 몇 주 지나지 않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물이 되었다. 2월 중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들과 그들이 거쳐 간 복잡한 동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감염병을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로 몰려들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KF 등급의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대형 마트와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벌어진 마스크 대란은 그저 마스크 자체가 부족해서 생겨난 사건이라기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알려진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치열하게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 3. 보건용 마스크가 우세종이 되기까지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면 마스크 또한 개인 보호 도구로서 권고되곤 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내보였다. 몇몇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는 보건용 마스크의 효과를 강조했는데, 일례로 2020년 1월 29일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체를 점검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KF94, KF99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다.<sup>24</sup> 그러나 당시 일본은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면으로 된 마스크 역시 개인 보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월 초 일본의 정례브리핑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면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방한 마스크도 침방울이 직접 호흡기에 닿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sup>24</sup> 이현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KF94’, ‘KF99’ 마스크 써야」, 『HIT 뉴스』, 2020.1.29.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9>)

설명하였다.<sup>25</sup>

같은 시기에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지침에서도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린 채로 제시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 별로 의견이 달랐는데, 같은 감염내과 분야의 전문가라도 어떤 이는 KF 등급이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권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면 마스크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sup>26</sup> 어쨌든 당시 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어떤 마스크든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면 마스크 또는 방한 마스크 역시 일정 수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정부 관계자나 일부 전문가에 의해 이러한 마스크들이 지속적으로 권해졌다.<sup>27</sup>

이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개인 보호 도구로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서구에 비해 빨리 사그라들었다.<sup>28</sup> 당시 우리 사회의 현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진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2020년 3월 3일 질본과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대상을 ‘지역사회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사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와 사용법을 안

25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2.5.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6 이해나, 「서울대병원 교수가 밝히는, 코로나19 ‘마스크’ 오해와 진실」, 『헬스조선 뉴스』, 2020.2.12.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021201814](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0021201814)); 이상화, 「‘면 마스크’도 예방 효과 있다는데... 주의할 점은?」, 『JTBC 뉴스』, 2020.2.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524](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3524))

27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문제가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만 면 마스크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지만, 대다수의 서구 국가들에서는 팬데믹 시기 내내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권장되었다.

28 장하원, 앞의 글, 319~322쪽.

내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sup>29</sup> 이는 WHO가 6월 초에 이르러 건강한 사람도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수정된 지침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발 빠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WHO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자, 결국 3월 초 마스크 착용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되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 권고안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을 권유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는데, 당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권고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월 12일 의협에서 제시한 ‘마스크 사용 권고안’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면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에서도 질본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때 KF94와 KF80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와 외과용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질본과 식약처가 제시한 마스크 착용 권고안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마스크의 종류를 제한한 것이다.<sup>31</sup>

이러한 한국의 마스크 사용 지침 개정안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해서 쓰는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제 기구와 정부, 방역 부처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특히 보건용 마스크를 사서 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지나치게 부족해지면서 한국의 마스크 정책은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sup>32</sup> 당시의 개정안은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사태로 인

<sup>29</sup>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질병관리본부, 2020.3.3.

<sup>30</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When and How to Use Masks”, WHO, 2020.6.8.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when-and-how-to-use-masks>)

<sup>31</sup> 장하원, 앞의 글, 322-325쪽.

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질본과 일부 전문가들은 보건용 마스크의 빈 자리를 면으로 만든 마스크나 방한 마스크, 또는 이미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를 재활용함으로써 채우려 했다.

이렇게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 실천에 맞춰 마스크의 생산과 분배 체계를 정비했다.<sup>33</sup>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늘리고 해외 수출 물량을 줄임으로써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물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출생 연도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개수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건용 마스크 분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마스크의 비용과 착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Korea Filter-Anti Droplet, KF-AD)의 표준을 새로 만들었다.<sup>34</sup>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바이러스 전파를 매개하는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입증된 마스크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일회용 마스크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빨리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었다. 수개월 간의 공적 마스크 정책이 종료된 이후,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하여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주간 총생산량은 2억 512만 개가 되었고, 이 중 보건용 마스크가 50% 이상,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2020년 1월 말 137개 사에서 8월 말 396개 사로 증가했다.<sup>35</sup> 보건용

<sup>32</sup> 장하원, 앞의 글, 322-325쪽.

<sup>33</sup>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재형, 앞의 글, 김동환·조수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정부학연구』, 27(1), 2021, 139-158쪽 참고.

<sup>34</sup> 김동환·조수민, 앞의 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동일 성능의 제품과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원이 같을 경우 효능 입증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면제하고, 액체 저항성 시험만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sup>35</sup> 조민영, 「코로나 재유행 지난주 마스크 생산량 2억장 돌파」, 『국민일보』, 2020.8.25. (<http://news>).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여 대란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KF 등급이 붙은 일회용 마스크의 생산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기반은 더욱 확대되고 안정화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를 쓰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KF 등급의 일회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수급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을 다른 국가들에서의 상황과 거칠게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2020년 4월 3일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을 일반 시민들로 넓혔는데, 이때 시민들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천 마스크(fabric mask, cloth face covers)를 착용할 것이 권해졌다.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감염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경우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sup>36</sup> 이와 유사한 논리 하에,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배분하였다. 시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함께 쓴다면, 천 마스크로도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37</sup>

이어서 WHO 역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수정하는데, 이때에도 강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천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해졌다. WHO는 2020년 5월까지의 마스크 착용 대상을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국한했는데, 이러한 지침의 근거로 당시 WHO가 참고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호흡

---

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42491&code=61141611&cp=nv)

<sup>36</sup> Lena H. Sun and Josh Dawsey, "New face mask guidance comes after battle between White House and CDC", *The Washington Post*, 2020.4.3.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4/03/white-house-cdc-turf-battle-over-guidance-broad-use-face-masks-fight-coronavirus/>)

<sup>37</sup> Ang Hwee Min, "Singapore to distribute 'better' reusable face masks to households", *CNA*, 2020.5.6.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covid-19-surgical-mask-production-reusable-masks-distributed-936141>)

기 질환에서 마스크가 감염원 통제, 즉 환자의 비말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연구들이었다. 그에 반해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썼을 때의 이익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sup>38</sup> 그러나 2020년 6월 5일, WHO는 건강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대면할 때 마스크를 쓰라는 수정된 지침을 내놓는데, 과학계에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 점점 확실히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9</sup> 이때 마스크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를 대비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하는 것으로, 천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문제는 각각의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소되며 서로 다른 마스크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태계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즉 KF 등급을 받은 일회용 마스크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효과적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민들의 실천에 발맞추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물질적 기반이 만들어진 결과이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여 천 마스크의 착용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용 마스크가 우세종인 한국 사회의 마스크 생태계에서 마스크의 가치를 결정 짓는 요인은 주로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 더 정확히 말하면 몇 가지 표준화된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된 필터의 성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유사한 재질과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들이 더욱 활

<sup>38</sup> Jacqueline Howard, "Should you wear a mask? US health officials re-examine guidance amid coronavirus crisis", *CNN*, 2020.3.31. (<https://edition.cnn.com/2020/03/31/health/coronavirus-masks-experts-debate/index.html>)

<sup>39</sup>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When and how to use masks", WHO, Last updated December 2021.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when-and-how-to-use-masks>)

발히 생산되고 선택되고 사용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폴리프로필렌과 펄프로 만들어진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면이나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마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그것의 형태와 색상 등도 훨씬 다양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KF 등급의 일회용 마스크, 특히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19용 마스크’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워지는 날씨에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텐탈 마스크가 빈번히 사용되다가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이 보이면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 4. 보건용 마스크가 만들어내는 실천들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에서 KF 등급의 일회용 마스크, 특히 보건용 마스크가 마스크 생태계의 우세종이 되면서, 보건용 마스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보건용 마스크를 다루는 실천들을 다 따라가 볼 수는 없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가치를 결정 짓는 필터의 성능을 실현하는 문제와 연관된 두 가지 실천의 영역을 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보건용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과 관련된 실천들이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것은 방역 지침과 사회 규범을 따르는 행위이자, 얼굴이라는 상징적 대상을 가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정한 재질과 모양의 사물을 코와 입 주변에 일정 시간 동안 부착하는 물리적 행위이다. KF 등급

<sup>40</sup> 이동훈, 「KF 마스크 수요 다시 급증 … 공급 상황은」, 『연합뉴스』, 2020.8.2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822002700641?did=1825m>); 송연주, 「코로나 재확산에 차 단력 좋은 ‘KF마스크’ 45% 늘었다」, 『뉴스시스』, 2020.9.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50486&clID=13001&pID=130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50486&clID=13001&pID=13000))

은 마치 마스크의 필터 성능이 개별 마스크 자체에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인식하게 하지만, 실제로 개별 마스크의 성능과 효과는 그것을 얼굴에 붙이는 각각의 실천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마스크 쓰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일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2018년의 안내에서는 (1)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 양 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끝을 잡아 오므려주세요, (3)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해서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게 합니다, (4)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걸어주세요,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정심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심을 눌러주세요,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세요, 등의 여섯 단계가 제시되었다.<sup>41</sup>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제시된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서는,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로 입,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등의 주의할 점을 안내한다.<sup>42</sup> 또한 식약처에서 발표한 종류별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을 출처로, 컵형 제품과 접이형 제품

<sup>41</sup>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2018.1.17. ([https://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36660](https://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36660))

<sup>42</sup>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알림자료. 2020. 2.27. ([https://nih.go.kr/gallery.es?mid=a40303020300&bid=0002&act=view&list\\_no=144638](https://nih.go.kr/gallery.es?mid=a40303020300&bid=0002&act=view&list_no=144638))

을 올바르게 착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단계들을 안내하는 한편,<sup>43</sup> ‘텍스크’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도 지적하고 있다.<sup>44</sup> 코로나 전에 비해 특히 달라진 점은 마스크 표면의 오염에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하라는 것, 그리고 마스크로 코와 입을 전부 덮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서도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이 꾸준히 다루어졌다. 대체로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을 출처로 삼아 유사하게 안내하고 있지만,<sup>45</sup> 마스크의 종류나 재질, 또는 착용 방식에 따라 마스크의 비말 차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예컨대, 2020년 말 한 언론사에서는 덴탈 마스크의 줄을 꼬아서 쓰면 뺨에 마스크가 더욱 밀착되어 마스크의 비말 차단율이 약 1.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sup>46</sup> 또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텍스크’,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은 ‘코스크’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으며, 주로 이러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시민간 싸움이 벌어지거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를 규제하는 처벌 규정을 만드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제대로(또는 별금을 물지 않도록) 착용하도록 유도했다.<sup>47</sup>

애석하게도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KF94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더라도 마스크의 필터 성능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KF94나

43 질병관리본부, 위의 자료.

44 식품의약품안전처, 「‘텍스크’ 안돼요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2020.8.25.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6623>)

45 정유미, 「마스크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 『경향신문』, 2021.12.28. (<https://news.v.daum.net/v/20211228121623101>)

46 이해나, 「마스크, 줄 꼬아서 쓰면 바이러스 차단율 1.5배 증가」, 『헬스조선』, 2020.12.14.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35955>)

47 곽준영, 「재차 강조해도 ... 하나마나한 ‘텍스크 · 코스크」, 『연합뉴스』, 2020.9.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08021500641?did=1825m>); 정은빈, 「입 · 코 가리세요, 텍스크는 위험합니다」, 『대구신문』, 2020.9.6.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10>)

KF99 등급의 마스크는 그것을 ‘제대로’ 쓴다면 장시간 편히 쓸 수가 없는데, 필터 성능이 높아질수록 숨을 쉴 때 공기의 양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람이 필요로 하는 호흡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지고, 아무리 마스크를 밀착해서 쓰더라도 오히려 이로 인해 호흡량이 더 부족해져서 작은 틈새로도 공기는 더 강하게 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착용한 피험자가 실제로 호흡할 때 공기의 흐름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시각화되었다.<sup>48</sup> 물론 이 실험 역시 KF94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보다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마스크의 필터 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마스크의 완벽한 결합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기능을 다 한 일회용 마스크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한다. 마스크의 재질과 형태가 어떻든 간에,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그것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다. 이때 마스크의 운명은 각각의 마스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하면 필터 성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 차원에서는 급격히 그 가치가 하락한다.<sup>49</sup> 반면, 천으로 만든 마스크나 다회용 마스크는 다른 처리 방식을 요청하고, 그것의 가치 역시 다른 경로로 변화한다. 다양한 종류의 다회용 마스크들은 세척하고 말리는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성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일회용 마스크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방역 도구

<sup>48</sup> 이혜원, 「‘마스크 썼는데 왜 코로나 걸리지?’ 특수카메라로 찍어봤다」, 『동아일보』, 2022.4.4.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2515>)

<sup>49</sup> Keough, op. cit., p. 567.

로서의 가치를 지닌 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물이 된다.

일회용 마스크가 그 가치를 잃고 우리의 손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은 쓰레기통에, 폐기물 처리장에, 또는 그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을 낳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는 기능을 다 하는 순간 플라스틱 폐기물이 된다. 각종 일회용 마스크가 출현하고 활발히 사용되고 버려지는 동안, 한편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하는 의료폐기물과 일회용품의 문제가 부상했다. 일회용 마스크의 소비에 발맞춰 마스크의 생산 체계가 갖춰지면, 그만큼 그것은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수명과 가치는 더 급격히 줄어든다.<sup>50</sup> 현재 매일 1290억개의 일회용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며 플라스틱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sup>51</sup> 여러 환경 단체와 운동가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천 마스크 대신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 탄식하며, 일회용 마스크를 코로나19 시대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꼽는다.<sup>52</sup> 이번 팬데믹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적절히 만들어가지 못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기후 감염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sup>53</sup> 일회용 마스크라는 사물의 여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들의 외침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sup>54</sup>

<sup>50</sup>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불안정하던 시기에는 보건용 마스크의 재활용이 한시적으로 권고되었으나, 이후 보건용 마스크가 충분히 생산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물이 되면서 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보건 차원에서 비합리적인 행위가 되었다.

<sup>51</sup> 고금숙, 「마스크는 써지 않는다」,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 창비, 2021; 이송현 외, 「COVID-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의 적정 관리 방안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38(4), 2021, 281-293쪽.

<sup>52</sup> 고금숙, 앞의 글.

<sup>53</sup> 김창엽, 「코로나19의 과학과 정치는 어떻게 만날까?」,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이매진, 2020.

<sup>54</sup> 고금숙, 앞의 글; 이송현 외, 앞의 글; 김산하, 「마스크 아래의 민낯」,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 창비, 2021.

## 5. 나가며: ‘완벽한’ 마스크에서 ‘좋은’ 마스크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보건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마스크 생태계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짚어보았다. 각국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마스크의 생산과 분배가 안정화되는 국소적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 쓰기 실천의 모습은 달라졌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보건용품으로서 마스크가 정당화되고,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분배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마스크 쓰기 실천이 안정화된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의 가치는 그것이 지니는 필터의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되고, 이는 다시 유사한 재질과 형태의 일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과 수요를 증가시킨다. 마스크의 필터 성능을 실현하는 실천으로, 한편에서는 매순간 올바른 마스크 쓰기가 요청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마스크 폐기물이 끊임없이 생산된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경쟁하는 ‘다른’ 마스크가 우세종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가 지닌 보건용 마스크를 중심으로 마스크 생태계가 안정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드러냄으로써 지금의 팬데믹 대응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세종으로서의 보건용 마스크는 우리 사회가 ‘완벽한’ 마스크, 즉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입자를 막아주는 필터 성능이 우수한 마스크로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몰두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신종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연쇄를 끊는 것에 더해, 그와 연관된 사람들과 사물들, 그리고 그것들의 여파를 함께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sup>55</sup> 여전히 코로나19는 힘을 합쳐

<sup>55</sup> 여기에는 인간이 자연이나 다른 사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조정해



막아야 하는 질병이지만 그에 대한 대처가 처음과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 시대의 사물들을 살피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가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돌봄이 없는 상태(carelessness)’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돌봄의 행위들을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생명의 안녕과 풍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hatzidakis, A. et al.,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Verso, 2020; 백영경, 「돌봄, 코로나19가 끌어낸 새로운 상상」, 『아름다운 서재』 17호, 인사회, 2021.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금숙, 「마스크는 썩지 않는다」,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 창비, 2021.
- 김동환 · 조수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정부학연구』, 27(1), 2021, 139-158쪽.
- 김산하, 「마스크 아래의 민낯」,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 창비, 2021.
- 김은성,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갈무리, 2022.
- 김재형, 「마스크 불확실성 시대의 마스크 시민권」,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2020.
- 김창엽, 「코로나19의 과학과 정치는 어떻게 만날까?」,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이매진, 2020.
- 김희원, 「코로나19 시대의 일상 사물, 보건용 마스크의 역사」, 『기획회의』 527,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21, 38-43쪽.
- 김희원 · 최형섭, 「마스크 사태와 위험」, 『과학잡지 에피 12』, 이음.
- 백영경, 「돌봄, 코로나19가 끌어낸 새로운 상상」, 『아름다운 서재』 17호, 인사회, 2021.
-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 이송현 외, 「COVID-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의 적정 관리 방안 연구」, 『한국폐기물자원 순환학회지』 38(4), 2021, 281-293쪽.
- 장하원, 「마스크가 답이다: 마스크가 방역 도구가 되기까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코로나19 데카메론2: 코로나 시대 사소하고 깊은 이야기』, 모시는사람들, 2021.
- 전치형 · 김성은 · 김희원 · 강미량, 『호흡공동체: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에 응답하는 과학과 정치』, 창비, 2021.
- 홍성욱, 「코로나마스크의 다면성」, 『HORIZON』, 고등과학원, 2020. (<https://horizon.kias.re.kr/14772/>)
- Chatzidakis, A. et al.,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Verso, 2020.
- Keough, S. Beth, "Masks and Materiality in the Era of COVID-19", *Geographical Review* 111(4), 2021, pp. 558-570.
- Latour, Bruno,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Law, John, *The Materials of STS*, Hicks, D. and Beaudry, Mary C.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terial Cultur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OECD, *The Face Mask Global Value Chain in the COVID-19 Outbreak: Evidence and Policy Lessons*, OECD, 2020.5.4.

## 2. 기사 및 자료

- 곽준영, 「재차 강조해도… 하나하나한 ‘텍스크 · 코스크’」, 『연합뉴스』, 2020.9.8.
- 김민진 · 정홍준, 「“하루 500장씩 팔려요”…우한폐렴에 약국 마스크 ‘불티’」, 『데일리팝』, 2020.1.25.
- 대한의사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대한의사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2020.2.12.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0.1.27.
- 송연주, 「코로나 재확산에 차단력 좋은 ‘KF마스크’ 45% 늘었다」, 『뉴시스』, 2020.9.1.
- 식품의약품안전처, 「‘텍스크’ 안돼요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2020.8.2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질병관리본부, 2020.3.3.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황사 · 신종플루, 나를 보호해 줄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0.
- 신미진, 「편의점서 마스크 동났다 … ‘우한 폐렴’에 유통가 비상」, 『매일경제』, 2020.1.28.
- 이동훈, 「KF 마스크 수요 다시 급증… 공급 상황은?」, 『연합뉴스』, 2020.8.22.
- 이상화, 「‘면 마스크’도 예방 효과 있는데… 주의할 점은?」, 『JTBC 뉴스』, 2020.2.8.
- 이해나, 「서울대병원 교수가 밝히는, 코로나19 ‘마스크’ 오해와 진실」, 『헬스조선 뉴스』, 2020.2.12.
- \_\_\_\_\_, 「마스크, 줄 꼬아서 쓰면 바이러스 차단율 1.5배 증가」, 『헬스조선』, 2020.12.14.
- 이현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KF94’, ‘KF99’ 마스크 써야」, 『HIT 뉴스』, 2020.1.29.
- 이혜원, 「마스크 썼는데 왜 코로나 걸리지? 특수카메라로 찍어봤다」, 『동아일보』, 2022.4.4.
- 정유미, 「마스크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 『경향신문』, 2021.12.28.
- 정은빈, 「입 · 코 가리세요, 텍스크는 위험합니다」, 『대구신문』, 2020.9.6.
- 조민영, 「코로나 재유행 지난해 마스크 생산량 2억장 돌파」, 『국민일보』, 2020.8.25.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2.5.
- \_\_\_\_\_,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2.10.
- \_\_\_\_\_,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알람자료, 2020.2.27.
- 질병관리본부 ·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2018.1.17.
- Ang Hwee Min, “Singapore to distribute ‘better’ reusable face masks to households”, *CNA*, 2020.5.6.
- Jacqueline Howard, “Should you wear a mask? US health officials re-examine guidance amid coronavirus crisis”, *CNN*, 2020.3.31.
- Jasmine Chia, 「Meaning behind the mask; why the face mask is promoted in Asia but shunned in the West」, 『Thai Enquirer』, 2020.02.13.
- Jeff Yang, 「A quick history of why Asians wear surgical masks in public」, 『QUARTZ』, 2014.11.19.
- Lena H. Sun and Josh Dawsey, “New face mask guidance comes after battle between White House and CDC”, *The Washington Post*, 2020.4.3.

Madeline Joung, 「Face Mask Culture Common in East, New to West」, 『VOA News』, 2020.04.02.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When and how to use masks”, WHO, Last updated December 2021.

## Masks in the Era of COVID-19

Medical Masks and the Ecosystem of Masks

Chang, Hawon • Yim, Sung Vi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yung Hee University

The mask is the most prominent object in the era of the COVID-19 pandemic. Not only has the mask become an importa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through this pandemic, but its number has explo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attern of mask-wearing practice in Korea in response to COVID-19, but address it on a material and relational level, rather than as a cultural phenomenon. To do this, we focus on the materiality of masks, which is a relational effect that arises in certain relationships and practices.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coronavirus crisis, it was accepted that masks could function as a PPE, and material and institutional basis was created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F-rated medical masks. In this situation, disposable medical masks have become the dominant species,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mask has become its filtering performance. We are now being asked to wear masks correctly at every moment, and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constantly deal with the waste of masks. This work reveals how our society has been coping with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and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how to create the better mask, not the perfect one.

**Keywords :** COVID-19, Emerging Infectious Diseases(EID), Masks, Medical masks, Disposable masks, Materiality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비교한국학의 전망과 쟁점|  
**담론의 충돌과 접합**  
- 식민지 문학의 비교한국학

유랑 체험의 심화와 정신적 고양의 도정

릴케와 백석 시의 비교 연구

이혜원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

표정옥





# 유랑 체험의 심화와 정신적 고양의 도정

릴케와 백석 시의 비교 연구

이혜원\*

1. 서론
2. 체험적 시쓰기와 유랑의식
3. 고독으로의 침잠과 내면의 발견
4. 나무 이미지와 순결한 시인의 표상
5.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백석 후기 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해명하는 데 릴케 시와의 비교가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두 시인의 시세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릴케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문단 분위기나 백석 시에 릴케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백석은 릴케의 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두 시인은 체험을 시의 동력으로 삼았고 풍부한 유랑 체험을 바탕으로 후기 시에서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릴케는 시쓰기에서 체험을 가장 중시했고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시의 결정체를 얻기 위해 평생 동안 자발적인 유랑을 행했다. 릴케에 비해 백석의 유랑은 식민지적 상황과 겹치며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예리하게 드러낸다.

\*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교수.

유랑 체험을 내면의 발견과 정신적 초극의 자세로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두 시인은 유사하다. 릴케의 고독이 고도의 문명에서 소외된 현대인으로서 내면의 고향에 이르기 위한 성스러운 도정이었다면, 백석의 고독은 조국과 고향을 잃은 식민지의 시인이 느끼는 더욱 처절한 소외감과 비애를 내포하고 있다.

두 시인은 특히 ‘나무’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고통과 성숙의 과정을 표상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릴케는 나무의 고요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시인의 성숙에 긴요한 인내의 가치와 침묵의 창조적인 특성을 간파하는 다소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백석은 경험적이고 질박한 각성의 과정을 통해 오랜 방황과 무기력으로 인한 통렬한 회한을 딛고 갈매나무처럼 드물고, 굳고, 정한 존재로서의 시인의 표상에 도달한다.

릴케 시와의 비교는 백석 후기 시에서 심화되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조점이 되어주었다. 식민지하의 조국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비참하고 곤궁하기 그지없는 상태에서도 절망과 고독의 깊이로 침잠한 채 자신과 투철하게 대면하고 정신적 극복의 과정을 통해 시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백석 후기 시의 전개 과정은 릴케라는 세계적인 시인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현실의 위기에 좌절하고 방황하면서도 시의 힘으로 끝내 그것을 넘어서며 시인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백석의 남다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릴케, 백석, 유랑, 고독, 내면, 나무 이미지

##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릴케와 백석 시의 영향 관계와 유사성을 점검해봄으로써 백석 후기 시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해명해보려 한다. 릴케는 한국 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 중 하나로서 비교문학의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sup>1</sup> 백석의 시에 릴케가 직접 등장하기도 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두 시인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은 매우 드물다.<sup>2</sup> 백석의 시가 내포한 강한 개성 때문에 비교문학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백석을 20세기 한국 시의 정상부로 끌어올린 것은 후기 시편”<sup>3</sup>이라고 할 때 시집 『사슴』 후에 발표되는 백석의 후기 시편과 릴케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은 백석 시의 변모 과정과 지향성을 파악하기에 유용할뿐더러 당시 세계 수준의 시와 한국시를 비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석 시와 릴케 시 비교의 근거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sup>1</sup> 릴케와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독문학자인 김재혁의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고려대학교출판부, 2006)이다. 이 책에서는 박용철, 윤동주, 김춘수, 김현승, 전봉건, 김수영, 허만하, 이성복, 김기택 등 한국 시인들의 시와 릴케 시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살피고 있다. 이 밖에 이 분야의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진순애, 「릴케의 <가을날>의 한국적 변용」, 『우리말글』 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윤석성, 「한국 시의 릴케 수용」, 『한국어문학연구』 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권은, 「김춘수의 시와 산문에 출현하는 ‘천사’의 양상: 릴케의 영향론 재고의 관점에서」, 『한국시학연구』 26호, 한국시학회, 2009; 조강석, 「김춘수의 릴케 수용과 문학적 모색」, 『한국문학연구』 46집, 동국대학교 문화기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4.

<sup>2</sup> 릴케와 백석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김재혁, 「문학 속의 유토피아: 릴케와 백석과 윤동주 - 시적 주체와 공간의식의 관점에서」, 『해설 연구』 26집, 한국해설학회, 2011; 김진희,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한국시학연구』 34호, 한국시학회, 2012. 김재혁의 논문에서는 릴케 시 「말예」와 백석 시 「흰 바람벽이 있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비교와는 거리가 멀다. 김진희의 논문에서는 프랜시스 잭과 릴케,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와 정지용 등이 백석 시에 끼친 영향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선행 연구 검토로 알 수 있듯 릴케와 백석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sup>3</sup> 유중호, 「상호텍스트성의 현장」, 『문학수첩』 2011 여름호, 203-204쪽.

수 있다. 백석과 릴케의 직접적 연관성은 백석 시에서 릴케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백석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그리고 또 ‘프랑시쓰 쾰프’와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sup>4</sup>라고 하여 릴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다. 맥락상 백석이 좋아하는 자연물과 시인의 목록에 릴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릴케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은 이 시 한 편이지만, 유랑 체험과 고독의 표출이 많은 백석의 후기 시는 내용 면에서 릴케의 시와 유사성이 강하다.

이러한 내적 근거 외에 릴케에 대한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시 문단의 분위기도 릴케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릴케의 문학이 우리 문단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3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에 릴케가 소개된 상황을 보면 1935년 7월에 『조선일보』에 김진섭의 번역으로 “어떤 젊은 문학 지원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1936년 6월에는 박용철에 의해 연작시 「마리아께 드리는 소녀들의 시도」(『여성』)가, 이어서 1941년에서 1943년에 걸쳐 윤태웅의 번역으로 「애가」, 「엄숙한 시간」, 「소녀의 노래抄」, 「위대한 밤」, 「가을날」, 「가을」, 「나의 두 눈을 없애버리신다 하더라도」 등의 시 작품이 우리 문단에 선을 뵈었다.<sup>5</sup> 박용철은 릴케 수용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그가 번역한 릴케 시가 발표되었던 『여성』지는 조선일보의 장학생으로 동경의 청산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백석이 조선일보에 취직하여 처음으로 일했던 직

<sup>4</sup> 고희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152쪽.

<sup>5</sup> 김재혁, 「나, 그리고 사물에 대한 사랑」,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65-66쪽.

장이다. 박용철의 번역시가 발표된 시기에 백석은 함흥 영생고보의 영어교사로 부임해 있었기 때문에 편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939년 다시 『여성』지 편집을 맡는 등 조선일보와의 긴밀한 관련성으로 미루어 보아 박용철이 릴케 시를 번역 소개하는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문학 쪽의 연구를 보면, 당시 릴케 시에 대한 번역과 소개는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계』의 릴케 소개는 1934년 10월 창간호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5년 6월에는 ‘릴케 연구’라는 부제를 붙인 특집호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여 문학도들로 하여금 그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그후 1944년 6월 폐간될 때까지 꾸준히 릴케의 작품을 실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말테의 수기』가 이 잡지에 의해 처음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이다.<sup>6</sup>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더구나 서양문학을 전공했던 백석이기에 이러한 문학적 관심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1927년에서 1941년 사이에 일본에서 번역된 릴케의 작품은 시집 3권과 소설 2권이다. 시집으로는 가야노 쇼쇼가 릴케의 시를 선별하여 초역한 『릴케 시집』(1927년 3월)과 하가 마유미가 번역한 『두 이노의 비가』(1940년 3월) 그리고 시오야 다로 역의 산문시 『기수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1941년 4월)가 있고, 소설로는 호시노 신이치에 의해 『사랑하는 신 이야기』(1933년 7월)가, 그리고 오야마 테이이치에 의해 『말테의 수기』(1939년 10월)가 각각 번역 소개되었다.<sup>7</sup> 백석이 일본어에 능통하고 자신의 시에서 릴케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참작하면, 우리말이나 일본어로 번역된 이러한 릴케의 작품들을 다

<sup>6</sup> 왕신영, 「윤동주와 다찌하라 미찌조: 릴케를 軸으로 하여」, 『일본의 언어와 문학』 2집, 단국일본연구학회, 1998, 44쪽.

<sup>7</sup> 김재혁, 앞의 글, 67쪽.

수 읽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석이 릴케를 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여 두 시인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한 시인의 시 세계나 변모 과정에 대한 다른 각도의 이해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때 이러한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다. 릴케 시와의 비교는 백석 후기 시의 변모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석의 후기 시 중에는 『사슴』에 수록된 초기 시와 달리 고독한 내면 세계와 예민한 자의식을 표출한 시들이 많다. 『사슴』에 충만했던 공동체 의식과 달리 그로부터 유리된 채 개인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정서가 새롭게 발생한다. 공동체와 합일을 이루는 정서의 상태에서 고독하고 내밀한 개인적 정서를 드러내기까지 백석 시가 보여주는 변화는 적지 않다. 개인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시기에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강화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사슴』까지의 시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해 후기 시에서는 주관적인 감정의 토로가 심화되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독특한 언어나 문체로 개성이 압도하는 『사슴』 시기의 시들에 비해 후기 시로 갈수록 개인의 내면에 충실한 서정시의 어법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보편성이 강화되는 변화도 흥미롭다. 이러한 후기 시의 변화는 백석이 토속성이 농후한 향토 시인의 면모에서 나아가 근대적 미의식을 확보한 시인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릴케 시는 백석 후기 시와 유사한 점이 많아 백석 시의 변화에 작동하는 동기를 이해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릴케 시와 백석 시의 유사성을 비교해봄으로써 백석 후기 시에 나타나는 변모의 동인과 의미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백석의 시에는 릴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 관계를 짐작하게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릴케와 백석의 시세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영향 관계에 천착하는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분

위기와 시의식을 살펴보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비교문학의 방법으로는 크게 영향 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식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공통분모를 탐구하는 미국식이 있다. 비교문학의 전반적 흐름은 원천과 영향에 대한 실증주의적 고찰에 치중했던 프랑스식에서 내재적 분석을 통해 문학의 미적 자율성을 밝히려는 미국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연결’ 고리가 없이 평행선으로 일관하는 두 작가에 대한 연구는 유사함의 발견에 그칠 뿐 ‘비교’가 성립할 수 없다”<sup>8</sup>는 우려도 있지만, ‘영향수수관계에 대한 연구가 결국 무엇에 봉사하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잡종화된 문화들 사이에서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차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sup>9</sup>도 주목할 만하다. 영향 관계에 치중한 비교문학 연구는 서구문학을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이에 따라 그 밖의 문학이 갖는 나름의 가치와 독자성을 배제하게 된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 일본을 통해 서구의 근대문학을 경험했던 한국문학의 경우 서구문학과 비교 연구는 자칫 영향 관계에 대한 규명에 그치기 쉽다. 세계문학의 보편성에 견주어 한국문학의 확장성을 가늠하는 주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영향 관계의 파악 이상으로 동등한 비중의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릴케 시와 백석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석의 시를 세계문학의 좌표 속에서 새롭게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시인 모두 남다른 유랑의 궤적을 보였고, 시에서 그러한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2장에서는 유랑 체험과 관련된 시들을 비교해볼 것이다. 유랑으로 점철된 생애는 두 시인 모두에게 내면의식의 심화를 가져

<sup>8</sup> 김춘희, 「의(擬)비교문학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문학』 45권, 한국비교문학회, 2008, 20쪽.

<sup>9</sup> 김창현, 「한국비교문학의 미래-잡종화와 주체성의 문제」, 『비교문학』 35권, 한국비교문학회, 2005, 278-293쪽 참조.

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릴케는 ‘고독의 시인’이라고 할 만큼 섬세하고 내면적인 정서를 표방했던 시인이며, 백석 또한 후기 시에서 자기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처절한 내면 성찰을 보여주었다. 3장에서는 두 시인이 ‘고독’을 표출할 때의 정서적 상태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릴케와 백석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고양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유사성을 보인다. 4장에서는 이들이 보여주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비교해볼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백석의 후기 시가 유랑 체험의 넓이를 고독의 깊이로 확장하고, 다시 시인으로서 정신적 높이를 획득하는 역동적인 내면화의 과정이었음을 밝히려 한다.

## 2. 체험적 시쓰기와 유랑의식

릴케는 시뿐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삶이나 태도로 우리나라의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유럽의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유랑으로 점철된 그의 생애는 시인으로서의 삶의 한 전형으로 인식될 만한 것이었다. 릴케 자신이 여행 체험과 시 창작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전 생애에 걸쳐 그러한 체험과 창작의 일치를 실천했다. 한스-요제프 오르트하일 Hanns-Josef Ortheil은 여행과 글쓰기라는 두 가지 활동이 시간을 매개로 해서 서로 접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여행이라는 큰 움직임이 글쓰기라는 작은 움직임으로 전이되는데 이 두 활동이 여행 중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여행의 시간이 글쓰기 시간을 통해 중단되고 보존되는 식이다. 여행 중인 작가는 글을 쓰는 시선으로 여행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여행을 그의 글로 덮어쓴다.<sup>10</sup> 릴케는 시인으로서 유랑에 가까운 자발적인 여행을 이어갔고 그러한

<sup>10</sup> Vgl. Ortheil 2013, 7. 신혜양, 「작가의 여행과 글쓰기: 루 안드레아스-살로메와 라이너 마리아



체험을 자신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평생을, 가능하다면 오래 살아서 삶의 의미와 달콤함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마지막에 열 줄의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시란 사람들이 말하듯 감정이 아니라(감정은 이미 젊어서부터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 경험이기 때문이다.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사물을 보아야 하며 동물들을 알아야 한다.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그마한 꽃들이 아침이면 만들어내는 몸짓을 알아야 한다. 낯선 지방의 길들과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오래 전부터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던 이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sup>11</sup>

『말테의 수기』에 나오는 이 진술을 통해서도 릴케가 시 창작과 관련해서 ‘체험’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많은 체험이 필요하며, 시인 자신과 일치될 정도로 밀착된 체험이야말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빛나는 시의 결정체를 얻게 한다고 확신했다. 그 자신 몇 줄의 시구를 얻기 위해 평생을 떠도는 자발적인 유랑의 삶을 선택했고 체험이 심화되면서 점차 원숙한 경지의 시에 도달했다. 릴케와 백석 모두 초기 시와 후기 시가 상당히 달라지며 후기 시에서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평생에 걸친 유랑 체험이 승화되어 나타난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의 맨 처음 사람처럼 말해보십시오.”<sup>12</sup>라

---

릴케의 러시아 여행(1900),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4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16, 205-230쪽 재인용.

<sup>11</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전집 12: 말테의 수기』, 김용민 역, 책세상, 2000, 26쪽.

<sup>12</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김재혁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14-15쪽.

고 하여 체험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1935년 김진섭의 번역으로 우리 문단에 일찌감치 소개되었고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박용철은 「시적 변용에 대해서」에서 이 글을 인용하며 릴케의 시론을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적 주체가 있는 시를 쓰자는 자신의 견해와 융합하여 제시해놓고 있다.<sup>13</sup> 백석이 이런 글들을 읽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문단을 주도했던 주지주의나 카프의 시들과 거리를 두면서 체험적 시쓰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간 것은 분명하다. 유랑의 체험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릴케의 시는 마찬가지로 많은 거처를 전전했던 백석에게 동류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 집도 없고/잃어버릴 집을 가진 적도 없다”<sup>14</sup>는 릴케의 시 「말예(末裔)」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는 백석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南新義州柳洞 朴時逢方)」은 가족과 떨어지고 집도 없이 해매는 유랑의 찢긴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을 이룬다.

체험을 시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 특히 풍부한 유랑 체험이 후기 시의 정신적 고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강한 유사성이 있지만, 릴케와 백석의 유랑의식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차이점도 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길 사이로

<sup>13</sup> 김재혁, 「시적 변용의 문제」, 앞의 글, 97쪽.

<sup>14</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전집 2』, 김재혁 역, 책세상, 2000, 39쪽.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 릴케, 「가을날」 부분<sup>15</sup>

온 세상을 헤매이는 방랑자여,

마음 놓고 길을 계속가거라,

이 세상 아무도 너처럼은

사람의 번뇌를 알지 못할지니.

- 릴케, 「방랑자」 부분<sup>16</sup>

릴케의 시에서 표현되는 방랑은 자발적인 선택에 가깝다. 「가을날」에서 시적 주체는 집이 없지만, 그것을 결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짓지 않고 방황하며 자신의 길을 간다. 집 없이 혼자인 상태는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는 비록 외롭고 불안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로 유랑을 계속한다. 「방랑자」에서도 방랑은 멈추어야 할 고행이 아니라 각별한 체험으로서 권장된다. 이 시에서 방랑자는 세상 누구보다 깊이 있게 사람의 번뇌를 이해하는 우월한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방랑자는 릴케의 시에 자주 등장하며 시인 자신의 체험을 반영한 자전적 존재이다. 릴케는 충실한 가장이나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시인으로서 고고한 정신의 세계를 추구했다. “예술가는 어떤 가치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한다. 오직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술가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확고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점뿐이었다.”<sup>17</sup> 릴케의 평생에 걸친 복잡다단한 유랑의 삶은 시인으로서 각별한 체험과 내면적 각성

<sup>15</sup> 위의 책, 43쪽.

<sup>16</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 윤동주100년포럼 역, 스타북스, 2017, 44쪽.

<sup>17</sup>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하얀 길 위의 릴케』, 김상영 역, 도서출판 모티브, 2003, 133쪽.

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것이었다.

릴케에 비해 백석의 유랑은 식민지적 상황이 겹쳐 자발적인 것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백석 역시 당시 어떤 시인보다도 많은 지역을 주유하며 특유의 방랑벽을 드러냈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발적인 유랑으로만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 대한 토로가 깊어진다. 「북방(北方)에서 - 정현웅(鄭玄雄)에게」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시이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나는 그때/아모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고 하여 탈향(脫鄕)의 시작이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그 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넷날이 비롯하는 때/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나는 나의 넷한울로 땅으로 나의 태반(胎盤)으로 돌아왔으나/...(중략)···/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고 하여 그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를 암시한다. 여기서 ‘새 넷날’이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중일전쟁을 일으키던 시기일 것이다. 이 작품을 쓰던 무렵 백석이 일제가 세운 만주국의 수도新京(지금의 장춘)에 머물렀었다는 것은 이러한 시점을 반영한 것이라 짐작된다.<sup>18</sup> 백석의 유랑은 후기로 갈수록 자유를 잃고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 “슬픔도 시름도 없이” 떠돌던 시기가 지나고 일제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슬픔과 시름에 쫓겨” 다니게 된다. 릴케가 고달픈 유랑생활에도 정신적 자유의 상태에 자부심을 느꼈던 것과 달리 백석이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며 낙담과 무기력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는 유랑의 삶이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외부 세계와 시적 주체의 긴장 관계가 예리하게 드러난다.

<sup>18</sup> 최동호, 「북방에서-정현웅에게」 해설, 『백석 시 읽기의 즐거움』, 서정시학, 2006, 277쪽.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부분<sup>19</sup>

이 시는 ‘나’라는 서정적 주체가 전면에 나서서 진술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백석 후기 시의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에서 추측해볼 수 있듯 ‘나’의 현실적 상황은 부정적이다. 가난하고 외로운 ‘나’는 철저히 고립된 채 자신만의 상상에 빠져든다. 이 시는 현실과 이상의 대비가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짙은 낭만성을 드러낸다. 가난

<sup>19</sup> 고희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95쪽. 이 논문의 백석 시 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함.

하고 쓸쓸한 ‘나’는 아름다운 나타샤에 대한 사랑만을 꿈꾸며 현실을 부정한다. 폭풍 쌓여 세상을 덮는 눈과 흰 당나귀도 나타샤와 함께 현실 밖의 세상을 수식하는 이미지들이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이미지들은 역으로 현실에 대한 ‘나’의 혐오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다.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는 현실에서 벗어나 “깊은 산골”로 가려 한다. 눈이 폭풍 쌓이는 밤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는 장면은 정확히 현실을 역전시켜놓은 낭만적 풍경이다. 이는 넓은 세상을 주유하는 릴케의 여행과 달리 세상을 등지고 구석으로 침잠하려는 움직임을 담고 있다. 릴케의 자발적 유랑과 달리 이 시의 서정적 주체는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선택을 한다. 나타샤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며 오직 상상 속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처지는 유약해 보인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는 ‘나’는 항변은 세상에서 고립된 그의 처지를 역설한다.

백석은 후기 시에서 종종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태를 보여준다. “흰발과 가재미와 나는/우리들이 같이 있으면/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함주시초(咸州詩抄) - 선우사(膳友辭)」), “이 추운 세상의 한구석에/맑고 가난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내가 이렇게 추운 거리를 지나온 걸/얼마나 기뻐하며 락단하고/그스런히 손까지벼개하고 누워서/이 못된 놈의 세상을 크게 크게 욕할 것이다”(「가무래기의 낙(樂)」) 등의 시에서 알 수 있듯 세상 밖에 머물며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맑고 가난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은 세상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꽤 복잡해 보인다.

백석이 후기 시를 쓰던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중반까지 일제 식민치하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백석 시에서 현실에 대한 절망이 때로 구체적이어서 유랑의 비자발적인 성격이 읽혀지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표상으로 내몬 시대적 현실이 그의 문학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랑이 강압의 결과로 짐작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sup>20</sup> 백석은 릴케가 보여준 것처럼 온전히 자발적인 유랑으로 점철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었지만, 급격하게 타락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향한 부단한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 『사슴』에서 보여주었던 자족적인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서정적 주체의 낭만적 열정으로 견인하며 현실을 초극하기 위한 정신적 고도를 추구해간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는 선언은 파멸로 치닫는 현실에 저항하며 정신적 자유를 견지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붕괴와 파국적 현실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시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하는 계기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백석의 유랑 체험은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의식의 자발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석의 후기 시는 이처럼 세상 밖을 떠도는 쓰라린 도정 속에서도 외롭고 가난한 삶을 고결하게 승화시키는 시인의 표상을 드러낸다. 백석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낭만적인 상상과 아름답고 진솔한 언어로 표출하며 미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

### 3. 고독으로의 침잠과 내면의 발견

릴케와 백석은 유랑 체험을 내면의 발견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뚜렷하다. 릴케는 유랑 체험이 고독과 함께 정신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정박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보다는 고유한 운명으로 수용한다. 릴케의 “국외자로

<sup>20</sup> 김명인, 「백석 시에 나타난 기행」, 『한국시학연구』 27호, 한국시학회, 2010, 9-10쪽.

서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인 자신의 내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다시 말해 시인 스스로 만든 상황이며, 스스로 예술을 위해 택한 고독의 상황인 지도 모르는 것이다.”<sup>21</sup>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랑과 고독은 그에게 결핍의 시간이 아닌 성숙의 시간을 제공한다. “내면으로의 전향(轉向)으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세계로의 이 같은 침잠으로부터 시가 흘러나오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가 좋은 시인지 아닌지를 묻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sup>22</sup>라는 진술로 알 수 있듯 릴케는 고독과 예술의 긴밀한 관련성을 중시했다. 그에게 유랑은 외계의 풍경을 향한 시선을 내면으로 전향하여 자신의 고유한 내면세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성스러운 고독이여,  
너는 눈 뜨는 정원같이  
풍요하고 맑고 드넓다.  
나의 성스러운 고독이여,  
많은 소망이 기다리는  
그 황금의 문을 닫고 있어라.  
- 릴케, 「고독」 전문<sup>23</sup>

릴케는 ‘고독’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고독을 예찬한다. 그에게 고독은 세속과 대비되는 성스러운 세계이다. 이 시에서 고독이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처럼 묘사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너머의 신성하고 고귀한 세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릴케의 시에서 고독은 다른 세계를 향한 ‘황금의 문’과 같은

<sup>21</sup> 이정순, 「릴케의 서정시에 나타난 외계의 내면화: 시, 「위대한 밤」 외」, 『독어독문학』 96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05, 102쪽.

<sup>22</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짧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앞의 책, 16쪽.

<sup>23</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 앞의 책, 55쪽.



전환의 계기가 된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열어 더 큰 세계와 맞닿게 하는  
 승고한 내면의 시간이다. 「넋물」에서도 고독은 ‘먼지’와 ‘도시’로부터 벗어  
 나, “맑고 넓은 나의 마음./하얀 고독이/내 머리를 품속에 안는다”<sup>24</sup>(「넋물」)에  
 서처럼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이라는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한다. 고독이 품고  
 있는 ‘황금의 문’은 인간의 외부가 아닌 내부, 즉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성스러운 경계이다.

감각이 가라앉아 잠기는 내 본질의  
 어두운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그 속에서 나는  
 옛날의 편지를 읽듯이  
 내 일상의 생활을 이미 지내고  
 전설처럼 멀리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어두운 시간은  
 시간을 넘어선 또 하나의  
 드넓은 인생의 공간이 있음을  
 나에게 일깨워 주고,  
 - 릴케, 「어두운 시간」 부분<sup>25</sup>

이 시에서 고독은 ‘어두운 시간’으로 묘사되지만, 역시 자신만의 내밀한  
 내면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감각’ 너머의  
 ‘본질’과 잇닿아 있다는 릴케의 인식은 현실의 이면에 더 근원적인 내면의  
 공간이 있다는 사유를 반영한다. 이 내면의 공간에서 “일상의 생활”은 오히

<sup>24</sup> 위의 책, 56쪽.

<sup>25</sup> 위의 책, 113쪽.

려 “전설처럼” 멀어지고, “시간을 넘어선 또 하나의” 삶이 펼쳐진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내면의 고향이고 시인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거처이다.

릴케의 시에서 고독이 자신의 내면에 이르는 성스러운 도정으로서 기꺼운 선택과 자발적 의지의 상태인 것에 비해 백석의 시에서 고독은 유랑의 삶에서 겪게 되는 쓸쓸한 감정이다. 백석은 일제 말기 함흥, 경성, 만주, 신의주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했는데, 이때의 체험이 반영된 후기 시에서 자주 쓸쓸함을 토로하게 된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던 그로서는 객지를 떠도는 삶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비애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벚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인(詩人)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문에 입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부분

흥성거리는 명절 풍경을 그렸던 『사슴』의 「여우난골족(族)」과 비교해보면 이 시의 쓸쓸한 정서가 더욱 분명해진다. 시인은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명절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스럽게 여긴다. 고향의 일가친척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이 그에게는 한없이 외롭고 괴롭게 느껴진다. 릴케

의 고독 예찬과 달리 그에게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고향이 아닌 곳은 자연조차도 적막하게만 느껴진다.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정주(定州) 동림(東林) 구십(九十)여 리(里) 긴긴 하로 길에/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별 소리/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적막강산」)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처절한 고독을 토로한다. 고향을 벗어난 객지의 낯선 풍경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자신과 마주한다. 릴케가 고독을 창조의 조건으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백석은 고독에 던져진 자신을 자각하며 새롭게 성찰한다. 백석 역시 고독이 시인에게 주어지는 숙명으로 여긴다는 점은 릴케와 유사하다. “쓸쓸한 객고”를 견디기 위해 두보와 이백을 떠올리며 타관을 떠도는 자신의 쓸쓸한 삶을 위로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시인으로서의 동류의식을 표명하며 위안을 받는다. 자신이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이라는 자각은 이같은 외로움과 슬픔에 당면해서도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며 느끼는 객수를 견딜만한 것이 되게 한다.

백석이 만주를 떠돌던 시기에 쓴 시 「흰 바람벽이 있어」는 깊은 고독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성찰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시이다. “만주에서 조선인은 규정되지 않는 어중간한 존재이기에 결국 영원히 고통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까닭에 그는 소외를 감내하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나마 지키려 하였다.”<sup>26</sup> 고국을 떠난 유랑민으로서의 고독과 비애를 시적으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백석의 시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sup>26</sup> 고재봉, 「재만 시기 백석의 산문과 「흰 바람벽이 있어」의 창작 과정 연구」, 『비교한국학』 2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235쪽.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중략) …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  
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  
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부분

릴케가 고독을 신비롭고 성스러운 정신적 계기로 받아들이며 자발적으로  
빠져든 것과 달리, 백석은 그것을 자신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결과로 여긴다.  
이 시에서도 화자는 “좁다란 방”에서 혼자 외로운 생각에 젖어든다. 때가  
잔뜩 낀 낡은 옷을 입은 채 달고 따듯한 감주를 먹고 싶어 하지만 마음뿐인  
그의 처지는 처량하기 그지없다. 그리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고 상상만을 거둬드는 상황이 안타깝게 그려진다. 그러나 이 시의 묘미  
는 자신의 불우한 현실을 탄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  
는 장면에 있다. 화자의 현재와 과거를 영상처럼 선연하게 비추던 “흰 바람  
벽”은 어느새 그 자신의 얼굴을 향해 다가온다. 그리고 예언처럼 그의 운명  
을 지시하는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명징한 자각에 도달한 것이다. 비록 자신  
을 둘러싼 외부 세계는 궁핍하고 불행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시  
인으로서의 숙명으로 인정한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자각의 과  
정이 적극적이고 의지적이라기보다 어떤 계시처럼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각성이 흰 바람벽을 스치는 글자로 표출되면서  
그의 자아는 한결 고양되고 자신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에 감싸인 듯 위안을  
얻는다.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기만 하던 부정적 감정은 어느새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이제 화자는

좀 더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해 들어가게 되고 눈앞의 글자도 더 뚜렷하게 새로운 발견의 의미를 제시한다.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야말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난하고 외로운 유랑자에게는 최고의 위안일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외로움조차 극복한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이 연약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인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자신이 세속적 가치의 반대편에 놓인 이런 존재들과 동류라는 의식에 위로와 자부심을 느끼며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각성한다.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시인이라는 자각은 고독한 유랑의 삶을 견디는 힘이 된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늘의 선택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에 시인의 삶은 가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고달픈 유랑과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이다. 프란시스 잼이나 릴케는 백석에게 있어 추구하고 싶은 시인의 전형에 가깝다. “신비주의와 고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인, 그것은 속악한 세상을 슬퍼하는 시인이지만, 슬픔을 시로 승화시키고 슬픔을 응시하면서 내면의 정신성을 완성해가는 시인의 초상이다. 이런 이미지는 1930년대 후반, 시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시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심화된다.”<sup>27</sup> 릴케가 세계적인 대도시를 유랑하며 문화적 충격에 위축되고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며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백석은 식민 치하에서 탈향의 고통에 처해있었다. 릴케가 20세기 진일보한 인류문명으로 아늑한 안식처로서의 정신적 고향을 잃게 된 현대인의 고향상실성을 고독과 소외와 상실감의 정서로 그려냈다면,<sup>28</sup> 백석은 실제 조국과 고향

27 김진희,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한국시학연구』 34호, 한국시학회, 2012, 56쪽.

을 잃은 식민지의 시인으로서 더욱 처절한 고립과 비애를 감내해야 했다. 가난과 외로움에 휩싸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석은 고독을 승화시켜 고귀한 정신에 도달한 릴케에게서 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굴하지 않는 정신적 초극의 자세는 두 시인이 자신의 운명과도 같았던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 4. 나무 이미지와 순결한 시인의 표상

백석의 초기 시와 비교할 때 후기 시에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담은 시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석은 오랜 유랑생활에서 기인하는 깊은 고독과 대면하며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하기 시작한다.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고결한 시인으로서 겪어야 할 운명으로 긍정되기까지 그의 내면에서는 절체절명의 갈등과 긴장감이 들끓는다. 그러한 과정 자체를 그려내는 자의식 과잉의 시들이야말로 그의 이전 시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격렬한 내면의 드라마로 재현된 최고의 메타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들에는 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것이며 오랜 질문 끝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답변을 응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시는 유랑과 방황과 고독과 각성의 전 과정을 담고 있어 백석 후기 시의 전개 양상을 전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을뿐더러 시인으로서의 자아 성찰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어 백석 후기 시 중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다.

28 이덕형, 「괴테의 가을, 릴케의 가을: 자연과 자아의 합일과 분리」, 『독일어문학』 79집, 한국독일어 문학회, 2017, 122쪽 참조.

이 시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시인의 자의식이 고스란히 투영된 고도의 상징으로서 백석 시의 궁극적 지향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석이 자신이 도달한 시 정신의 극점을 표명하기 위해 나무의 상징을 활용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무의 상징은 릴케에게서도 시인의 고통과 성숙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애용되었다.

예술가는 나무처럼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수액(樹液)을 재촉하지도 않고 봄 폭풍의 한가운데에 의연하게 서서 혹시 여름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일도 없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여름은 오니까요. 그러나 여름은 마치 자신들 앞에 영원의 시간이 놓여 있는 듯 아무 걱정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참을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게 고맙기만 한 고통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가 모든 것이라고!<sup>29</sup>

릴케가 한 시인 지망생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1935년 우리 문단에도 소개되면서 시인과 시인 지망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30</sup> 백석이 이 글을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무로 시인의 자세를 비유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릴케가 나무와 시인을 동일시한 이유는 둘 다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존재”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릴케가 강조하는 시인의 자질은 글을 쓰고자 하는 동기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어

<sup>29</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앞의 책, 31-32쪽.

<sup>30</sup> 박용철에 대한 영향은 김재혁, 「박용철의 릴케 문학 번역과 수용」, 윤동주에 대한 영향은 김재혁, 「나, 그리고 사물에 대한 사랑」, 전봉건에 대한 영향은 송현지, 「릴케를 통한 시적 전신(轉身)」, 허만하에 대한 영향은 김재혁, 「“존재의 용담꽃”을 찾아서-릴케와 허만하」 등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글을 써야만 살 수 있다는 대답이 분명하게 들려오면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삶의 동기를 바깥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일관되게 그 길을 간다는 점에서 릴케가 생각하는 시인은 나무와 생장 방식이 흡사하다. 나무가 봄 폭풍을 의연하게 견디며 다가올 여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진정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외계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요하게 내면의 성장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현실의 고통은 참을 만한 것이 된다. 나무의 고요하고 수동적인 자세는 시인의 성숙에 긴요한 인내의 가치와 직결된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날 저녁 당신의 집을 떠나  
 발을 옮겨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거길 떠나.  
 거대한 공간이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그게 시작되는 데 있구요,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당신의 눈은 기울어진 입구에서 좀체  
 눈을 뗄 수 없음을 알겠지만, 당신의 눈으로  
 천천히, 천천히, 검은 나무 한 그루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게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도록: 바싹 마르고 외롭게,  
 그걸로 당신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광대하고  
 말(언어)처럼 침묵 속에서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그걸 잡으려는 순간,  
 당신의 눈은, 그 옅고 묘함을 느껴, 그걸 내버려 두게 될 것입니다.  
 - 릴케, 「입구」 전문<sup>31</sup>

릴케는 나무와 관련된 시를 여러 편 썼는데, 이 시는 특히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과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공간을 이동한 시선이 최종

<sup>31</sup>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현종 시인의 사유 갖든 릴케 시 여행』, 문학판, 2015, 36쪽.

적으로 한 그루 나무에 머물고 그로부터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고독이라는 세계를 세속과 구분하고 ‘황금의 문’ 같은 경계를 상정했던 것처럼 이 시에서도 ‘집’과 같은 일상의 공간과 구분되는 다른 세계의 ‘입구’가 제시된다. 그곳은 “잘 아는 거길 떠나”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다. 즉 ‘집’과 대비되는 광대한 예술의 세계이다. 그곳에서 시인이 만나는 사물이 ‘나무’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릴케는 예술가의 성숙이 나무의 습성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배경으로” “바짝 마르고 외롭게” 서 있는 나무는 시인이 창조한 하나의 세계처럼 펼쳐진다. 시의 언어가 침묵 속에서 무한히 자라나듯이 그 세계는 시인의 눈앞에서 가없이 펼쳐진다. 눈앞의 나무가 들어 올려지며 점점 커지는 것처럼 시의 세계도 인위적인 의지 그 너머로 무한히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신묘하고 자족적인 시의 세계는 또 다른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무 한 그루 저기 솟아올랐다. 오 순수한 상승!  
 오 오르페우스가 노래한다! 오 귓속에 높은 나무!  
 그리고 모든 게 입 다물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부름, 변화가 나타났다.  
 - 릴케, 「오르페우스에게 부치는 소네트」 부분<sup>32</sup>

시인의 눈으로 들어 올려진 나무는 스스로 솟아올라 “순수한 상승”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야말로 릴케가 도달하고 싶어 했던 시의 궁극적 경지일 것이다. 영원의 시간을 향해 끊임없이 상승하던 나무는 마침내 그 자신의 힘으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세속의 소리에서 벗어나는 이 순간 시는

---

<sup>32</sup> 위의 책, 68쪽.

‘침묵’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 부름, 변화”를 향하게 된다. “시는 자유의 실현이며 시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경험하는 탈억압의 순간을 시속에서 함께 나눈다. 모든 것이 하나인 공간All-Einheit에서 공간은 이미 주어지고 고정된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가볍게 비쳐가며 더 이상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닌 자유로운 시정신의 세계와 만난다.”<sup>33</sup> 시를 통해 한없이 고양되어 세속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야말로 릴케가 꿈꾼 변화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릴케가 평생의 유랑 끝에 도달하고자 한 시의 세계이다.

릴케가 도달한 시 세계가 이처럼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비해 백석은 한결 경험적이고 질박한 각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백석은 방랑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과거와, 어느 목수 집의 방 한 칸을 얻어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지내는 현재와, 시인으로서의 운명을 확인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적 관점을 차례로 서술한다. 과거를 그린 시의 첫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상황을 묘사한 부분부터 제시해보도록 한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달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쥘며 재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썰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sup>33</sup> 이영남, 「릴케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2, 230쪽.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찔랑찔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찔랑찔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부분

춥고 누추한 방에 기거하며 ‘나’가 하는 행동은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  
 무위에 가깝다. 뜻 없는 글자를 쓰고 하릴없이 뒹굴고 두문불출하는 답답하  
 고 무력한 행위일 뿐이다. 스스로도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  
 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러나”로 시작되는  
 시의 후반부에서 시의 흐름은 역전된다. 최악의 상태에 서서히 변화가 생기  
 면서 시적 자아가 점차 고양되는 과정은 상당히 극적이다. “내 슬픔과 어리  
 석음”에 함몰되어 있던 상태에서 “문창”이나 “높은 턱정”으로 눈길을 돌리

면서 자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회한으로 가득하던 마음이 차차 가라앉게 된다. 즉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고 받아들이면서 위안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슬픔이나 한탄 같은 자책에서 헤어나게 되자 외로운 생각만 남게 된다. 이제 드디어 그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게 된다. 슬픔과 어리석음을 제외한다면, 자신 또한 외롭게 서서 마른 잎새에 눈을 맞고 있는 갈매나무처럼 드물고, 굳고, 정한 존재로서의 ‘시인’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백석에게 시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허준(許俊)』)의 주인이고 “한울은/이러한 시인(詩人)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데”(『호박꽃 초롱』 서시(序詩))에서처럼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다. ‘시인’은 백석이 그토록 통렬한 회한의 삶 속에서도 마침내 도달하고 싶었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백석은 후기 시에서 자주 ‘시인’을 등장시키고 그 의미에 천착한다. 급격히 악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확인하고는, 훼손할 수 없는 시의 품격과 순수성을 되새기기 위해 갈매나무의 의연하고 정갈한 자태로 자신이 꿈꾸는 시인을 표상한다.

릴케가 ‘나무’라는 일반명사를 써서 시의 창조적 세계에 대한 추상적 관념을 펼친 것에 비해 백석은 ‘갈매나무’라는 고유명사를 써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으로서의 운명을 확인한다. “달옹배기”, “북덕불”, “나죽손”, “바우썸” 등 시의 곳곳에 배치된 향토색 짙은 토속어들은 백석이 얼마나 구체적인 삶에 뿌리를 둔 시인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백석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시대 상황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인식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신을 추구하며 시인의 길을 찾아냈다. 백석의 시는 대체 불가한 개성적 언어와 정결한 시인 정신으로 세계문학에 육박한다.

##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백석 후기 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해명하는 데 릴케 시와의 비교가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두 시인의 시세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릴케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문단 분위기나 백석 시에 릴케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백석은 릴케의 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백석 시에서 릴케 시와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시인의 시에 대한 실증적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의식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주력했다.

두 시인은 체험을 시의 동력으로 삼았고 풍부한 유랑 체험을 바탕으로 후기 시에서 최고의 정신적 높이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릴케는 시쓰기에서 체험을 가장 중시했고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시의 결정체를 얻기 위해 평생 동안 자발적인 유랑을 행했다. 릴케에 비해 백석 시에서 유랑 체험은 식민지적 상황과 겹쳐 궁핍하고 고립된 처지가 두드러진다.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예리하게 드러내는 백석의 시는 비자발적인 유랑의 상황에서도 정신적 고도를 추구하며 의식의 자발성을 표출하고 있다.

유랑 체험을 내면의 발견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도 두 시인은 유사하다. 릴케는 유랑과 고독을 자신의 고유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결핍이 아닌 성숙의 계기를 마련한다. 릴케의 고독이 고도의 문명에서 소외된 현대인으로서 내면의 고향에 이르기 위한 성스러운 도정이었다면, 백석의 고독은 조국과 고향을 잃은 식민지의 시인이 느끼는 더욱 처절한 소외감과 비애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는 정신적 초극의 자세로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각성했다.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남다르게 강했던 두 시인은 흥미롭게도 ‘나무’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고통과 성숙의 과정을 표상한다. 릴케는 나무의 고요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시인의 성숙에 긴요한 인내의 가치와 침묵의 창조적인 특성을 간파했다. 릴케가 도달한 시세계가 다소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비해 백석은 경험적이고 질박한 각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오랜 방황과 무기력으로 인한 통렬한 회한을 딛고 갈매나무처럼 드물고, 굳고, 정한 존재로서의 시인의 표상에 도달한다.

릴케 시와의 비교는 백석 후기 시에서 심화되는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조점이 되어주었다. 유랑과 고독은 시인으로서의 운명을 깨달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하의 조국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비참하고 곤궁하기 그지없는 상태에서도 절망과 고독의 깊이로 침잠한 채 자신과 투철하게 대면하고 정신적 극복의 과정을 통해 시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백석 후기 시의 전개 과정은 릴케라는 세계적인 시인과 비교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식민지의 시인이라는 더 큰 시련과 대결하면서 그는 현실이 훼손할 수 없는 시의 고고하고 순수한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현실의 위기에 좌절하고 방황하면서도 시의 힘으로 끝내 그것을 넘어서며 시인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백석의 남다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형진, 『정본 백석 시집』, 문학동네, 2007.
- 김재혁,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김재혁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전집 12: 말테의 수기』, 김용민 역, 책세상, 2000.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현종 시인의 사유 깃든 릴케 시 여행』, 문학판, 2015.
-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 윤동주100년포럼 역, 스타북스, 2017,
-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하얀 길 위의 릴케』, 김상영 역, 도서출판 모티브, 2003.
- 고재봉, 「재만 시기 백석의 산문과 「흰 바람벽이 있어」의 창작 과정 연구」, 『비교한국학』 28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 권 온, 「김춘수의 시와 산문에 출현하는 ‘천사’의 양상: 릴케의 영향론 재고의 관점에서」, 『한국시학 연구』 26호, 한국시학회, 2009.
- 김명인, 「백석 시에 나타난 기행」, 『한국시학연구』 27호, 한국시학회, 2010.
- 김재혁, 「문학 속의 유토피아: 릴케와 백석과 윤동주: 시적 주체와 공간의식의 관점에서」, 『혜세연구』 26집, 한국혜세학회, 2011.
- 김진희, 「시인 존재론의 탐구에서 동화시에 이르는 길」, 『한국시학연구』 34호, 한국시학회, 2012.
- 김창형, 「한국비교문학의 미래-잡종화와 주체성의 문제」, 『비교문학』 35권, 한국비교문학회, 2005.
- 김춘희, 「의(擬)비교문학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문학』 45권, 한국비교문학회, 2008.
- 송현지, 「릴케를 통한 시적 전신(轉身): 전봉건의 ‘사랑의 노래’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6호, 한국 비평문학회, 2020.
- 신혜양, 「작가의 여행과 글쓰기: 루 안드레아스-살로메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러시아 여행(1900)」,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4호, 한국브레히트학회, 2016.
- 왕신영, 「윤동주와 다지하라 미찌조: 릴케를 軸으로 하여」, 『일본의 언어와 문학』 2집, 단국일본연구 학회, 1998.
- 유종호, 「상호텍스트성의 현장」, 『문학수첩』, 2011 여름호.
- 윤석성, 「한국 시의 릴케 수용」, 『한국어문학연구』 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이덕형, 「괴테의 가을, 릴케의 가을: 자연과 자아의 합일과 분리」, 『독일어문학』 79집, 한국독일어문 학회, 2017.
- 이영남, 「릴케의 공간의 시학」, 『외국문학연구』 47호,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문학연구소, 2012.
- 이정순, 「릴케의 서정시에 나타난 외계의 내면화: 시, 「위대한 밤」 외」, 『독어독문학』 96집, 한국독어 독문학회, 2005.
- 조강석, 「김춘수의 릴케 수용과 문학적 모색」, 『한국문학연구』 46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 학연구소, 2014.
- 진순애, 「릴케의 <가을날>의 한국적 변용」, 『우리말글』 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 최동호, 「북방에서-정현웅에게」 해설, 『백석 시 읽기의 즐거움』, 서정시학, 2006.



## The Process of Wandering Life and Spiritual Uplift

A Competitive study on Lilke's and Baekseok's poems

Lee, Hye-won | Korea University

In this paper, I compared Baekseok and Lilke's poems. This was because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mparison with Lilke's poems could be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in clarifying self-consciousness as a poet, which appears strongly in Baekseok's later poems. As the name of Lilke appeared in Baekseok's poems and the translation of Lilke began to b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Korean literature after the mid-1930s, it could be assumed that Baekseok was clearly aware of Lilke's poems.

The two poets had great similarity in that they reached the highest spiritual height in the later poems that used experienc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poem and especially based on abundant wandering experiences. Lilke valued experience the most in poems writing and conducted a voluntary wandering throughout his life to obtain a crystal of poems that matched his life. Compared to Lilke, Baekseok's wandering overlapped with the colonial situation. He sharply expressed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between regret ov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The two poets were similar in that they had wandering experiences and continued their inner discoveries and spiritual overcoming with them. For Lilke, solitude served as a sacred process to reach his inner hometown as a modern person alienated from high civilization. For Baekseok, solitude contained a more desperate sense of alienation and sorrow felt by a poet in colonies who lost his homeland and hometown.

The two poets showed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represent the poet's pain and maturity, especially through the image of "tree." In the quiet and passive posture of the tree, Lilke revealed a somewhat ideological and ideal tendency to see through the value of patience and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silence, which was essential to the poet's maturity.

On the other hand, Baekseok overcame the bitter remorse caused by long wandering and lethargy through the process of empirical and desperate awakening and reached the representation of the poet as a rare, firm and neat tree.

The comparison with Lilke's poems served as a good reference for understanding self-consciousness as a poet deepening in later Baekseok's poems. Baekseok showed the process of facing himself thoroughly and maturing as a poet through the process of mental overcoming, in a miserable and desperate state of losing his hometown in his colonial homel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is later Baekseok's poems was comparable to that of a world-class poet named Lilke.

**Key Words :** Lilke, Baekseok, Wandering, Solitude, Inner side, The image of "tree"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

표정옥\*

1. 들어가며
2.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와 비주체적 자아
3. 새로운 미적 논쟁과 미적 가치의 양가성
4. 근대 타자적 여성성의 서로 다른 두 시선
5. 나오며

## | 국문초록 |

본고는 1843년 19세기 미국의 대표 작가인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이라는 작품과 1930년대 20세기 한국의 대표 작가인 김유정의 단편 소설 <안해>에 등장하는 여성성에 대해서 근대라는 의미망을 통해 비교 분석해서 살펴보았다. 여성의 미의식이라는 측면을 통해 볼 때 김유정과 호손의 작품에는 여성 인물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양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여성의 미모와 관련된 작품 <안해>에 나타난 미적 여성성을 미국의 대표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속에 나타난 여성의 미의식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너새니얼 호손의 작품 <반점>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어느 과학자가 자기 부인의 얼굴에 난 붉은 반점을 인간이 가지는 불완전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없애려다가 그녀를 죽게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만드는 여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19세기 근대 과학 담론으로서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과 20세기 근대 한국의 미적 담론으로서 김유정의 <안해>를 통해 미의식의 충돌과 양가 의식과 타자성 등을 주제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근대와 과학과 경제적 자본이라는 담론이 여성의 자아의식 형성과 미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의미의 미시적인 지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너새니얼 호손 <반점>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반점을 거슬러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반점을 제거하려다가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고 만다. 하지만, 김유정의 <안해>의 부인은 못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능력을 신장시켜 가면서 자신의 미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근대라는 공간에서 과학과 자본의 영향 하에 여성의 미에 대한 다소 다른 담론을 보이는 너새니얼 호손과 김유정의 작품을 통해 김유정 연구의 새로운 비교문화적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김유정, 너새니얼 호손, 미의식, 양가적 충돌, 타자적 여성성

## 1. 들어가며

한국 향토문학의 대표작가인 김유정 문학을 논할 때 지금까지 비교문학적 시각은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다. 작가가 사용하는 상상력과 언어가 지극히 향토성과 한국의 고유한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상상력은 동시대 세계 문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유정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김유정을 비교문학적으로 다룬 논문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유인순의 <김유정 문학의 해외 문학적 침투>와 <김유정과 루쉰>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sup>1</sup> 김유정은 <심청>에서 ‘칸트’, <따라지>에서 ‘톨스토이’, <병상의 생각>에서 ‘제임스 조이스’ 등 외국 작가들을 직접 언급하였다. 유인순은 <따라지>와 <야앵>에서 톨스토이의 예술관이 김유정의 예술관으로 변형되어 투영되었다고 보았고, 에밀 졸라의 <나나>는 작품 <정조>에서 하층민을 묘사하는 언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솔>의 주인공의 내면 의식과 <따라지>의 서사 공간의 입체화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자못 연상시킨다고 보았다. 김유정의 언어에서 <부활>과 <나나>와 <율리시스>의 상상력을 읽어낸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주목할 일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자연스러운 읽기 행보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극히 열정적이고 의도적인 독서를 수행했을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과도한 환원주의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인순은 <김유정과 루쉰> 연구에서 김유정의 <만무방>을 루쉰의 <아큐정전(阿Q正傳)>과 연결시킨다. 공통적으로 삽화와 이야기 서술방식과 등장인물의 시대 인식과 양가성 측면에서 두 작품의 유사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도둑 이야기, 무발 이야기, 늑대 이야기 등의 삽화가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sup>1</sup> 유인순, 『김유정을 찾아 가는 길』, 솔과학, 2003, 159-254쪽.

주목하고 더 나아가 수수께끼 형식인 것과 선과 악의 양가성이 드러나는 것에서도 공통점을 찾고자 했다. 이 또한 분명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논의를 펼치기에는 이러한 문학적 기교는 매우 보편적인 글쓰기 양식이어서 유독 김유정에게만 독특하게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작가들의 일정 부분 상상력의 고리가 어느 정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유정 문학을 광의적인 비교문학적 관점으로 읽어낸 논문으로 세계문학 이론과 연결시키는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문규는 리얼리즘과 바흐친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김유정 문학을 세계 문학의 자장 안에서 해석하려는 그간의 연구들을 정리 분석하고 있다.<sup>2</sup> 김유정이 시작한 했지만 현덕이 완성한 동화 <두포전>을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라는 비교문학적으로 접근한 최배은의 논의 역시 비교문학적 접근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3</sup> 이 연구들은 엄밀히 비교문학적 관점으로 보면 비교했다기보다는 특정한 관점의 비평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 다른 김유정 비교문학의 방향으로 번역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김유정은 외국문학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만영은 <귀여운 소녀>라는 김유정 번역 소설이 찰스 디킨스의 <오래된 골동품 상점(The Old Curiosity Shop)>을 번역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일본 작가인 무라오카 하나코(村岡 花子)가 <소녀 네리>로 번역한 것을 중역한 것이다. <귀여운 소녀>가 <매일신보>에 발표된 1937년은 김유정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또 다른 번역소설인 <잃어진 보석>은 반 다인이라는 작가의 <벤슨 살인사건(The Benson Murder Case)>인데, 이는 일본 작

2 양문규, 「김유정과 리얼리즘, 바흐친, 탈식민주의」, 『김유정과 문학 콘서트』, 소명출판, 2020, 17-37쪽.

3 최배은, 「김유정의 <두포전>과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 『김유정과 문학 콘서트』, 소명출판, 2020, 38-60쪽.

가 히라바야시 하쓰노스케(平林初之輔)가 <벤슨가의 참극>으로 번역했고, 김유정은 다시 이것을 증역한 것이다.<sup>4</sup> 이러한 번역 소설의 발굴은 그간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역이라는 문학 언어의 번역을 통해 김유정의 새로운 비교문학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또한 김유정 연구는 근대와 향토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근대와 프랑스의 향토성을 연결지어 비교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독일의 근대라는 개념을 한국의 근대와 비교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김운상의 논의에서 슈페만의 근대 일곱 가지 개념 중 세 번째 지표인 진보적 자연지배는 독일의 근대와 한국의 근대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sup>6</sup> 김유정의 향토성과 프랑스 지역 문학의 특성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당시 경성의 서구문학사조와 김유정이 강원도의 향토성을 독자적으로 문학화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새로운 비교문학의 전망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한 작가가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간의 비교문학의 흐름이 대부분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김유정과 같은 한국적인 작가를 비교문학적 시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구현된 작품 속에서 각 나라의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직접적인 영향만을 비교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 비록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각자의 문화권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문화적 층위가 비슷하게 형

4 이만영, 「김유정의 ‘귀여운 소녀’번역 저본의 발굴과 그 의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출판, 2017, 255-285쪽.

5 <귀여운 소녀>과 <잃어진 보석>의 전문은 유인순의 김유정 문학 전집에 실렸다. 유인순, 『정전 김유정 전집2』, 소명출판, 2021, 161-302쪽.

6 김운상, 「근대의 이념적 지표들과 원칙적 의미」, 『제13회 김유정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김유정문학회, 2021, 1-13쪽.

7 정의진, 「김유정 문학의 한국적 근대성-프랑스 지역주의 문학과 비교연구 시론」, 『제13회 김유정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김유정문학회, 2021, 14-21쪽.

성된다면 다소 시대가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비교의 근거를 찾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각각의 문학이 그 나라에서 형성하는 의미의 삼각주가 비슷한 문화적 지층을 이루고 있다면 다양한 시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최근 김유정의 매춘 모티프를 중국의 문학과 인도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매춘과 비교하는 것은 주제론적 문학과 문화의 상호 비교이다.<sup>8</sup>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1843년 19세기 미국의 대표 작가인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이라는 작품과 1930년대 20세기 한국의 대표 작가인 김유정의 단편 소설 <안해>에 등장하는 여성성에 대해서 근대라는 의미망을 통해 비교 분석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너새니얼 호손의 작품 <반점>은 어느 과학자가 자신의 부인의 얼굴에 난 붉은 반점을 없애려다가 그녀를 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반점>에는 인종, 젠더, 국가 등에 대한 사유를 통해 자유, 예측, 죄, 죽음, 도덕, 어둠 등의 문제가 기술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9</sup> 또한 과학의 이원성에 대한 담론이라는 논의가 주장되고 있는데, 과학을 실행하는 주체가 남자이고 그것의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sup>10</sup> 과학의 절대적 힘을 믿는 과학자는 인간의 숙명적 불완전성의 상징으로 아내의 반점을 매우 거슬러한다. 결국 사랑하는 부인을 잃게 되는 이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혐오의식과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로 바라볼 수 있다. 혐오의식(Hatred)은 제러미 월드론이 지적한 대로 내적 감정상태가 아니라 외부로 표

8 조비, 「1930년대 한, 중 매춘 모티프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가정서사 비교 연구 - 「소낙비」와 「노예가 된 어머니」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19, 131-157쪽; 아슈만 토마르, 「김유정과 브렘잔드 소설의 여성상 비교 연구-매춘의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67-198쪽.

9 한우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에 나타난 인종, 젠더, 국가」, 『미국학논집』 5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21, 189-194쪽.

10 박양근,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에 나타난 과학의 이원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296-301쪽.



출된 부정적 감정이며 그 자체가 차별 행위이고 폭력이기도 하다.<sup>11</sup> 따라서 혐오의식은 단순한 미적 담론보다 더 큰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데릭 젠슨의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가 혐오의 정치경제학이며 누구나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모든 생명에 대한 혐오, 멸시, 무시가 우리 경제의 단단한 기초라고까지 말하고 있다.<sup>12</sup> 여성의 미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김유정의 작품에서도 여성 인물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양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여성의 미모와 관련된 작품 중 <안해>에 나타난 미적 여성성을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속에 나타난 미의식과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근대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는 늘 상 원초적인 죄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김동인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김동인은 <광화사>, <감자>, <배따라기> 등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죄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동인의 여자 주인공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버린다. <광화사>의 ‘소경처녀’, <감자>의 ‘복녀’, <배따라기>의 ‘아내’는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와 연루되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여성들이다. 자신이 처음으로 여자임을 느끼는 소경처녀는 이상적 여성상을 추구했던 솔거에게 죽음을 당하고, 왕서방의 사랑을 빼앗긴 복녀는 질투 때문에 낯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그 낯에 자신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시동생과 쥐를 잡다가 웃고름이 풀어진 아내는 부정하고 타락한 여자로 낙인찍혀 비극적인 자살을 하고 만다. 김동인이라는 작가에게 여성의 아름다

<sup>11</sup> 제러미 월드론, 홍성수, 이소영 옮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293-294쪽.

<sup>12</sup> 데릭 젠슨, 이현정 옮김, 『혐오와 문명』, 아고라, 2020, 312-313쪽.

움과 자의식은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전근대적인 삼강적 세계였다. 근대를 대면하는 작가 김동인에게 여성의 미의식에 대한 자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래서 김동인의 여성들은 살해당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극단적인 결말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930년대를 대표하는 김유정에게 아름다움은 죽음이라는 담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아름다움의 미의식에 대한 김유정의 생각들은 근대와 전근대가 결합되어 매우 혼종적으로 등장한다. 김유정에게 미의식은 여성의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아로 나아가는 일종의 통로이기도 하다. 19세기 근대 과학 담론으로서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과 20세기 근대 담론으로써 김유정의 <안해>를 통해 미의식의 충돌과 양가 의식과 타자의식 등을 주제학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와 과학과 경제적 자본이라는 담론이 여성의 자아형성과 미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의미의 미시적인 지층을 들여다 것이다. 너새니얼 호손의 작품 <반점>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반점을 거슬러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반점을 제거하려다가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고 만다. 하지만, 김유정의 작품 <안해>의 부인은 못생긴 얼굴을 가졌지만 능력을 신장시켜 가면서 자신의 미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대라는 공간에서 과학과 자본의 영향 하에 여성의 미에 대한 다소 다른 담론을 보이는 너새니얼 호손과 김유정의 작품을 통해 김유정 연구의 새로운 비교문학적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와 비주체적 자아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란 삼강적 이데올로기로 지칭할 수 있다. 많은 고전 작품 속 여성은 전통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강적 여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삼강적 인물이란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는 소설 속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다. 주영하는 삼강적 지식과 삼강적 인물이 근대적 인쇄 기술을 통해 삼강의 지식확산이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근대성과 과학주의를 내세운 근대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혈연주의와 가문주의의 성리학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유림들을 포섭해서 봉건 사유의 핵심인 삼강적 지식체계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sup>13</sup> 그러나 여성의 ‘열녀 되기’는 열녀라는 허울 속에서 벌어지는 간접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즉 삼강적 이데올로기가 수용자에게 내면화를 유도하지만 그 실천이 매우 위해적이다. <삼강행실도>의 <열녀편>에는 예의범절을 지키다 불에 타 죽은 여인, 남편을 따라 치수에 몸을 던져 죽은 여인, 시어머니 도둑질을 대신 누명쓰고 죽은 며느리, 왜구에게 팔과 발이 잘리지만 굴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여인 등 끔찍한 살인의 현장들이 여과없이 드러나 보인다. 이는 가정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여인들을 미화시키는 유교적 이념화의 과정이며, 자신의 안위보다는 가정과 사회라는 테두리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게 하는 파쇼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유정 작품들 속에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불사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감행하고, 위장 결혼을 하며 심지어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들병이를 자처하기도 하며, 죽음을 맞서는 희생 정신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산골 나그네>의 아내는 아픈 남편을 위해 거짓 결혼을 하고, <소낙비>의 춘호 처는 남편의 놀음 밀천을 위해 이주사라는 부자에게 몸을 판다. 이는 <삼강행실도>에서 끔찍한 죽음을 감행한 열녀들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한국 신화 속 집을 지키는 터주신의 이데올로기는 주로 여성에게만 강요된 측면이 강했다. 이는 문학의 형상화로 보자면 사회

<sup>13</sup> 주영하 외,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의 불합리에 어찌할 수 없는 남성들의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삼강적 여성 되기를 그림으로써 당시 여성의 불합리를 그대로 그려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혹은 그러한 의식과는 별개로 민간에 내려오는 원천적 상상력을 무의식중에 자연스럽게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 근대 사회의 불합리를 읽게 하는 고도의 작법일 수도 있다. 김유정은 삼강적 인물들을 다양한 형상으로 작품 안에 살아가게 함으로써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상을 유머와 해학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려내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너새니얼 호손은 <주홍글씨>를 통해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을 폭로하였다. 청교도 목사 딥즈 테일과 그와 간음한 여주인공 헤스터를 등장시켜 인간의 위선과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단편인 <반점>이다.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조지아나는 남편 에일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를 매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삼강적 인물의 하나이다. 그녀는 철학과 과학에 능통한 에일머라는 과학자에게 구혼을 받고 그의 사랑을 믿고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결혼을 한다. 에일머는 냉철한 과학적 사고와 분석적인 철학적 사고의 결과로 그녀에게 청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에일머는 조지아나에게 “조지아나! 당신의 뺨 위에 있는 그 점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소?”<sup>14</sup>라고 질문한다. 남편 에일머의 예기치 않은 질문에 조지아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더 나아가 “사실 말이지, 저는 사람들 이 이 점을 매력이라고 말하기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 왔을 뿐인걸요.”(76)라고 대답한다. 지금까지 자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반점이 남편의 미적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조지아나 자신이 생각한 주체적 미의식은 남편의 질서 속에서 철

<sup>14</sup> 너새니얼 호손, 천승걸 옮김, 『너새니얼 호손 단편선』, 민음사, 2012, 76쪽. <반점>의 작품 인용은 이 번역본을 참고한다. 이후 인용은 페이지만 기재한다.

저히 외면당하고 만다. 자신의 반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지아나에게 남편 에일머는 “다른 사람의 얼굴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정말 아니야, 사랑스러운 조지아나, 당신은 대자연의 손이 가장 완벽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점이라 해도 결함이 되는 거요. 아니 그걸 결함이라고 해야 할지 아름다움이 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에게 지상 세계의 불완전함 표시로 보여서 날 놀라게 하요.”(76)라고 말한다. 남편의 반점에 대한 평가는 조지아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녀는 분노하면서 눈물을 터트리기에 이른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러하면 무엇 때문에 나를 엄마 곁에서 데려왔어요? 당신을 놀라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순 없을 텐데요!”(77)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프로포즈와 그들의 결혼을 원망하면서 슬퍼하기에 이른다. 남편의 사랑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재단되어 있는 세계였다. 에일머가 조지아나에게 내리는 미적 판단은 순혈적인 백인주의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고 인종적 타자를 배제하는 기제이기도 하다.<sup>15</sup> 남편 에일머는 꿈에서조차 아내의 반점을 괴로워하는 순혈 집착주의를 보이는 외골수적 인물로 등장한다.

조지아나의 반점은 결혼 전 세계 즉 에일머의 근대 과학적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우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조지아나의 반점은 사람의 손의 형상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태어날 때 요정이 아기의 뺨에 손을 얹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흔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다고까지 믿었다. 조지아나의 생각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에일머와 결혼하기 전에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살았다. 따라서 그녀가 에일머의 과학과 미적 질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반점을 매력포인트로

<sup>15</sup> 한우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에 나타난 인종, 젠더, 국가」, 『미국학논집』 5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21, 194쪽.

여겼다. 수많은 총각들은 조지아나에게 상사병을 느끼고 있었고, “그 신비스럽고 조그만 손에 키스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기라도 했을 것”(75)이라고 기술될 정도로 남성들은 작은 요정의 손에 키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조지아나는 남편 에일머의 과학적 세계 이전에는 매우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미의 상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조지아나와는 대조적으로 김유정의 <안해>에서 부인의 아름다움은 남편의 세계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등장한다.<sup>16</sup>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에 환장된 놈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나도 일상 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 보아도 요만치도 예쁘지가 않다.”<sup>17</sup>라고 진술된다. 따라서 <안해>의 여주인공은 매우 못생겼기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아내는 외모로 인해 사회적 존재감을 거의 얻지 못한 채 늘 저자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남편은 부인의 못난 외모를 “둥글넓적이 내려온 하관에 멋없이 쑥 내민 입(328)”이라든지 “먼 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328)”로 묘사한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슬슬 살피는 매우 비주체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또한 남편과 다투는 언쟁을 하면 “제가 주먹심으로나 입심으로나 나에게 덤비려면 어렵도 없다. 씹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던 간 언제든지 경을 파다발로 치고 나앉는 것은 년의 차지였다.”(330)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힘없이 짓밟힌다는 ‘파다발’의 의미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매우 전근대적인 종속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은 획일적인 미적 담론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보인다.

<sup>16</sup> 유인순, 『정전 김유정 전집1』, 소명출판, 2021, 327쪽. 안해는 아내와 동일어로 16세기 <소학언해>와 <변역소학>에 처음 나온 말이라고 한다. 집안의 태양과 같이 소중한 의미라고 한다. 현대에서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지만 본고는 원작 그대로의 제목인 <안해>로 사용한다.

<sup>17</sup> 김유정 지음, 유인순 엮음, 『정전 김유정 전집1』, 소명출판, 2021, 327쪽. 이후 인용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페이지로 처리한다.

너새니얼 호손 작품 <반점>의 조지아나 역시 작품 전반부의 모습에서 수동적인 전근대성이 나타난다. 조지아나는 에일머라는 과학자의 전근대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아름다움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에일머에게 보여질 때의 수동적 미의식이 에일머의 보기라는 능동성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미적 질서는 와해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일머는 결혼 후 조지아나에게 그녀의 반점이 지상의 불완전함의 상징처럼 그에게 충격이라고 말한다. 조지아나는 에일머의 말에 몹시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끼기까지 한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내보인다. 이는 에일머의 견고한 전근대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유입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기야 에일머는 그 반점만 아니라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의 흠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조지아나의 반점은 에일머의 완벽한 과학의 세계 즉 이는 백인 사회의 순혈주의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 그런 견고한 세계에서 혐오적 타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안해>에서 아내의 외모나 <반점>에서 조지아나의 반점은 모두 견고한 세계에 새로운 가치가 끼어들 수 없음을 상징화하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라면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이 미국의 이상주의를 비판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에일머의 실패가 유럽의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꿈꾸던 미국인들의 이상에 대한 질문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에 일견 동의하게 된다.<sup>18</sup> 미국인들의 이상은 에일머가 꿈꾸는 인위적인 백인 순혈주의로 등장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up>18</sup> 장경옥,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 나타난 미국의 이상주의 비판」, 『영어영문학연구』 29-2, 대한영어영문학회, 2003, 139-153쪽.

### 3. 새로운 미적 논쟁과 미적 가치의 양가성

근대의 형성은 인간의 자의식과 미의식의 자각 사이에서 긴밀한 지층 운동을 하는 자연현상과 같다. 근대를 형성하는 문화 중에서 여성의 자기 주체 인식과 사회적 자아로의 발전은 지극히 당연한 행보일 것이다. 김유정의 <안해>에는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삼강적 여성과는 다소 다른 근대적이고 입체적인 여성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해>의 주인공인 아내는 변화하는 가치관을 적극 받아들이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이는 동시대 작가인 김동인의 <광화사>와 <감자>의 여주인공들인 소경처녀와 복녀와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인다. 소경처녀와 복녀는 자신의 자존에 대한 내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인물들이었다. 소경처녀는 술거와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여성이었음을 자각하였고 복녀는 왕서방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이 예쁜 여성이라는 자존적 인식을 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러한 여성의 자의식 형성을 허락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극적 죽음에 이른다.

근대초기 <신여성>과 <부인>등의 잡지를 통해 근대적 여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김유정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순박한 시골 출신들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 논의한 전근대적 여성성과는 좀 다른 심리적 양성성을 가진 미적 가치의 양가성을 살펴본다. <안해>의 주인공은 김동인 소설 <감자>의 복녀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이 경제적 가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나 복녀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삼강적 질서가 여전히 작품 안을 지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세계만이 견고한 질서가 될 수 없다는 미적 가치의 양가성을 보여준다. <안해>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에게 오히려 삼강적 질서를 깨뜨리고 돈을 벌어도도록 격려하는 아노미적 인물이다. 아내는 아들 똥똥이를 낳고 난 후부터 자존적 자기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당



당해지기까지 한다. 남편은 아내가 아들 푹푹이를 내놓고는 세도가 매우 땡땡해졌다고 말한다. 심지어 자기가 들어가도 본채 만채 하고 눈을 내려감고 아이의 젖만 먹인다고 불만스럽게 진술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부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아들을 낳고 나서 자존감을 얻은 아내는 심지어 남편에게 들병이로 먹고 살자는 파격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한다. 이것에 대해 남편인 나는 나보다 아내가 한결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아내는 밀지는 농사보다는 이밥과 고기를 먹고 옷도 마음대로 입자고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솔깃하다가도 남편은 못생긴 아내의 얼굴을 이윽히 뜯어 보다가 그만 풀이 죽는다는 표현을 하며 매우 분해한다. 그러나, 눈치 빠른 아내는 비단 들병이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은 박색이라도 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자신을 방어한다. 아내는 남편의 박제되고 고정된 미의식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인의 변화되는 자존감에 의해 남편의 미적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부인의 제안에 따라 박색인 미모보다는 수단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내와 남편은 소리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미의식의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면서 남편인 나는 부인의 수단 즉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점점 동화되어 간다. 남편은 낮에 일을 마치고 밤에는 아내에게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점점 아내의 노래하는 능력이 증진되어 가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미의식도 변화를 보인다. 그에 따라 아내의 자존감도 향상되어 간다. 아내는 배운 노래를 빨래하면서도 연습하고 바느질하면서도 연습한다. 심지어 어린 아들 푹푹이를 업고 야학에 가서 시체 창가까지 배운다. 이 시체 창가는 소리를 가르쳐주는 남편도 하지 못하는 매우 근대적 능력인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아내는 매우 노력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은 아내의 얼굴만이 걱정이라고 진술한다. 소리는 점점 되어가지만 얼굴을 보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

칠 년, 좀만 얌전히 나왔다면 이판에 돈 한 묶 크게 잡는 걸. 간혹가다 제물에 화가 뵈치면 아무 소리 앓고 년의 뱃기를 한 두어 번 안 췌박을 수 없다.”(336)고 말한다. 아내의 수단 우선주의 즉 능력 향상 진술에 일정 부분 동화되다가도 또다시 외모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남편의 미적 양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Birthmark)>에서도 주인공 조지아나의 미에 대한 평가는 양가성을 가진다. 그리고 조지아나 스스로도 자신의 반점에 대해서 양가적 감정을 느낀다. 조지아나의 반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요정의 흔적이기도 했다가 파괴적인 불길함의 상징이기도 한 양가성을 가진다. 조지아나의 얼굴에 나오는 진홍빛 반점은 흥분되거나 의기양양하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가 창백해지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새끼손가락 크기의 반점은 요정이 남기고 간 흔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마력의 흔적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편 에일머의 반점에 대한 집착은 그녀를 더욱 불행하게 변화시킨다. 남편은 급기야 그 반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반점이 아내의 슬픔이자 쇠락이자 죄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른다. 남편 에일머와 부인 조지아나는 반점으로 인해 불행이 극도로 치닫게 된다. 부인은 남편의 시선이 느껴지면 살이 떨리기까지 한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그녀에게는 불행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의 반점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이제 반점을 혐오하는 단계에 이른다. 에일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과학에 대한 사랑을 결합할 수 있을 때 자신의 힘을 느꼈다. 에일머는 아내의 반점만 사라지면 완벽할 것 같았고 순간순간을 잘 견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반점을 자연이 남긴 치명적인 오점으로 여겼다. 에일머는 조지아나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급기야 반점을 없애려고 하였다. 만약 그 반점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녀의 심장마저도 도려낼 각오를 하는 과학자이다. 이는 아름다움의 절대

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절대성에 몰입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안해>의 주인공 남편인 나는 미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치의 양가성을 발휘한다. 동일하게 <반점>의 에일머 역시 아름답다고 느끼던 조지아나에게서 일종의 혐오감을 느끼는 미적 가치의 양가성을 보인다.

남성 주인공들의 미적 양가성에 대해 여성 주인공들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정의 <안해>에서 아내는 자기의 미적 자존감을 남편에게 설득시키는 긍정적이고 주체적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서 조지아나는 남편의 변화된 미의식에 자신의 미의식을 조정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이다. 조지아나는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아름다움의 상징인 반점이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인 표지가 되지 못한다. 이는 이상주의에 쫓긴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미의 양가성에 대한 부조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반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연구를 한다. 에일머는 과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반점을 제거할 용액을 제조하고 조지아나에게 그것을 마시게 한다. <안해>에서 남편인 나와 아내는 들병이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간다. 밤이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아리랑을 가르친다. 아리랑을 가르치지만 아내는 소설 책을 읽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아내는 아리랑 뿐만아니라 스스로 아이를 업고 야학에 가서 새로운 장르인 시체창가를 배우기도 한다. 아내는 스스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능동적인 인물이다. 아내와 남편은 소리를 함께 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생각에 동화되어 간다. 심지어 아내가 자기보다 더 수단이 좋다고 느끼게 된다. 소리를 배우면서 부부에게 전근대적인 편협된 미의식은 많이 희석되고 있으며, 남편은 부인의 미적 가치와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간다. 여기에는 김유정이 밝힌 들병이 철학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유정은 들병이들도 처음에는 성한 오장육부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밭길 닿

는 대로 유랑하게 되었고 조선의 최하층민이 되었다고 기술한다.<sup>19</sup> 홍기돈은 들병이를 다루는 <안해> 계열의 소설이 농촌의 최하층민과 연대 의식을 가진다고 주장한다.<sup>20</sup>

<반점>에서 에일머와 조지아나는 반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 간 복점이라고 느끼던 조지아나는 에일머의 생각을 알고 난 후부터 오히려 자신이 더 그 반점을 혐오하기 시작한다. 에일머의 미적 가치에 편입되어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일머는 조수인 아미나다브와 함께 실험에 들어간다. 그러나 조수는 조지아나가 자신의 아내라면 자기는 이 반점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에일머를 우회적으로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일머는 아내를 설득시키고 실험에 임한다. 자신이 믿는 신념에 따라 아내를 위험한 실험대상으로 만들어 간 셈이다. 그는 자면서까지 아내의 반점을 빼는 수술을 진행한다. 결국 조지아나는 자신의 반점을 더욱 혐오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혐오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른다. 남편 에일머의 미적 기준에 완전히 동화되어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된다. 김유정의 <안해>와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은 부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작품에 주된 동력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해>의 경우 부인의 새로운 미적 세계에 동화되는 남편이 그려지고 있는 반면,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의 경우 조지아나는 남편의 편향된 미적 세계에 동화되어 결국 자신을 잃고 만다. 미적 담론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타자 이해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안해>의 미적 담론과 <반점>의 미적 담론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up>19</sup> 김유정, 『朝鮮의 집시 - 들병이 哲學』, 전신재 역음,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12, 415쪽.

<sup>20</sup> 홍기돈, 「김유정 소설의 아나키즘 면모 연구 - 원시적 인물 유형과 들병이 등장 작품을 중심으로」, 『김유정 문학과 문화충돌』, 소명출판사, 2021, 205쪽.

#### 4. 근대 타자적 여성성의 서로 다른 두 시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근대적 주체 의식은 근대 초기에 가장 왕성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 초기에 등장하는 잡지 <향훈>, <미용강화>, <미용문답> 등을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근대 시대를 읽는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지표이자 아이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와 추에 대한 상반된 개념 역시 당시 근대 문학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김유정의 <안해>에 제시된 미의식의 개념과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의 미의식이 어떻게 타자성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적 관점에서 두 작품 속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에 의해 타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정과 너새니얼 호손은 각각 그 사회에서 근대와 미의식을 다루고 있지만 다소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아름다움은 매우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근대적인 개념이다. 미개하고 전 근대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여성의 아름다움은 과소평가되고 공론화되지 못한다. 여성이 아름다운 성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형성된 현상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그것은 비교적 현대의 담론이었다. 미의 대중화가 시작된 시대에 미용은 모든 사회 계층으로 확산되었으며 여성의 자의식도 함께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진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담론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문화가 발전하는 것에 따라 함께 발전해온 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정 작품에서는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삼강적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양가성을 보이는 적극적인 여성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적이고 근대적인 존재들도 함께 보인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인물들을 향토적이고 해학적인 지표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의식과 근대의식에 관련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소설 <안해>의 주인공은 아내의 추한 모습을 기술하면서 아내가 매우 비사회적인 존재임을 기술한다. 남편은 자기 부인의 외모가 매우 보잘 것 없다는 진술을 전면에 배치한다. 자기 부인이 “계집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고서야”라고 표현하거나 “아무리 고쳐 보아도 요만큼도 예쁘지 않은” 추한 얼굴이다. 그녀는 남편이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받을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추한 외모는 자식 토포이를 나면서 사회적 존재로 점점 나아간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우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말도 걸지 못했던 남편에게 싫은 소리도 거뜬히 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인간의 자존적 인식이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자각의 시작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 급기야 못생긴 아내는 들병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자신감까지 가진다. 더 나아가 스스로 자기의 가족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생각을 하고 있는 근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가 된다. 이는 자신의 미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에서 오는 급진적인 현상이다. 그녀는 미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기준을 폄하하면서 예쁘다는 것보다는 ‘수단’ 즉 능력이 새로운 미의 창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김유정 소설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천직인 농사를 포기시키고 다른 일을 하도록 종용하는 인물들이 되기도 하는데 들병이라는 직종도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아내들은 민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sup>21</sup>

아내는 한발 더 나아가 들병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된다는 능력 중심의 열린 의식으로까지 진화한다. 그녀의 미의식은 작품 처음 부분과는 매우 다르다. 예쁘지 않아서 남편이 걸어주는 말에도 감동을 받던 소극적인 여성이 더이상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그것

21 심재옥, 「김유정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김유정과 문학콘서트』, 소명출판사, 2020, 128쪽.

이 곧 적극적인 아름다움이 된다는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아름다움이 라는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의 소산임을 알게 되는 사회적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 작품 초반에 아름답지 못한 아내는 비사회적인 인물이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점점 사회적 자아로 발전해 간다. 급기야 들병이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고 남편에게 아리랑을 배우고 글자도 배운다. 그녀는 분을 바르면서 들병이가 반드시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화장을 통한 미의 대중화가 엿보이는 서사담론이자 미의식의 확산이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안해>에서 남편인 ‘나’는 삼강절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 자아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즉 아내의 능동적인 변화에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바야흐로 아내는 들병이가 되겠다고 주막에 가서 친구 몽태에게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르기에 이른다. 나는 아내가 애써 이룬 그간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에 당황하게 되고 아내를 사회적 존재로 내보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는 들병이의 성매매가 이전의 성매매와 구별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논의를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게 한다.<sup>22</sup> 결국 주인공 나는 아내를 사회적이고 근대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독려하지만 그 변화된 세계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다시 전근대적 위치로 되돌려서 삼강절 질서를 재구축하려는 구시대적 인물로 남는다. 아내의 사회적 진출은 남편에 의해 다시 타자화되고 있다.

<안해>에서 남편은 변화해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 나의 아내의 가치가 단순히 보여지는 외모의 ‘예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생산하는 데 있다고 스스로를 자위한다. 나는 “이년이 뱃속에 일천 오백 원을 지나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따져도

<sup>22</sup> 이태숙,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과 여성의 신체」, 『여성문학연구』 4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42쪽.

나 보담은 낫지 않은가.”(340)라고 갈무리하고 그녀에게 들병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녀가 들병이를 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작품 <안해> 초입에서 자기의 아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매우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작품 말미에는 능력을 얻어가면서 자신의 미의식과 자의식을 성취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 근대 여성의 미의식의 형성이 자의식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고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안해>에서 등장하는 들병이라는 직업군은 농민들이 유랑하기 시작하는 일제강점기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성매매와는 다른 근대성의 산물이라고 평가된다. 몰락해가는 농촌과 화폐 경제의 확산이 낳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교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남성 즉 농부의 신체가 아니라 그의 아내의 신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sup>23</sup>

반면,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서 조지아나는 과학이라는 근대의 산물에 의해 고쳐질 수 있는 타자적 여성성으로 그려진다. 더 나아가 조지아나 스스로 자신의 미의식을 혐오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른다. 김유정의 <안해>에서 아내와 남편은 함께 소리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한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서 조지아나는 실험실에서 자신의 남편 에일머의 실험노트를 보면서 남편의 연구에 깊은 감동에 느낀다. 급기야 조지아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점을 제거 하고 싶다고 말하며 남편인 에일머가 그 반점을 잘 제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에일머는 안전하게 반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조지아나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점을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이는 김유정의 <안해>에서 부부가 함께 소리를 하면서 부인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획일화된 미의식을 극복하면

<sup>23</sup> 이태숙,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과 여성의 신체」, 『김유정 문학의 감정미학』, 소명출판사, 2018, 248-250쪽.



서 사회적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실험실에서 남편의 연구 노트를 보면서 오히려 남편의 왜곡된 미의식에 더 깊게 연루되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타자화에 이른다.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반점>에서 과학을 실행하는 주체가 남자의 시선이라는 점이다. 예일머는 인간이 가지는 개인적인 욕망을 공통적인 요소로 확대하였고 조지아나는 그의 논점에 동화되어 합리화시키면서 단지 타자적인 미적 이미지로만 남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sup>24</sup>

김유정의 <안해>에서 부부는 소리를 배우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을 통해 남편인 나는 부인이 주장하는 아름다움의 담론에 동화되어 간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른다. “짐짓 이빠졌다, 하고 나서도 능청을 좀 부리면 년이 좋아서 요새 분패를 자주 밀었으니까 좀 나졌겠지, 하고 들병이는 뭐 그렇게까지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구구히 설명을 늘어 놓는다. 경을 칠 년, 계집은 얼굴 밍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모양이다.”(337)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편은 부인의 변화된 모습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 들병이가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작품 초반에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했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들병이가 되기 위해 각종 모험을 시도하기도 한다. 담배 피우기와 술 팔기 등 들병이와 관련된 일들을 모두 해보는 과정에서 아내는 동네 뭉태의 꼬임으로 술을 마신다.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는 아내와 뭉태를 혼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부인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남편은 술에 취한 부인을 업고 돌아오면서 “국으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 성히 있다가 연해 자식이나 쏘아라. 뭐 많지도 말고 굴뚝 같은 아들로만 한 열 다섯이면 족하지. 가만

<sup>24</sup> 박양근,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에 나타난 과학의 이원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301쪽.

있자, 한 놈이 일년에 벼 열 섬씩만 번다면 열 다섯 놈이니까 일백 오십 섬. 한 섬에 더도 말고 십 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일천 오백 원, 일천 오백 원, 사실 일천 오백 원이면 어이구 이걸 참 너무 많구나.”(340)라고 진술한다. 아내의 미적 담론에 동화되어 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내의 전도된 미적 질서가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려진다. 따라서 아내의 가치를 아이를 낳는 것에 한정하고자 하는 전근대적 회귀방식을 보이면서 다시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있다.

<안해>의 부부가 소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서도 조지아나와 에일머는 실험실에서 부부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지아나는 <안해>의 여주인공과는 다르게 자신의 미의식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남편 에일머의 편향된 미적 질서로 편입되는 왜곡된 양상을 보인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 제발, 제발, 그걸 다시 보지 말아줘요! 당신이 경련이 일 듯 몸서리치던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80)라고 말하면서 남편보다 더 강렬하게 자신의 얼굴에 있는 반점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기에 이른다. 한때 조지아나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반점이 현재의 그녀에게는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남편이 이끄는 실험실에 도착한 조지아나는 급기야 기절하고 만다. 그녀에게 반점을 제거한다는 것은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에일머는 온갖 과학 서적을 탐독해서 아내의 반점을 제거할 물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한다. 에일머는 아내에게 약을 먹이고, “이제 그 모습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군. 성공이다! 성공이야! 이제 아주 연한 장밋빛 같구나. 뺨이 조금만치라도 홍조를 띠면 완전히 감추어버리겠군. 하지만 얼굴이 왜 저리 창백하지?”(87)라고 말한다. 그 약을 먹은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게 된다. 조지아나는 그 약을 먹고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불쌍한 에일머....”(87)라고 말하면서 남편에 대한 연민

을 보여준다. 근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타자화된 여성성이 왜곡된 미의식과 연루되어 한 여성이 문화의 지층으로 사라지는 것을 통해 너새니얼 호손은 당시 만연하는 인종 문제와 과학 만능주의와 과학 계몽주의와 젠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 여성의 미의식과 과학과 자의식의 문제 등을 통해 김유정과 너새니얼 호손은 인간 존재의 이면을 탐구하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 5. 나오며

본 연구는 그간 비교문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김유정 문학을 새롭게 읽어 가는 외연 확장의 시도였다. 김유정이 그리는 여성의 특성은 한국문학 안에서 매우 독특하다. 순박하면서도 고집이 있고 당찬 한국적 여성상이다. <안해>의 주인공 역시 순박하고 당차고 능동적이다. 그러나 매우 못생겼다는 특징이 있다. 김유정의 작품에는 유독 예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라는 이분화된 사유가 자주 드러나곤 한다. 작품 <산골>에는 ‘예쁜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예쁜이는 주인집 도련님을 사모하지만 서울로 간 도련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심지어 편지를 쓸 수조차 없는 문맹의 처녀이다. 그러나 <안해>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못생겼다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스스로 노래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는 능동적인 인물이다. 본고는 김유정의 여성 그리기를 미국의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속의 조지아나와 연결시켜 근대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구촌화된 현대사회에서 특정 선후 영향 관계의 비교문학만을 논한다는 것이 어쩌면 연구의 폭을 좁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문학에서 국경의 의미가 매우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년 전 우리나라

에서 외국 문학을 접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유정의 작품이 가지는 근대성과 향토성은 서양의 근대성과 향토성이라는 비교문학적 층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이다. 그러나, 김유정을 보다 생산적인 텍스트로 읽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고 받은 직접적인 선후 관계의 비교문학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각 문화권마다 근대화의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고 향토성의 양상도 다르다. 따라서 근대화와 관련된 여성성의 재현 양상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나라들의 특성을 주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통해 비교문학의 다양성과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유정의 도시소설, 김유정 소설의 놀이성, 김유정 소설의 축제성, 김유정 소설의 여성성, 김유정 소설의 근대와 로맨스, 김유정 소설의 향토성 등 다양한 주제적 층위를 설정해서 외국의 근대 문학과 연계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제학적 상호 비교는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문학의 변화를 사회현상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읽게 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경미, 「들병이와 유사가족 공동체 담론 - 김유정의 소설을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6, 우리 문학회, 2020.
- 권장규, 「토지로부터 분리된 농민과 투기자본주의 주체 사이-김유정 소설의 탈주하는 하층민들」, 『인 문과학연구』 5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_\_\_\_\_, 「가부장 권력과 화폐 권력의 결탁과 경합: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2, 한 국여성문학학회, 2017.
- 김근호, 「김유정 농촌 소설에서 화자의 수사적 역능」,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 김미현, 「송고의 탈경계성-김유정 소설의 “아내 팔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 김유정, 전신재 엮음,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12.
- 김유정학회, 『김유정 문학 콘서트』, 소명출판, 2020.
- \_\_\_\_\_, 『김유정 문학 다시 읽기』, 소명출판, 2019.
- \_\_\_\_\_, 『김유정 문학의 감정미학』, 소명출판, 2018.
- \_\_\_\_\_,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출판, 2017.
- 김윤상, 「근대의 이념적 지표들과 원직적 의미」, 『제13회 김유정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김유정문학 회, 2021.
- 너새니얼 호손 · 천승걸 옮김, 『너새니얼 호손 단편선』, 민음사, 2012.
- 데릭 젠슨 · 이현정 옮김, 『혐오와 문명』, 아고라, 2020.
- 박양근,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에 나타난 과학의 이원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부경대학교 인 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 서세립, 「이상 문학에 나타난 ‘안해’의 의미 고찰」,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2016.
- 신재원, 「김유정 소설의 가부장적 질서와 폭력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75, 국어국문학, 2016.
- 심재옥, 「김유정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 연구」, 『김유정과 문학콘서트』, 소명출판사, 2020.
- 아슈만 토마르, 「김유정과 브렘잔드 소설의 여성상 비교 연구 - ‘매춘’의 양상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167-198쪽.
- 양문규, 「김유정과 리얼리즘, 바흐친, 탈식민주의」, 『김유정과 문학 콘서트』, 소명출판, 2020.
- 오택호,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연민의 서사’ 연구」,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 2018.
- 유인순, 『김유정을 찾아 가는 길』, 솔과학, 2003.
- \_\_\_\_\_, 『정전 김유정 전집1,2』, 소명출판, 2021.
- 이 경,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친밀성의 거래와 여성주체」, 『여성학연구』 28-2, 부산대학교 여성연 구소, 2018.
- 이만영, 「김유정의 ‘귀여운 소녀’번역 저본의 발굴과 그 의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출판.
-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사상사, 2007.
- 이태숙, 「김유정 소설의 근대성과 여서의 신체」, 『김유정 문학의 감정미학』, 소명출판사, 2018.

- 장경옥,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 나타난 미국의 이상주의 비판」, 『영어영문학연구』 29-2, 대한영어영문학회, 2003.
- 전신제 외, 『김유정 문학과 문화충돌』, 소명출판, 2021.
- 정의진, 「김유정 문학의 한국적 근대성 - 프랑스 지역주의 문학과와의 비교연구 시론」, 『제13회 김유정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김유정문학회, 2021.
- 제러미 윌드론 · 홍성수 · 이소영 옮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 조비, 「1930년대 한, 중매춘 모티프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가정서사 비교 연구 - 「소낙비」와 「노예가 된 어머니」를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춘원연구학회, 2019, 131-157쪽.
- 주영하 외,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 차희정,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한탕주의 욕망의 실제」,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 천연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에 나타난 “좀 더 심오한 지혜”」, 『영어영문학연구』 37-2, 대한영어영문학회, 2011.
- 최배은, 「김유정의 <두포전>과 동아시아아기장수 설화」, 『김유정과 문학 콘서트』, 소명출판, 2020.
- 한상무, 「고상한 여성상/타락한 여성상: 김유정의 두 작품에 그려진 여성상」, 『어문학보』 33,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13.
- 한우리, 「너새니얼 호손의 반점 에 나타난 인종, 젠더, 국가」, 『미국학논집』 5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21.
- 홍기돈, 「김유정 소설의 아나키즘 면모 연구-원시적 인물 유형과 들병이 등장 작품을 중심으로」, 『김유정 문학과 문화충돌』, 소명출판사, 2021.

## A Study on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Ambivalence of Modern Aesthetics and the Femininity of Otherness

Focusing on “The Birthmark” by Nathaniel Hawthorne and  
“Anhae(Wife)” by Kim Yu-jeong

Pyo, Jung-ok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femininity of Nathaniel Hawthorne, a representative American writer in the 19th century in 1843, and Kim Yu-jeong's short novel “Anhae(Wife)”, a representative Korean writer in the 20th century in the 1930s. In terms of women's aesthetic consciousness, it can be seen that Kim Yu-jeong's work also features very ambivalent feelings for female character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compare the aesthetic femininity shown in “Anhae” among Kim Yoo-jung's works related to women's beauty with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women in Nathaniel Hawthorne's “The Birthmark”. Nathaniel Hawthorne's work “The Birthmark” is a ridiculous story that causes a scientist who was pursuing perfectionism to die while trying to remove the red spots on his wife's face. Through Nathaniel Hawthorne's “The Birthmark” as a modern science discourse in the 19th century and Kim Yu-jeong's “Anhae” as a modern discourse in the 20th century, I would like to compare the conflict of aesthetics, ambivalence, and otherness from a thematic level. Through this, we will look into the microscopic viewpoint in its meaning as to how the discourse of modernity, science, and economic capital affects women's self-forming and aesthetic consciousness. The heroine of Nathaniel Hawthorne's “The Birthmark” unfortunately lost her life while trying to remove the spots according to her husband's will. However, Kim Yu-jeong's wife of “Anhae” has an ugly face, but she recovers her aesthetic self-esteem by enhancing her ability. Through the works of Hawthorne and Kim Yu-jeong, who show somewhat different discourses on women's beauty under the influence of science and capital in the space of modernity, I would like to gauge the new comparative literary possibility of Kim Yu-jeong's research.

**Key-words :** Kim Yu-jeong, Nathaniel Hawthorne, The ambivalence, Modern aesthetics,  
The femininity, Otherness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비교한국학』 리뷰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에 대한 서평  
선민서



#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에 대한 서평

선민서\*

1. 들어가며
2. 관성적 근대한국학 패러다임의 재구성
3.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과 인문학적 해석의 불충분
4. 나가며

##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한국학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어온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의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을 통해 최근의 디지털 인문학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해보고자 했다. 본서에 구현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로 첫째, 근대한국학 하위 개념의 해체와 재구축, 둘째, 근대한국학 연구 영역의 확장 가능성 시사, 셋째,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확대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한계로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에 따른 이른바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인문학적 해석의 불충분에 따른 한계로 즉 ‘과잉 해석되거나 방치된 데이터’의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향후 디지털 정보기술을 발달시키고 단기간에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연구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문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  
근대한국학, 디지털 인문학,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 1. 들어가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근래의 인문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이른바 “디지털적 전환”이라<sup>1</sup> 명명되기도 한다. 1980년대에는 글쓰기의 도구가 컴퓨터로 변화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문학 정보 지식 검색 환경이 인터넷으로 보편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공립 학술기관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히려 연구자들이 디지털 연구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있다는 시각 역시 일각에서 제출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9년 8월 29일에 인문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이하 지공연)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을 발표하며 DBpia, KISS와 같은 상업 플랫폼의 논문 원문 과점, 한국연구재단 지원 데이터베이스의 낙후성, 국가 기관과 사설 업체 주도의 인문학 자료 디지털화를 문제 삼았다. “연구자의 주체성이 소외”되고 “학술 공공성”이 침해 받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지공연은 이른바 ‘Open Access 운동’을 역설했다. 2020년 7월 8일에는 몇몇 연구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술지식정보 유통의 정상화와 학술정책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sup>2</sup>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1년 7월 22일에는 지공연이 주최하고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간행실,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자의집이 후원하는 심포지엄과 정기총회가 진행되기도 했다.<sup>3</sup> 2021년을 기점으로 지공연에 연대의사를 표명한 학회만 해도 36개에

<sup>1</sup> 김지선·장문석·류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372쪽.

<sup>2</sup> 출처: 김한나, 「지식공유연대 “지식 공공성 위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대학지성 In&Out》, 2020.7.9.,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 검색일: 2022.3.19.

이른다. 지공연은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과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을 창립 목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공연의 활동을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대중의 관심이나 필요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동떨어진 연구자 집단 내부의 문제로 느껴질 우려가 있다. 학술저널의 논문들이 대중을 독자로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각종 연구 자료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공연의 최근 활동은 우리나라의 인문학계를 더 이상 디지털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와 같다. 인문학의 디지털화 문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화두는 전통적인 인문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마저 피해갈 수 없는 추세다. 오늘날까지 디지털 인문학은 전산통계, 컴퓨터과학공학, 사회과학, 전산언어학, 문헌정보학, 문화콘텐츠학, 인문콘텐츠학, 박물관학, 역사지리학과 같은 학문 분과들에 기초해 발전해왔지만<sup>4</sup>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전공의 목록은 이상에서 서술한 것보다 더 많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과 정보기술(학)이 결합해 탄생한 융합학문<sup>5</sup> 혹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문학<sup>6</sup>으로 인식된다.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할 인문학의 미래”라<sup>7</sup> 지칭되기도 했던 만큼 오히

3 출처: 지식공유연대, 「2021년 지식공유연대 심포지엄과 정기 총회(210723 @서울대 중앙도서관)」, 『지식공유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2021.7.22., <<https://knowledgecommoning.org/notice?uid=19&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2.3.19.

4 류인테,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91쪽.

5 김바로, 「해의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 인문콘텐츠학회, 2014, 230쪽.

6 김현, 「디지털 인문학-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인문콘텐츠학회, 2013, 9-26쪽(정유경,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2020, 312쪽에서 재인용).

7 김바로, 앞의 글, 230쪽.

러 전통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더 환대를 받기도 했다. 예컨대 “디지털 혁명은 위기이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기회”라고<sup>8</sup> 말했던 고전문학자 김홍규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연구를 위한 물리적 장애와 시간적 제약의 타파”와<sup>9</sup> “연구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포기했던 학문적 접근”<sup>10</sup>의 가능성 향상을 들어 연구 현장에서의 디지털 혁명을 지지했다.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이 전공영역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심화해준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별 학문 영역의 고립을 막아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며,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디지털 인문학의 장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sup>11</sup>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디지털 인문학을 둘러싼 우려가 존재한다. 지공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자본에 디지털 인문학이 종속되리라는 비판론이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프로그래밍에 기반 한 디지털 형식의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얼마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sup>12</sup> 또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따른 결과들을 일부 연구기관들이 독점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연구자들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문학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연구기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 외에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에 미숙해 높은 진입장벽을 실감하는 학생들이나 기존 연구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과연 디지털 인문학이 정말 새로운 인문학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sup>13</sup> 그 전망에 대해 누구도 확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8 김홍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와 전망」, 『民族文化研究』 3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쪽.

9 위의 글, 4쪽.

10 위의 글, 5쪽.

11 김바로, 앞의 글, 230쪽.

12 류인태, 앞의 글, 371쪽.

13 김현·김바로, 「미국 인문학재단(NEH)의 디지털인문학 육성 사업」, 『인문콘텐츠』 34, 인문콘텐츠학회, 2014, 31쪽.

디지털 인문학의 정체성이 무엇이나는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순수 인문학과 인문학의 실용적 응용 중 어느 방면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디지털 인문학에 종사하게 될 연구자들이 떠안아야 할 숙명과도 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 인문학이 경제적 가치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특유의 비판적 성찰을 동반한다는 자부심을 일부 연구자들은 표명하고 있다.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은 디지털 인문학 분야가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발달한 미국과 같은 해외의 사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현과 김바로에 의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듯이, 미국은 디지털 인문학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미국 인문학재단(NEH)의 디지털인문학단(ODH, Office of Digital Humanities)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유형만 해도 5가지에 이른다.<sup>14</sup> 미국 디지털 인문학 발전 양상에서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의 전 과정이 인문학 연구자들의 주도로 진행”<sup>15</sup>되거나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운용 또한 인문학자들 스스로 담당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는 점, “개인 연구보다는 공동 연구를 지향”하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소통을 강조하여 연구 과정에서의 학제 간 공동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의 완전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침 등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가 연구팀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성과물을 “논문, 보고서, 단행본과 같은 종이 저작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성과물로 간주하며 디지털 상에서 공유”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sup>16</sup> 해외에서의 디지털 인문학 분야

14 위의 글, 29-30쪽. 디지털 인문학 경험이 없는 인문학연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의 습득을 돕는 ‘디지털인문학 초기 조성 지원금’,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을 돕는 ‘디지털인문학 실행 지원금’, 디지털 인문학을 교육하고 전파하도록 장려하는 ‘디지털인문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금’, 빅데이터의 인문학적 활용을 격려하는 ‘인문학 빅데이터 분석 챌린지’, 미국과 독일의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NEH/DFG 디지털인문학 협력 프로그램’이 그에 해당한다.

15 위의 글, 30쪽.

16 김바로, 앞의 글, 229-254쪽.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은 아시아에서 비교적 선진적으로 디지털



의 발달에 부응해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역시 “디지털 인문학 교육 및 연구 프로젝트”<sup>17</sup>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소개할 연세 근대한국학HK+ 디지털한국학총서의 제1권으로 출간된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sup>18</sup>(이하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은 디지털 인문학이 형성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연구 사례라 할 수 있다. 본서의 저술을 주도한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국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온 연구 기관이다.<sup>19</sup>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에서 인문학적 문제의식에 기초해 정량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저작이다. 본서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량적 방법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필자라도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개인의 직관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그리고 연구자 사이의 협력을 통해 분석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본고는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에 실린 글들을 살펴봄에 디지털 인문학의 현주소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인문학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해외의 경향을 따라가는 단계인 일본이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른 중국의 사례는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 17 김현중, 「[서평]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 디지털인문학의 도입점이 되다」, 『인문과학연구』 23,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6쪽.
- 18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저,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 이태훈·정유경 편, 소명출판, 2020.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맥락상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기하겠다.
- 19 근대한국학연구소는 ‘<글로벌 디지털 인문학 강좌> ‘파이썬’으로 배우는 디지털 인문학’(2018.6.2 7.-7.17.) 대중강좌 진행했으며 본서의 출간에 앞서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 한국학의 미래: 근대한국학DB의 효과적 구축과 활용방안>(2018.7.6.-7.)과 <디지털 인문학으로 본 근대 한국학>(2019.7. 4.)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출처: 인문한국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hk.nrf.re.kr/popupdata/popupMain.do?NCODE=L\\_000000055&pop\\_gubn=7&VIEWIDX=64328&view\\_call=Y](https://hk.nrf.re.kr/popupdata/popupMain.do?NCODE=L_000000055&pop_gubn=7&VIEWIDX=64328&view_call=Y)>, 검색일: 2022.3.19.)

## 2. 관성적 근대한국학 패러다임의 재구성

본서에 제시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 수행의 성과로 첫째, 조선학/한국학 하위 개념 재구축에 기여, 둘째 해당 분야 연구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암시, 셋째 오늘날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1) 하위 개념의 해체와 재구축

먼저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은 한국사와 한국문학 분과의 관성적인 학적 지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에서 논의되는 개념사와 담론사를 탐구축하는 데 본서가 기여한 바가 크다. 예컨대 애국계몽기부터 식민지시기에 이르는 기간에 사용된 역사적 개념의 용례를 검토하고 분석한 허수의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 개념을 둘러싼 학적 지식을 재구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20-1933년에는 제국주의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이러한 현상이 개조론의 세 갈래의 담론과 연결된다는(37쪽)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정신-물질’의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주의’, 유물론에 기반 한 ‘사회주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구미 주도의 국제 질서와 민주주의 정치원리”에는(39쪽) 호의적인 “민주주의”, 이상의 세 담론과 제국주의가 결부되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 시기에는 검열의 상흔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제시되어있다. 예컨대 “XX제국주의”와(40쪽) 같이 복자로 된 표현들이 등장한다. “일본을 ‘제국주의’로 발화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는 식민지 검열체계 작동 공간의 안팎을 가르는 경계와 조응”한다고(41쪽) 저자는 설명한

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후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의가 있다.<sup>20</sup> 또한 저자는 제국주의 단어의 용례가 확산되는 양상을 레닌주의의 유입과 연관해 고찰하기도 한다. 특히 레닌주의가 전파되고 수용된 1925년부터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독점단계”(44쪽)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에 해당한다. 1924년에 출간된 「중요술어사전」의 편집자는 『개벽』의 학예부장이자 카프문인이었던 박영희지만, 1925년의 레닌주의 수용 이전의 사전에서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나 ‘열강’과 같은 단어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레닌주의의 유입에 따라 제국주의 단어의 용례가 변화하는 양상이 정량적 방법론을 통해 새롭게 포착된 것이다. 식민지시기 지식인이었던 박영희의 사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또한 본서는 한국사학계에서 논의되는 담론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지적 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근대 역사학의 지적 담론의 양상을 애국계몽기를 중심으로 파악한 홍정완의 「근대전환기 한국학 지형 다시 읽기-신문·잡지의 한국 역사·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는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적 계보를 탐색할 수 있게 만든다. 저자는 이 연구를 위해 1890년대 후반에서 1910년대 강제병합에 이르는 근대전환기 신문·잡지에 실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계량적으로 검토하여 근대한국학 형성을 둘러싼 지식 지형 파악하고(299쪽) 근대한국학 형성의 지적 지형, 지식체계, 지적 계보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객관화된 이해 도모하고(302쪽) 있다. 연구 결과 근대전환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에는 첫째, 대외항쟁의 역사를 강조하는 경향, 둘째, 유교적 입장의 근대 개혁론, 즉 ‘변법론’에 입각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

20 이재연·정유경,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새로운 검열연구를 위한 길마중」, 『大東文化研究』 11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319-320쪽.

를 파악하는 양상, 셋째, 1907년 이후에 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 분석된다. 기존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식민지시기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지적 담론에도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계보의 형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식민지시기의 최남선, 안학 대 해외 민족해방운동론자들 사이의 대립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저자는 논한다. 반면에 이 연구는 그에 앞선 애국계몽기의 장지연의 근대개혁론 대 신채호의 정통론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계보 형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예로 근대 역사서술의 특징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사학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한 심희찬의 「근대전환기 신문·잡지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한국사 담론의 초기구축과정 재론」 역시 당대의 지적 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심희찬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우》 등 근대잡지 15종에서 한국사 관련 텍스트를 선별해 주제어와 레퍼런스를 추출한 통계를 이용해 근대전환기 한국사 서술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저자는 레퍼런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인들에 대한 담론적 분석을 새롭게 수행한다. 기존의 학계에서 장지연의 경우 정략용을 재발견하며 실학을 강조하는 등 유교적 근대개혁론을 주창한 인물로 일컬어졌지만, 그가 ‘강역’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중국과의 대립을 의식해 일본의 사서를 참고하며 일제의 근대주의 역사의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는 점이 검토된다. 또한 저자는 신채호의 「대동고사」에서 한국사 서술 양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414쪽) 점을 논구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해 강역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한계점에 봉착한 시기에 신채호는 정통론에 입각해 국가의 강역을 확장하는 역사서술을 행했다. 또한 신채호와 마찬가지로 《서우》, 《서북학회월보》의 필진 박은식이나 《대한협회회보》의 필진 장지연에게서도 한국사 담론을 자신들 목적에 맞춰 전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글은 기존

학계에서 애국계몽기의 담론장을 장지연 대 신채호 식의 대립적 구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둘 사이의 공통성을 탐구한 예에 해당한다. 이들의 역사서술은 유교적 근대개혁론 대 민족정통론 수립과 같은 프레임만으로는 정확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애국계몽기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의 역사서술의 공통점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사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근대전환기의 대표 신문인 《황성신문》 전체 기사로부터 제작된 조선 역사문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신문의 필자들이 조선에 관한 어떤 소재에 관심을 보였는지, 시기와 주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조형열의 『『황성신문』이 주목한 조선의 역사문화-관심 소재의 정량적·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조선연구의 기반 검토』 역시 근대전환기 지식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근대전환기의 지식인들이 고려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은 정량적 분석 이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은 기사 건수를 차지한 역사 분야를 살펴보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용어는 고려였다. 고려가 이처럼 많이 추출될 것이라고 정량적 분석을 시도해보기 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고려가 강역 연구 등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어떤 한 기사가 고려를 집중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고려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조선 역사의 전체적 개괄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라는 역사적 왕조가 외부와의 항쟁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받았던 사례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대와 조선을 잇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사’의 일부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의 시원에 대한 논의는 강점 직전에 보다 분명한 형태로 등장하지만, 민족사의 전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190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인용되었던 것이다.(358-359쪽)

저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근대전환기, 특히 애국계몽운동기의 역사서술

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식민주의 전파에 따른 경쟁구도로 인해 1910년 이후 한국학이 분화되었다는 인식이 학계의 정론인 상황에서 저자는 한국학 발흥기부터 이미 지식담론장에 분화는 나타났다고(374쪽) 분석한다. 정량적 연구를 통해 기존 학계의 관습적 인식에서 탈피하게 된 것은 본서의 성과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홍정완과 심희찬 그리고 조형열의 연구는 서로 상이한 조사를 행하고 있으나 근대전환기의 지식장을 새롭게 살펴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서는 한국문학계에서 논의되는 문학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근대에 연구된 고전문학사적 지식을 의문에 부치고 작품의 계열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최운호·김동건의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한 <토끼전> 이본 연구」는 통념적이지 않은 새로운 문학사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양적 방법론에 토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어왔고 저자들 역시 다수의 정량적 방법을 동원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바 있다.<sup>21</sup> 이 글에서 저자들은 『토끼전 전집』에 수록된 60여종의 이본을 연구한 결과로 군집에 따라 계열 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립 이본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한다. 개별 작품들 사이의 미시적인 차이를 살피고, 계열 구분에서 계산에 의한 객관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내용 유형에 따른 이본의 분화 양상을 고찰할 수 있게 된 것이 새로운

21 김동건·최운호,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방안, 그리고 전망」, 『판소리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최운호·유현조·김주원, 「The Documentation of Endangered Altaic Languages and the Creation of a Digital Archive to Safeguard Linguistic D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7, 국립민속박물관, 2012; 최운호·김동진, 「「춘향가」 서두 단락의 어휘 사용 유사도를 이용한 판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0(4),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최운호·김동진, 「「십장가」 대목의 어휘 사용 유사도와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한 판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0(5),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최운호·김동진,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2(7),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결실이다.

다른 예로 현대문학과 관련해 정설로 여겨졌던 비평사적 지식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연의 「『생활』과 ‘태도’-『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근대의 비평 담론에 대한 신선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비평사 수립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자는 식민지시기 문단에서 카프문인을 비롯한 당대 문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생활’의 공기어를 탐색함으로써 해당 비평어의 당대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저자는 관행적인 암기의 대상이었던 비평적 개념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고 그것이 식민지 문학장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논구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언어학적 정량분석 방식을 활용해 전업 비평가 훈련을 받지 못했던 『개벽』과 『조선문단』의 작가·비평가들의 작품 비평 양상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생활’이라는 비평어가 비평담론 안에서 메타비평적으로 사용되며 “주인공의 성격, 심리, 사건을 표현한 방식의 기술보다는”(179쪽), 그를 “궁핍하게 만든 사회경제적 원인을 역사적 관점으로 원경화”하고 작품평보다 비평담론 영역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문단』에서 자주 사용된 ‘태도’와 같은 비평어는 다소 다른 함의를 지닌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예컨대 염상섭의 경우, 비평의 주관성과 객관성, 문학에 있어서 힘의 의미, 소설에서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 등을 평하기 위해 해당 비평어를 사용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비평어로서의 ‘태도’가 “작품 전반에 대해 취하는 작가의 태도”나(166쪽) “주인공을 대하는 작가의 입장”(167쪽),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는 주인공의 자세”와(168쪽) 같은 함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 김기진, 박영희 등과 같은 작가들이 작가이자 비평가로 변모해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133쪽) 논한다. 기존의 비평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비평어들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과거에 논의된 적이 없었던 비평어를 발굴한 것이 이 연구의 수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운호 · 김동건과 이재연의 연구는 각각 고전과 현대라는 다른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학사적 지식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문학 분과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 (2) 연구 영역의 확장 가능성 시사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의 성과는 한국사와 한국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본서는 한국사 연구 영역의 확장에 일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허수의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 ‘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는 근대의 역사적 개념의 용례를 검토하는 다른 연구들로 확장될 수 있다. 동일 저자가 「민중’, ‘문명’, ‘문화’와 같은 개념어들을 대상으로 개념사적 연구를 천착해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sup>22</sup> 이 책의 탐구 내용은 당대에 비중 있게 거론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고찰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홍정완의 「근대전환기 한국학 지형 다시 읽기-신문 · 잡지의 한국 역사 · 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와 심희찬의 「근대전환기 신문 · 잡지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한국사 담론의 초기구축과정 재론」은 근대에 출간된 매체에 수록된 지적 담론을 검토하는 담론사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홍정완과 심희찬의 연구가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이태에 걸쳐 공동작업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근대 전환기 주요 신문, 잡지를 광범위하게 전수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글들에서 분석되지 않은 매체에 대한 후속 연구 성과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전환기의 잡지에 나타난

22 허수,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6; 허수, 「언어연결망 분석으로 본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과 ‘문화’- 주요 언론 기사에서의 논의 맥락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2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8.



토픽들을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검토한 정유경의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분석법-『황성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에 나타나있듯이,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나타나는 토픽들을 고구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작자미상 상태로 남겨진 식민지시기 잡지의 저자를 추측하고 있는 최지명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역사 텍스트의 저자 판별-1920년대 『개벽』 잡지의 논설 텍스트」는 수많은 미상 상태로 남아있는 저자를 추정하고 판별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본서는 한국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최운호·김동건의 「컴퓨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한 <토끼전> 이본 연구」는 <토끼전>만이 아니라 다른 판소리계 소설들의 작품 계열을 구분하는 후속 연구들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특정 계열에 속하지 않는 <토끼전>의 독립적 이본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문학사에서 기존의 문학사적 지식에 따라 선명하게 계열화되기 어려운 독립적인 이본들에 대한 탐색이 계속될 수 있다. 또한 이재연의 「『생활』과 『태도』-『개벽』과 『조선문단』의 작품 비평어와 비평가」는 비평사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를 통해 현대문학사에서 기존에 논의된 적이 없었던 ‘태도’라는 새로운 비평적 개념이 발굴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평사적 연구의 영역 역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현대문학사에서 새롭게 발굴된 비평적 개념의 의의를 탐구하고 작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후속 연구를 촉발시킬 것이다.

### (3) 기존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확대

본서의 저자들은 근대한국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술을 선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학과 한국문학 외에도 문헌정보학

과 언어정보학 분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먼저 한국사학과 한국문학 분과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앞서 언급한 허수의 경우 ‘어휘 연결망 분석’을 방법론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제국’과 ‘제국주의’ 개념의 용례 추출을 위해 ‘워드스미스’를,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근대전환기의 지식담론장을 분석하는 데에 주력한 홍정완의 경우 비정형 텍스트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텍스트 마이닝과 달리 텍스트 정형화를 거치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황성신문』의 논설에 나타난 토픽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정유경의 「텍스트의 계량 분석을 활용한 근대전환기 신문의 시계열적 주제 분석법-『황성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는 구조적 토픽모델링과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을 방법론으로 터득해 텍스트 전처리에 코앰펠라이의 ‘파이썬’을, 구조적 토픽 모델링에 ‘R의 stm 라이브러리’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한 시각화에 ‘Gephi’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학 분과에서도 다양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고전문학 분과에서 <토끼전>의 이본을 탐색한 최운호·김동건의 경우 다차원 척도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 자료에 대한 코퍼스를 구축하고 인코딩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근대문학의 비평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 이재연의 연구는 인공지능경망에 따른 ‘공기어’ 분석을 방법론으로 차용하며 ‘워드투벡(Word2Vec)’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언어정보학 분과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최지명의 경우 『개벽』 잡지의 저자 판별을 위해 기계 학습의 ‘앙상블 모델’을 방법론으로 원용하고 있으며 ‘서포트벡터머신SVM’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문이나 한문 위주의 색인어 추출만 가능했던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국한문색인시스템을 개발한 정유경·반재유의 「국한문 혼용 텍스트 색인어 추출기법 연구-『시사충보』를 중심으로」의 경우 색인어 추출기법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 전처리에 데이터 가공 도구인 ‘brat’을, 형태소 분석에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단어 분할과 불용어 리스트 선정에 ‘bi-gram’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다소 결을 달리하지만, 법률정보의 효과적인 활용과 대중화를 위해 명예훼손 판례 데이터를 분석한 김용환의 「법률정보시스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적용 방안-명예훼손 판례를 대상으로」는 텍스트 마이닝을 방법론으로 차용하며 판례 데이터 크롤링 저장에 ‘Selenium기반의 자체 제작한 Python 프로그램’을, 데이터 전처리에 ‘꼬꼬마형태소 분석기’와 ‘코모란 형태소 분석기’를, 동시 출현 네트워크의 구축과 적용에 ‘Pathfinder Network (PFNet) 기법’을,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해 핵심노드를 구분하는 Centrality 기법과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커뮤니티 식별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Modularity 기법에 기초한 ‘Gephi’를 활용하고 있다.

본서에서 소개된 모든 디지털 정보기술을 소개한 것이 아님에도 다양한 방법론과 프로그램이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의 필자들은 기존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했고 심지어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 3.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과 인문학적 해석의 불충분

#### (1)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을 통해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현실점에서의 한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서에 제시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한계를 크게 디지털 정보기술과 인문학적 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현행 디지털 정보기술의 한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 이른바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문학적 해석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과잉 해석하는, 이른바 ‘데이터 과잉 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충분히 해석하지 않는, 즉 ‘데이터 방치’ 문제 역시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현행 디지털 정보기술의 한계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 즉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의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현재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언제든 현행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이지만 그것을 분석할 수 없는 사례가 돌출할 수 있다. 예컨대 근대전환기 신문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당대에 다루어진 주요 주제들을 발굴한 정유경의 연구에서는 2음절 이상의 단어들만 토픽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저자는 불용어와 마찬가지로 “빈도 기반의 계량적 텍스트 분석의 경우, 단어의 길이 또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한 글자로 된 단어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383쪽) 설명한다. 그 결과 “국가, 인민, 아국, 사회, 경제, 동포, 사업, 지식, 성질, 일본, 무죄”와 (385쪽) 같이 2음절 이상의 단어들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1음절로 된 단어들이 토픽 대상에서 배제된 결과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근대한국학에서 정(情)이나 육(育), 혹은 한(恨)과 같은 1음절 단어들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이들 개념의 연원을 파악하는 것이 근대한국학의 지식 담론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자체의 영구적인 한계라기보다는 현시점

에 나타난 기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추후의 정보기술 발달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2) 과잉 해석되거나 방치된 데이터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에 따른 한계 외에도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과잉 해석하는, 이른바 ‘데이터 과잉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양적 방법론을 동원해 산출된 데이터를 해석하고자 할 경우 연구자 개인이 모든 질적 맥락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특정 데이터를 편향되게 해석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제국’과 ‘제국주의’ 개념을 사건사만이 아니라 구조사적 관점에서도 고찰한 허수의 글에서는 염상섭의 소설 「남충서」에 나타나는 한 구절이 다소 과장되어 해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저자는 「남충서」의 작중인물인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혈 태생인 남충서가 제국대학 출신이라고 서술된 이유를 작가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 결여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수한 것으로 묘사하는 일부 구절에만 주목하면 마치 염상섭의 소설이 제국주의와 학력주의를 표방하고 전파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해석이 요청된다. 실제로 「남충서」의 후반부에서 남충서가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제국대학 출신이라는 묘사는 일본 제국주의와 학력주의를 도리어 전복적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효과를 산출한다. “스물일곱살이 되고 동경까지 가서 제국대학 경제과를 마치고 나와서 장가까지 들고 훌륭한 청년 신사가 된 것이다”라는<sup>23</sup> 서술은 남충서 자신의 “민족의 전통이란 …(중략)… 핏속에 요약되어 흐르는 것이다. 모든 진리가 뒤집혀도 그것만은 영원한 비밀이요 또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사실

<sup>23</sup> 염상섭, 「남충서(하편)」, 『동광』 10, 1927.2, 73쪽.

이다. ……모든 대관절 사람이 민족을 떠나서 살 날이 있을까?”<sup>24</sup>라고 생각하며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정신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 소설에서 남충서는 일본인 어머니인 미좌서와의 논쟁을 거쳐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 운동 단체 P·P단의 재정을 전담하며 하는 인물이다. 요컨대 「남충서」는 내선결혼을 장려하며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 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했던 일제의 식민권력에 염상섭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독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염상섭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가 일제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적 사고에 결코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취할 수 있다. 특정 구절만이 아니라 소설의 전체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특이한 데이터의 해석 문제는 문학 분과 전공자나 다른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과 같은 공동 연구를 통해, 혹은 질적 맥락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충분히 해석하지 않는 ‘데이터 방치’의 문제도 주의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특성상 기존의 인문학적 방법론을 따른 연구들에 비해 정성적 방법론의 중요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연구자가 자료를 데이터화해 양적 방법론을 통해 특징을 검출한 이후 질적 맥락에서 검토해 해석하지 않은 채 제시하기만 하는 연구의 관행이 확립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미 디지털 정보기술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질적 방법론을 동원해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채 제시하기만 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은 정량적 방법

<sup>24</sup> 위의 글, 82쪽. 현대어 문법에 맞게 인용자가 원문을 수정했다.

론과 정성적 방법론의 종합을 통해 심화된 인문학적 사유가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질적 방법론에 따른 해석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관례가 생기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질적 맥락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운호와 김동건의 말을 강조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작품의 내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비교 연구에는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품의 외적 요인은 이러한 연구 방법론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구자의 해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212쪽)

양적 방법론에 따른 연구를 질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점에서 연구자들의 제안은 합당하다. 다만 저자들은 그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텍스트에 본인들의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근대 전환기 신문의 주제들을 분석한 정유경의 연구에서도 데이터 중 일부가 충분히 해석되지 않은 채 제시되기만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저자는 당대 자료에 나타나는 공기어를 분석해 교육 관련 토픽이 빈출하므로 향후 조사 결과를 한말 교육 사상의 맥락에서 탐구 가능(396쪽)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정작 해석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저자들이나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이라 기대한다.

학제 간 연구가 보편화되고 협업에 토대한 공동연구가 용이해지는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특히 양적 방법론에 토대한 연구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특성상 단기간에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연구자들이 벗어나야만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종합한 양질의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 나가며

디지털 인문학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들에 대한 메타적 연구까지 서지학적 방법론을 동원해 제출되고 있다. 근래에는 디지털 인문학이 광범위하게 여겨지니 그 “지적 구조”가<sup>25</sup> 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별도의 연구까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정은경은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을 크게 인문학, 정보기술, 융합적 계열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sup>26</sup> 그 연구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들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기술 계열이다. 최근 2년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상위 군집 61개 중 상위 16개에 해당하는 분야 중에 인문학과 연관된 키워드는 ‘교육학’, ‘문체’, ‘문화유산’, ‘윤리’ 정도에 불과하고, ‘기계학습’, ‘메타데이터’, ‘토픽모델링’,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기술과 연관된 군집은 상위권에 상당수 포진해있다는 분석의 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sup>27</sup> 정보기술 계열 논문의 증가는 융합적 지식을 창출하지 못한 채 디지털 인문학이 역설적으로 인문학과 단절된 부정적인 사례로 혹은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이 발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인문학 자체에 대한 메타연구의 출현은 새롭게 정착하기 시작한 신생 학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기대를 가늠케 한다.

기존의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개론서에서 관련 정보기술은 크게 디지털

<sup>25</sup> 정은경,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 Digital Hu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한국문헌정보학회, 2021, 394-413쪽.

<sup>26</sup> 위의 글, 407쪽.

<sup>27</sup> 위의 글, 406쪽.



텍스트, 시각적 인문학, 인문지식 시멘틱웹, 디지털 아카이브의 네 범주로 분류되고 있지만,<sup>28</sup> 그에 속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명칭의 목록은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바야흐로 디지털 지식의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에도 능숙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을 인문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연구자들의 필수적인 소양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다.<sup>29</sup>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인문학적 글쓰기로 수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기술 발달의 차원이 아니며 문화 변동의 흐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sup>30</sup> Z세대의 유입을 비롯한 인문학의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 당연시된다. 그에 따라 최근의 대학 교양수업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을 교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sup>31</sup> 일부 연구자들은 대학원 이상 인문학 수업 현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읽기, 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태를 비판하며 지식 플랫폼인 위키에 글쓰기를 통해 인문지식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sup>32</sup>

오늘날 디지털 인문학은 학생, 연구원, 교수진, 상업플랫폼이나 연구재단 또는 국가기관이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자 등 사설업체 종사자 모두의 미래와 결부된 문제다. 그러나 2009년 5월에 발표된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이 마리네티의 미래파 선언문을 인용하며 다소 선동적인 어조로 쓰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요청은 정언명령에 가까운 일련의 당위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sup>33</sup> 그러나 사실명제와 당위명제가 반드시 일치하

28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2부(김현종, 「서평」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 디지털인문학의 도입점이 되다, 『인문과학연구』 23,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21쪽에서 재인용).

29 정현선, 「언어·문화·소통·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71-72쪽.

30 위의 글, 385쪽.

31 정기인·정상우, 「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수업 개발」, 『교양교육연구』 15(5),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26쪽.

32 김지선·장문석·류인태, 앞의 글, 371쪽.

지는 않으므로 결국 우리는 실제의 연구 성과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방향과 전망은 결국 그 연구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학 분야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어온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의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을 통해 최근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해보고자 했다.

본서의 연구가 다양한 분과 학문들 간의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디지털 지식의 공유를 주장하는 오픈엑세스 운동이 꼭 전통적인 종이매체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활자를 비교적 친숙하게 느끼는 독자들은 단행본의 출간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인문학 분야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의 주체들처럼 오픈엑세스 형태로 인문 지식의 완전한 디지털 공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지닌 독자일지라도 종이저작물의 형태로 출간된 본서의 거둔 성취를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에 나타난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성과로 첫째, 근대한국학 하위 개념의 해체와 재구축, 둘째, 근대한국학 연구 영역의 확장 가능성 시사, 셋째, 디지털 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 확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한 근대한국학 연구의 한계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미발달에 따른 이른바 ‘분석 불가능한 데이터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인문학적 해석의 불충분에 따른 ‘과잉 해석되거나 방치된 데이터’의 문제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디지털 정보

---

33 『The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2.0』(홍정욱,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61-73쪽). 홍정욱 논문의 ‘부록’에 「디지털인문학 선언문(Digital Humanities Manifesto) 한국어 번역」이 수록되어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단시일 안에 연구 성과를 제출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연구 환경이 변화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필진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크게 세 가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서의 발간 이후에도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지속하는 저자들에게 본서의 출간은 연구 방법을 정련하고 관심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전통적인 방법론에 따른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인문학과 공학 분야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저자 중 일부가 전통적 연구 방식으로 회귀한 사례 역시 있었다. 본서가 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디지털 정보기술에 능숙한 연구자들과의 협동연구가 용이하지 않아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지속하는 일에 일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다. 전통적 방법론에 익숙해있던 필자들조차 본서의 발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학적인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래에는 고등교육 편제에서 디지털 인문학 관련 협동과정과 같은 연계학문을 신설하거나 국어국문학과 내에 디지털 인문학 세부전공을 창설하거나 디지털 인문학 관련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는<sup>34</sup> 등의 디지털 인문학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서의 중요한 미덕은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에 사용된 디지털 정보기술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준다는 점이다. 향후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동원

<sup>34</sup> 이재연·이종웅·선보민·김용수·권보연, 『공학으로 인문학 읽기-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 세창미디어, 2021, 10-13쪽.

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 연구자가 활용한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후속세대 유입을 통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전문 교재나 논문이 부족한 오늘날 본서가 연구자, 교수자, 학생들 모두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저, 『디지털 인문학과 근대한국학: 디지털의 눈으로 한국학을 읽다』, 이태훈 · 정유경 편, 소명출판, 2020.  
염상섭, 「남충서」, 『동광』 9-10, 1927.1.-2.

### 2. 단행본

김현 · 임영상 ·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이재연 · 이종웅 · 선보민 · 김용수 · 권보연, 『공학으로 인문학 읽기 -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교육』, 세창미디어, 2021.

### 3. 논문

김동건 · 최은호,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방안, 그리고 전망」, 『판소리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김바로, 「해의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 인문콘텐츠학회, 2014.  
김지선 · 장문석 · 류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김현, 「디지털 인문학 -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인문콘텐츠학회, 2013.  
김현 · 김바로, 「미국 인문학재단(NEH)의 디지털인문학 육성 사업」, 『인문콘텐츠』 34, 인문콘텐츠학회, 2014.  
김현중, 「[서평]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 디지털인문학의 도입점이 되다」, 『인문과학연구』 23,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홍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연구>의 인문학적 의미와 전망」, 『民族文化研究』 3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류인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이재연,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상허학회, 2016.  
\_\_\_\_\_,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이재연 · 정유경,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 - 새로운 접열연구를 위한 길마중」, 『大東文化研究』 11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이재연 · 한남기, 「창작 보조기에서부터 문장 생성기까지 - 글쓰기 기계의 과거와 현재」, 『한국문학

- 연구』 6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 정기인 · 정상우, 「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수업 개발」, 『교양교육연구』 15(5), 한국 교양교육학회, 2021.
- 정은경,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 Digital Hu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55(1), 한국문헌정보학회, 2021.
- 정유경,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한국정보관리학회, 2020.
- 정현선, 「언어 · 문화 · 소통 ·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 최운호 · 유현조 · 김주원, 「The Documentation of Endangered Altaic Languages and the Creation of a Digital Archive to Safeguard Linguistic D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7, 국립민속박물관, 2012.
- 최운호 · 김동진, 「『춘향가』 서두 단락의 어휘 사용 유사도를 이용한 판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0(4),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 \_\_\_\_\_, 「『십장가』 대목의 어휘 사용 유사도와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이용한 판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0(5),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 \_\_\_\_\_, 「컴퓨터를 이용한 고전문학 디지털콘텐츠의 유사도에 따른 이본 계통 분류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2(7), 한국정보기술학회, 2014.
- 허수,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8,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6.
- \_\_\_\_\_, 「언어연결망 분석으로 본 20세기 초한국의 ‘문명’과 ‘문화’ - 주요 언론 기사에서의 논의 맥락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2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8.
- 홍정욱, 「디지털기술 전환 시대의 인문학」,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 4. 디지털 자료

- 김한나, 「지식공유연대 “지식 공공성 위한 법 · 제도적 환경 조성 필요”」, 《대학지성 In&Out》, 2020.7.9.,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 검색일: 2022.3.19.
- 지식공유연대, 「2021년 지식공유연대 심포지엄과 정기 총회(210723 @서울대 중앙도서관)」, 『지식 공유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2021.7.22., <<https://knowledgecommoning.org/notice?uid=19&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2.3.19.
- 인문한국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hk.nrf.re.kr/popupdata/popupMain.do?NCODE=L\\_000000055&pop\\_gubn=7&VIEWIDX=64328&cview\\_call=Y](https://hk.nrf.re.kr/popupdata/popupMain.do?NCODE=L_000000055&pop_gubn=7&VIEWIDX=64328&cview_call=Y)>, 검색일: 2022.3.19.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Modern Korean Studies Research Using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A Book Review on *Digital Humanities and Modern Korean Studies-Reading Korean Studies from a Digital Perspective*

Seon Minseo | Korea University Libral Arts Education Center

In this paper, I tried to estimat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recent digital humanities by reading *Digital Humanities and Modern Korean Studies* of the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Modern Korean Studies, which has achieved remarkable achievements through digital humanities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As a result of reading this book, the following three outcomes were found as a result of the study of modern Korean studies through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First, this book de-constructs and reconstructs the sub-concept of modern Korean studies. Second, this book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field of modern Korean studies. Third, this book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applicability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 limitations of modern Korean studies research through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book, the limitations of the underdeveloped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the so-called ‘problem of the data that cannot be analyzed’, appeared. In addition, there was also the problem of limitations due to insufficient interpretation of the humanities, that is, ‘over-interpreted or neglected data’. We will be able to solve these problems by developing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uture and changing the coercive research environment in which research results must be submit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Keywords :** *Digital Humanities and Modern Korean Studies-Reading Korean Studies from a Digital Perspective*, Digital Humanities,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Modern Korean Studies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일반논문

The Bookish Landscapes

Yi Che-hyŏn's Travel Lyrics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Jamie Jungmin Yoo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양윤의 · 차미령

번역사회학 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 문학의 번역 및 수용 양상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리둥메이 · 김성 · 왕옌리

김종삼 시에 나타난 메시지와 청취자(聽取者) 주체

윤은성 · 이경수



# The Bookish Landscapes

Yi Che-hyŏn's Travel Lyrics in the Sinographic Cosmopolis

Jamie Jungmin Yoo\*

1. Introduction
2. Diglossia or Multi-glossia: Literary Identity of a Koryŏ Poet
3. The Bookish Landscapes: Allusions in Yi Che-hyŏn's *Ci* Lyrics
4. The Past within the Present, the Present within the Past
5. Irony: The Surplus of Classical Poetry

## | Abstract |

When writers of the past shared common scribal practices, how did they distinguish their literary identities? How did Korean poets express their own voices in the form of Chinese poetry? This paper examines the *ci* lyrics composed by a Korean writer, Yi Che-hyŏn (1287 - 1367).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inguistic situation of “diglossia” in East Asia, this study explores how the Korean writer interacted with Chinese literary tradition and tried to convey his own vernacular linguistic practices in the form of Chinese lyrics. During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Yuan to Koryŏ in the late thirteen- to fourteenth-century, Yi Che-hyŏn had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the larger international cultural communities in Beijing and other places and actively engaged in adopting Chinese canons into Korean literary circles. Particularly, during his trips between Beijing and Sichuan in 1316 and between Beijing and Jiangnan in 1319, Yi composed several *ci* lyrics and sent them to his friends in Beijing. By analyzing the allusions and images used in the lyrics, this study looks

---

\* Yonsei University/Assistant Professor.

into how the author projected his own voice in the foreign landscapes and interpreted ancient history in the artistic vernacular. Its core questions include how the Korean poet dealt with Chinese literary tradition and poetic canons and how he attempted to negotiate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literary Chinese and vernacular Korean as well as between canonical conventions and his personal interpretation and sentimentality.

**Key words :** Koryŏ lyrics, Yi Che-hyŏn, Diglossia, Community, Literary allusion, Literary landscape

## 1. Introduction

When writers of the past shared common scribal practices or communicative media, how did they distinguish their literary identities? Many literary histories of Korea have expressed approval of Yi Che-hyŏn's (李齊賢, 1287–1367) *ci* lyrics (k. *sa*, 詞) of his impeccable forms and complete aesthetics<sup>1</sup>. Notwithstanding that traditional *ci* lyrics required highly complicated tonal regulations to follow, they stressed, Yi's lyrics never failed to meet the rules given to the genre<sup>2</sup>. In the Chinese tradition, *ci* was a song; the genre was intended to be performed in the first place. The musical patterns were given beforehand, and the lyrics were supposed to be written to set “tune patterns (*cidiao* 詞調).” Viewed in this way, composing a *ci* piece would have meant conforming to the formality of music. One did not “write” a *ci*, but rather “filled in the lyrics (*tianci* 填詞).”<sup>3</sup> As many literary

<sup>1</sup> In his *Chungguk samunhak non'go* (中國 詞文學 論考, Seoul: Sŏul Taehakkyo Ch'ulp'anbu, 1997, pp. 261–302), Ch'a Chu-hwan introduced Yi Che-hyŏn's *ci* in the context of Chinese literary history. He pointed out that Yi's lyrics were well regarded in China and appeared in the section of Yuanci (元詞) of *Qiangcun cong shu* (彊村叢書), compiled by Zhu Zumou (朱祖謀, 1857–1931); Sim Kyŏng-ho proposed a notion of the “evolution of poetic modes” and discussed the meaning of Yi's lyrics in its relationship with classical poetry. Sim Kyŏng-ho, “Si changnūi yŏksajŏk pyŏnhwawa sa (詩 장르의 역사적 변화와 詞),” *Han'guk Kojŏnmunhak Yŏn'gu* (韓國古典文學研究), Seoul: Sin'gumunhwasa, 1983, pp. 206–216; Chi Yŏng-jae conducted comprehensive research on Yi's lyric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Yi's travel experience. Chi Yŏng-jae, *Sŏjŏngnok ŭl Ch'ajaso* (西征錄을 찾아서), Seoul: P'urŭn Yŏksa, 2003.

<sup>2</sup> Seo Su-saeng analyzed the forms of Yi's lyrics and proved that all his lyrics never deviated from the formal regulations of Chinese *ci*. Seo Su-saeng, *Koryŏjo Hanmunhak Yŏn'gu* (高麗朝 漢文學 研究), Seoul: Hyŏngsŏlch'ulp'ansa, 1971, pp. 248–255.

<sup>3</sup> When writing a lyric piece, one can choose the poetic dictions first and fit musical regulations to the dictions or select the poetic words that fits the formality of the music. Especially, the latter develops centering around the method that fits the words into the formality of the music, or “lyric filling.” See, Stephen Owen, “Meaning the Words: The Genuine as a Value in the Tradition of the Song Lyric,” in Pauline Yu, ed., *Voices of the Song Lyric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istorians have mentioned, Yi Che-hyŏn was fluent in colloquial Chinese, which was rarely seen during the Koryŏ dynasty,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master the musical tunes of China and produce his own *ci* lyrics without any formal flaws.

A close reading of Yi's lyrics, however, reveals that his lyrics might not have been intended to be sung; rather, they embodied a style of "poetry for reading." The impromptu sensibility and colloquialism of the original genre became flattened and disappeared amid his formal perfect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performance, Yi managed to fill his lyrics with a variety of images, real or imagined, and the landscapes he encountered were always accompanied by anecdotes. Why did his lyrics always linger over the past? This paper aims to revisit Yi Che-hyŏn's *ci* lyric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his ways of interpreting the present landscapes and its relationship to the past. The scenery he encountered on the road acquired its meaning only through confirmation by other ancient texts. There are readers postulated by the poet, but they are not by his side at the time of writing the lyrics; they are expected to receive the lyrics waiting far away. By addressing his practice of poetic allusions (典故) as "bookish landscapes," I would argue that the employment of "allusions" in Yi's lyrics was deliberately practiced as a means to express the author's literary intention and political bearings.<sup>4</sup>

Yi composed his lyrics during his trips between Beijing and Sichuan in

---

2019, pp. 30-69.

<sup>4</sup> The title and overall development of this paper was greatly inspired by Stephen Owen, "The Librarian in Exile: Xie Lingyun's Bookish Landscapes," *Early Medieval China*, vol. 2004(1), pp. 203-226. Discussing the essence and function of Xie Lingyun's allus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Xie became an important poet due to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 between book knowledge and experience outside of books.

1316 and between Beijing and Jiangnan in 1319. At that time, the Koryŏ dynasty of Korea was experiencing military and political interventions by the Yuan, China. The complexities of these cultural and linguistic situations manifest, or are veiled, in his lyrics. For an in-depth discussion of his allusion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linguistic situation surrounding the author. The “diglossia” system in East Asia, managing a standard form of literary Chinese and local vernaculars, enabled Yi to explore diverse literary modes and genres and develop his own literary consciousness. The core question lies in the ways in which the author attempted to negotiate the potential tensions between literary Chinese and vernacular sensibilities, the real landscapes and his imagined realities, and canonical conventions and his personal interpretations and sentimentality. By analyzing the allusions and imager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author projected his own voice in the foreign landscape and interpreted ancient history in the artistic vernacular.

## 2. Diglossia or Multi-glossia: Literary Identity of a Koryŏ Poet

Yi Che-hyŏn’s writing of *ci* lyrics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and linguistic circumstances that the Koryŏ dynasty faced at that time. In 1314, this 27-year-old elite scholar of Koryŏ was summoned to Beijing, China, by King Ch’ungsŏn (忠宣王, 1275–1325). King Ch’ungsŏn was born as the son of King Ch’ungnyŏl (忠烈王, 1236–1308) of Koryŏ and a daughter of Kublai Khan (1260–1294), the fifth Mongol emperor of Yuan, China.

Although he served as the king of Koryŏ twice, in 1298 and from 1309 to 1313, King Ch'ungsŏn was also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Shenyang (瀋陽), China, where many refugees and immigrants from Koryŏ resided. He ended up spending most of his life in Yuan. When Yi Che-hyŏn visited him in Beijing, King Ch'ungsŏn had just established the *Hall of Ten Thousand Books* (萬卷堂), which later became the central place for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Koryŏ and Yuan. King Ch'ungsŏn called for Yi from Koryŏ and then invited many scholars from China, including Zhao Mengfu (趙孟頫, 1254-1322), Yan Fu (閻復, 1236-1312), and Yu Ji (虞集, 1272-1348). Many Chinese scholars were originally from Southern Song (南宋) and brought Neo-Confucian scholarship and Chinese cultural legacies from the Han dynasty to the *Hall of Ten Thousand Books*.

In this culturally vibrant atmosphere, Yi actively experimented with many literary genres and attempted to communicate with the larger intellectual community in Beijing. Choosing an appropriate literary genre was important since it function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target audience, who formed a community based on literary Chinese.<sup>5</sup> The creation of this literary community was attributed to shared artistic tastes, which often transcended national or political demarcations.

To explore Yi's literary identity, particularly as found in his composition of *ci* lyrics during his stay in China, this paper highlights the linguistic

---

<sup>5</sup> For the interplay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identity formation, see Anthony Cohen,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Routledge, 1985;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Ikegami's analysis of the literary culture in Edo, Japan, provides inspiration on understanding the boundaries for identity formation. Eiko Ikegami, *Bonds of Civility: Aesthetic Network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Japanese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eality of “diglossia” in East Asia.<sup>6</sup>

Many societies in traditional East Asia encountered the weight of a long-established Chinese textual tradition. Normally, each society used the standard language of literary Chinese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colloquial utterances. By accepting such a diglossia, or multi-glossia, societies consented to be a constituent of the Chinese world of writing. Simultaneously, the system allowed them to consolidate their local identity by advocating spoken vernaculars. Subsequently, literary Chinese functioned as a language of “transnational” cultural geography, while the local vernaculars were practiced to embody the ways in which each society conceived of its own identity. In other words, literary Chinese, or the textual tradition of China, was widely used as the language of transnational geography, while vernaculars served to consolidate local identity by providing a sense of the essential differences among societies.<sup>7</sup>

---

<sup>6</sup> For the concept of “diglossia,” Peter Kornicki has conducted thorough research on the linguistic conditions of East Asia and discussed the important issues of language and identity formation. See, Peter Kornicki, *Languages, Scripts, and Chinese Texts in 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Lee Jongmook showed an important example of the “poetry exchange” practice in this diglossia situation of pre-modern East Asia. Lee Jongmook, “Establishing Friendships between Competing Civilizations,” in Nanxiu Qian, et al., ed., *Rethinking the Sinosphere: Poetics, Aesthetics, and Identity Formation*, Cambria Press, 2020, pp. 3-32. As for the role and transmission of literary Chinese in East Asia, also see Cho Tong-il, *Kongdong munŏ munhak kwa minjogŏ munhak*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Seoul: Chisik Sanŏpsa, 1999; Im Hyŏng-t’ack, *Han’gukhak ŭi Tong Asijŏk chip’yŏng*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Seoul: Ch’angbi, 2014; Saitō Mareshi 齋藤希史, *Kanbunmyaku to kindai Nihon : mō hitotsu no kotoba no sekai* (漢文脈と近代日本: もう一つのことばの世界), Tōkyō: Nihon Hōsō Shuppan Kyōkai, 2007; Ge Zhaoguang 葛兆光, *Xiang xiang yi yu* 想象异域, Beijing: Zhonghua shu ju, 2014. The notion of a “lingua franca” is well developed in Nicholas Ostler, *Empires of the Word: A Language History of the World*, Harper Perennial, 2006.

<sup>7</sup> To emphasize the function of literary Chinese that was universally used in individual local societies and to clarify the language structure of multi-glossia, Pollock’s concept provides a useful analytic frame in the contexts of “cosmopolitan” and “vernacular.” However, the concept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specifically analyz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language and literary environments Yi experienced in China were as complicated as a multi-glossia system. Being a native Korean speaker, Yi spoke fluently in colloquial Chinese and had a thorough knowledge of Chinese textual traditions. In China, he was also exposed to the Mongol vernacular and refreshed his knowledge of the Neo-Confucian scholarship transmitted from the Song. To communicate with the scholars met in the *Hall of Ten Thousand Books* and form “internal solidarity” within the community, he had to carefully choose a literary style and colloquial registers. His *ci* lyrics can be understood in this respect. Depending on how authors conceive of their literary local identities, the selection of genres and the styles of writing can appear in many different physical modes. Even the same genre—poetry, for example—shows a variety of styles, some of which abide by strict formal regulations, whereas others have less rigid or livelier colloquial connotations. In other words, in this form of art, the orality and the literacy are combined to create a unique convention, whereas the voice of the author is relatively individual.

Remarkably, Yi chose to compose *ci* lyrics mostly for his trips to Sichuan in 1316 and to Jiangnan in 1319, rarely leaving other *ci* pieces from other occasions.<sup>8</sup> As soon as he completed a few *ci* pieces, he had them dispatched to Beijing so that the people in the *Hall of Ten Thousand Books* could share

---

comprehending the colloquial tradition of each nation and its development and the compe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 literary language and various colloquial languages. See Sheldon Pollock, *The Language of Gods in the World of M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rasenjit Duara,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s,” *Journal of Asian Studies*, 2010, vol. 69, pp. 963-83.

<sup>8</sup>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when the author needed to express his local sentimentality as a Koryŏ poet, he selected another mode of poetry.

in his experiences during the journey. He selected this genre, which was popular in Song and Yuan China, to consolidate the shared locality with Chinese readers in Beijing. The scenery that Yi saw on his trip was interpreted peculiarly for the intended readers and then recreated in a genre of lyrics that traditionally bears a strong colloquial characteristic.

### 3. The Bookish Landscapes: Allusions in Yi Che-hyŏn's *Ci* Lyrics

In the literary history of China, the *ci* genre has displaced the aura of a distinct aesthetic. Stylistically, *ci* tends either to the “boudoir” style or to a more colloquial register.<sup>9</sup> The development of formality was fundamentally intended to emphasize the musicality and ease of performance. Standardized formality facilitates repetition and performance, enabling the music to be passed down and spread by performers. On the surface, the formality of the lyrics may appear to be a device that confines the lyrics. However, in reality, the writers use colloquial language to express a lyrical sense, creating an “impromptu” atmosphere and artistically embody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that are sensible and delicate

In the lyrics of Yi Che-hyŏn, we perceive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raditional *ci* lyrics. Yi's *ci* lyrics are faithful to the conventions of the practice of “lyric filling,” and show no flaw at all in its conformance with

---

<sup>9</sup> For the early circulation and the origins of Chinese *ci*, see Stephen Owen, *Just a Song: Chinese Lyrics from the Eleventh and Early Twelfth Centuri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9, pp. 21-59.

the musical formality. This suggests that Yi had already fully mastered the formal regulations given to the genre. In his lyrics, however, there are no apparent colloquialisms, and it is difficult to perceive a lively sense of vitality and improvisation. Moreover, in terms of aesthetics, the author does not use any images that evoke a delicate aesthetic sense. In Yi's lyrics, the sophisticated sensibility and flexible colloquialism become flattened and disappear amid the formal perfection. If this is the case, what did the author intend by writing lyrics that read so formally?<sup>10</sup>

A significant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Yi's lyrics from traditional *ci* is how he employs "allusions" and poetic imagery. How would the scenery on the road have appeared to the eyes of the author? In Yi's lyrics, the scenery on the road is re-presented by alluding to earlier texts. For the "postulated readers" in Beijing, the landscape gains new interpretations and then reconnects readers to the shared past from the texts.

The scenery that the writer sees on his trip does not exist "innocently." The objective, sensuous experience communicates with the inner side of the poet and how the poet interprets and accommodates the experience.<sup>11</sup> In the process of writing lyrics, travel is not simply an encounter with exotic

---

<sup>10</sup> The literary ideology and pieces of Su Shi (蘇軾, 1037-1101) were very popular in the literary circle of Koryŏ. As represented by the famous expression "lyrics written with a poem (以詩爲詞)," the genre of lyrics at the time had already been transformed into the style of Chinese poems for reading, with no consideration of performance. This paper is aimed to develop it further and examine how Yi Che-hyŏn's lyrics bear distinctive literal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Su Shi and express his own subjectivity in choosing the poetic mode and in arranging the imagery and allusions.

<sup>11</sup> How the allusions and imagery of the "past" work in classical Chinese poetry has been beautifully illustrated in Stephen Owen, *Remembrances: The Experience of the Past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scenery, but it is an issue of the writer's way of relating himself to the experience of the trip. In other words, it is an issue of recreating the new world that the writer meets during the trip in the context of China's literary tradition.

The use of allusion in the lyrics is not simply a rhetorical device, but it is the voice of the writer that can be found between the scenery and the summoned pas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Yuan's regent on Koryŏ, Yi's lyrics manifest the issue of how an individual of Koryŏ interprets the Chinese tradition. For the writer, the scenery can only be significant when it is reinterpreted with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preceding readings. Therefore, the immediacy of the scene and the improvisation of emotion are not something to consider when creating the lyrics. The scenery of the present is reinterpreted through the past, and the writer reaffirms the texts and literary tradition that he has experienced in the future through the current scenery. Therefore, Yi's literary identity is materialized within the past that he recreates in literature, and sharing these works with his Han Chinese friends in Beijing consolidated and amplified the writer's literary identity.

#### 4. The Past within the Present, the Present within the Past

The allusions adopted in Yi Che-hyŏn's travel lyrics always extend time backwards beyond the immediate present and the future. Encountering physical landscapes, the poet wavers between objective descriptions and his

own subjective voice. The words and images function to convey the poet's voice and also to carry the poet and the reader together across the landscape. Adopting the allusions and sharing them with a certain readership presupposes a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Yi and his reader.<sup>12</sup>

## I

石室天壇封禪了	At the stone vault and altar of heaven, the royal sacrifice is done,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青鳥</span> 含書	and a bluebird fetches letters
細報長生道	in order to kindly let us know the ways of long-living.
寶鼎光沈 / 仙掌倒	Of the jewel pot, the shine faded; the palms of the immoral flipped.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茂陵</span> 斜日空秋草	At Maoling, the setting sun, in vain, shines on the autumn grasses.

## II

百歲真同昏與曉	A hundred years of life is short, as the time between the dusk and daw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羽化</span> 何人	Who has become the immortal,
一見蓬萊島	and seen the Fenglai mountain at least once?
海上安期今亦老	By the ocean, An Qi would have aged now,
從教喫盡如瓜棗	even though he has eaten all the dates. <sup>13</sup>

<sup>12</sup> The following article was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allusions and poetic meanings function. Although it focuses mainly on T'ang poetry,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adopting historical allusions can be applicable when I understand the lyrics: Yu-kung Kan and Tsu-lin Mei, "Meaning, Metaphor, and Allusion in T'ang Poet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0, no. 2 (1978): 281-356.

This lyric was written to the tune of “Die lian hua (蝶戀花).” Divided into two stanzas (雙調), this lyric is composed of five lines in each stanza – 60 characters altogether. While passing by the royal tomb of Emperor Wu of the Han dynasty (漢武帝), the author perceives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between the imagined and the real. The historical allusions enhance the poet’s sense of the separation of the past from the present moment.

Structurally, stanza I and stanza II are parallel. Both stanzas begin with propositional lines, followed by dominant images in the second and third lines. The final lines of both stanzas express the poet’s voice and feeling; however, the ways the poet uses imagery impart different functions. The isolated images and minimal syntax in stanza I increase the tension and lead the reader into stanza II. Conversely, the allusion newly introduced in the final lines of stanza II releases the tension and unifies the whole lyric.

The opening line of stanza I suggests a strong propositional force: “At the stone vault and altar of heaven, the royal sacrifice is now well done! (石室天壇封禪了).” In this short sentence, the reader can visualize the ancestral rites that Emperor Wu just successfully enacted. Picking up the momentum of the grandiose image, stanza I shifts its focus to a tiny concrete visual image in the following line – a blue bird (青鳥). Once the ceremony ended, a little messenger from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flies in and whispers the secrets of eternal life. The blue bird is a unifying image in stanza I,

<sup>13</sup> Yi Che-hyŏn’s writing collection, *Ikchaenan’go* (益齋亂稿), has been digitized and is available at the *Han’gukkojŏnjongap DB* (한국고전종합DB). This poem is featured in volume 10 of *Ikchaenan’go* (a002\_606c) and can be found in this database as well: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011A\\_0140\\_010\\_0070](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011A_0140_010_0070) (accessed April 22, 2022).

representing the wholeness of the past that the poet longs for. The lines two and three create a run-on line and generate rhymical flow in stanza I.

The completeness of the past breaks and then strikes a sharp contrast with the bleak scenery of the present. The visual images juxtaposed in line four make the transition: “The shine of the jewel pot faded and the palms of the immoral flipped (寶鼎光沈仙掌倒).” The images here can be problematic; the precious pot (寶鼎) and the dew vessel (仙掌) could be actual relics that still exist at the tomb, or they could be inventions of the author’s imagination, groping for a specific images of the past. By arranging the concrete images on the same line – the faded pot and the flipped dew vessel – the static quality of the physical objects impedes the flow and generates the sense of the past’s transience. At the desolate space of the old tomb, only the setting sun is reflected on the autumn grasses. Both “setting sun (斜日)” and “autumn grasses (秋草)” suggest decline and eventual death, and “in vain (空)” points to the poet’s grief over transience. The heightened tension generated by the concrete images and the minimal syntax does not conclude the lyric, leading the reader into the next stanza. This incomplete fragment of reality contrasts with the fullness and eternity of the past in the following stanza.

The first line of stanza II is a direct proposition of the poet’s lament: “A hundred years of life is too short, as the time between the dusk and dawn (百歲真同昏與曉).” As in stanza I, the second line of stanza II begins with a concrete image of the immortal (羽化) in a run-on line. Contrary to stanza I, however, the noun images in stanza II do not interrupt the natural flow of the lyric. The narrative moves on to the story of an immortal



who freely traveled around the divine mountain. Would An Qi (安期) still be somewhere in the world in his young appearance? Would he have aged a little? The poet imagines that the eternity found in the present feels too short; it feels as if a blink of an eye would make one feel lonely. The final lines express the voice of the poet and project the lyric beyond its physical confin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ending fails to impart a wholeness to the entire lyric, as the wholeness of the past cannot be realized.

Generally, traditional lyrics' improvisation and ease of performance tend to be achieved through the effective expression of dynamic images along with colloquial expressions. As the lyric below illustrates, however, the repetition of the noun phrases anchors the poetic images and amplifies the static visual effect.

I.

棲鴉去盡遠山青

Looking for a nest, the crow disappears; the distant mountain is getting dark in blue,

看暝色，入林垌

Seeing the dusk, I enter into the wide field.

燈火小於螢

The light is smaller than a firefly.

人不見，苔扉半扃

No one is seen; the mossy twig-gate is half-closed.

II.

照鞍 涼月

Reflecting on the saddle, the cold moon is gleaming,

滿衣 白露

Thoroughly my clothes, the crystal dew is wetting.

繫馬睡寒廳

Tied the horse, I try to sleep in a cold hall.

今夜候明星

This night, I only wait for the morning star.

**又何處，長亭短亭**

Again, where could it be? long stops and small stops on the road.<sup>14</sup>

This lyric poem, entitled “Walking in the Dark (暮行),” was written to the tune of “Tai chang yin (太常引).” Unlike the previous lyric, the structures of stanzas I and II of this lyric are not in parallel with one another. The stanzas’ flow follows the sequence of the poet’s movement, and the poet operates the imagery and syntax of each stanza according to his gaze. This piece of poetry vividly conveys the visual images, drawing on the poetic effects of Tang poetry. Overall, this lyric does not rely significantly on dynamic acoustic images but rather captures a clear visual image and subtle movement. In this quiet moment, the poet and the reader can visualize the scene together in their imaginations.

Stanza I opens by evoking the sky’s vastness: a crow is disappearing, in search of a nest, into the darkness in the mountain afar. The seven-syllable line’s flow halts in the second line, of which the meanings are ambiguous: “看暝色，入林垌.” In terms of the syntax, two parallel structures are juxtaposed, but each unit’s subject is missing. Who sees the dusk, and who enters into the wide field? As in the above translation, it could be the poet who is moving toward the wide field, looking at the dusk. Another possibility is that “看” may be intransitive and thus should be translated

---

<sup>14</sup> Ibid. a002\_606a.

as “to be seen.” In this case, the dusk (暝色) is the unifying subject, and the line literally reads, “it is seen that the dusk enters into the wide field,” or “the twilight lay on the field.” Owing to the structural juxtaposition, the missing subject and the ambiguous meaning together impede the natural flow and consequently bring the audience closer to the visual images.

Just like the crow in search of a nest, the poet also needs a place to stay for the night. In the distance, a dim light is flickering, appearing to be smaller than a firefly. The poet finally arrives at a shelter; nobody is there, but the twig-gate stands half-open.

Stanza II does not open with a propositional phrase. Describing the quiet lonely night, two antithetical lines composed of static images, “reflecting on the saddle (照鞍),” “cold moon (涼月),” “full of my clothes (滿衣),” and “white dew (白露),” create an effective poetic transition from stanza I to stanza II. Without using any dynamic verb, the lines suggest that the poet’s gaze moves from a distant view to a close-range perspective, and the voice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nalized, kindling his quiet monologue. At this point, the poet addresses the reader, whose gaze together with the poet’s is drawn to the sky, where the morning star rises, just as the poet would have. The reader can sympathize with the traveler, who is fatigued but unable to sleep.

The final line unifies the entire poem by expressing the poet’s direct voice: “Again, where could it be, long stops and small stops on the road (又何處, 長亭短亭).” While the line embodies the traveler’s loneliness, the emotion also hinges on the archetypal expressions of several other Tang poets: “Where can I find a road to home? Long stops and then short stops, endless on the road (何處是歸程, 長亭更短亭)” by Li Bai (李白), for example, looms large

above all the images and serves as another unifying focus for the lyric as a whole. The archetype of the allusion has already been shared between the poet and the audience and, therefore, fulfils a communicative function.

The syntax of the lines in the lyric below is scrambled; while the words of the lines are propositional, their structure often produces antithetical juxtapositions. Consequently, the reader feels the transference power from the propositional words, but at the same time perceives interruptions of the flow due to the juxtapositions. I believe that this technique effectively expresses the “magnificent quality (豪放)” of the mountain that the poet describes. It is remarkable that the poet directly reveals his presence in the lyric by stating, “I know (知),” “I would wish to (我欲),” and “I feel afraid of (只恐).” Climbing the galactic mountain, the poet’s anecdotes about people from the past are actually elliptical references to the poet himself.

I.

天地 / 賦 / 奇特	Heaven and earth bestow specificity
千古 / 壯 / 西州	for thousands of years, standing high on the western land.

三峯 / 屹起相對	The three peaks spike up, facing each other
長劍 / 凜清秋	like longswords, spearing the clear sky of autumn.
鐵鎖 / 高垂 / 翠壁	The metal banister goes high towards the blue cliff,
玉井 / 冷涵 / 銀漢	the jade spring coldly holds the Milky Way.
知在五雲頭	Now I realize that I am on the peak of five clouds.

造物 / 可無物

掌跡 / 宛然留

The Creator could not have left a trace,  
but the handprint still vividly remains.

II.

記 / 重瞳

崇 / 祀秩

答 / 神休

It is said that the Emperor Shun  
prepared a magnificent rite  
and answered to the god.

真誠若契真境

When truthful sincerity interacts with the  
truthful scenery,

青鳥引丹樓

the bluebird shall lead to the red palace.

我欲 / 乘風歸去

只恐 / 煙霞深處

I would wish to go back with the wind  
but feel afraid of the mist and sunset deep in the place.

幽絕 / 使人 / 愁

一嘯 / 蹇驢 / 背

潘閔 / 亦 / 風流

The absolute isolation would make one worried.  
Reciting a poem while riding the limping donkey,  
Pan Lang also only appreciated it.<sup>15</sup>

Titled, “Looking at Hua Mountain (望華山),” this lyric is written to the set tune of “Shui diao ge tou (水調歌頭).” Except for line seven, which directly conveys the poet’s voice, the first stanza is composed entirely of antithetical lines. Describing the appearance of the magnificent high mountain, the poet moves toward the top as the lyric proceeds. Just as the poet stops at the

---

<sup>15</sup> Ibid. a002\_606d.

top of the mountain, the forward momentum of the stanza halts at lines six and seven. In a perfect antithetical couplet, the poet arranges the visual images, and the nouns span the virtual space: “鐵鎖 / 高垂 / 翠壁; 玉井 / 冷涵 / 銀漢.” The metal banister (鐵鎖) goes all the way to the blue sky, and the clear jade spring (玉井) contains the reflection of the Milky Way. The concrete images and the isolating syntax enhance the visual effect of the lyric. Simultaneously, the tension generated by the antithetical arrangement brings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xt segment of proposition: “Now I realize that I am on the peak of five clouds (知在五雲頭).” The “handprint” of the Creator in the final line invites the reader to explore a new story of the past in the second stanza.

The second stanza introduces the complete and eternal world. The simple and elegant phrases of the first three lines evoke the solemn rites of the Emperor Shun and his communication with the god. Once the rites have been successfully enacted, a bluebird again appears as if it would lead the poet to the “red palace (丹樓)” of the immortals. To reach the palace, however, there is one condition: it is only possible when “truthful sincerity (真誠) interacts with the truthful scenery (真境).” Since the truthful scenery is pictured sufficiently with the mountain in his sight, the issue here is the truthful sincerity of the poet. His longing and desire for the ideal world are apparent, but at the same time, this world seems far away and isolated.

In the final line, Pan Lang (潘闌) is a poet from the Song dynasty. As he passed by Hua mountain on a donkey, Pan Lang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and hoped to move to the mountain to live. Did he also enter the immortal world somewhere beyond the mountain? Probably not. As the

adverb “亦” indicates, the poet is satisfied by his enjoyment of the beautiful scenery in front of him, as was Pan Lang in the past. The selection of the allusion here is made on the basis of similarity, and the metaphoric relations between the poet and the people from the past unify the whole lyric.

## 5. Irony: The Surplus of Classical Poetry

As seen in the epithet of *ci* lyrics the “surplus of classical poetry” (*shiyu* 詩餘), not many scholars of Chinese literary history have taken the lyric songs seriously. They believe the lyrics do not represent the literature of the Song dynasty and agree to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blooming period of the genre witnessed a shift in power from military to centralized authority and the revival of more reflective Confucianism. In his book, *Just a Song*, Stephen Owen successfully revived the vitality of Song lyrics. He believes they represented a voice of “individual sensibility” in a world that had been overshadowed by Confucianism-oriented interpretations.

When it comes to Yi Che-hyŏn’s lyrics from Koryŏ, Korea, however, the spontaneity and liveliness of the songs seems to be bleached, again, by the author’s serious literary consciousness. Yi selected song lyrics as his means of communicating with people who belonged to the same literary community in Beijing. The traditional idea of the *ci* genre—the ease of performance, improvisation, and sensibility—was also selected to elucidate that Yi had chosen to write song lyrics as a form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When one examines the inner side of the text between the lines,

Yi's lyrics are very "literal," as he prepared interpretations of the scenery and images at play for postulated readers in advance. His uses of allusions and visual imagery give the lyrics a sort of static atmosphere in general and make them past-oriented. In other words, a sense of reality and improvisation has been subdued in the text. Further, the overall time period the poet encountered on the road was heavily influenced by poetic allusions that led readers somewhere in the past. The poet refused to face the real landscape, rather escaping to the books he read and getting lost searching for an "ideal world" in his imagination.



## Bibliography

- Ch'a Chu-hwan. *Chungguk samunhak non'go* (中國 詞文學 論考). Seoul: Söul Taehakkyo Ch'ulp'anbu. 1997.
- Chang Chi-yön. *Taedong Sisön* (대동시선). Seoul: Asea Munhwasa. 1980.
- Chi Yöng-jae. *Söjôngnok ül Ch'ajasö* (西征錄을 찾아서). Seoul: P'urün Yöksa. 2003.
- Cho Tong-il. *Kongdong munö munhak kwa minjogö munhak*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Chisik Sanöpsa. 1999.
- Im Hyöng-t'ack. *Han'gukhak üi Tong Asiajök chip'yöng* (한국학의 동아시아적 지평). Seoul: Ch'angbi. 2014.
- Lee Jongmook. "Establishing Friendships between Competing Civilizations," in Nanxiu Qian, et al., ed., *Rethinking the Sinosphere: Poetics, Aesthetics, and Identity Formation*. Cambria Press. 2020. pp. 3-32.
- Seo Su-saeng. *Koryöjo Hanmunhak Yön'gu* (高麗朝 漢文學 研究). Seoul: Hyöngsölch'ulp'ansa, 1971.
- Sim Kyöng-ho. "Si changnülüi yöksajök pyönhwawa sa (詩 장르의 역사적 변화와 詞)." *Han'guk Kojönmunhak Yön'gu* (韓國古典文學研究). Seoul: Sin'gumunhwasa. 1983.
- Yi Che-hyön. *Ikchae chip* (益齋集). Seoul: Minjok Munhwa Ch'ujinhoe. 1989.
- \_\_\_\_\_. *Yi Che-hyön Sajip* (이제현 사집). Seoul: Chisik ül Mandünün Chisik. 2015.
- Hamashita Takeshi 浜下武志. *Chökö shisutemu to kindai Ajia*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Tökyö: Iwanami Shoten. 1997.
- Saitö Mareshi 齋藤希史. *Kanbunmyaku to kindai Nihon : mö hitotsu no kotoba no sekai* (漢文脈と近代日本: も う一つのことばの世界). Tökyö: Nihon Hösö Shuppan Kyökai. 2007. pp 13-29.
- Ge Zhaoguang 葛兆光. *Xiang xiang yi yu* (想象异域: 谈李朝朝鲜汉文燕行文献札记). Beijing: Zhonghua shu ju. 2014.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Cohen, Anthony.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Routledge. 1985.
- Duara, Prasenjit.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s." *Journal of Asian Studies*. 2010. Vol. 69, 963-83
- Fong, Grace. *Wu Wenying and the Art of Southern Song ci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Ikegami, Eiko. *Bonds of Civility: Aesthetic Network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Japanese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Kao, Yu-kung, et al. "Meaning, Metaphor, and Allusion in T'ang Poet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78. Vol.38 (2), 281-356.
- Kornicki, Peter. *Languages, Scripts, and Chinese Texts in 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Ostler, Nicholas. *Empires of the Word: A Language History of the World*. Harper Perennial. 2010.
- Owen, Stephen. *Remembrances: The Experience of the Past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The Librarian in Exile: Xie Lingyun's Bookish Landscapes," *Early Medieval China*. Vol 2004(1). 2004. pp 203-226.
- \_\_\_\_\_. "Meaning the Words: The Genuine as a Value in the Tradition of the Song Lyric," in Pauline Yu, ed., *Voices of the Song Lyric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9. pp.30-69.
- \_\_\_\_\_. *Just a Song: Chinese Lyrics from the Eleventh and Early Twelfth Centurie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9.
- Pollock, Sheldon. *The Language of Gods in the World of M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Shields, Anna. *Crafting a Collection: The Cultural Contexts and Poetic Practice of the Huajian j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 Strassberg, Richard. *Inscribed Landscapes: Travel Writing from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풍경과 기억

이제현의 사(詞) 문학과 동아시아의 양층언어(diglossia) 환경

류정민 | 연세대학교

본고는 고려 이제현(1287-1367)의 사(詞)문학을 연구하되 당대 동아시아의 양층 언어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 형식적 특징과 문학 지향을 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316년 북경에서 사천으로의 여행과 1319년 강남지역으로의 여행 시 지은 사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가 이국의 풍경과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또한 고려 문인으로서 중국 역사와 문명, 전통적 문학 정전을 전고와 이미지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양층적 혹은 다층적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지역사회는 공통적으로 한자 한문이라는 문언적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각각의 개별 구어적 발화 환경을 영위하고 있었다.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도 규범어로서의 한자 한문을 형식에 맞게 구사해 내고 문학 정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공통의 전통을 당대적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또한 사문학은 전통적으로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의 현장성 측면에서도 전통 한시와는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문학의 구술성과 문자성이 매우 독자적인 형식으로 결합된 예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작가의 목소리 또한 매우 개성적이다. 이러한 사문학을 고려 문인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살피고 또한 이 분석을 통해 작가 정신의 지향성을 고찰하는 것은 고려 문학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주제어:** 이제현, 사문학, 양층언어, 이미지, 전고, 구술성, 문자성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양윤의\* · 차미령\*\*

1. SF, 신화적 전망과 윤리 · 정치적 실천 사이에서
2. 존재론적 거점으로서의 자아-몸-세계의 재구축
3. 결론을 대신하여 : 김초엽의 SF가 모색하는 존재의 미래

###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마음, 몸,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윤리적, 실천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인 존재론적 사유와 구별되는 김초엽 SF의 모색을 이 논문에서는 차례로 ‘네트워크화된 자아’,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시뮬레이션 우주’ 등으로 파악한다. 김초엽의 SF는 이러한 존재론적 모색을 통해 윤리적 실천적 지향을 드러낸다. 「관내분실」, 「공생가설」 등에 나타난 ‘네트워크화된 자아’는 김초엽 소설에서는 타자와의 화해와 공동 존재, 나아가 공생과 공존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다. 「로라」, 「오염구역」 등에 나타난 종과 종, 종과 사물을 교차하는 ‘횡단-신체성’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최후의 라이오니」 등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는 소망과 믿음을 투영하고 현실화시킨 세계로, 기원을 생산하는 역설적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조교수. aleph2006@korea.ac.kr

\*\* 교신저자, GIST 부교수. mrcha@gist.ac.kr

힘이기도 하다.

**주제어** : 김초엽의 SF, ‘네트워크화된 자아’, ‘횡단-신체성’, ‘시물레이션 우주’

## 1. SF, 신화적 전망과 윤리·정치적 실천 사이에서

SF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현대의 신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F는 과학에서의 혁신과 그것이 인간과 세계에 끼친 변화를 기술하는데, 그 변화는 부분적인 개량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혁이다. SF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개념, 그것의 심리적·사회적·물리적인 실체성, 그것의 미래적 변형 등이 다루어진다. 요컨대 SF는 과학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 세계를 재정의하는데, 여기에 신화적인 비전이 활용된다. 인간의 정체, 자아의 유래, 세계의 기원, 우주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신화의 관점이 SF의 지평에 포함되는 것이다.

신화는 그 신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포함한다. 신화는 과거의 사건을 호명하지만, 그 호명을 통해서 되살려내는 것은 미래의 전망이다. 신화적 인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리를 신이한 힘으로 넘어서서 그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지평에 가닿는다. 마찬가지로 SF의 인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리를 과학적인 사실이나 가설을 통해 넘어서서 그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자리에 당도한다. 도나 해러웨이는 SF를 “과학과 사변적 우화 둘 다”라고 부르며, 이것이 “정치과학”에 속한다고 주장한다.<sup>1</sup> 세계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SF는 사변적 우화이며, 그 세계에 유토피아/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SF에는 정치적 성격이 부여된다.

이 논문에서는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이러한 신화적, 정치적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초엽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SF에 나타난 서사적 장치가 인간의 몸과 마음, 세계의 물질성과 가상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실체인가, 관점인가?

<sup>1</sup>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77쪽.

몸과 마음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혹은 몸과 마음은 어째서 둘이 아니라 하나로 나타나는가?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세계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존재론이나 인식론에 그치지 않고 윤리학이나 정치학과도 연관된다.

지금까지 김초엽의 SF에 대한 연구는, SF적 특질을 밝히는 논의에서부터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등에서의 발본적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도훈의 지적처럼 SF는 미래를 재현한다기보다, 인류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한 관념을 제시하려는 문학이다.<sup>2</sup> 박인성은 배명훈, 김초엽, 김보영의 SF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을 해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비동시적 실재를 환기”하는 김초엽 소설의 “시공간의 배치는 일차적으로는 명백한 이항대립적 구조로 배치되지만, 그 대립을 통합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3</sup> 오은엽은 토도로프의 ‘환상적 경이’에 기대 SF의 특징을 설명하고, 김초엽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신화적 상상력을 분석하였다.<sup>4</sup> 그는 캠벨의 원질신화 서사의 구조를 김초엽 소설의 구조 분석에 적용하면서, ‘경이로움’이나 ‘망설임’이 “아름다운 시적 은유”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한다.<sup>5</sup>

한편, 연남경은 김초엽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주인공이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유색인 여성 혹은 노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가진 점에 주목하였다. 이 ‘집합 주체’가 보여주는 것은 “여성 과학자들의 위치성과 체현적 지식을 통해 객관을 가장한 보편·단일의 과학 담론의 허상을 고발하고 세상의 편견에 저항”하는 태도이다.<sup>6</sup> 김미현은 ‘테크노페미니

<sup>2</sup>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13-14쪽.

<sup>3</sup> 박인성, 「SF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 배명훈 · 김초엽 ·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sup>4</sup> 오은엽, 「SF 서사에 나타난 환상적 경이와 과학적 상상력 - 김초엽의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2, 우리문학회, 2021.

<sup>5</sup> 오은엽, 위의 논문, 424쪽.



즘'이 “과학기술과 여성이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행적 실천에 관심을 둔다”고 강조하면서, 윤이형과 김초엽의 과학소설을 분석하였다.<sup>7</sup> 김미현에 따르면 김초엽의 「나의 우주 영웅에 대하여」 속 인물은 “이미 박탈된 지구와의 연대를 보여줌으로써 박탈에 대한 박탈을 보여주는 여성에 해당한다.” ‘박탈’이라는 모티프는 김초엽의 소설에서 “타자의 취약성을 배려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을 회복시키는 계기”이다.

‘포스트바디의 확장성’이라는 김미현의 문제의식은 이 연구의 관심사와도 연결되는바, 김초엽 소설에서 ‘마음’과 ‘몸’이라는 주제 역시 몇 가지 각도에서 검토된 바 있다. 신성환은 앤디 클라크의 ‘확장된 마음’ 개념에 착안하여 김초엽 소설을 분석하였다.<sup>8</sup> 그는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사이보그, 인체 변형 및 개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인간 마음의 확장을 ‘올바르게’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노대원은 윤이형, 박민규, 김보영의 SF에 나타난 ‘취약성’을 검토하는데, 이때의 취약성이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근본적인 유한성”이다.<sup>9</sup> 주지하다시피, 신체는 ‘취약성’, ‘불완전성’, ‘장애’, ‘노화’, ‘질병’, ‘죽음’, ‘유한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교차하는 전쟁터이다. 김윤정은 김초엽의 SF의 ‘불완전성’에 주목하여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의 문제를 윤리적 측면에서 논구하였다.<sup>10</sup> 김초엽의 SF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장애에

6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25쪽.

7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8 신성환, 「‘확장된 마음’과 인간-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아문집』 49집, 동남아문화회, 2020.

9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0.

10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우리 사회의 ‘정상성’ 논의에 대항하는 급진적인 윤리적 의미들을 갖는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선행 연구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김초엽의 SF의 새로운 전망에 주목하되, 이를 서구 형이상학의 구도에 따라 자아(마음), 몸, 세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삼 항은 별개의 항이라기보다는 서로 교섭하고 넘나드는 세 개의 토대에 가깝다. 본론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마음은 몸의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활성화된 패턴이다. 몸은 마음이 구현되는 토대이자 물질들이 교차하는 물질성 자체이다. 세계는 물질이자 그것들의 모델인 가상 즉 물질화된 마음이기도 하다.<sup>11</sup> 따라서 이 세 가지 토대는 마치 세잎매듭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순환고리의 부분들로 표시될 수 있다.<sup>12</sup> 김초엽 소설의 윤리적, 정치적 비전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11 캐서린 헤일스는 포스트휴먼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포스트휴먼 관점은 물질적인 예화보다 정보 패턴을 특권화한다. 따라서 생명체가 생물학적 기층에 신체화된 것은 불가피한 필연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우연으로 여겨진다. 둘째, 서구 전통은 데카르트가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의식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포스트휴먼 관점은 의식이 부수적인 현상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스스로를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려 한다고 간주한다. 셋째, 포스트휴먼 관점은 신체란 우리 모두가 조작법을 배우는 최초의 인공 기관이며, 따라서 신체를 다른 인공 기관으로 확장,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과정의 연속일 뿐이라고 여긴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포스트휴먼 관점은 위에서 언급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을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포스트휴먼에서는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 로봇의 목적론과 인간의 목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9, 24쪽) 생명이 ‘신체화’보다는 ‘정보의 패턴’으로 설명된다거나, 자아의 근거를 사유 속성에 두지 않는 것, 신체와 물질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김초엽의 소설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다. 포스트휴먼의 통찰과 SF의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은 이 논문의 주요한 작목점이 될 것이다.

12 세잎매듭은 매듭 이론에서 가장 단순한 매듭 즉 하나의 고리를 가진 원형 매듭 다음으로 단순한 매듭이다. 매듭이론은 매듭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위상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세잎매듭은 세 개의 돌출부를 갖고 있으나 각각의 매듭은 다른 매듭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진다.

## 2. 존재론적 거점으로서의 자아-몸-세계의 재구축

### (1) 네트워크화된 자아: 「관내분실」, 「공생가설」

서구 존재론에서 사유는 일의적이고 우선적인 근원으로 간주되어 왔다.<sup>13</sup> 사유는 연장과 분리된 실체로서, ‘신’과 ‘영혼’과 ‘이성’을 연결한다.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서 나누어 받은 것으로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신이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듯 신은 자연에 작용을 가하지만 자연에 포함되거나 동화되지 않는다. 인간은 사물과 분리된 채 존재한다. 즉 인간은 사물에 작용을 가하지만 사물이 인간에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 사이에 중간자가 있는데, 사유가 물질계에서 작동하기 위해 스며든 사물이 육체다. 즉 물질계에서 분리된 사유 실체가 ‘영혼’이며, 영혼이 육체에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사유는 육체를 지배하며 육체는 한편으로는 사물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와 작용을 주고받는 중간자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이 확립된다. 근대를 통과하면서 신문과 영혼론은 신학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사고 - 의식 - 마음’, ‘몸-신체’, ‘사물들의 세계’ 각각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마음은 몸에, 몸은 사물들에 작용을 가한다. 사물은 몸에 의해, 몸은 마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 관계가 때로 유물론이나 경험론에 의해 역전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그 세 영역의 독자성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세 영역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작용을 주고

<sup>13</sup> “이제 나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르네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48-49쪽) 데카르트의 ‘자아’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유하는 것(자)’이다. 데카르트는 인용한 부분 뒤에서 잘 알려진 ‘밀랍론’을 통해, 이 사유가 감각에, 나아가 물체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받는 항상적인 체계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가령, 마음의 우선성이나 독자성은 유지될 수 없다. 레비 브라이언트의 논의를 참조하면, 마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뇌와 몸과 세계 속 존재자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이다.<sup>14</sup> 마음의 통합적이고 반성적인 산출물인 ‘자아’ 또한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단일한 실체가 더 이상 아니다. 자아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동일성의 원리가 ‘기억’인데, 기억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효과이다.<sup>15</sup> 그렇다면 기억을 토대로 형성된 자아 역시 네트워크의 효과가 아닐까?

김초엽 소설에서도 ‘자아’(나)는 신경 뉴런들의 결합에서 발생한 사후적인 효과로 간주된다. 「관내분실」에는 ‘마인드 도서관’이 나온다. 이곳은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죽은 사람을 데이터화한 곳이다.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영혼이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고 의견을 모았

<sup>14</sup> 레비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146-147쪽.

<sup>15</sup> “기억을 ‘데이터의 블록’들이거나 두뇌에서 종렬로 행진하며 한 부분이 켜졌다가 꺼지곤 하는 개별적인 정보단위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록 기억이 신경 시스템의 여러 다른 영역에서 넓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을 그것에 기여하는 모든 사건들의 총합을 포함하는 하나의 활성화된 잠재성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을 (그리고 진정 사고를) 국부적 단위라기보다는 분산적 끌개(distributed attractors)로 간주해야” 한다(로버트 페페렐, 『포스트휴먼의 조건』, 이선주 옮김, 아카넷, 2017, 152쪽). 기억이 개별 신경세포에 저장되어 있다면 국부적인 단위를 가진 실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페페렐은 이런 가정이 지금은 폐기된 골상학에서 이어져온 낡은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기억은 개별 신경세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이다. “신경세포는 단지 인지에 이르는 사슬에서 링크로서 기능할 따름이다(하스, 『Creative Loop』, 48쪽(로버트 페페렐, 위의 책, 154쪽 재인용)).”

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관내분실』, 『빛의 속도』, 224쪽<sup>16)</sup>)

마인드 업로딩은 “뇌의 시냅스 패턴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패턴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방식”(『관내분실』, 246쪽)을 쓴다. “학자들은 시냅스 패턴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과 기억, 외부에 대한 반응 같은 자아 구성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을 통틀어 ‘사고 언어’라고 불렀다.”(같은 쪽) 마인드 도서관은 사람 뇌의 시냅스 패턴을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곳이다. 이 패턴 중에서도 그 사람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생각, 기억, 반응 등)들을 ‘사고 언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 기술은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1) 망자의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 혹은 마음은 살아남아서 ‘마인드 도서관’에 보존된다. 2)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반응을 가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1)이 죽은 사람의 영혼 혹은 자아의 실체를 긍정하는 것이라면, 2)는 그것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이 논란은 여전히 ‘자아’의 실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래의 관점에 근거한 논란이다. 두 관점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자아 혹은 영혼은 육체를 넘어서도 존재하며, 다만 마인드 업로딩 기술은 그 존재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그래서 망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뇌를 스캔할 때 원래의 뇌가 손상되며, 뇌의 시냅스 패턴을 온전히 분석하지 못한다고 설명된다.

<sup>16</sup> 이 논문은 김초엽이 출간한 세 권의 소설집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1.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이하 『빛의 속도』), 2. 『방금 떠난 세계』, 한겨레출판사, 2021.(이하 『떠난 세계』) 3. 『행성이 서점』, 마음산책, 2021. 본문에 인용할 때는 작품명과 쪽수를 함께 밝히도록 한다.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게 다예요? …(중략)…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관내분실』, 『빛의 속도』, 265쪽)

이 소설에서 ‘관내분실’이란 도서관에 기록된 ‘마인드’(망자의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찾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의 마인드를 구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인덱스’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접근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인덱스를 삭제하면 관내분실이 일어난다. 소설은 ‘송지민’이 마인드 도서관에 보관된 엄마(김은하)가 관내분실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알고 보니 그 범인은 아버지(송현욱)였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위와 같이 분노를 터뜨린다.

지민의 말에 따르면 ‘관내분실’된 엄마는 1) 세계에서 고립되었고, 2) 완전히 죽지 못했으며, 3)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의 전제와도 같다. 인덱스는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다. 인덱스가 제거되면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못하며, 따라서 완전히 무(無)가 되지도, 실존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즉 이 소설에서는 ‘연결’이 엄마를 실존하게 만들어 주며, 엄마의 자아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된 패턴에 가깝다.

화를 내는 딸 지민에게 현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중략)…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단 한 번이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관내분실』, 266쪽) 현욱은 살아생전에 우울증에 걸린 은하(아내)를 방치했다. 현욱은 그런 못된 자신을 보는 게 은하에게도 고통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은하가 “너무 진짜 같았”기 때문이다. 현욱의 진술은 시뮬레이션으로 등장한 마인드 속 은하가 ‘가짜’라

거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실감’이 난다는 뜻이 아니다. 현옥은 자신 앞에 선 은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은하가 자신을 보는 게 힘들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민 또한 복원된 엄마(은하)를 찾아가, 다시 말해 마인드에 접속해서 엄마에게 말한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관내분실』, 『빛의 속도』, 271쪽)

마인드라는 가상세계와 접속하자 생전의 엄마가 나타난다. 지민은 엄마에게 이제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지민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는다’. 이 두 가지 반응은 기억 데이터가 산출하는 통계적인 반응이 아니다. 생전의 모녀, 은하와 지민은 서로를 할퀴는 말들만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상에 출현한 망자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도, 실체를 부여받은 자아도 아니다. 은하는 뇌의 시냅스 패턴을 통해 나타난 네트워크화된 자아다. 생전의 은하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은하가 생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던 것이다.

「관내분실」에서 실제로 간주되는 자아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지민의 엄마 은하는 그 우울의 극단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동시에 소설은 만일 한 사람의 자아가 네트워크

의 효과로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 접속의 지점이 달라지는 순간 마음 역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낸다. 생전의 은하는 남편 및 자식들과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속되었지만, 마인드 속에서 은하는 그들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속된다.

이는 김초엽의 SF에서 자아(마음)가 몸의 네트워크(‘나는 뉴런의 시냅스 패턴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로부터 생성될 뿐 아니라, 나아가 타자들과의 네트워크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공생가설」은 이러한 타자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뇌의 해석 연구소’의 연구팀은 ‘생각-표현 전환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팀은 새 기술을 활용하여 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적 신호와 패턴을 분석했다. 아직 어떤 특정한 언어로 옮겨지지 않은, 사고언어라고 불리는 순수한 생각의 형태였다. 그리고 이제 연구는 사고언어를 역으로 표현에 맞추어 연결하는 작업에 접어들었다.”(「공생가설」, 111쪽) 이것은 뉴런의 전기적 신호와 패턴에서 언어화되지 않은 생각을 읽어내고, 이를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들이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신생아들의 울음이 이렇게 변환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다들 거기에 잘 계신가요?」

「아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여기야.」(「공생가설」, 『빛의 속도』, 114쪽)

데이터 오염이나 노이즈가 의심되었으나 실험을 거듭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기들이 일곱 살 무렵이 되면 이러한 이상한 언어들은 자취를 감춘다. 연구팀은 몇 년 전의 다른 실험을 떠올린다. ‘상자 속의 아이들’이라 불린 그 실험은 신생아들을 바깥 세계와 완벽하게 격리시킨 후에



보육 로봇만을 이용해서 키우는 실험이었다. 이 아기들은 “오직 욕구만을 위해 행동했고, 인간성이나 선한 성향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공생가설』, 125쪽) 마침내 비밀이 밝혀진다. ‘루드밀라’라 불리는 외계행성의 거주자들(연구자들은 이들을 ‘그들’이라 부른다)이 신생아들의 머릿속에 살면서, 생리적인 욕구만으로 가득 찬 아기들에게 이타적인 성향을 주입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 보육자가 아니라 ‘그들’이 아기들을 피와 눈물이 있는 존재로 키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 밖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공생가설』, 126쪽)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외계성이었군요.” (『공생가설』, 『빛의 속도』, 129쪽)

결국 두 편의 소설은 김초엽 소설에서 자아 구성의 두 가지 방식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자아는 뇌의 시냅스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난다. 둘째, 자아는 몸의 ‘욕구’와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생겨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구원의 말은, 이러한 상상력에 내장한 김초엽 소설의 문제 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sup>17</sup> 위의 국면에서 ‘나’라는 자아가 독립적인 단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의 효과라는 생각은 ‘나’와 ‘타자’를 분리하고 나누는 격벽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확장된다. 요컨대, ‘나’는 처음부터 타자와의 혼입과 연결로 이루어진 존재다. 따라서 타자와의 공생과 이타적 협력은 ‘나’가 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다. 단독자이자 실체인 자아가

17 『늑지의 소년』(『행성어 서점』)에서는 군사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네트워크화된 자아(‘우리’)와 인간의 신경세포와 군사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네트워크화된 자아(‘오웬 문치’)가 나온다. 또한 『오래된 협약』(『떠나온 세계』)에서는 행성 차원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자아가 나온다. ‘죽은 식물들로 간주되었던 ‘오브’가 사실은 행성 전체의 시간을 감당하는 네트워크화된 마음이었다. 『늑지의 소년』, 『오래된 협약』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양윤의, 『나는 이 다름이 마음에 들어 - 김초엽의 『방금 떠나온 세계』, 『행성어 서점』』(『문학과 사회』, 2022년 봄) 참조.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자들의 연합으로 자아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 (2) 물질과 횡단-신체성 : 「로라」, 「오염구역」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몸’에 대한 존재론적 전환은 앞의 장에서 다룬 자아의 네트워크적 특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로버트 페페렐은 의식이 “살아 있는 것에게서 나타나는 느낌과 정서와 기억의 합성물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뇌의 기능인 것만큼이나 거의 틀림없이 신체 전체의 기능이라 할 것”<sup>18</sup>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알다시피, 몸은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도 주관, 의식 vs 객관, 사물들의 세계 사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몸은 의식의 거소(居所)이자 물질들과 구별되는 의식화된 물질, 즉 의식이 외부 세계와 구별하여 자신과 일체화하는 물질이다. 그런데 마음이 몸과 일의적인 지평을 이룬다면, 몸도 물질과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스테이시 앨레이모는 몸이 처음부터 물질세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몸은 자연이 가로지르는 한복판에 있다. 자연이 독자적인 필요와 요구, 행위를 지닌 “살된 존재” 혹은 “몸된 자연”이라면, 신체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나아가 제도와 권력, 계급과 이데올로기가 횡단하는 유동적이고 개방된 장소다.<sup>19</sup> 스테이시 앨레이모는 몸의 이런 특성을

<sup>18</sup> 로버트 페페렐, 앞의 책, 42쪽.

<sup>19</sup> “몸들을 가로질러 사유하다 보면 비활성적이고 텅 빈 공간이나 인간이 사용할 자원으로만 여겨지는 환경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필요, 요구, 행위를 지닌 살된 존재(fleshy beings)의 세계임을 인식하게 된다. 몸들을 가로지르는 운동, 즉 횡단-신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다양한 몸된 자연들(bodily natures) 사이의 상호교환과 상호연결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횡단(trans)은 서로 다른 장소들을 가로지르는 운동임을 부각하기 때문에 횡단-신체성은 인간 몸, 비인간 생명체, 생태계, 화학 작용물, 그리고 여타 다른 행위자들의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반갑지 않은 작용들을 인정하는 유동적인 공간을 열어 준다(스테이시 앨레이모, 『말, 살, 흙』, 윤준·김종갑 옮김, 그립, 2018, 19쪽).”

‘횡단 - 신체성(trans-corporeality)’이라 부른다. 예컨대 노동자계급의 허파는 노동자에게 속하지만 “의학, 법률, 산업 위생, 직장 보건, 보험금 청구, 노동조합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횡단하는 대상이기도 하며<sup>20</sup>, 유방암에 걸린 여성의 가슴은 “공기, 토양, 경제적 · 인종적 위계질서, 그리고 여성의 몸 사이의 열려 있고 서로 연결된”<sup>21</sup> 상호작용의 터전이다. 북미 살충제 행동 네트워크는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살충제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런 “화학물질 침투(chemical trespass)”는 “‘동의 없이’ 몸으로 침투하는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침투 공간”으로서 횡단 신체성을 환기시킨다.”<sup>22</sup> ‘횡단-신체성’은 몸과 자연의 일의적인 지평을 전제로 하며, 이 몸 위에서 물질과 관념, 제도와 권력, 환경과 인간이 상호 교차한다.

사고로 절단된 사지에 환상통을 겪는 일은 흔했지만, 로라의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과잉 사지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어서, 어떤 재활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 유일하게 로라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치료였다. …(중략)… 시뮬레이션 치료는 예상했던 것보다 성공적이어서 로라가 느끼던 세 번째 팔의 통증은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세 번째 팔이 있다는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로라」, 『떠나온 세계』, 115~116쪽)

포스트휴먼의 문제를 조명하는 일련의 SF가 그러하듯, 김초엽의 「로라」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신체성을 기계의 이식을 통해 탐문한다. 소설의 ‘로라’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몸에 세 번째 팔이 있다는 감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환상통이 지금은 없는 수족이 ‘여전히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로

<sup>20</sup> 스테이지 앨리모, 위의 책, 76쪽.

<sup>21</sup> 스테이지 앨리모, 앞의 책, 237-238쪽.

<sup>22</sup> 스테이지 앨리모, 위의 책, 207쪽.

라의 ‘과잉사지통’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족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분명히 세 번째 팔이 있다는 감각은 선명한데, 그 감각이 있어야 할 곳에 팔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다. 이것은 잘못된 감각에 따른 오지각일까? 로라의 생각은 다르다. 로라는 연인(‘잔’)에게 이렇게 말한다.

“봐, 지금도 그 팔이 너를 만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포옹할 때 나는 세 번째 손을 이용해서 네 뺨을 쓰다듬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어떤 틈새에 낀 존재 같다고 느껴.”(「로라」, 『떠나온 세계』, 118쪽)

‘로라’는 사랑하는 이를 만질 때 세 번째 손을 통해 느끼는 감촉을 오지각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실재하는 감각을 따라 로라는 마침내 기계팔을 이식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달게 된 기계 팔은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신경 접합 부위를 덮은 인공 피부에서는 자주 진물이 흘렀고, 징그러운 흉터가 생겼다. …(중략)… 무거운 세 번째 팔 때문에 자주 균형을 잃었고, 염증으로 고생했다. 나중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팔의 기능마저 저하되었다. 의사는 기계 팔을 떼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로라」, 124~125쪽) 하지만 로라는 의사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로라에게 기계 팔은 자기 몸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팔을 포함해서, 기계와 몸이 결합된 신체가 자신의 몸이었던 것이다.

「로라」에서 신체와 다른 물질들의 연결, 결합, 횡단성이 기계 팔로 응집된다면, 「오염구역」에서는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탐구된다. 「오염구역」에서 지구는 외계 식물들의 ‘대침투’로 인해 인간이 거주할 만한 곳이 대부분 오염된 상태다. 오염된 곳, 다시 말해서 외계 식물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인간들은 죽거나 광인이 된다. 그런데 한 오지 산간마을의 주민들이

오염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광증에 걸리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라트나’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마을로 파견된다. 그가 마을에서 목격한 것은 온몸이 버섯에 덮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신체 곳곳에, 손과 발에 버섯을 기르고 있었다. 피부를 뚫고 버섯들이 자라나고 있었다.”(『오염구역』, 156쪽) ‘라트나’가 이들을 치료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되묻는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오염구역』, 157쪽) 하지만 주민들의 몸에 자라는 외계종 버섯들은 인간에게 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매우 치명적인 피부병과도 같아서, 자라나는 동안에도 피부를 끊임없이 찢어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습진, 염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여주는 것을 꺼려해 피부 안쪽까지 살피기는 어려웠지만, 장기까지 침투했으리라고 짐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곳 마을 사람들이 버섯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은 절대 가볍지 않을 터였다.(『오염구역』, 『행성어 서점』, 162쪽)

실제로도 이들은 라트나에게 두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했다. 그들의 머리에 흰머리처럼 자라나는 것들은 이미 버섯이 이들의 뇌에까지 뻗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라트나는 주민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외계종의 숙주가 된 셈이니, 언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처분될 겁니다. 오염된 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오염구역』, 166쪽) 외계종의 지배를 받아 주민들 전체가 오염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외계종의 침입을 받고서도 죽거나 미치지 않은 것일까? 이들은 몸에서 돋은 버섯을 다른 작물들과 함께 먹었다. “이 버섯들을 함께 먹으면, 괜찮습니다. 우린 그걸 마을사람들을 많이 잃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중략)… 버섯들이 있으면 죽지도 미치지도 않아요.”(『오염구역』, 161쪽)

이와 같이 김초엽 소설은 세계(물질)와 ‘나’가 상호작용하는 터전이 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생태학과 페미니즘을 비롯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유, 윤리적 요청과 자연스럽게 접목한다.<sup>23</sup> 특히 횡단-신체적 윤리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의 몸들이 어떻게 물, 영양분, 독성물질, 그리고 여타 물질들의 영구적인 흐름들로 장소와 내부 작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주목되거나와,<sup>24</sup> 「오염구역」의 서사는 우리가 외부라고 여기는 사물들의 세계가 사실은 내부임을, 그 세계가 우리의 몸을 횡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가 아니라 ‘몸된 자연’이며, 물질이 우리의 작용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살된 존재’라는 앨리모적 인식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소설은 외계종 버섯들을 퇴치해야 마땅한 장애나 해악으로 여기면 이들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들이 신체에 들어오면 신체는 오염되어 죽음과 광기를 피할 수 없다. 반면에 외계종 버섯들이 신체를 점유하는 것을 용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비록 얼마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인간과 버섯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은 버섯을 먹고, 버섯은 인간의 몸 위에서 번성한다. 라트나는 이 버섯이 광증을 막아주는 게 아니

23 대표적인 사례로 로지 브라이도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포스트휴먼 주체들 사이에서 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횡단적 연대는 공동체를 재조직할 가능성과 휴머니티 개념 자체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윤리적 소속을 위한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가능성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 멸종까지 포함하는 지구행성적 위협의 공유라는 부정적 유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략)… 인류세의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포스트휴먼 주체들인 우리가 어떤 되기가 가능할지에 대한 기획을 집단적으로 실험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모델을 생각할 수 있고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134쪽).”

24 “환경들과 ‘몸들’은 내부 작용하면서 공동 구성된다”는 인식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몸들과 장소들의 물질적 상호관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강력한 횡단-신체적 윤리를 유발한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들의 몸들이 어떻게 물, 영양분, 독성물질, 그리고 여타 물질들의 영구적인 흐름들로 장소와 내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인간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의 작용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생명체들, 생태계들, 그리고 여타 비변별적 생명 형식들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한다(스테이시 앨리모, 앞의 책, 382-383쪽).”

라, 이미 버섯과 인간의 육체가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사체들이 이미 그들의 뇌로도 퍼진 지 오래일 것이다.”(『오염구역』, 170쪽) 마을의 주민들이 외계의 식물들과 공생하는 신체를 가졌음을, 소설은 네트워크화된 뇌(군사체), 환경과 구별되지 않는 신체(몸), 그리고 그 신체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들고남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 (3) 시뮬레이션 우주와 기원 생산: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최후의 라이오니」

전통적인 존재론에서 물질의 세계는 인간의 감각과 인식이 가닿지 못하는 불가지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물자체’는 현상의 원인 혹은 표상의 근거로 간주되지만, 그것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 세계이며 따라서 사유할 수는 있지만 인식할 수는 없는 세계다. 그것은 인식 능력의 월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한계 개념(Grenzbegriff)으로서만 의의를 갖는다. 인간은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이나 상상력이나 지성을 통해서 파악한 표상들과만 관계할 뿐이다.<sup>25</sup> 이렇게 본다면 전통적인 존재론에서도 이미 물질의 세계 즉 물자체와 가상의 세계 즉 현상 혹은 표상은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 경험론과 합리론의 입장이 대두하겠지만, 이 두 세계의 분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원본과 사본이라는 플라톤적 분할을 받아들이게 된다.

25 브뤼노 라투르는 칸트의 ‘현상’이 ‘초월적 자아’와 ‘물자체’ 사이에서 유동하는 “불안정한 지시체”라고 지적한다. 현상이 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끝을 “계속해서 더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브뤼노 라투르, 『판도라의 희망』, 장하원·홍성욱 옮김, 휴머니스트, 2018, 126쪽) 둘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자체(라캉의 용어로는 실재)가 현상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고 간주해야 한다. “라투르의 탈출 경로는 실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저항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실재와 접촉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실재는 장막 뒤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지 않는다. 사물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번역하며, 결코 서로 단절되지 않는다(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19, 153쪽).”

예컨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실제 세계의 복사라는 점에서 이미 원본에서 떨어져 나온 사본(寫本), 진짜와 다른 가짜, 참과 구별되는 거짓이다. 그런데 이런 분할에서 원본과 사본,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sup>26</sup> 예컨대 플라톤은 세계의 물상들에는 그것들을 산출한 원인이자 본질로서의 이데아가 있다고 추론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보는 것은 그 이데아의 사본인 사물(현상) 뿐이다. 이데아는 현상계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데아론에서 이데아가 가상이고 사본인 사물들이 실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드는 것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예찬하는 ‘전원’은 사물들의 세계인가? 그것은 도시라는 실제의 삶이 만들어낸 가상 아닌가? ‘민족’은 실재하는 집합명사인가? 그것은 근대의 기획에 의해 탄생한 이데올로기적 사본 아닌가? 가상은 그것을 낳았다고 가정되는 원본을 사후적으로 혹은 재귀적으로 ‘발명’해낸다. 우리는 그 가상에 비추어서만 원본을 인식할 수 있다. 결국 세계는 물질과 가상, 원본과 사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가상과 그것이 모델이 되어 구축된 또 다른 가상으로 나뉜다.

26 “가상현실 시스템은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의 눈과 귀가 지향하는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데이터를 출력해주어야 한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자가 어디로 눈을 향하는지, 이리저리한 소리를 듣기 위해 머리를 어디로 돌릴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첫째는 실제 세계와 동일한 시각·청각·촉각을 느끼게 하는 ‘디스플레이’(Display) 기술이다. 둘째는 움직이는 영상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그래픽 렌더링’(Graphic rendering) 기술이고, 셋째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트래킹’(Tracking) 기술이다. 마지막은 가상세계의 모형물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기능이다(이종관, 『포스트휴머니즘이 온다』, 사월의책, 2017, 179쪽).” 이러한 기술은 이미 ‘가상’ 현실과 ‘실제’ 세계를 구별하고 있으며, 네 가지 기술은 실제 세계를 가상현실에 ‘그릴듯하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네 가지 기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계를 인지하는 네트워크적 기능이 아닌가?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세계를 감지하는 방식이고, 그래픽 렌더링은 뇌가 감각 정보를 종합하는 방식이며, 트래킹은 뇌와 운동기관이 연합하는 방식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뇌와 몸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기술이 가상현실을 만든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포착하는 실제 세계도 사실은 가상현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이하 「순례자들」)는 기원을 이야기하는 우화이자 창조신화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릴리’라는 여성 과학자다.<sup>27</sup> 유전병으로 인해 얼굴에 흉터를 갖고 태어난 릴리는 인간배아 디자인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무결한 인간들을 만들어낸다. ‘디엔’(릴리가 익명의 프리랜서 바이오해커로 활동할 때의 이름)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자 세상에는 그 기술에 바탕을 둔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답고 유능하고 질병이 없고 수명이 긴 새로운 인류”(「순례자들」, 42쪽)가 탄생했다. 이들은 ‘신인류’ 혹은 ‘개조인’이라 불리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과 능력과 건강과 장수를 선물하겠다고 생각한 릴리의 꿈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만다. 릴리의 기술을 흉내 냈으나 실패한 시술로 인해 탄생한 기형아들, 유전자 개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개조인들이 변두리로 밀려나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릴리의 배아 디자인 연구는 세상을 배제의 층계로 나누었을 뿐”(「순례자들」, 45쪽)이다.

이 과정에서 릴리는 자신의 딸이자 클론인 ‘올리브’를 만든다. 릴리는 “그녀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좋은 특성들, 아름다움과 지성, 호기심과 매력”(「순례자들」, 46쪽)을 모두 올리브의 유전자에 넣지만 딸에게 결함이 발견된다. 올리브가 릴리와 똑같은 유전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릴리는 올리브를 ‘폐기’하지 않고 낳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동안의 연구를 폐기하고 디엔으로서의 활동도 그만둔다. 그리고 릴리는 지구 밖에 ‘마을’을 세운다. 릴리와 올리브처럼 “얼굴에 흉측한 얼룩을 가지고 태어나도, 질병이 있어도, 팔 하나 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세계”(「순례자들」, 48쪽), “아름답고 뛰어난 지성을

<sup>27</sup> 이 소설의 서술자이자 편지의 발신자는 ‘테이지’이고 수신자는 ‘소피’이며(소설은 테이지가 소피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한다). 감추어졌던 주인공은 ‘릴리’이고 릴리의 행적을 추적하는 사람은 그녀의 딸인 ‘올리브’다(‘릴리’의 서사는 올리브의 추적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구성이 복잡하게 된 것은 이 소설이 릴리의 ‘창조’ 이야기를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신인류가 아니라, 서로를 밟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신인류”의 세계, “그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계”(「순례자들」, 49쪽)다. 소설의 제목을 이루는 ‘순례’는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열여덟 살이 되면 성년식 의례로 시초지(지구)로 떠나는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남는 것을 선택한다. 차별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구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조신화의 의미소들을 탈구축한다. 릴리는 세계와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 자신이 결함(유전병)과 추(열독)를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따라 자식과 세상을 디자인했으나, 그 결과 자식인 ‘올리브’에게도 여전한 결함이 있고 세상 즉 ‘지구’에는 더 큰 분열과 차별이 발생한다. 마침내 릴리는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관점을 바꾸어, 병과 장애가 있으나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신인류들의 세상인 지구 밖 ‘마을’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 과정에서 원본과 사본이 얹히고, 인류와 신인류의 위상이 뒤집힌다.

이를 정리해보자. 최초의 지구(원본 A)에는 결함과 질병이 있었다. 릴리는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 완전한 신인류(개조인)와 실패한 신인류·비개조인의 분열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사본 A이자 원본 B), 릴리가 새롭게 창조한 ‘마을’은 불완전하지만 갈등을 겪지 않는 신인류들의 거주지(사본 B)다. 그런데 이 ‘마을’은 릴리의 창조활동 이전의 원래 지구와 다르지 않다(원본 A이자 사본 B). 한편 릴리를 포함한 구인류에게는 결함이 있었다(원본 A). 릴리가 고안한 유전자 디자인 기술로 태어난 신인류(사본 A+)가 있으며, 릴리를 흉내 냈으나 실패한 기술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들(사본 A-)과 비개조인들(원본 A)이 있다. 릴리가 최상의 솜씨로 만들어낸 자신의 사본(‘올리브’)은 최상의 상태를 갖추었으나 유전병을 갖고 있다(사본 A+이자 사본 A-).

그렇다면 원본과 사본은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차악인가?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쪽이 거짓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물론 지구 밖

‘마을’은 결함이 있는 이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차별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본(릴리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세계)이자 원본(최초의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세계)인 ‘마을’에서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 대신 ‘사랑’도 생기지 않는다.

소피, 우리가 왜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시초지의 역사를 배우며 그렇게 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을에서 자란 이들이 서로 연인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나 자매처럼 자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낭만적 감정도 성애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단지 우연이기만 할까?([순례자들], 『빛의 속도』, 152쪽)

이것이 순례를 떠난 이들이 시초지(지구)를 방문한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다. ‘마을’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 즉 동일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반면 지구에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충격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수없이 많”([순례자들], 152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사랑은 바로 이런 ‘다름’에서 생겨난다.<sup>28</sup> 동일자들 사이에는 이 다름이 없으며, 다름에서 생겨난 “고통과 비탄” 그리고 “사랑”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시뮬레이션우주(사본 B)는 최초의 우주(원본 A)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형하는 모델이 된다. 시뮬레이션에 요구되는 정보 피드백 루프는 항상성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귀성과도 관련된다. “재귀성이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용된 것이 변화된 관점을 통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움직임이다.”<sup>29</sup> 시뮬레이션은 원본 우주를 가상화한 우주가 아니라, 그 자신의 현현

<sup>28</sup> 김초엽의 SF 전략을 ‘다름’의 양상들 및 방법론으로 읽어낸 논의로는 양윤의, 앞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최후의 라이오니」에 대한 논의는 양윤의의 선행 논의를 본고의 문제의식에 따라 확장하여 다룬다.

을 통해 기원으로서의 우주를 구성한다. 원본은 이 가상(시물레이션)의 가상이다. 시물레이션우주가 나타나고 나면, 원본우주는 그것을 낳은 보이지 않는 기원으로 (마치 이데아처럼) 현상계의 바깥에 자리를 잡는다. 사유할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본우주는 시물레이션우주의 가상이다.

「최후의 라이오니」에서도 창조와 가상의 관계가 역전된다. ‘나’는 폐허가 된 어느 행성계의 거주구를 탐사하다가 로봇들에게 붙잡힌다. 로봇의 지도자인 ‘셀’(시스템 오퍼레이터)은 자신들을 구해준 ‘라이오니’란 인물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를 라이오니라고 생각한다.

“산산조각이 난 셀을 목숨 걸고 구해준 게 라이오니였습니다. 라이오니에게도 셀은 특별한 기계였습니다. 폐기 당해야 했던 라이오니를 구해준 기계가 셀이었으니까요.”

...(중략)...

“이곳은 불멸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라이오니는 이곳에 살던 불멸인들의 복제였고, 동시에 결합 있는 복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이기도 했지요.”  
(「최후의 라이오니」, 『떠나온 세계』, 35쪽)

폐허가 된 이곳은 본래 “불멸인들의 도시”였다. “자신들의 건강한 복제를 생산하고 몸을 교체하면서 기억과 자의식을 단절 없이 전송하는 기술이 불멸을 가능하게 했다.”(「최후의 라이오니」, 36쪽) 이들이 자의식을 가진 복제인들(라이오니는 그 중의 하나였다)과 기계들을 만들었다. 그러다 감염병이 돌면서 불멸인들에게 죽음이 닥쳤다. 공포와 폭력이 휩쓸고 간 다음, 살아남은 불멸인들은 거주구를 버리고 우주로 떠난다. 라이오니는 기계들과 남았으나 거주

29 캐서린 헤일스, 앞의 책, 33쪽.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재귀성의 예로 괴델의 정리, 예서의 서로를 ‘그리는 손’, 보르헤스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인물이 그 자신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 등을 들고 있다.

구의 환경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자,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거주구를 떠난다. 세월이 흘러 ‘나’가 이곳을 찾아왔다. 라이오니의 복제인인 ‘나’가. “라이오니가, 나의 원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최후의 라이오니』, 48쪽)

이 소설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복제)의 세계는 전도된다. 불멸인들은 최초의 창조주였으나 죽음을 겪는 불완전한 존재(원본 A)였으며, 라이오니는 결함이 있는 복제(사본 A1)이자, 복제인 ‘나’(사본 B)를 만든 창조주(원본 B)이기도 했다. 기계들 역시 결함이 있는 복제(사본 A2)이고, 라이오니와 기계(‘셀’)는 서로를 구조한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창조주인 원본)에게 부여한 가치는 정작 사본들에게서 발견된다. 서로를 구한 라이오니와 기계들이 그렇고, 행성을 떠난 이후 소식이 없는 라이오니를 기다리며 남아있는 ‘셀’과 동료 기계들이 그렇다. 마침내 라이오니의 복제인 ‘나’는 셀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셀에게 들려주는 나의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이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최후의 라이오니』, 『떠나온 세계』, 49쪽)

‘나’는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백에 담긴 진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sup>30</sup> ‘나’는 라이오니의 복제로서, ‘나’의 유전자에는 라이오니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셀’도 ‘나’가 라이오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다. “때로 셀은 나를 라이오니라고 부르기를 주저했고,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은 마치 자신이 라이오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들렸다.” (『최후의 라이오니』, 51쪽) 그럼에도

<sup>30</sup> ‘나’와 셀 사이의 “이중화된 거짓말”은 소설에서 두 인물이 “타자로서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양윤의, 앞의 글, 226쪽.

불구하고 셀의 기다림이 헛되었던 것도 아니다. ‘나’는 라이오니의 모습과 성정을 가지고서 라이오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가상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의 산출자가 된다.

이처럼 김초엽의 소설이 구축한 ‘시뮬레이션 우주’는 가상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본 우주의 사본이면서도 그것의 재귀적 특성으로 인해 원본 우주를 가상화하는 원본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자면, 김초엽 소설의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 자체로 사건성을 띤다. 자아는 타자의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신체는 내부와 외부가 교차하며 구성되듯, 시뮬레이션 우주는 삶과 믿음과 물질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우주인 것이다.

### 3. 결론을 대신하여: 김초엽의 SF가 모색하는 존재의 미래

이 연구는 김초엽의 소설에서 전통적인 존재론의 주요 거점인 자아, 몸, 세계가 새롭게 인식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김초엽의 대표작을 잠시 환기하려 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하 「빛의 속도」)에서 한 여성 노인 과학자(안나)는 가족들이 있는 행성으로 무의미하고도 불가능한 여행을 떠나려 한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가족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이 우주선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나는 우주 정거장을 폐기하러 온 직원의 제지를 뚫고 끝내 그곳을 향해 출발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빛의 속도」, 182쪽) 안나가 목표로 한 행성(슬렌포니아)은 연방의 여행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안나의 여행은 이 네트워크를 이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네트워크를 잇는 노력, 그것은 연대와 사랑의

힘이다.

김초엽 소설이 토대하는 새로운 인식론의 궁극적인 문제의식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자아는 타자와의 공동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바로 그 ‘외계성’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은 네트워크화된 자아에 공생과 공존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횡단-신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면, 김초엽 소설은 한편으로는 사물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생명과 상호작용하는 몸을 상상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가 이미 종과 종, 종과 사물이 횡단하는 신체이기에 김초엽 소설은 이 몸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우주는 원본과 가상이라는 전통적인 분할을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창발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조하는 세계는 거짓, 파생물, 허상이 아니다. 그 세계는 소망과 믿음을 투영하고 현실화시킨 세계이다. 그 세계는 미완과 결여, 나아가 때로 고통마저 포함하고 있지만, 김초엽의 소설은 시뮬레이션 우주의 사건성을 긍정하려 한다. 소설에서 그러한 긍정은 원본을 생산하는 가상이라는 역설적 힘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_\_\_\_\_, 『방금 떠나온 세계』, 한겨레출판사, 2021.  
\_\_\_\_\_, 『행성어 서점』, 마음산책, 2021.

### 2. 단행본

#### <국내서적>

-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이종관, 『포스트휴머니즘이 온다』, 사월의책, 2017.

#### <번역서>

-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19.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레비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로버트 페페렐, 『포스트휴먼의 조건』, 이선주 옮김, 아카넷, 2017.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브뤼노 라투르, 『판도라의 희망』, 장하원 · 홍성욱 옮김, 휴머니스트, 2018.  
스테이시 앨리모, 『말, 살, 흙』, 윤준 · 김종갑 옮김, 그린비, 2018.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열린책들, 2019.

### 3. 논문

-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 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 문학연구』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020.  
박인성, 「SF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 배명훈 · 김초엽 ·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신성환, 「확장된 마음과 인간 - 기술의 올바른 연합: 김초엽 소설 두 편을 중심으로」, 『동남아문논집』 49집, 동남아문학회, 2020.  
양윤의, 「나는 이 다름이 마음에 들어」, 『문학과 사회』, 2022년 봄.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오은엽, 「SF 서사에 나타난 환상적 경이와 과학적 상상력 - 김초엽의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연구』 72, 우리문학회, 2021.

## The Exploration of the New Ontology in Kim Cho-yeop's Fictions

Yang, Yuneui • Cha, Miryeong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GIS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ego, body, and world appearing in Kim Cho-yeop's SF (Science Fiction) and tries to discover its ethical and practical meaning. In this paper, the search for Kim Cho-yeop's SF, which is distinct from traditional ontological thinking, is identified as 'networked ego', 'trans-corporeality', and 'simulation universe'.

Kim Cho-yeop's fictions reveal ethical and practical orientation through such an ontological search. The 'networked ego' that appears in Kim Cho-yeop's fictions is the starting point that enables the values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with others, as well as symbiosis and coexistence, in Kim Cho-yeop's novel. The 'trans-corporeality' that intersects species and species and species and objects appearing in Kim Cho-yeop's fictions is ultimately extended to the thought of a new community. Lastly, in Kim Cho-yeop's fictions, 'the simulation universe' is not a world of lies and illusions, but a world in which vision, trust and belief are projected and realized. In Kim Cho-yeop's fictions, this simulacra is also a paradoxical force that produces origins.

**Key words :** Kim Cho-yeop's SF (Science Fiction), 'Networked ego', 'Trans-corporeality', 'Simulation universe'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번역사회학 시각에서 본 중국에서 장혁주 문학의 번역 및 수용 양상\*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중심으로

리둥메이(李冬梅)\*\* · 김성(金星)\*\*\* · 왕옌리(王豔麗)\*\*\*\*

1. 서론
2. 본론
3. 결론

## | 국문초록 |

이 글은 부르디외가 제시한 장(field), 아비투스(관습: habitus), 상징자본(symbolic capital)과 같은 사회학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장혁주문학의 번역 및 수용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상이한 정치·문화적 배경(장: 場), 그리고 원저자·번역자 등이 지니고 있는 자본과 아비투스(관습) 등 요소가 번역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혁주가 20세기 상반기 중국의 한국문학번역사를 가장 풍요롭고 다채롭게 장식한 한국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문학장(場)의 특성과

\* 이 연구는 202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21-R-033).

\*\* 青岛滨海学院.

\*\*\* 牡丹江师范学院.

\*\*\*\* 通讯作者, 吉林大学.

연관성이 크지만, 작가 본인의 문학 특징(자본 및 관습), 그리고 번역자 겸 평론참여자들의 영향력과 문학 특징(자본 및 관습) 등 번역텍스트의 번역·수용 과정에 개입한 내부적인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관련 번역 현상을 조명할 때 이러한 논리가 보다 더 전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장혁주가 중국의 한국문학번역사를 장식한 한국작가가 된 것은 사실은 중국문단이 세계문학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번역사회학, 부르디외, 장혁주, 한국문학중역사, 장·자본·아비투스(관습)

## 1. 서론

20세기 상반기는 중국번역사에 있어서 세번째 흥성기로, 특히 외국문학번역의 황금기로 규정되어 왔다.<sup>1</sup> 한국문학이 ‘타자’로서 본격적으로 중국 지식인들의 시야에 포착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가령 1925년 주작인(周作人)이 주간지 《어사(語絲)》에서 3편의 조선전래동화를 번역한 것을 한국문학중역사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 1949년까지 중국에서 대개 70여종의 한국문학작품이 번역되었다. 그 중 주로 일본어로 창작을 하고 나중에 일본국적까지 취득한 장혁주(1905~199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30년대부터 1949년대까지 중국에서 번역·소개되었던 장혁주의 작품은 무려 30여종(단편소설 6편, 희곡 1편, 수필과 논평 21편, 동화집 1권)<sup>2</sup>에 달한다. 관련 번역·소개 작업은 두개의 지역(중국 중부에 위치한 상해와 북쪽에 위치한 위만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중역사에서 여러 개의 놀라운 기록도 세웠다.<sup>3</sup> 이로써 장혁주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조선작가로 자리매김되었다. 아직 한국문학이 많이 낯설었던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의 경우, 조선의 문화, 문학 내지 사회 양상을 이해하는데에 장혁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마디로 “20세기 전반기 한국문학중역사를 가장 풍요롭고 다채롭게 장식한 사람이 바로 장혁주”<sup>4</su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에서 이렇게 장혁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번역작업이 전개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20세기 상반기 장혁주가 중국으로 성공적으로 ‘월경(越境)’ 할 수 있게 된 데에 작용된 외부적,

<sup>1</sup> 학계에서는 보통 중국의 번역사를 1) 동한(東漢)부터 수당(隋唐)에 이르기까지의 불경번역 시기; 2) 명청시기의 과학기술서적번역 시기; 3) 54운동 전후의 외국문학번역 시기; 4) 1949년 신중국 건립후의 전방위 번역시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한다. 김혜림, 『중국의 번역 연구 동향』, 『번역학 연구』 13권 4호, 2012, 30쪽.

<sup>2</sup> 주요 번역된 작품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다(평론문 제외):

내부적 요소들이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장혁주문학의 동아시아 월경(越境) 양상을 다룬 연구성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즉 주요 번역사실을 살펴보고 관련 텍스트를 정리하는 연구,<sup>5</sup> 번역텍스트 유통의 루트를 탐구하고 장혁주를 거울로 삼아 대만문학 발전의 흐름을 조명하는 시도,<sup>6</sup>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발표시간	제목 / 장르	번역자	등재지면, 출판사	비고
1933	被驅逐的人們 / 小說 (쫓기는 사람들 / 소설)	王笛	『文學雜誌』第1卷3-4期	저본: 일본어 판
1934		葉君健	『申報月刊』第3卷第6期	저본: 에스펜란도판
1934	姓權的傢伙 / 小說 (권이라는 사나이 / 소설)	黃源	『文學』第3卷第1期	1936년 상무인서국 『現代日本小說譯叢』에 수록
1935	荒地(一, 二) / 小說 (황무지 / 소설)	葉君健	『大眾知識』第1卷2-3期	일본에서 발표하기 전에 장혁주가 염근건의 부탁으로 먼저 보내준 텍스트이다. (p.8, 각주'2' 참조 바람)
1935	山靈 / 小說 (산신령 / 소설)	胡風	『世界知識』第2卷第10期	단행본《山靈-朝鮮臺灣小說選》(1936) 및 《弱小民族小說選》(1936)에 수록
1936	上墳去的男子(上, 下) / 小說 (성묘하러 가는 남자 / 소설)	馬荒 (胡風)	『國聞週報』第13卷7-8期	단행본《山靈-朝鮮臺灣小說選》(1936)에 수록
1937	山狗 / 小說 (산양개 / 소설)	陳夷夫	『明明』第2卷第3期	단행본《朝鮮短篇小說選》(1941)에 수록
1939	春香傳 / 戲劇 (춘향전 / 희곡)	外文(單庚生)	『藝文志』第1輯	
1941	李致三 / 小說 (이치산 / 소설)	遲夫	『黎明』	단행본《朝鮮短篇小說選》(1941)에 수록
1943	朝鮮春 / 隨筆 (共21篇)	範泉	上海文星出版社	『朝鮮風景』上海永祥印書館 (1946년에 2판), 1948, 1950년에 3판, 4판
1946	黑白記 / 童話 (홍부전 / 동화)	範泉	上海永祥印書館	陳煙橋- 그림

3 요컨대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된 것, 번역 작품의 장르가 가장 다양한 것, 유일하게 단행본이 출판된 조선인 작가, 여러번 중역재판이 이루어던 조선인 작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조선인 작가” 등 기록들을 말한다.

4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언문학연구』 51집, 2016, 134쪽.

5 김장선, 위의 글, 119-139; 楊昭全, 『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 北京: 崑崙出版社, 2004; 鄒振環, 『文學翻譯史上的中國與朝鮮』, 『韓國研究論叢』, 1995, 197-213.

“약소민족” 번역의 계보를 그려보는 연구,<sup>7</sup> 동아시아 장혁주 현상의 출현을 외부적인 요소 즉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시국의 영향으로 귀결시켜 거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sup>8</sup>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장혁주 문학이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월경(越境)’ 현상을 조명하는 데에 분명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 중 사회, 시대적 배경 등 외부적 요소에 주목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반면 텍스트의 번역·소개·수용 과정에 작동하였던 내부적 요소들, 예컨대 원저자, 번역자, 평론참여자 등 개체의 역할까지 포괄하여 관련 현상을 보다 더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시도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 또한 실정이다.

이 글은 번역학의 시각으로 20세기 상반기 중국에서 장혁주 문학의 번역·수용 양상을 재구성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여기서 동원될 이론적 근거로는 최근 10여 년간 번역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아온 프랑스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가 제시한 세 가지 개념, 즉 장(場: field), 아비투스(관습habitus: 이하 ‘관습(慣習)’으로 칭함), 상징자본(symbolic capital: 이하 ‘자본’으로 칭함),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번역사회학의 기본적 주장인 “장+관습+자본=번역실천” 등이다. 본 연구는 ‘번역텍스트를 번역학연구의 범주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시도로서 기존의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며, 나아가 한국문학중역사연구의 내포와 외연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6 柳書琴, 「“送報夫”在中國: “山靈”與楊逵小說的接受」, 『臺灣文學學報』, 2016년 29期; 白春燕, 「東亞文學場域的文本流動: 胡風譯“山靈”」, 『中國現代文學』, 2017년 32期; 馬泰祥, 「“張赫宙情結”—論日據臺灣日語作家的進階目標與創作窘境」, 『中國比較文學』, 2016년 2期: 145-162; 최말순, 「1930년대 대만 문학 맥락 속의 장혁주」, 『사이間SAI』 11호, 2011.

7 吳淑潔, 「世界的中國: “東方弱小民族”與左翼視野的重構—以胡風譯“山靈”為中心」, 『文學評論』, 2020년 6期, 212-220; 金鶴哲, 「1949年以前韓國現代文學中譯和意識形態因素」, 『中國比較文學』, 2009년 4期, 61-71.

8 이동매,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 『한국학연구』 61집, 2021, 383-410쪽.

## 2. 본론

### (1) 번역연구의 사회학적 전환 및 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

주지하듯 지난 1980년대부터 번역학연구는 종래의 ‘언어학 중심’으로부터 ‘문화적 연구’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른 바 번역연구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서구 번역학계 내에 번역 행위가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 번역물의 생산과정, 즉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각 번역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로써 번역의 사회적 특성이 갈수록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번역이 본질적으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활동(social activity)이며, 번역 주체와 번역 활동은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는(constructed)’ 한편,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형성하기(constructing)’도<sup>9</sup> 한다면서 사회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번역학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움직임은 번역학연구의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sup>10</sup>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번역사회학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연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해 보면, 1990년대에 번역학과 사회학 사이의 접촉 및 연계가 확대·강화되었고, 21세기 초부터 번역사회학을 체계적 구축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번역사회학의 토대를 쌓은 연구 중 부르디외가 제시한 장(field), 관습(habitus), 자본(symbolic capital) 등 개념이 중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선 ‘현대

<sup>9</sup> 이영훈,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제2권,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소, 2021, 52쪽.

<sup>10</sup> 이영훈, 위의 글, 49쪽; 陸志國, 「布迪厄社會學理論視角下的翻譯翻譯:回顧與反思」, 『解放軍外語學院學報』, 2020(3), 51쪽.

<sup>11</sup> 이영훈, 앞의 글, 50쪽.



사회가 종교, 문화, 학술 등과 같은 고도로 이질적이고 상이한 실천 영역들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 비교적 자율적인 실천 영역들이 ‘장(場)’으로 규정된다. 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agents)은 일련의 기성된 규칙(nomos), 불문율로서의 통념(doxa), 관련 어휘 및 담화 패턴(logos)등을 공유하며, 각 장에는 고유한 다툼의 대상(stakes) 및 이해관계(interests)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는 ‘자본’이란 개념인데, 이는 각 ‘장’이 어떻게 작동하며, ‘장’ 내에서 주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각종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원 및 상징적 자원들의 교환을 포괄함으로써 개인의 실천이 축적된 결과 각종(경제, 문화, 사회)자원이 특정 ‘장’ 내에서 주체의 자질이나 특징으로 인정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습(habitus)’이란 가까우면서도 성장과정과 사회 활동을 통해 습득되고, 각종 사회 공간 내에서 형성되거나 조절되며, 육화되고(embodied), 내면화된(internalized)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그의 과거 경험(성장 및 교육)과 현재 상황들(실천 환경 및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습이 개인의 현재 실천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여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sup>12</sup>

이상의 논의들에 기반하여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번역활동을 분석할 때 주로 세 가지 측면—“주 권력장에 대응하는 각 ‘장’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장’에 대한 연구), ‘장’에서 활동하는 각 참여자들의 상호관계구조를 그려보는 것(‘자본’에 대한 연구), 번역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의 관습을 분석하는 것(‘아비투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의 연구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되어, 번역사회학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한 셈이다.<sup>13</sup>

<sup>12</sup> 부르디외·로익 바강, 『성찰적 사회학으로서의 초대』, 李猛等譯, 北京: 中央編譯局, 2004, 140-211쪽.

<sup>13</sup> 王悅晨, 「從社會學角度看翻譯現象: 布迪厄社會學理論關鍵字解讀」, 『中國翻譯』 2011(1), 9쪽.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논한다면, 번역은 과정에 참여한 모든 개체, 즉 원저자, 번역자, 후원자, 출판자, 평론자 내지 독자 등이 각자의 ‘자본’을 가지고 일정한 관습에 따라 번역활동이 벌어지는 ‘장’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장+관습+자본=번역실천”이라는 공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번역사회학의 연구내용으로는, 문화상품의 관점에서 번역물의 출판, 유통, 소비에 대한 분석, 사회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사회적 지위, 활동영역, 교육, 전문화, 네트워크 등에 관한 분석, 그리고 번역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관습이 번역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번역사회학 관련 이론에 근거하여 번역연구를 전개할 경우 번역활동의 외부적인 요소를 보다 더 뚜렷하게 조망할 수 있을 뿐더러 구체적인 텍스트 및 번역작업에 개입하였던 모든 개체에도 보다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번역텍스트의 생산과정, 전체적 면모 내지 수용 양상 등 제 문제를 보다 더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sup>14</sup>

앞서 말했듯이 장혁주의 작품은 식민지시기에 다른 조선작가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번역사회학을 도입하면 장혁주가 어떻게 한국문학중역사(中譯史)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

## (2) 번역사회학에 기반한 장혁주작품 중역본의 생산·구축 과정 분석

### ① 1930~1940년대 중국문학장(場)의 특징 및 외국문학번역의 관습(慣習)

장혁주 문학의 중국어번역은 1930년~1940년대에 집중되었는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1937년이전)의 번역은 주로 국제무산계급운동 풍조의 영향을 받아 후평(胡風)

<sup>14</sup> 王洪濤, 「建構“社會翻譯學”: 名與實的辨析」, 『中國翻譯』 1집, 2011, 9-10쪽.

을 비롯한 좌익진영의 지식인들이 약소민족, 반제항일(反帝抗日)과 국제무산계급 연대 등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전개한 것이고, 번역작업이 행해졌던 장(場)은 상해 및 주변지역이었다. 후기(1937년이후)의 번역작업은 일제 통치하의 위만주국, 그리고 함락구(淪陷區: 즉 피점령지역)로 전락된 후의 상해지역 이 두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제의 절대적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전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번역사회학에서는 모든 번역작업이 다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된다”고 한다기에 이 글에서 구체적인 번역사실을 검토할 때 먼저 해당 기간의 문학장과 번역장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 1920~1930년대는 국제무산계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로, 전세계를 휩쓸었던 무산계급운동풍조가 동아시아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번역사회학에 의하면 ‘장’은 여러 세력이 서로 작용하고 대결하는 공간으로 그중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세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sup>15</sup> 1930년대 중국 문학장의 양상을 보면, 우선 전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무산계급풍조의 영향을 받아 좌익경향의 문학작품이 대거 창작·출판되어 독자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고, 나중에 ‘중국좌익작가연맹(즉 ‘좌련’)과 같은 중국 현대문학사상 중요한 문학단체도 성립되었다. ‘좌련’은 중국좌익문학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중국에서 좌익문학의 대성행을 이끌었다. 자료에 의하면 1930~1936년 즉 ‘좌련’이 왕성적으로 활동하던 기간엔 당시 중요한 문예지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좌익경향의 문학작품을 게재하고, 심지어는 좌익작품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문예지가 팔리지도 않았다는 일화도 있었다.<sup>16</sup> 다시 말해 당시 중국의 문학장에서 활약했던 각종 세력 가운데 좌익문학의 영향

<sup>15</sup> 부르디외·로익 바강, 『성찰적 사회학으로서의 초대』, 李猛等譯, 北京: 中央編譯局, 2004, 139-140쪽.

<sup>16</sup> 曹清華, 「發表左翼作品的四類刊物」, 『新文學史料』 (4), 2005, 201-205쪽.

력이 돋보였던 것이다. 번역장은 문학장 안에 있는 작은 단위의 ‘장’으로 당연히 비슷한 경향을 필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의 번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 중국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1934년은 ‘잡지의 해’, 1935년은 ‘번역의 해’로 규정되어 왔다.<sup>17</sup> 당시 중국의 문학장에는 주류로 자리잡은 무산계급운동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좌익경향의 잡지가 속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열의 외국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일도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문예활동으로 되었다. 주지하듯이 5·4운동 이후 ‘약소민족작품의 번역’은 중국문학번역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되었다. 약소민족문학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좌익진영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 심지어 나중에 ‘좌련’의 핵심적 인물로 된 자도 적지 않았다. 뚜렷한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좌익 진영의 지식인들은 약소민족의 문학을 번역·소개하는 작업을 통하여 국제무산계급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고, 중국 프로문학에 일정한 소재나 참조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약소민족’으로서의 조선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도 어찌보면 당연지사라 되었고, 이리하여 식민지 치하 민중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장혁주의 초기 작품이 중국으로 진출할 ‘장’을 열게 되었다. 환언하자면 국제무산계급운동 풍조의 영향으로 좌익문학이 주류 위치를 차지한 1930년대의 중국문학장과 번역장의 ‘관습’이 장혁주 문학의 중역(中譯)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을 제공해 준 셈이다.

이같이 문학장(번역장)의 특성과 관습이 번역작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는 1937년 이후 장혁주 문학의 중역(中譯) 양상을 논할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중국의 문학장이 전쟁이란 배경 아래 예전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즉 좌익문학이 주류가 되어 창작과 번역작업을 비교적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이 사라지고, 당시의 지식인

<sup>17</sup> 陸志國, 「審查、場域與譯者行爲: 茅盾30年代的弱小民族文學譯介」, 『外國語文』 (8), 2014, 108-113쪽.

들은 부득이하게 창작을 중단하거나 일제가 점령했던 소위의 함락구(淪陷區: 즉 피점령지역)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어렵게 문필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문필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장혁주 문학의 중역(中譯)작업이 여진히 지속되었지만 1937년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 기간에 위만주국에서는 소설 두 편(《이치산》, 《산양개》, 1941), 희곡1편(《춘향전》, 1939), 상해에서는 동화집 《흑부전(黑白記)》, 1946)과 수필집 《朝鮮春》이 각각 번역 출판되었다. 이들 작품의 내용과 풍격을 보면 조선의 역사, 풍물, 문화 내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등 정치적 요소와 무관한 것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1937년 전에 번역되었던 작품들처럼 “계급모순에 대한 폭로, 반항정신에 대한 고취”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약화된 반면, 작품들의 탈정치적·순문에 적인 특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번역작업은 주로 함락구(淪陷區)라는 문학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함락구(淪陷區)문학’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일제의 탄압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하여 ‘함락구(淪陷區)문학’은 1930년대의 문학처럼 ‘반제항일, 애국 계몽’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정치적 여건에 맞추며 시장의 수요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었다. 아(雅)문학과 속(俗)문학 두 가지 문학패턴이 대립적 구도로 발전되다가 점점 일치화해진 것은 당시 ‘함락구(淪陷區)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이다.<sup>18</sup> 주류 문학장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그 속에 위치한 번역장도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 밖에 없었다. 이 기간엔 장혁주문학 중역(中譯)의 성격이 전기에 비하여 정치적·관념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순(純)문학작품으로서의 특성이 어느정도 더 강조된 것도 이런 맥락과 연관이 있다.

18 錢理群·溫儒敏, 『中國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1998, 352쪽.

## ② 원저자 · 원문텍스트의 문화적 자본

번역자가 번역작업을 하는 데 가정 먼저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원문 텍스트의 선정문제이다. 장혁주문학의 중역(中譯)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가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중국에서 프로문학의 성행, 국제 무산계급의 연대의식 등 외부적인 요인을 더 강조하는 반면, 원문 텍스트의 생산자인 장혁주 본인의 역량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볼 때 장혁주가 중국의 여러 번역자들에게 1순위의 번역 대상으로 꼽힌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그가 그 시기 동아시아문학장에서 얻은 문화적 자본, 즉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하여 그 시대의 주류 권력장인 일본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다. 1932년에 장혁주가 1200:1의 경쟁을 뚫고 일본 대표적인 종합잡지인《개조》지가 주최한 제5회 현상창작공모에 2등(일등 공석)으로 당선되었다. 1930년대 《중앙공론》과 더불어 ‘현상창작의 절대적 권위’로 간주되었던 《개조》지가 ‘비중앙문단’출신의 문인에게 이런 영광을 하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데뷔’가 장혁주에게 일본문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일련의 일본어 소설을 연이어 발표하여 1934년 ‘개조사’를 통하여 단행본《권이라는 사나이》까지 출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 아시아의 주권력장인 일본문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유로 일본, 조선뿐만 아니라 같은 식민지 치하의 대만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만에서는 적지 않은 작가가 장혁주를 롤모델로 삼아 그의 뒤를 따라 일본문단에 진출하려는 꿈을 키우며, 한동안 대만문단에서는 ‘장혁주 콤플렉스’까지 생길 정도이었다.<sup>19</sup>

중국에서 장혁주문학의 번역 · 소개작업도 이러한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주지하듯이 20세기 상반기에는 일본문단이 동아시아의 문학장에서 권위적

19 馬泰祥, 「“張赫宙情結”——論日據臺灣日語作家的進階目標與創作窘境」, 『中國比較文學』 (2), 2016, 145-162쪽.

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 중 일본유학생 출신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당대 중국문학장의 특성에 따른 것 외에도 두 가지 내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선문학에 어둡고 일본문학장의 상황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장혁주가 얻은 문화적 자본, 즉 소위 ‘중양문단’이라고 불렀던 일본문단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이다. 이상 두 가지 요소 중에는 특히 후자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점은 당시 장혁주 작품의 번역자들이 작품 소개를 할 때 거의 예외없이 《개조》지 입상의 사실과 일본문단에서의 활약상을 언급하고, 이상의 ‘자본’에 기준으로 삼아 장혁주 작품의 문학성을 인정해 준 사실들을 통하여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예컨대 《권이라는 사나이》를 번역한 황원(黃源)이 ‘작품소개’에서 장혁주를 소개한 다음, 일본평론가 세누마 시게키(瀬沼茂樹)의 말을 인용하여 그의 탄탄한 문장력을 칭찬하였다. 《쫓기는 사람》을 번역한 유명 작가인 엽군건(葉君健)도 “장군(장혁주 - 필자)은 사실주의 경향의 작가로서 창작면에는 꽤 성숙한 기교를 선보였다”고 장혁주의 창작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20</sup> 뿐만 아니라 호풍(胡風), 주강명(周鋼鳴), 범천(範泉) 등 동시대의 지식인들이 남긴 글 중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이 사실들을 정리한다면, 원저자로서의 장혁주가 당시의 권위적인 문학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중요한 자본을 얻었음으로써, 향후 자신의 작품이 중국으로 ‘월경(越境)’ 하는데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즉 장혁주가 이러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 본인의 노력도 중요했지만<sup>21</sup> 당시 일본문단이라는

<sup>20</sup>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評論及資料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101-200쪽.

<sup>21</sup>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고 일본어공부에 특별히 흥미를 가졌던 장혁주가 어릴 때부터 일본인 선생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일본어를 배우면서 문학을 좋아하게 되고, 성년이후 한국어와 일본어 두

문학장의 변화도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1932년이후 프로문학이 점점 쇠퇴해짐에 따라 일본문단에는 ‘순문예로의 회귀’, ‘문예부흥’의 봄이 일어나고, 이국적 정취를 표현하는 식민지문학이 갈수록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장혁주가 일본문단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바로 이때쯤이었다. 사실상 비록 초기에는 프로문학 경향의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장혁주가 한번도 프로문학단체에 가담하지 않았고, 거의 줄곧 자유주의 작가의 신분으로 문필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오히려 여러 문학유파의 관심을 두루 받게 되고, 여러 시각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았다. 예컨대 식민지문학을 프로문학의 방계(傍系)로 간주했던 프로문학계의 문인들은 장혁주 작품에 그려진 식민지 현실과 계급모순 등 소재에 더 주목을 하는 반면, 비프로문예진영에 속한 지식인들은 장혁주 작품 중의 ‘이국적 정취와 지방적 특색’에 보다 더 흥미를 느꼈다. 다시 말하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학적 특징은 장혁주가 일본문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이 되고, 일본문단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은 다시 장혁주가 중국으로 ‘월경(越境)’하는 자본이 되었다.

### ③ 주요 번역자들의 문화적 자본 및 문학·번역관습

장혁주문학의 중역 문제를 논할 때 흔히 연구자들에게 간과되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번역텍스트의 직접 생산자인 번역자가 지닌 문화적 자본과 문학·번역관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다. 번역사회학에서는 번역자가 지닌 문화적 자본과 문학·번역 관습은 번역 텍스트의 선정과 번역전략의 선택, 나아가 번역텍스트의 유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에서 1930년대 장혁주 작품의 주요 번역자인 황원(黃源), 호풍(胡風), 엽군

---

언어로 작품창작에 몰두하였다. 그의 글쓰기가 별세할 때까지 줄곧 지속되었다. 장혁주의 삶과 문학에 대하여 일본 연구자 시라키와 유타키(白川豊)의 『장혁주 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10)를 참조바람.



건(葉君健)등의 번역작업에서 이러한 논리가 잘 드러난다. 일본 유학의 경험 이 있고 일본어 구사에 능통한 이 세 사람은 프로문학이 활발히 발전할 때에 문필활동을 시작하여 집단적인 관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일정한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면서 창작·번역 측면에서 개개인의 관습도 형성하게 되었다. 예컨대 황원(黃源)은 1929년 귀국한 후 상해에서 번역 및 편집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유명한 문예지 《문학(文學)》과 노신이 주도하였던 전문 번역지인 《역문(譯文)》의 편집자를 역임하였다. 엽군건(葉君健)은 당시 저명한 작가 및 번역가로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때 일부 동아시아 진보적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에스펜란토에도 능통하였다. 일본 유학 기간 그는 일본 에스펜란토 작가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일본문단에서 활약상을 보인 장혁주와도 안면이 있었다.<sup>22</sup> 이상의 사실은 두 사람이 장혁주의 작품을 선택한 전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장혁주 문학의 중국어 번역·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호풍(胡風)의 번역활동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1929년에 도입한 호풍(胡風)은 유학동안 ‘좌련’ 도쿄지부 프로과학연구소의 구성원이 되어 일본 공산당, 그리고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코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등 좌익계열의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귀국 후 그는 ‘좌련’의 선전부장, 비서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국문학작품번역의 일을 꾸준히 하였다. 호풍(胡風)은 자신이 장혁주의 소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술회한 바 있다. “조선은 우리의 형제민족인데 일본침략자의 통치를 받게 되어 조선인들이 망국노가 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운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는 일어 출판물에서 이 작품들을 봤는데 일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구하기 극

22 1936년 『대중지식』에 장혁주의 『황무지』를 번역·게재하였는데 잡지의 ‘후기’에서 “이 작품이 아직 일본에서 발표하지 않았고, 원저자가 엽군건성생님의 개인적 청탁을 받아 직접 원고를 보내준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趙穎秋, 『解放前韓國現代文學在中國的傳播與接受研究』, 南京大學碩士論文, 2014, 29쪽에서 재인용함.

히 어려운 소래라 생각해서 번역하였다.”<sup>23</sup> 여기서 호풍(胡風)의 문예사상과 주장을 읽어낼 수 있다. 말하자면 “주관적 전투 정신”은 호풍(胡風) 문예주장의 핵심이고, 약소민족과 국제무산계급의 연대 등 이데올로기가 그의 문예사상의 근거이었다. 호풍(胡風)의 번역관습도 이러한 주장과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번역대상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자신의 문예주장과 사상을 잘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당시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장혁주의 작품들이다.

1940년대 상해에서 장혁주의 수필집 《朝鮮春》과 장편동화 《홍부전(黑白記)》을 번역한 범천(範泉)의 경우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중국 문학사에서 잡지 편집자로 유명한 범천(範泉)은 일본어에 능통하고 문예지 편집일을 맡으면서 일본어 작품 번역도 많이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40년대의 상해가 일제 치하의 “함락구(淪陷區)”로 전락됨에 따라 예전처럼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며 문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상해에 체류한 지식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시장의 수요와 개인의 문학관습에 따라 창작 활동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문필생활을 중단해야만 했던 처지였다. 당시 실업자 신세가 된 범천(範泉)은 심심풀이로 외국작품을 번역하기로 하였는데 그가 장혁주를 번역대상자로 선택한 이유로는, 첫째, 호풍(胡風) 등 번역자들이 번역한 작품을 읽은 적이 있고, 둘째, “빈곤한 민중의 생활을 다루는 제재와 꽤 높은 예술적 표현력에 마음에 들었”으며, 셋째, “자기가 수필문학을 좋아해 마치 일본인 내산완조(內山完造)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이 두 작품을 추천받았”<sup>24</sup>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범천(範泉)이 처한 문학장에서는 조선의 풍물을 소개하는 수필과 당대의 정치적 환경과 별 관련성이 없는 전래동화가 번역자에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명

<sup>23</sup> 胡風, 『胡風回憶錄』, 人民文學出版社, 2005, 42-43頁.

<sup>24</sup>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評論及資料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43.

편집인으로 오랜동안 쌓은 ‘자본’덕분에 그가 번역한 두 작품이 “함락구(淪陷區)” 상해에서 순조롭게 출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40년대 범천(範泉)에 의하여 번역된 이 두 단행본도 결국 ‘장+관습+자본’의 논리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인 셈이다.

### (3) 번역사회학 시각에서 본 장혁주문학 중역본의 전파 및 수용

번역텍스트가 목적어 나라의 문학장에 들어가면 각종 평가나 반응을 받기 마련인데, 이러한 평가와 반응은 번역텍스트의 수용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번역사회학의 시각에서 보면 번역텍스트의 전파 및 수용도 ‘장, 자본, 관습’ 등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중국에서 장혁주 작품의 전파와 수용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혁주가 1949년이전까지 중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조선작가로 부상되었고 그의 작품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번역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장혁주 작품의 번역자가 대부분이 당시의 문학장에서 적극적으로 문필활동을 하는, 각자의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취득한 인물들이었다. 말하자면 튼튼한 문화적 자본을 가진 그들 덕분에 장혁주의 작품이 가독성 있는 중국어 텍스트로 옮겨지고, 좋은 매개체를 통하여 순조롭게 게재·출판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호풍(胡風)은 중국 프로문예계의 대표적인 문예이론가 겸 번역가이고 당시 문단의 거장인 노신과도 돈독한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었다. 《산신령(山靈)》을 예로 들자면 1935년 먼저 호풍(胡風)에 의하여 당시 중요한 진보적 종합잡지인 《세계지식(世界知識)》(2권10기)에 게재되었고, 이듬해인 1936년에 표제작으로 단행본 《山靈 - 朝鮮臺灣短篇集》에 수록되었다. 이 단행본이 출판된 지 불과 한달 후에 다시 재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 편집자인 황원

(黃源)이 펴낸 “번역작품총서” 시리즈에 입선되어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5판까지 발행되었다.<sup>25</sup> 반제항일의 이데올로기와 프로 문학이 주류를 차지했던 당시의 문학장에서 유명한 문인인 호풍(胡風)에 의하여 번역된 작품이 동시대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호풍(胡風) 본인도 이 소설집의 영향력에 대하여 “항일전쟁과 해방전쟁기간에 이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상당수로 전파되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었다.<sup>26</sup>

《산신령(山靈)》뿐만 아니라, 장혁주의 다른 작품도 기타 조선작가에 비하여 ‘특별한 자본’을 얻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출판·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꽃기는 사람》은 조선문학으로서 유일하게 두개의 번역본—왕적(王笛)이 1933년에《문학잡지》(1권3,4기)에 일어판을 저본으로 번역하고 게재한 것과 엽군건(葉君健)이 1934년에 에스펜란토판본을 중국어로 옮겨 당시 유명한 종합잡지인《신보월간(申報月刊)》에 등재한 것—을 가진 작품이었고, 특히 후자의 경우 나중에 번역자 엽군건(葉君健)에 의하여《류탕(流蕩)》으로 개명되어 본인의 번역작품집에 표제작으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혁주의 또 다른 단편소설인《권이란 사나이》의 경우 유명한 편집자인 황원(黃源)이 직접 번역하여 전문 문예지《문학(文學)》에 게재했다가 다시 1937년에 상해계명서국이 펴낸 단행본《약소국가소설명저(弱國小說名著)》에 수록하였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다. 1941년 일제치하의 위만주국에서 조선현대소설 앤솔러지《조선단편소설집(朝鮮短篇小說集)》이 출판되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두 편의 작품이 입선된 작가도 장혁주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유명 문인들의 자연스럽고 가독성이

25 예컨대 노산이 자신의 일기에서 이 책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魯迅『魯迅日記(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6. 1012); 당시 유명한 작가 초홍(蕭紅)의 수필 중에도 도쿄 체류 때 이 단행본을 읽었던 기록이 담겨 있다(蕭紅,『感情的碎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23).

26 胡風,『胡風譯文集』, 人民文學出版社, 1986, 2쪽.

높은 번역문도 장혁주 작품의 보편적인 수용에 한 몫을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문학작품을 번역한 사람 들 중 무명의 문예청년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지식인도 있었는데 그들의 중국어 문장 구사력이 아무래도 호풍(胡風) 등 기성 문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당시 번역된 조선문학작품을 읽으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무시하고 억지스럽게 직역한 탓으로 생경하고 난해한 문장으로 점철된 텍스트가 생각보다 많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시 조선문학번역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혁주의 대부분 작품은 질적으로 비교적 우수하게 번역되었는데, 황원(黃源)이 번역한 《권이라는 사나이》, 호풍(胡風)이 번역한 《산신령》과 《성묘하러 가는 남자》, 그리고 범천(範泉)이 번역한 수필집《朝鮮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朝鮮春》의 경우 중국에서 1950년대까지 무려 네 번이나 재판되었던 것은 조선의 풍물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제재도 그 이유였겠지만 번역자 범천(範泉)의 유창스럽고 깔끔한 중국어 번역문도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의 장혁주 문학의 수용양상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일부 연구자는 호풍(胡風)을 비롯한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이 장혁주를 프로작가로 착각해서 그의 작품을 번역하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말하자면 장혁주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오독(誤讀)된 조선작가”라는 견해가 상당히 보편적이다. 이런 견해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심층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혁주 오독(誤讀)설’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장혁주의 친일적 행위와 나중에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실만을 문제로 삼았는데, 반면 이 소위의 ‘오독설’을 유발했던 요소들, 즉 “호풍(胡風)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장혁주를 ‘오독’하였는가? 이 ‘오독설’이 확실히 성립된다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심층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시하고 있다. 장혁주 문학이 중국에서의 수용 양상을 살펴볼 때 이상의 요소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호풍(胡風)을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장혁주를 언급했을 때 “일본어로 창작을 하는 조선의 신진작가(황원 黃源)”, “조선의 한 신진 청년 작가, 사실주의 작가(엽군건: 葉君健)”, “자유주의 작가, 일본문단에서 가장 활약상을 보이는 작가(호풍: 胡風, 주강명: 周綱鳴)”, “일본어로 많은 작품을 창작한 조선 현대 신진작가(범천: 範泉)”<sup>27</sup>등으로 소개를 했지만, 단 한번이라도 확실하게 그를 “프로문학작가”로 규정한 적은 없었다. 다시 말해 그후의 연구자가 중국에서 번역된 장혁주 작품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 대부분이 좌익 계열의 문인들에 의하여 번역되었던 사실만으로 장혁주가 “중국 지식인들에게 오독(誤讀)되었다고” 서두르게 결론을 내린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호풍(胡風)등 지식인들이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그를 ‘프로문학작가’로 오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 중 그려지는 식민지 치하 하층민층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 내용이 자신들의 문학적 수요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sup>28</sup> 가령 호풍(胡風)이 장혁주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한 적이 있다.

사실상 나는 장혁주가 혁명적 작가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것 또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단지 작품 내용만 보았을 뿐이다 … 그리고 설사 그가

<sup>27</sup> 金柄珉・李存光 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6): 翻譯篇』,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49-267쪽.

<sup>28</sup> 사실상 장혁주가 문필활동을 시작했을 때 마침 무산계급운동과 프로문학풍조가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무렵이었다. 비록 프로문학단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일개의 문예청년으로 그는 당시 문학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의 초기 작품 중에서 프로문학의 경향을 찾은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는 장혁주의 초기작품이 뚜렷한 프로문학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한국 연구자도 있다(이응수 등, 「장혁주의 “춘향전”번역 - 사회적 반향과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어언문화』 39집, 2017, 201쪽).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혁주 오독설’이 아무래도 좀 경솔한 결론이라고 해야겠다.

진보적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그 작품을 번역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민중을 동정하고 압박자의 착취악행을 반대하는 주제를 다루는 작품은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 작품들은) 조선민중의 고통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인민들이 조선민중들의 혁명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sup>29</sup>

문화대혁명이 끝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호풍이 이 회고록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장혁주가 혁명적 작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말은 일종의 변명일 수 있지만 호풍이 밝힌 바와 같이 장혁주가 진보적 작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도 장혁주의 작품을 번역했을 것이다. 장혁주초기 작품내용이 중국좌익문단의 문학적·정치적 수요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중국 문학장의 특성과 그에 따른 지식인들의 문학 관습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부르디외가 ‘관습’이 개체적 및 집단적, 즉 이중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는 ‘계급’을 예로 들어 자신의 관점을 설명해 보았다.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관습’은 구조상의 친화력(structural affinity)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을 빌리지 않아도 행동상의 일치성, 획일성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sup>30</sup> 말하자면 1930~1940년대 중국지식인들은 복잡한 시대적 배경과 ‘반제반일, 무산계급연대’ 등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 문학의 정치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개인적·집단적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장혁주 작품을 선택할 때 자신들의 수요에 따라 원저자의 전반적인 사상·문학 경향과 구체적인 인생궤적 등 요소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단 차치하고, 장혁주의 약소민족 출신배경과 일부 작품 중 그려진 식민지 경험 등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외증 장혁주 문학이 그들의 관습에 의하여 “필요없는

<sup>29</sup> 胡風, 「回憶參加左聯前後(3)」, 『新文學史料』(4), 1984, 49쪽.

<sup>30</sup> 布爾迪厄·華康德, 『實踐與反思－反思社會學導引』, 李猛等譯, 北京: 中央編譯局, 2004, 169쪽.

부분”이 은폐된 반면, 뚜렷한 정치적 성격이 부각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1930~1940년대 중국에서 장혁주의 작품이 선택되고 번역되었던 것은 ‘오독(誤讀)’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식인들의 개인적·집단적 관습에 의하여 행해졌던 일종의 ‘여과+상상(과도해석)’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과도해석이 실은 중국좌익문단이 약소민족문학을 구축하려는 움직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만주사변 이후 중국좌익문단은 식민지 약소민족의 반항으로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문학으로서의 약소민족문학이 부상되었다. “약소민족문학전호”(弱小民族文學專號, 1934), “아시아약소민족실루엣”(亞洲弱小民族剪影, 1936) 등 잡지의 칼럼과 《약소민족소설선》(弱小民族小說選, 1936), 《약소국가 소설명저》(弱國小說名著, 1937) 등 번역소설은 바로 새로운 세계문학을 구축하는 결과물들이다.<sup>31</sup> 물론 장혁주 작품에 대한 번역도 역시 약소민족문학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즉 호풍 등이 장혁주를 오독하는 것이 아니라 장혁주가 대변하는 약소민족의 문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혁주 작품에 대한 번역은 실은 중국문단의 약소민족문학 혹은 세계문학 구축의 일환이다.

### 3. 결론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옮겨져 해당 지역·나라에서 수용된 현상을 두고 ‘텍스트의 월경(越境)’이라고 할 경우, 이 ‘월경(越境)’의 과정 중엔 번역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이란 두 가지 요소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활동을 고찰할 때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두루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가 ‘월경(越境)’이 이루어진 배경

<sup>31</sup> 이동매,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 『한국학연구』 61집, 2021, 407쪽.



과 번역텍스트의 구체적인 생산과정을 고찰하는 것으로, 원문텍스트가 지닌 문화적 자본, 목적어 나라 문화장의 특징, 번역자가 가진 상징적(문화적)자본 및 문학·번역 관습의 개입 등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후자는 번역텍스트가 목적어 나라의 문화장에서 받은 평론과 반응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상의 요소들외에도 평론참여자들이 가진 상징적 자본과 문화관습 등 요소들과 관련된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장(field), 아비투스(habitus), 상징자본(symbolic capital)등 개념은 바로 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의 핵심개념이고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행해진 사회번역학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것들이다.

이 글은 이미 선행연구성과가 어느정도 축적되었던 연구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논자의 소박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장혁주 문학이 중국에서의 ‘월경(越境)’ 과정을 번역학 연구의 범주 안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한다. 복잡한 인생경험과 다소 애매한 작품 경향으로 인하여 장혁주와 그의 문학이 복합적·다중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상이한 문학장에서 상이한 집단에게 각자의 자본과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장혁주 문학의 ‘월경(越境)’ 양상은 번역사회학의 실제적 적용에 좋은 소재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혁주가 일본문단에서 자리를 잡은 것도, 중국으로 성공적으로 월경(越境)한 것도 결국 ‘장+관습+자본’ 세 가지 요소가 공동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면과 논자 개인능력의 한계로 관련 논의를 보다 더 설득력 있고 세밀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가장 큰 아쉬움이다. 논의 중 부족한 부분과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계속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1. 중국어 자료

- 金柄珉·李存光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10): 評論及資料篇[M],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 金柄珉·李存光編, 中國現代文學與韓國(6): 翻譯篇[M],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2014.
- 金鶴哲, 1949年以前韓國現代文學中譯和意識形態因素[J], 中國比較文學, 2009年4期, 61-71.
- 魯迅, 魯迅日記(下)[M],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6.
- 柳書琴, “送報夫”在中國: “山靈”與楊遠小說的接受[J], 臺灣文學學報, 2016年29期.
- 陸志國, 審查, 場域與譯者行為: 茅盾30年代的弱小民族文學譯介[J], 外國語文(8), 2014, 108-113.
- 馬泰祥, “張赫宙情結”——論日據臺灣日語作家的進階目標與創作窘境[J], 中國比較文學 (2), 2016, 145-162.
- 白春燕, 東亞文學場域的文本流動: 胡風譯“山靈”[J], 中國現代文學, 2017年 32期.
- 蕭紅, 感情的碎片[M],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 吳舒潔, 世界的中國: “東方弱小民族”與左翼視野的重構[J], 文學評論 (6), 2020, 212-220.
- 王悅晨, 從社會學角度看翻譯現象: 布迪厄社會學理論關鍵字解讀[J], 中國翻譯 (1), 2011, 5-13.
- 王洪濤, 建構“社會翻譯學”: 名與實的辨析[J], 中國翻譯(1), 2011, 14-18.
- 張赫宙, 朝鮮風景[M], 範泉譯, 上海: 永祥印書館, 1950.
- 錢理群·溫儒敏, 中國文學三十年[M], 北京大學出版社, 1998.
- 趙穎秋, 解放前韓國現代文學在中國的傳播與接受研究[D], 南京大學碩士論文, 2014, 20-26.
- 曹清華, 發表左翼作品的四類刊物[J], 新文學史料 (4), 2005, 201-205.
- 布爾迪厄·華康德. 實踐與反思 - 反思社會學導引[M], 李猛等譯. 北京: 中央編譯局, 2004.
- 胡風, 回憶參加左聯前後(3)[J], 新文學史料(4), 1984: 39-51.

### 2. 한국어 자료

- 김장선, 「20세기 전반기 중국에서의 장혁주 작품 번역 수용」, 『한중언문학연구』 51집, 2016.
- 김혜림, 「중국의 번역 연구 동향」, 『번역학 연구』 13권 4호, 2012.
- 이동매, 「동아시아의 장혁주 현상」, 『한국학연구』 61집, 2021, 383-410.
- 이영훈,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제2권,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소, 2021.
- 이응수 등, 「장혁주의 “춘향전”번역 - 사회적 반향과 개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어언문화』 39집, 2017, 190-205.
- 최말순, 「1930년대 대만문학 맥락 속의 장혁주」, 『사이間SAI』 11호, 2011.

## Production Construction and Reception Communication of Translation Text from the Perspective of Bourdieu's Theory of Sociology

Focusing on the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Korean writer Jang Hyukjoo in China

Li dongmei • Jin xing • Wang Yanli |

Qingdao Binhai University • Mudanjiang Normal University • Jilin University

Based on the three basic concepts of sociology,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translation, dissemination and reception of Jang Hyukjoo's works in China, and explains how different political / cultural / translation fields, the habits and capital of the original author / Translator / commentator influenc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production, reception and communication. Jang Hyukjoo'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in mainland China, with the inevitable purpose and utilitarian nature of that era, is typical translation case under the influence of ideology, and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field, capital and habitus" in sociological theory.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Jang Hyukjoo's translation in the Chinese literary world are also the concentrated embodiment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at that time.

**Key words :** Theory of Sociology, Field, Capital, Habitus, Jang Hyukjoo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김종삼 시에 나타난 메시지와 청취자(聽取者) 주체\*

윤은성\*\* · 이경수\*\*\*

1. 서론
2. 경계에서의 메시지와 청취자 주체의 출현
3. 메시지 없는 메시지와 비(非)음성적 청취
4. 발신자의 전환과 주체의 메시지 수행
5.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 시에서 주체가 자주 수행하는 ‘청취(聽取)’에 주목하였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그의 형식미학에는 청취라는 수행성, 나아가 청취를 통한 수행성이 동반된다. 이는 그간의 논의에서 충분히 짚여지지 않은 주체의 능동성을 확인케 하는 부분이다. 평화를 지향하고 타자를 향한 돌봄이 나타나는 시편들에 이르기까지 김종삼 시에 나타난 일관된 청취자로서의 주체의 면모는 깊이 있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

김종삼 시에서 청각성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계시적 메시지와 연관된다. 장뤽 낭시를 참조하면, 메시지는 청취자를 요청하고, 청취자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준비된 자이다. 낭시적 의미에서 김종삼 시의 주체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시간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역사 현실에서의 희생자들을 현재의 위치에서 ‘청취’해 애도한다. 또한 계시적 메시지가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궁핍한 현실에서, 시적 주체는 타자를 위한 낮은 자세의 돌봄을 촉구하는 수행적 메시지를 도출한다. 주체에 의해 도출된 수행적 메시지에는 계시적 메시지 부재의 문제가 선결(先決)되어 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김종삼의 형식미학을 다룸에 있어 지시대상의 부재가 초점화되면서 잔존하는 형식의 효과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의 시가 ‘들음’ 곧 청취해온 메시지들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통로이자 형식이 됨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김종삼 시에서의 메시지는 역사적 상흔을 지속적으로 소환해 애도하고, 타자와 외존(exposition)하여 함께 있음을 수행케 하는 재귀적 선언으로 전환된다.

**주제어:** 김종삼, 청취, 메시지, 청취자 주체, 해석, 계시, 수행

## 1. 서론

청취한다는 것에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청취는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의지와 시간을 들이면서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들어‘내는’ 일이다. 청취에는 이미 경청(傾聽)의 자세가 녹아 있다. 어쩌면 청취하는 태도가 일상에 배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복적으로 의미를 숙고해야만 했을 특별한 청취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청취는 과거를 연결하는 일이기도 하며, 앞으로 들려올 메시지를 향하여 열려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金宗三, 1921~1984)<sup>1</sup> 시인의 시에 나타난 주체가 계리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면모를 자주 보인다는 점에서 출발해, 그와 같은 주체를 ‘청취자 주체’라 칭해봄으로써 김종삼 시만의 주체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김종삼은 전후(戰後) 한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논해지는 시인이다. 김종삼은 ‘내용 없는 아름다움’과 ‘형식 없는 평화’의 시학을 지향하면서 시정신을 밀고 나간 시인으로 평가받는다.<sup>2</sup> 식민지기와 전쟁기를 통과하고, 또 애정 어린 타자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한 김종삼 시인의 시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시적 계기가 자주 나타나는 한편, ‘환상성’, ‘순수성’과 같은 표현으로 시세계가 집약되기도 한다. 그의 추상적 표상들에 대해 도피적이

<sup>1</sup> 황해도 은율이 고향인 김종삼은 평양 숭실중학에서 수학하고, 형인 김종문의 부름으로 도일하여 1940년 3월 동경 도요시마 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경문화학원에서 수학했다고 전한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학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방 후에 서울로 왔으나 전쟁으로 인해 피란을 떠났고, 종전 후에 다시 환도하였다. 월남 출신으로서 낯선 서울에서 생활하였다(이민호, 『백년의 고독과 시인의 사라짐』, 이민호 편, 『김종삼 탄생 백주년 기념 시집 - 전쟁과 음악과 평화와』 해설, 북치는소년, 2022, 102쪽, 공현진, 「전후 세대 시의 서울 표상 연구: 김수영·신동엽·김종삼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022, 5쪽 참조).

<sup>2</sup> 이민호, 앞의 글, 99쪽.

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역사적 질곡이 녹아 그의 시를 구성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시에서 청취자의 면모가 파악된다는 점은 생을 표면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생의 비의성을 알고자 주의를 기울이는 주체의 성격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뜻한다. 그에게 있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은 생존해야 할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존의 의미를 알아내야 할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청취(聽取)한다는 것은 청각적 감각을 사용해 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김종삼 시에서 ‘소리’는 그의 시 의식의 중심을 관류하는 기제라고 자주 파악되어왔다.<sup>3</sup> 인유된 음악 작품과 자연적 배음(背音)을 분석하여 김종삼 시의 주체가 청각중심적인 주체임을 밝힌 선행연구도 제출되었다.<sup>4</sup> 그런데 청각과 관련하여 김종삼 시의 주체는 단순히 청각적 자료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양상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하는 시적 주체에게서는 고요하면서 집중된 지향성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그 메시지는 초월적인 신적(神的) 타자가 발신한 계시(啓示)적 성격의 것으로도, 주체에 의해 해석된 의미가 부가된 방식으로도 제시된다. 그 메시지는 “듣고자 하는 자”<sup>5</sup>에게 들리는, 계시적이자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진 속성의 것이라 이해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의 시를 감각적 차원인 청각

<sup>3</sup> 김성조, 「김종삼 시의 소리 이미지와 의미적 표상」, 『한국문예창작』 20, 한국문예창작학회, 2010, 39쪽.

<sup>4</sup> 신지원의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각종 소리를 범주화해 후속 작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김종삼 시에서의 사운드 스케이프에 주목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장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포함해 김종삼 시의 소리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신지원, 「김종삼 시에 나타난 ‘소리’의 양상과 특성 연구」, 『건지인문학』 24,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신지원, 「김종삼 시의 미의식 연구 - 소리와 음악의 인지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김정배, 「김종삼 시의 소리지향성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김양희, 「김종삼 시에서 ‘음악’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sup>5</sup> 장-뤽 낭시, 이만형·정과리 역, 『나를 만지지 마라』, 문학과지성사, 2015, 20쪽.



성이 아닌 청취자로서의 주체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지에 대한 주체의 대응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인용절의 지시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용절의 발신주체, 수신주체 및 수행성의 측면이 작품 분석에서 고려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장-뤽 낭시는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해체적으로 사유하면서, 계시적 메시지와 청취자 간의 접촉 불허와 분리의 장면이 도리어 청취자를 요청하는 메시지의 형식이 된다는 것<sup>6</sup>을 펼쳐 보인다. 그에 따르면 메시지는 청취자를 요청하는데, 이때의 청취자는 “이미 이 텍스트의 고유한 청취 속에 들어선 이”<sup>7</sup>, 다시 말해 “의미의 내적 운동과 그 의미를 넘어서는 움직임, 그리고 그 해소에까지도 들어선 이”<sup>8</sup>이다.

김종삼 시에는 홀로 기억 속 장면에 귀를 기울이거나, 언덕에 올라 풍경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고, “하늘”이 하는 말을 옮겨오는 등 다양한 장면에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청취자 주체를 살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청취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종삼 시의 주체는 문자 기호로 변환가능한 음성 메시지를 끝내 찾지 못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시에서는 신의 부재(不在)가 직접 언급된다.

이와 같이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청취자 주체의 면모를 살피고 그 청취의 의미를 메시지와 의 관계 속에서 밝히고자 한다. 메시지라는 용어는 낭시의 경우에 히브리 종교에서의 용법을 원용하면서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성서 자체이자 예수의 몸(메시지=성서=예수)으로 겹쳐 이해되는 진리라고 파악해 사용한다면, 이 논문에서의 메시지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구체적인 지침이자, 상황을 이해하는 데

6 장-뤽 낭시, 이만형·정과리 역, 앞의 책, 20-22쪽.

7 위의 곳.

8 위의 곳.

에 도움으로 삼고자 구한 계시(啓示)의 성격을 띤 정보라는 의미로 확장해 사용할 것이다.<sup>9</sup> 김종삼 시 전체가 논의의 범위이며, 가시적인 진술로 나타나는 인용절을 우선적인 논의의 전거로 삼고, 인용의 표지가 없음에도 청취된 과정이 밝혀지는 어휘 차원의 인유, 담화 차원의 인유, 인유의 창출이 나타나는 묘사적 공간 등 주체의 청취지향성을 살필 수 있는 시편들이 논의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김종삼 시의 주체에 관심이 있는 논의인 만큼, 시적 주체가 메시지와의 접촉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가 본론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2장에서는 김종삼 시의 주체가 놓인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바탕으로 주체 출현의 기원이 되는 방식들을 점검해본다. 김종삼 시에서 잘 나타나는 과거와 현재, 성소와 세속 현실, 남한과 북한의 ‘경계’라 할 만한 사이 공간들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며 나타나는 메시지들에 주목해, 그 사이 공간의 긴장이 어떤 방식의 청취로 이어지는지 살핀다. 가능한 한 귀납적이되 의미 있는 관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계 공간을 시간, 성속, 남북으로 초점화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시각성과 비음성적 장면이 두드러지는 시에서의 청취의 의미를 살필 것이다. 내용이 공백화 됨에도 공백이 되기에 앞서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점을 파악해내는 데에 청취자로서의 충실성과 타자와의 외존 수행성이 작용함을 논구할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청취 가능 여부가 불필요해지는 현실적 고통의 지점에서 발화되는 시편을 살핀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직면하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주체 스스로가 메시지로 전환되기도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up>9</sup> 물론 종교적 진리라는 것과 그 종교의 자장 내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메시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종삼 시에서 청취적 주체가 듣고자하는 메시지가 언제나 기독교적 신성성으로부터 연유한 메시지인 것은 아니며, 기독교적 신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시적 주체의 독특한 분리 의식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논문에서의 ‘메시지’가 장-뤽 낭시가 말하는 예수 그 자체인 ‘메시지’일 수는 없다는 부연은 필요하다.

## 2. 경계에서의 메시지와 청취자 주체의 출현

김중삼 시에서 종종 다뤄지는 유년 시절 회상의 장면에서는 청취자 주체가 등장하는 기원적인 사건들이 발견된다. 회상을 통해 적막함 속에 있는 어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켜낼 수 없었던 타자들을 반추하는 과정에, 외부로부터 온 메시지가 틈입되는 것이다. 먼저 유년 시절의 청취자 주체를 살피는 것은 김중삼 시의 주체가 원초적으로 무엇에 마음을 쓰는 주체인지, 무엇에 충실한 주체인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sup>10</sup>

(1)

그해엔 눈이 많이 나리었다. 나이 어린/ 소년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다./ 스와니江이랑 요단江이랑 어디에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었다./ 눈이 많이 내려 쌓이였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눈더미 눈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 「스와니江이랑 요단江이랑」(『十二音階』, 三愛社, 1969) 전문  
[모든 밑줄, 굵은 글씨, 기호는 인용자의 표기]

(2)

나는 그동안 배꼽에/ 솔방울도 돌아/ 보았고// 머리위로는 몸쓸 버섯도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백월이라는/ 老鸛의 음성이// 자꾸만/ 넓은 푸름을 지나/ 머언 언덕가에 떠 오르곤 하였읍니다// (...) / 한 아이는/ 처마 밑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리봉이 너무 길다랗다고/ 짜징을 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얼마 못가서 죽을 아이라고// 푸름을 지나 언덕가에로/ 떠오르던/ 음성이 조금 전에 이야길 하였읍니다. // 그리운/ 안니 로 리라고 이야길/ 하였읍니다.

- 「그리운 안니 · 로 · 리」(『連帶詩集 · 戰爭과音樂과希望과』, 自由世界社, 1957) 부분

<sup>10</sup>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와외의 소통하기가 시도되는 이유는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낭시는 믿음, 신뢰와 충실함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한다(장·뤽 낭시, 이영선 역,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갈무리, 2012, 34쪽).

인용 시 (1)의 눈 내리는 적막한 공간에서 소년은 “먼 고장”을 떠올린다.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었을 “먼 고장”을 떠올리는 일은 ‘머나먼 저 곳’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가곡 <스와니 강>과, 성서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스와니강과 요단강이 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바로 “먼 곳”에 있다고 “들은 적” 있는, 그래서 한 번씩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려보게 되곤 하는 곳이라는 데에 있다.<sup>11</sup> 종결부에서는 “먼 곳”을 떠올리는 주체에게 불현듯 “그림처럼 앞질러 가”는, 소년을 구제해주는 미래적인 형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요단강”으로부터 연상된 신적 타자이거나, 또는 ‘먼 미래’에 과거의 소년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먼 곳’의 지명을 떠올리는 것, 그것을 통해 어렴풋이 가늠되는 각 장소의 인상과 그곳까지의 거리 감각, 그리고 먼 미래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 이와 같은 일련 과정은 최초의 듣기 경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들은 바를 곱씹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구제하는 이미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이 시에서는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청취자 주체가 마음을 쓰는 바를 따라간다면 ‘먼 곳’을 지향하는 주체의 미래지향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삼 시의 주체가 자신의 외로움을 “들음”의 경험을 반추하는 것을 통해 극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한 시 (2)는 가곡 <애니로리>의 가사를 현실에 중첩하여 재구성한 장면을 보여준다. 회상적인 장면이라고 이해 가능한 이 시에서, “나”는 자신의 취약함에 집중하다가 문득 혼자 짜증을 내는 “아이”를 발견한다. 그때 아이의 처지를 “나”에게 설명하는 초월적인 “음성”이 들려온다. 가곡 <애니로리>

11 김종삼 시의 “먼 곳”에 대해 도피적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했던 논의가 있어 왔다. 거기에는 비록 그 도피의 성격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섞여 있음을 읽어내는 입체적인 시각이 동반되었더라도 김종삼 시의 주체가 지닌 성격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의 가사 속 ‘Maxwelton’이라는 고유명사를 차용하여 인물화한 것으로 보이는 “맥웰”이라는” 노의는 아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것이 아닌, 곧 죽을 것이라고 예견된(그러나 회상하는 시점에서 볼 때는 실제 일어난 사건인) ‘사실’을 전한다. 그 음성은 시차를 두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음성이다. 시한부 “아이”에 대하여 무력했던 주체 “나”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받아들이는 양가적인 심정으로 성장했으리라 여겨진다.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이 시점상 미리 계시되는 것처럼 표현되면서 아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각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회상된 장면에서 울려온 메시지에서 아이의 죽음에 관한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시의 주체가 “음성”으로부터 청취해 의미화한 것은 아이가 죽게 된 이유가 아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시적 주체에게 각별하다는 바로 그 애정이다.

한편 이 시는 동생의 이른 죽음을 다루는 「운동장」과 같은 시, 그리고 아이들이 등장하는 「술래잡기」와 같은 시편들과 겹쳐 읽을 수 있다. 어린 타자를 지켜줄 수 없는, 본인 역시 약한 아이일 뿐인 시적 주체가 이 시들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모두 자신이 지킬 수 없었던 이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기인한 충실함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타자를 잃은 슬픔과 고독함의 정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별해 낸 메시지는 시적 주체의 고독함과 슬픔을 억지스레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놓지 않는다. 메시지는 고독함 속에서 파악되는 신비와 애통해하는 정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시적 주체가 더욱 섬세히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시간성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는 모종의 혼란 속에서 자신이 애정을 가졌던 자기 자신과 타자들을 충실히 찾고자 하는 자이다. 그 충실함이 상황을 사후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상황에 담긴 정보들에 귀 기울이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

(…)/ 청초하여서 손덜 데라고는 없이 가꾸어진 초가집 한 채는/ ‘미숀’계, **사절단이었던 한 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반쯤 열린 대문짝이 보인 것이다./ 그 옆으론 토실한 매 한가지로 가꾸어놓은 나직한 앵두나무 같은 나무들이 줄지어 **들어가도 좋다는 맑았던 햇볕이** 흐려졌다./ 이로부터는 **아무데구 갈 곳이란 없이 되었다는 흐렸던 햇볕이** 다시 맑아지면서,/ 나는 몹시 구겨졌던 마음을 바루 잡노라고 뜰악이 한 번 더 들여다 보이었다.

- 「문작」 (『韓國前後問題詩集』, 新丘文化社, 1961) 부분

(2)

**苹菓 나무 소독이 있어/ 모기 새끼가 드물다는** 몇날후인/ 어느 날이 되었다./ 며칠만에 한번만이라도 어진/ 말숨씨였던 그인데/ **오늘은 몇번째나 나에게 없어서는/ 앓된다는 마련되 있다는** 길을 기어히/ 가르켜 주고야 마는 것이다./ 아직 이쪽에는 열리지 않는 果樹밭 사이인/ 수무나무 가시 울타리/ 길 줄기를 벗어 나/ 그이가 말한 대로 열만가를 더 갔다./ (…)/ 몇개째를 집어 보아도 놓이었던 자리가 썩어있지 않으면 벌레가 먹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집기만 하면 썩어 갔다./ **거기를 지킨다는 사람**이 드러와/ 내가 하려던 말을 빼앗듯이 말했다./ **당신아닌 사람이 집으면 그렐리가 없다고 -**.

- 「園丁」 (『連帶詩集・戰爭과音樂과希望과』, 自由世界社, 1957) 부분

인용한 시 (1)의 장면은 청취된 정보들과 시각적 정보들이 상호 녹아들면서 어린 시적 주체의 내면이 구성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시의 주체는 선교사가 기거하는 곳이라 알려진(들려 온) 정결한 장소에 관심을 갖는다. 김중삼 시에는 종종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공간인지 허락이 필요한 신성해 보이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 시에서도 시적 주체는 선교사의 정결한 뜰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 이 시에서는 마지막 행에 나타나듯 “몹시 구겨졌던 마음”을 정결한 공간에 들어가 “바루 잡”고자 한다. 그 정결한 공간 안에

들어가고 되는지의 여부는 “햇별”의 명암의 정도와 결부된다. 여기서 햇별은 초월적인 메시지의 지위를 얻는다. 들어가 보고자 하는 신성한 공간, 자신에게 평안함을 제공해 줄 공간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고독한 어린 주체의 지향이 햇별, 즉 초월적인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으로부터 계시적인 메시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2)에는 신성한 공간으로 향하는 시적 주체가 등장한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가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등장한다. 첫 번째 음성은 시적 주체에게 “기어이” 그 공간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과수원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리 달갑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음성은 말해주지 않지만, “어진 말솜씨의 그”, 즉 신뢰할 만한 이라고 판단이 완료되었던 이의 말하기에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함에도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부정(不淨)함이다. “거기를 지킨다는 사람”은 주체에게 단순히 퇴출을 명령한다기보다는 부정함을 지적한다. 뜻하지 않았던 여정에, 더하여 뜻하지 않게 자신의 부정함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한편 앞서 살핀 유년기 시절의 시에서는 시적 주체가 ‘들음’의 과정에서 메시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얻거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신성한 공간으로 가라고 인도되었으나 진입이 허락되지는 않는다. 자신을 거절하는 메시지 앞에서 시적 주체는 갈 곳을 잃고 있다. 이 시가 주는 충격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자신이 따랐던 구제방식으로부터 거절된 것이다. 이 시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메시지로부터 거절되는 것에 대한 충격을 다루는 시로 보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이 시는 청취자 주체와 메시지 사이의 균열을 주제화하는가? 청취자 주체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여 들어내는 자라는 그 지향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메시지는 곧 의심의 여지가 잔존해 있더라도 기본

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의 두 가지 다른 메시지는 시적 주체에게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되돌아보도록 촉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중삼 시에 종종 등장하는 신성한 공간은 김중삼 시인에게 있어 들어가 정화될 수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온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고, 초월적인 존재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역설적인 곳이다. 신성한 곳과 세속적 현실의 세계 사이에서의 목소리는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에 놓인 주체를 긴장하게 한다.

(1)

**몇 나절이나 달구지 길이 덜커덕 거렸다.** 더위를 먹지 않고 지났다./ 北으로 서너마일 그런 표막지와 같이 사람들은 길 가운데 그리스도像을 세웠다./ **달구지 길은 休戰線以北에서 죽었거나 시베리아 方面 다른 方面으로 유배당해 重勞動에서 埋沒된 벗들의 소리다./** 귓전을 울리는 무겁고 육중해가는 목숨의 소리들이다./ 북으로 서너마일은 움직이고 있었다./ 별거숭이 흙더미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흔들리는 달구지길.

- 「달구지 길」 (『朝鮮日報』, 1967. 10. 1) 전문

(2)

해방 이듬 이듬해 봄/ 10時~11時/ 솔밭 속을 기어가고 있음/ 멀리 똥개가 짓고 있음/ ㉠**달뜨기 전 넘어야 한다 함/ 경계선이 가까워진다 함//** 엉덩이가 **들린다고 쥐어박히고 있음/** ㉡**개미가 짓고 있음/** 기어가고 있음/ 달뜨기 전 넘었음// 빈 마을 빈 집들 있음/ 그런 데를 피해가고 있음/ 시간이 지났음// 경계선이 다시 나타남/ ㉢**총기 다루는 소리 마구 보임/** 시야에/ 노란/ 붉은/ 검은 빛발침 / 개새끼들 아직 이북 警備隊임// **간간 遠近의 고향이/** 캄캄한 拘置所 전체가 벼룩떼임/ 순찰 한 놈이 다녀갔음 벽 한 군데 거적베질 들추어보았음 굵은 삭장귀 네 個가 가로질린 살창임/ 합세하여 잡아당기고 있음 ㉣**흙덩어리 떨어진**



**소리가 오래 가고 있음// (…)**

- 「달 뜰 때까지」(『文學과知性』, 1974. 겨울) 부분

(3)

1947년 봄/ 深夜/ 黃海道 海州의 바다/ 以南과 以北의 境界線 甬道浦// **사공  
은 조심 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기침도 금지되어 있었다 十餘名이 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嬰兒를 삼킨 곳/** 스무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水深을 모른다

- 「民間人」(『現代詩學』, 1970. 11) 전문

인용한 시 (1)~(3)은 모두 이남과 이북의 경계를 넘는 체험 장면이 잘 나타나 있다. (1)에서는 과거 휴전선을 달구지로 넘어본 체험이 재현된다. 평탄치 않은 길의 노면은 달구지로 이동하는 이의 몸에 진동을 이루며 전달된다. 그 진동은 청각과 촉각이 혼재된 강렬한 기억이 되어 몸에 남겨진다. 그 감각들은 “무겁고 육중해가는 목숨들의 소리들이다”라는 진술을 통해 민간인들의 생명을 의미하는 “소리”로 치환된다. 시적 주체는 “지금도” 그 소리와 흔들림을 기억하면서 당시의 고된 경험을 “휴전선 이북”이나 “시베리아 방면 다른 방면으로 유배”된 이들에 대한 애도로 확장한다.

(1)에서는 희생된 약자들의 소리를 덜컥거리는 길 위에서의 촉각을 통해 연결해 내어 현재까지 그들에 대한 애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2)의 경우 명사형 어미를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당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듯 그린다. 특히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들렸던 여러 소리가 들어옴으로써 현장감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부분에서 나타나듯 “달 뜨기 전 넘어야 한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울리고, 이로 인해 이 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알 수 있다.

“개미가 짓고 있음”(㉡)이라는 표현이 독특하다. 실상 분단이나 전쟁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민간인으로서 목숨을 담보한 채 경계를 넘어가려 하는

것, 그것이 미미한 생명체인 개미가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에 비유된 것이다. 외부의 소리는 크게 들려오지만, 경계를 은밀하게 넘어가는 자신들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침묵 속에서 삼킨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표현된 이 구절은 뒤에 등장하는 “충기 다루는 소리 마구 보임”(㉔)이라는 표현과 함께 봄직하다. ㉔은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 “마구 보임”이라고 표현하여, 충이 난사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신체에 와 닿을 때 각 감각의 경계가 지워지고 교란된 듯 느껴질 정도로 극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생명을 건, 휴전선을 넘는 현장에서 들었던 긴박한 소리들은 “오래”간다. 교란된 감각과 낯설게 현재진행형으로 표현된 시제를 사용하여 마치 지금까지도 당시의 상황이 계속 진행중이라는 듯 현장감을 더한다.

(2)에서 청각을 시각화하여 긴박감을 더했다면, (3)에서는 청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울음을 터뜨린 한 嬰兒를 삼킨” 곳이라는, 과거 사건을 관형절을 이루는 문장성분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영아”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은폐되어 제시된다.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직접적인 표현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간접화하는 이 작품은 침묵이 지배한다. 침묵을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제한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영아”를 죽이게 된 사정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승희가 분석한 것처럼 ‘군인/민간인’이라는 이항 대립은 해체되고, 살아남은 자의 생존의 문학은 ‘침묵의 문학’이 된다.<sup>12</sup> 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침묵과 고조되는 긴장감, 아이의 죽음이 현재까지 환기되도록 하는 비극의 연속성에는 장면 속 사건의 체험 당사자들뿐 아니라 서술자의 자리에 있는 주체와 독자마저 동참하게 된다. 동시

<sup>12</sup> 김승희, 「김종삼 시의 전위성과 미니멀리즘 시학 연구: 자아의 감소와 서술의 축소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16, 2008, 206-207쪽.

에 이 시에서의 침묵은 비극적 사건의 참상에 참여하도록 열어두면서도, 그 말 없음을 통해 확보된 거리감을 통해 사건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남겨둔다.

남북의 경계를 넘는 과정이 나타나는 시편들에서 청각은 현장감을 더해준다. 긴박한 상황에서 타자의 발화, 총기의 난사하는 소리, 당시의 내면의 발화가 감각을 교란하며 공감각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외부의 소리들은 계시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청각을 통하여 당시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되살려 제시해주며, 희생된 타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를 지속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청취자 주체가 소리를 듣고 계시적인 메시지를 구하는 것은 고독하고 무력한 순간들과 뗄 수 없다. 이때의 메시지들은 시적 주체에게 내면의 필요를 채우고, 내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외부를 보게 하며, 자신의 부정(不淨)함을 점검하게 한다. 한편 문장으로 변환 가능한 음성 메시지가 부재한 역사 현실에서의 긴박했던 상황을 다루는 시에서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 생존과 희생의 장면을 소환하여 애도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구성해낸다.

### 3. 메시지 없는 메시지와 비(非)음성적 청취

앞 장에서 살폈듯, 김종삼 시의 주체는 문자 기호로 변환 가능한 계시적 음성 메시지를 끝내 찾지 못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시에서는 어떤 신의 부재(不在)가 직접 언급될 때가 많다. 이때의 신은 계시적인 메시지의 발신자로 가정되며, 종교적 의미에서의 신으로 보일 때가 많다.<sup>13</sup>

<sup>13</sup> 홍승진이 지적했듯 김종삼의 시 세계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다양한

자신이 신(神)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터라고 성찰하기도 하였던 시인 스스로의 언급<sup>14</sup>과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sup>15</sup>에도 불구하고 김종삼의 시 세계를 관류하는 시적 계기에는 그리스도교의 전승이라는 차원이, 신의 부재라는 국면과 더불어 나타난다. 신의 부재는 신의 “말”이 없다는 것으로 제시된다.

(1)

醫人이 없는 病院들이 넓다./ 사람들의 영혼과같이 介在된 푸름이 한가하다./ 비인 乳母車 한臺가 놓여졌다. / 말을 잘 할줄 모르는 하느님의 것일까/ 버리고 간 것일까./ 어디메도 없는 戀人이 그림다./ 窓門이 열리어진 파아란 커튼들이 바람 한점 없다./ 오늘은 무슨 曜日일까.

- 「무슨 曜日일까」(『現代文學』, 1965. 8.) 전문

(2)

몇 그루의 소나무가/ 얹이한 언덕엔/ 배가 다니지 않는 바다./ 구름바다가 언제나 내다보이였다./ 나비가 걸어오고 있었다./ 줄여야만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는 대낮이 계속되였다./ 어제의 나를 만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였다./ 골짜구니 大學建物은/ 귀가 먼 늙은 石殿은/ 언제 보아도 말이 없였다./ 어느 位置에는 ㉠누가 그린지 모를/ 風景의 背音이 있으므로/ 나는 세상엔 나오지 않은/ 樂器를 가진 아이와/ 손쥐고 가고 있었다.

- 「背音」(『現代文學』, 1966. 2) 전문

인용한 시 (1)과 (2)는 모두 음성이나 소리가 나타나지 않으며, 외부의 ‘말

맥락들 중에서 어떠한 맥락과 맞닿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해주기 어려우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환원되지 않는 김종삼 시의 특징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전승된 차원으로서의 기독교가 김종삼 시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임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체성과 결부하여 이해하였다(홍승진, 「김종삼 시의 내재적 신성 연구 - 살아남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sup>14</sup> 김종삼, 「면 「시인(詩人)의 영역(領域)」, 『文學思想』, 1973. 3. (『김종삼정집』 917쪽에서 재인용)

<sup>15</sup> 강은진, 「김종삼 시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과 초월적 정의」, 『한국시학연구』 제67호, 한국시학회, 2021, 9-38쪽.

없음'의 상태가 직접 언급되고 있다. 소리를 일부러 배제한 시가 아닌,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경화하는 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과 (2)는 환상의 영역으로 시적 주체의 시선이 확장되느냐의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인용한 시 (1)에서는 '비어 있음'의 양상 세 가지가 '버림받음'의 양상에 대응하여 제시된다.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유모차에는 아기가 없으며, 시적 주체에게는 연인이 없다. 병원은 의사로부터, 유모차의 아기는 하느님으로부터(또는 부모나 질병으로부터) 돌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점과 시적 주체가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으리라는 점이 연결된다. 이 모든 돌봄의 부재는 “하느님”의 “말” 없음, 즉 메시지 없음에 대한 시적 주체의 의문으로 수렴된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 건물 공간은, 사실 생명이 소생되는 신성한 공간이어야 마땅한 병원이다. 생명력도, 신성함도, 돌봄도 느껴지지 않는 이 공간은 이제 신의 메시지 없음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공간으로 시적 주체에게 인식된다. 고요한 풍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에 나타나는 “평화”와 유사성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고요함은 시적 주체에 의해 부재하는 신과 연결되는 의문시되는 현상에 그친다. 신 또는 이 세계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쉽사리 신뢰를 보낼 수만은 없는 불안정한 심리가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시 (2)의 주체는 “언덕”에서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마주해 있다. “어제의 나를 만나지 않는 날”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과거의 일들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눈앞에 산적해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듯하다. 마주치는 돌들은 “대학건물”처럼 평소 침묵하고 있음에도 시적 주체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대상들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는 (1)에서와 달리 ‘말 없음’이 곧 불안정한 심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이”와 숨겨진 “배움”을 발견하는 환상적인 장면으로 확장된다. “아

이”와 “배음”을 발견하는 이 부분은 비약적이다. 특별한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은폐된 “배음”의 청취가 가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 (1)과 (2)에는 모두 ‘죽은 아이’ 모티프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잠시 정신분석학 용어를 빌려 이해하자면, (1)에서는 유모차가 비어 있다고 표현되어 아이와의 만남이 상상계에서마저 불가능함이 나타난다면, (2)에서는 현실에서 환상으로 비약하여 상상계 속의 아이를 만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시 (1)과 (2)가 메시지 부재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일관성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을 투시하는 시적 주체의 순간적인 관점 상의 차이일 것이다.

(1)에서의 세계는 삶과 죽음의 세계가 근접하게 붙어(등을 맞대고 있는 형국에 가깝게) 제시되지만 죽음의 세계는 암시적으로만 넘겨다볼 수 있을 뿐이다. (2)는 삶을 죽음의 세계와 연결하여, 죽음의 세계에까지 확장된 현실이 환상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계시적 메시지의 유무 여부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시적 주체가 메시지 없음의 차원 바깥으로 관점을 확장하는가(2), 확장하지 않고 현실로 한정하여 비의적 침묵을 숙고하는가(1)의 문제이다.

김중삼 시에서 청취자 주체를 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방식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음이 가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을 현실로 한정하는지 혹은 현실의 이면까지로 확장하는지의 문제에는, 음성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메시지에 대하여 시적 주체가 신뢰감을 유지하는가, 그러지 않는가의 문제가 결부된다. 그렇다면 ‘말 없음’의 현상은 김중삼 시의 연속적 측면에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이미 거기에 항상 있는 현존”으로서 곧 김중삼 시에 있어서 “편재하는 부재”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sup>16</sup>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쳐다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이미 거기에 항상 있는 현존, 침묵과 암흑의 작품, 이를테면 편재(偏在)하는 부재의 작품에 충실한 그 순간부터

비 바람이 휘청거린다./ 매우 거세이다./ 간혹 보이던/ 눈두락 매던 사람이  
 멀다./ 산마루에 우산/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느리다./ **무엇인지 모르게/** 평화  
 를 가져다 준다./ 머지않아 園頭幕이/ 비이게 되었다.

- 「園頭幕」(『韓國戰後問題詩集』, 新丘文化社, 1961) 전문

그렇다면 김종삼 시의 미학적 측면을 특징짓는 이른바 ‘내용 없음’의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체의 관점이 눈앞 현실과 현실에서 확장된 더 먼 곳 중 어느 영역을 향하고 있는가와 결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인용한 시 「園頭幕」에는 시각적 장면이 우세하게 등장한다. 이 시에서 살필 수 있는 언어의 차원에서 포착되지 않는 침묵이 전면화되고 있다.<sup>18</sup> 이 시의 주체는 눈 앞에 펼쳐진 장면의 의미를 파악해낼 수 없다. 그러나 파악해낼 수 없다는 것을 곧 신의 음성이 부재하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 계시적 음성이 부재함에도, 앞선 시에서와는 달리 그것에 의아해하지 않는다. 의미를 자신이 깨달았는지 여부 역시 더 이상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풍경은 자신에게 “무엇인지 모르게/ 평화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승훈의 ‘비대상’ 시, 김춘수의 ‘무의미’ 시와는 결이 다른데, 그것은 김혜진의 지적처럼 “비의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의미영역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기 때문”<sup>19</sup>이다. 이 작품의 분위기는 “한동안 일과 빛에 쫓기다가 단 하루라도 휴식이 얻어지면 죽음에서 소생(蘇生)하는 찰나와 같은 맑은 공기가 주위를 감돌았다”<sup>20</sup>라는 산문 구절의 것과 흡사한

줄곧 지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편재하는 부재, 그 무엇이든, 촉각과 후각으로 느껴지는 것이든, 모든 것의 부재.” (국제비교한국학회, 「장-뤽 낭시와 김순기의 대화 “어떻게 (나타나는가), 침묵은, 저항은, 김순기의 예술(에서) Comment arrive, Silence, Resistance, Dans l'art de Kim Soun Gui”」, 『비교한국학』 제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58쪽).

17 황동규는 ‘북치는 소년’이라는 제목이 본문에서는 생략되면서 “내용 없는”이라는 표현이 시의 틀과 잘 부합한다고 하였다(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50쪽).

18 “침묵은 언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언어의 한계를 가리키는 거지요.” (앞의 글, 265쪽)

19 김혜진, 「김종삼 시의 방법적 객관주의」, 『한국시학연구』 제62호, 한국시학회, 2020, 79쪽.

데, 따지고 보면 비 오는 날 원두막에 들어가 비를 피하며 바라보는 풍경이 주체로 하여금 가라앉은 정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짐작된다.

이 지점에서, 2장에서 살폈던 시 「스와니 강의 요단 강의」를 겹쳐서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 자신에게 산적해 있는 일상의 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고립되어 빗소리를 듣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된 상황에서, 주체는 먼 곳을 바라보는 트인 시야를 얻게 된다. 이 환경은 유년 시절에 “스와니강”과 “요단강”을 떠올릴 때처럼 자신에게 내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년 시절 “스와니 강”과 “요단강”으로 대표되는 먼 곳으로부터 전해져오는 내용적 차원이 시어 단위에 암시되어 있었다면, 이 시에 서는 먼 곳으로부터 전달된 그 어떤 메시지도 없고 내용적 측면이 공백임에도 그 공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형식에서 흘러나오는 휴식의 측면이 있다.

시적 주체는 그 형식이 가져다준 것에 “평화”라고 이름 붙인다. 미래지향적인 형상이 초월적으로 도래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적 주체는 상황 자체를 “평화”롭게 여긴다. 이것은 평화롭지 못했던 현실체함과 대비를 이루는 정취이기에 붙일 수 있는 정서적 명명일 것이다. 이 시에는 가시화되지 않지만, ‘먼 곳’의 메시지를 청취할 수 있는 자가 느낄 수 있는바 ‘평화’가 그 ‘평화’를 구가하는 형식 자질을 재귀적으로 취하게 한 것이라고 이해된다.<sup>21</sup>

작으나마 자신을 보호해준 적 있고 평화롭지 못한 현실체함으로부터 평화로운 일순간을 허락해준 “원두막”은, 그러나 “머지않아” “비이게 되었다”라

20 김중삼, 「이 공백(空白)을」, 『現代韓國文學全集 18・52人詩集』, 新丘文化社, 1967. 『김중삼정집』 913쪽에서 재인용.

21 1953년 휴전협정 조인 이후, 전후 한국에서는 기실 ‘평화’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되는 가치였고, ‘反戰’보다는 ‘反共’이 우상시 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평화’는 불온한 단어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김중삼 시인이 줄곧 희생된 타자들을 애도하며 살아간 삶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개인적 영역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움을 준다(임진영, 「1950년대 한국 기독교의 전쟁 인식과 평화 담론의 가능성」, 김예림·김성연 편, 『한국의 근대성과 기독교의 문화정치』, 혜안, 2016. 384-385쪽 참조).



고 표현된다.<sup>22</sup> 규범 표기는 아니지만 동사 “비다”의 사동사 “비이다”가 사용되면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뒤로하고 원두막을 벗어나 분주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음성적으로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 없음에도 시적 주체는 ‘상황이라는 형식’을 메시지로 삼고 회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墨畫」(『月刊文學』, 1969. 6.) 전문

김중삼 시에 편재한 계시적 메시지의 차원은 상황에 대한 시적 주체의 해석, 그리고 해석을 생략한 채 ‘상황이라는 형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동체를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용한 「墨畫」에서 밑줄 친 인용절은 그 발화가 본래 누구의 것인지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말로 일차적으로 해석된다.<sup>23</sup> 그러나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발화한 것을 옮긴 것인지, 또는 서술자가 할머니의 내면을 짐작한 것인지 이 시에는 다 밝혀져 있지 않다. 발화자를 밝히는 주어가 생략되면서 메시지의 출처가 희미해진다. 이어서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서술어 없이 사용되면서 서술자(전달자)의 자리도 희미해진다. 메시지는 그 출처와 서술자가 희미해졌지만

<sup>22</sup> “비이다”라는 것은 원두막이 철거된 것인지, 아니면 시적주체가 원두막에서 떠나 자리를 옮긴 것인지 해석상의 중의성이 있다. 원두막이 철거되었다기보다 원두막 안에 있던 시적주체가 자리를 옮겨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주체의 성격을 아는 것과 더 깊은 관련성을 지니므로, 후자의 해석을 하기로 한다.

<sup>23</sup> 한편 이 시에서 인용절을 통해 옮기는 메시지는 할머니의 말이라 짐작되기도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는 서술의 층위에서 생략되어 있다. 이 시는 여기에서의 메시지를 인간이 아닌 소의 입장을 짐작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게 읽히도록 한다. 이 시에서 메시지는 누구의 발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분명 소와 할머니의 내적 친밀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문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미가 휘발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정감이 남는다. 그로써 소와 할머니가 등장하는 추상적인 공간은 마치 농도 짙은 안개에 감싸이듯 그 메시지가 환기하는 의미에 감싸인다. 그렇게 침묵하는 형상이 지켜집에도 그들을 연결하는 관계성은 실체를 얻는다.

“서로 적막하다”는 것은 할머니와 소가 현재 말이 없다는 뜻도 되며 그 둘 모두 고독한 자들이라는 뜻도 된다. 그 둘은 고독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고 단순히 설명될 수도 있지만, 각자는 침묵 가운데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낭시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에게 외존(exposition)하며 함께 있다.<sup>24</sup> 구체적인 대화를 통한 연합이 아닌, 침묵을 통한 분리와 사이가 발생해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낭시가 말하는 공동체로 설명될 수 있다. 인정(認定)이나 경제에 기초한 결속이 아닌, 외존의 가치를 갖는 공동의 - 나타남(com-parait)인 것이다.<sup>25</sup>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침묵의 공간에 올라오는 의미가 생겨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술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이 시에서 서술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되 서술 표지만 남김으로써,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메시지를 전경화하여 추상적인 관계적 정서를 구체적이고 실재성을 띤 신뢰감의 영역으로 옮긴다. 서술자의 존재가 그들의 바깥에서 그들을 묘사하고, 그들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임을 고려하면, 짐작된 음성만을 남겨둔 채 서술자의 지위를 스스로 지움으로써 서술자는 그들의 고요하고 친밀한 관계에 자신 역시 침묵으로 동참하는 셈이 되도록 한다.

할머니라는 3인칭이 등장하는 시이지만 이 시는 할머니를 관찰하는 시적

<sup>24</sup> 본래 외존은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개념이지만, 문학에서는 동물에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여 이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기, 여기에서 물먹는 소와 할머니의 관계를 외존의 관계로 확장해 이해하였다.

<sup>25</sup>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無爲)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75쪽.

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짐작해보게도 한다. 스쳐 지나가다 포착된 듯한 이 풍경 속 할머니와 소의 관계처럼, 김종삼의 시는 서로가 서로를 구제하는 관계, 또는 그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구제를 기대할 이가 신변에 없는, 매우 취약한 존재들에게 애정을 갖는다. 취약한 존재들과의 조우는 「墨畵」에서처럼 메시지를 듣게 한다.

김종삼 시에서 계시적 메시지가 부재할 때, 그것은 객관주의적 묘사처럼 보이는 시라고 하더라도 시적 주체가 현실의 이면까지 관점을 확장하고 있는 그 관점의 범위를 부각하는 시 형식의 계기가 된다. ‘계시적 음성 부재 - 상황을 해석할 주체적인 관점 형성(계시적 음성 부재가 문제시되지 않음)—해석적 관점 유무의 여부가 중요치 않음—침묵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공동체 포착’.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도출해볼 수 있겠다. ‘말이 없음’은 김종삼 시에서 주체가 청취를 통해 관찰한 현실적 사안이다. 신적(神的) 타자, 이웃, 세계에 대한 신뢰의 상태와 연관이 되며, 일부러 침묵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한다.

#### 4. 발신자의 전환과 주체의 메시지 수행

계시적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회복되고자 했던 주체, 방향을 구하고자 했던 주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주체는 계시적인 메시지가 부재 하더라도 해석을 통하여 스스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주체는 타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 해석하여 스스로 그들을 구제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는 독특한 수행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단순히 윤리적 주체라고 명명하기에는 아쉬운 이 주체의 수행성에는 메시지 청취라는 저간의 과정이 담겨 있다.

(1)

城壁에 日光이 들고 있었다/ 육중한 소리를 내는 그림자가 지났다// 그리스도는 나의 산계급이었다고/ 죄없는 무리들의 주검옆에 조용하다고// 내 호주머니 속엔 밤 몇 톨이 들어/ 있는 줄 알면서/ 그 오랜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의/ 돌층계를 올라가서/ 낮토를 아이들이 모여 있는 안쪽으로/ 들어섰다 무거운 거울 속에 든 꽃잎새처럼/ 이름이 적혀지는 아이들에게/ 밤 한톨씩을 나누어 주었다  
- 「復活節」(『十二音階』三愛社, 1969) 전문

(2)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맘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내가 처음 일으키는 微風이 되어서/ 내가 不滅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天使가 되어서/ 아름다운 音樂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스런 神父가 되어서/ 그들을 한번씩 訪問하리니  
- 「미사에 參席한 李仲燮氏」(『本籍地』成文閣, 1968) 전문

인용한 시 (1)에서 주체는 “그리스도는 나의 산계급이었다고/ 죄없는 무리들의 주검 옆에서 조용하다고”라고 고백한다. 이 발화 역시 계시적인 메시지가 아닌, 시적 주체가 직접 취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라는, 앞말이 간접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붙어 있는 이 두 문장은 그러나 완전한 문장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미종결된 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때 이 불완전한 문장인 두 간접인용절은 내적인 발화를 더욱 고요하게 남긴다. 이 두 개의 간접인용절로 인해 정제된 내면의 발화에 울림이 생긴다. 깊이 있게 숙고된 이 고백, 즉 “그리스도는 나의 산계급이었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가 “죄없는 무리들”의 편에서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검 옆에서 조용”하게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데에 대한 의아함,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파악으로 이어진다.

이 시는 예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의

주체는 예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수의 “조용”함의 의미를 헤아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택한다. 바로 죽음의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밥”을 한 톨씩 나누어주는 일이다.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음에 이른 불가해한 참상에 예수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곧 신성을 통해 상황이 구제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대한 스스로의 거절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거절은 이 시의 주체가 신성에 의탁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인 자신의 실천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갱신되는 메시지이다. 다시 말해 이 시에서는 인간의 참상에 침묵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히려 타자에 대한 주체의 윤리적 책임의 실천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의 침묵하는 메시지에는 타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호소하는 말 없는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시의 주체는 오히려 그와 같은 말 없는 거절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있으며, 침묵하는 예수와 주체가 외존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 (2)에는 계시적인 음성이 없다. 하지만 발화된 담화에는 시적 주체가 청취해 낸 메시지의 내용이자 수행하고자 원하는 이중화된 메시지의 방향성이 내재돼 있다. 화가 이중섭의 그림을 본 소회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발화로 보이는 이 시에서는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라는 세속화된 구제방식이 도모된다. 전후 궁핍한 한국에 필요한 것으로서 “많은 돈”이 선결되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후에야 “미풍”, “불멸의 평화”, “음악”과 같은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내적 위로가 연결될 것이라고 보는 이 시에서 김종삼 시인의 현실 감각을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이 시는 전체가 종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관적으로 각각의 문장 말미에 연결어미 “-리니”<sup>26</sup>가 후행절 없이 사용되고, 미종결 문장으로 끝이 난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약속의 주체가 객체에게 전하는

26 연결어미 ‘-리’는 주어가 어떤 일을 할 의향이나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에스러운 표현의 어미이다.

언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임을 떠올려볼 수 있겠다.<sup>27</sup>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리니’의 선행절은 언약이나 의지의 내용을, 후행절은 그 언약 이행이나 의지의 발휘 이후 발생할 효과 또는 객체에게 청유하는 내용이 진술된다. “-리니”라는 선행절만으로 구성된 이 시는 후행절을 생략함으로써 약속이나 의지의 내용이 강화된다. 그러나 환언하면 약속이나 의지만이 남고 현실적인 실행 결과의 장면은 담보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시가 가져다주는 절망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을 경유한 초월적 바람이 현재의 절망감의 깊이를 역으로 드러내 준다. 이 시 (2)는 (1)과 마찬가지로 신성에 의지하는 극복 방식을 거절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1)에서와 달리 구체적인 성취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이, 그리고 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이 시적 주체의 발화를 통해 나타난다.

나는/ 밋손 병원의 圓柱처럼/ 주님이 꽃 피우신 울타리// 지금 너희들 가난하게/ 생긴 아기들의 많은/ 어머니들에게도 그랬거니와/ ① 柔弱하고도 아름다운/ 그지 없음은 짓밟혀 갔다고 하지만// 지혜처럼 사랑의/ 먼지로서 말끔하게/ 가꾸어진/ **자그마하고도 거룩한/ 생애를 가진 이도 있다고 하잔다.**// ② 오늘에도 가엾은/ 많은 赤十字의 아들이며 딸들에게 그지 없는 恩寵이 내리면/ **서운하고도 따시로움의 사랑이 나는 무엇인가를 미처 모른다고 하여 두잔다**// ③ 제각기 色彩를 기다리고 있는 새싹이 트이는 봄이 되면 너희들의 부스럼도 아물게 되면/ **나는/ 밋손 병원의 늙은 간호부라고 하여 두잔다**

- 「마음의 울타리」(『十二音階』 三愛社, 1969.) 전문

<sup>27</sup> 예를 들어 ‘내가 ~를 하리니, 어떠한게 될 것이다.’ 또는 ‘내가 ~를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와 같은 문형으로 구성된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신명기 31:23 (개역개정))와 같은 구절을 살필 수 있다.

이 시에서 메시지는 최초에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시적 주체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인용한 시에서 주체는 자신을 “주님이 꽃 피우신 울타리”, “밋손 병원의 늙은 간호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 즉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여긴다. “유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자의 정체성을 취하는 것은 이 시에서는 “주님이 꽃 피우신” 것에 기원이 있다고 제시된다. 이는 곧 자신에게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한 보이지 않는 명령이 있었다는 암시를 읽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기로 한 청중(聽從)의 과정이 나타나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는 “하잔다”, “하여 두잔다”라는 가정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사용된다. 각각 “하자고 한다”와 “하여 두자고 한다”가 축약된 서술어로, 둘 사이에는 크게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고 전제하는 문장 형식이다. 그 효과는, 먼저 ①에서 나타나 있듯이 연약한 존재이더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표현된다. 여기서의 믿음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을 연상시키지만, “하잔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되면서 신앙적인 맹목에 의함이 아닌 실천적 삶이 가능함을 믿는 인간의 실천성이 강조된다. ②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신의 “은총”에 기대어 돌보고 나서, 그 돌봄을 가능케 한 종교적 영역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완수했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듯한 거리 두기가 표현된다. 여기에서는 마치 자신이 한 일로부터 익명으로 남겠다는 듯한 겸손함을 읽게 한다. ③에서는 잘 돌본 아이들이 미래에 모두 회복되는 그 날이 올 때, 그때에도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고 타자를 돌보는 일이 본업인 낮은 자로 여기겠다는 다짐이 표현된다.

이 시에서는 시적 주체가 종교적 신앙심을 강조해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신앙심과는 거리를 일정 정도 확보하고, 또 자신의 사명감에 경도되

지는 얇은 채 임무를 수행하는 면모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바로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 그리고 “하잔다”, “하여 두잔다”와 같은 가정 또는 양보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유보의 면모와 실천의 면모가 역설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보된 자신의 자리에서 시적 주체는 취약한 타자들이 치유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밋손 병원의 늙은 간호부”라고 “하여” 두며 마무리되는 것은, 자신을 인용절 내부에 위치시키면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에게 올려오는 메시지가 되도록 정립하는 재귀적 효과가 있다. 자신의 실천적인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리라는 다짐이자 수용이 나타나며 그 낮은 자리가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히는 김종삼 시 고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 외에 또 다른 시 「물통」이나, 현실을 고스란히 시로 구성한 「屍體室」과 같은 시에서 보다 현실적인 수행적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삼 시의 주체는 그 메시지들을 취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메시지를 구성하기도 하면서 타자들이 치유되기까지 시간을 들여 돌본다. 그때 자신의 실천성 자체는 부각하지 않으며, 차라리 비신앙적으로 보이는 ‘가정’과 ‘양보’의 표현을 통해 신앙적인 맹목과는 거리를 두고 실천적이고 거룩한 삶이 가능함을 믿는 인간의 낮은 자세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 5. 결론

지금까지 김종삼 시에 나타난 청취자로서의 주체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김종삼 시의 청취자 주체는 유년 시절 경험한 ‘듣기’의 체험을 통해, ‘먼 곳’



으로부터 도래해오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신뢰하는 주체이다. 또한 그 메시지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와 생존의 의미를 찾아, 실천적인 영역으로 직접 옮겨가고자 하는 주체이다. 그와 같은 주체는 홀로 있는 고독의 자리에서, 특히 자신의 죄책감과도 무관치 않을 부정(不淨)함을 마주하는 자리에서 긴장하며 계시적인 메시지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남북의 경계를 넘는 참혹한 현상이 재현되는 시들에서는 감각들을 교란하며 청취되던 소리가 현재에까지 진행되듯 표현되고, 또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 생존과 희생의 장면이 소환되면서 거기에 애도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구성해낸다. 인간이 인간을 구제할 수 없고 오히려 희생으로 몰아넣는 장면에서는 침묵 역시 침묵으로서의 소리처럼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계시적 메시지가 부재할 때, 김중삼 시에서는 그 부재를 문제 삼기도 하지만, 그 부재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양상들을 통해 김중삼 시를 메시지 없는 메시지의 시라고 해볼 만하다. 주관이 최소화된, 객관주의적으로 보이는 시에는 계시적 메시지의 부재 문제가 시적 주체의 해석을 통해 이미 선결된 채 ‘상황으로서의 형식’만을 시 형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실로 부재한다기보다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서 형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내용 없는 아름다움”으로서의 미의식은 청취적 주체의 내적인 안정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중삼 시에서 계시적인 메시지는 시적 주체에게 타자를 돌보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자신의 존재는 뒤로 물러가도록 하는 메시지이다. 계시적인 메시지가 들리지 않더라도 주체가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메시지로 구성하는 시에는, 이미 그 수행성을 촉구하는 메시지 청취의 과정이 재귀적으로 선행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김중삼 시의 청취자 주체가 평면적인

수용자가 아닌, 해석과 수행을 통해 메시지 생산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청취자 주체를 고찰하였다. ‘메시지’가 청취자 주체를 요청하는 메시지라는 장-뤽 낭시의 의견을 참조해, 메시지와 시적 주체의 상호 충실한 관계를 작품 분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 분석에서 ‘말화 주체’의 면모를 파악할 때 다 확인되지 않는, 스스로 수행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타자 지향적 주체의 면모까지 ‘청취’하는 자의 속성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었다. 김종삼 시에서는 주체가 메시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요청되는 관계로 파악된다. 나아가 주체가 메시지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시에서는 주체와 메시지의 위상은 같아진다. 김종삼 시의 주체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듣는 자이자, 그가 들은 것을 밖으로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전환을 이룬다.

이는 김종삼 시의 주체를 윤리적 주체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들에 이어지면서, 그 윤리성의 근간을 심화해 파악하는 논의일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룬 김종삼 시에서 발견되는 계시적인 메시지의 영역이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월남 문인으로서의 김종삼이 유년시절 이북에서 경험했을 기독교적 체험을 작품 내에서 어떻게 변환시켜가는지, 당대 정치 현실과 한국 기독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한 실증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김종삼 저, 홍승진 · 김재현 · 홍승희 · 이민호 편, 『김종삼정집』, 복치는소년, 2018.

### 2. 학술논문

- 강은진, 「김종삼 시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과 초월적 정의」, 『한국시학연구』 제67호, 한국시학회, 2021, 9-38쪽.
- 공현진, 「전후 세대 시의 서울 표상 연구: 김수영 · 신동엽 · 김종삼 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2022.
- 김승희, 「김종삼 시의 전위성과 미니멀리즘 시학 연구: 자아의 감소와 서술의 축소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16, 2008, 195-223쪽.
- 김양희, 「김종삼 시에서 “음악”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5, 615-649쪽.
- 김정란, 「김종삼 시 연구: 소리 이미지와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06.
- 김혜진, 「김종삼 시의 방법적 객관주의」, 『한국시학연구』 제62호, 한국시학회, 2020.
- 신지원, 「김종삼 시에 나타난 ‘소리’의 양상과 특성 연구」, 『건지인문학』 24호,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221-246쪽.
- 신지원, 「김종삼 시의 미의식 연구 - 소리와 음악의 인지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1집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233-270쪽.
- 홍승진, 「김종삼 시의 내재적 신성 연구 - 살아남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3. 단행본

- 이민호 편, 『김종삼 탄생 백주년 기념 시집 - 전쟁과 음악과 평화와』 해설, 복치는소년, 2022
- 임진영, 「1950년대 한국 기독교의 전쟁 인식과 평화 담론의 가능성」, 김예림 · 김성연 편, 『한국의 근대성과 기독교의 문화정치』, 혜안, 2016. 381-414쪽.
- 장-뤽 낭시, 이만형 · 정과리 역, 『나를 만지지 마라』, 문학과지성사, 2015.
- 장-뤽 낭시, 김예령 역, 『코르푸스』, 문학과지성사, 2012.
- 장-뤽 낭시, 이영선 역, 『신, 정의, 사랑, 아름다움』, 갈무리, 2012.
-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 4. 기타자료

#### · 녹취

국제비교한국학회, 「장-뤽 낭시와 김순기의 대화 “어떻게 (나타나는가), 침묵은, 저항은, 김순기의 예술(에서) Comment arrive, Silence, Resistance, Dans L’art de Kim Soun Gui”」, 『비교한국학』 제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41-275쪽.

## “Message” and “Listener-subject” that Appeared in Kim Jong-sam’s Poetries

Yoon, Eunseong • Lee, Kyungsoo |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listening’ frequently performed by the subject in Kim Jong-sam’s poem. His formal aesthetics, which is concentrated in the expression “beauty without content,” is accompanied by the performance of listening and even performance through listening. This is a part that confirms the activity of the subject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pointed out in the discussion so fa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depth the aspect of the subject as a consistent listener in Kim Jong-sam’s poems, including psalms that aim for peace and appear caring for others.

In Kim Jong-sam’s poem, audibility is related to a revelatory message that provides a direction of life. Referring to Jean-Luc Nancy’s view of discussing in a Christian lullaby but emphasizing the interpretive aspect of the message rather than the verticality of the message, the message requests the listener, and the listener is the one prepared to listen to the message. In a romantic sense, the subject of Kim Jong-sam’s poem discovers himself in the temporal nature that extend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and mourns by “listening” the victims in historical reality in their present positions. In addition, in a needy reality where the revelatory message appears to be absent, the poetic subject derives a performative message urging low-position care for the other. In the performance message derived by the subject,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a temporal message is preceded.

From the existing point of view, in dealing with Kim Jong-sam’s formal aesthetics, there was a tendency to pay attention to the effective aspect of the form that remained as the absence of the subject of instruction became focused. In this paper, it was considered that Kim Jong-sam’s poem becomes a path and form that enables him to connect with the messages he has listened to. Furthermore, the message in Kim Jong-sam’s poem is converted into a recursive declaration that continuously summons historical scars to mourn, and to perform

the act of being with the other person.

**Keywords :** Kim Jong-sam, Listening, Message, Listener subject, Interpretation, Reveal, Performativity

논문접수일: 2022.03.15. 심사기간: 2022.03.31.~04.08. 게재확정일: 2022.04.14.



## 국제비교한국학회

### 연혁

- 1991.12.29 국제한국학및비교학회(Association Internationale Etudes Coréennes et Comparées)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 (독일 베를린: 참가자 6명)  
홀머 브로홀로스(독일 본대학교 교수)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김문학(일본 경도대학교 학위과정 이수중)  
송영인(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헤이워드 캠퍼스 교수)  
고송무(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교수)  
김필영(파리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1992. 5 프랑스 법에 따라 학회 등록 및 로고 창안 (법인 대표: 김필영)
- 1992.10.22-26 제2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과학아카데미)  
공동개최: 카자흐스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약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구소련 붕괴 후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한국학 학술대회
1993. 7.12-16 제3회 국제학술대회 (벨기에 루뱅 카톨릭대학교)
- 1994 국제비교한국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mparative Korean Studies : IACKS)로 학회 명칭 변경
1995. 7.24-26 제4회 국제학술대회 (카자흐스탄 크질오다 사범대학)  
크질오다 사범대학 당국으로부터 “쌀알 위에 그려진 홍범도 장군의 영정”을 기증받아 귀국 후 독립기념관에 회사함
- 1995.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권 발간
1996.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권 발간
- 1996.10. 4- 5 제5회 국내학술대회 (부경대학교)
1997. 7.29 제6회 국제학술대회 (몽고 울란바토르대학교)
1997. 8.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권 발간
- 1998.10.24 제7회 국내학술대회 (경기대학교)
- 1998.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4권 발간

1999. 7.26 제8회 국제학술대회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1세기 한국문화의 전망과 과제”
- 1999.12.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5권 발간
2000. 6. 9 제9회 국내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1세기 한국학의 전망과 과제”
2000.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6권 발간
- 200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7권 발간
2001.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8권 발간
2001. 7. 3 제10회 국제학술대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후원 : 한국번역금고, 한국교류재단, 뉴욕 버팔로대학교 아시아연구전공
- 2001.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 200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9권 발간
2002. 6. 7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Korean Studies at the Crossroads”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6.29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1호 발간
- 200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0권 2호 발간
2003. 5.23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후원 : 대산문화재단  
한인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UC Berkeley, Korean Studies Center와 공동 기획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각각 따로 개최하고 단행본은 공동 발간함
2003.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1호 발간
- 200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1권 2호 발간
2004.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1호 발간
- 2004.11.30 단행본 『*Diaspora in Korean (Immigrant) Literature*』 발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12.10~11 제13회 국제학술대회 (UC/Berkeley, USA)
- 200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2권 2호 발간
2005.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1호 발간
2005. 9.23 제14회 국내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2005.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3권 2호 발간
2006.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1호 발간



- 2006.11.22-23 제15회 국제학술대회 (Tottori University, Japan)  
 “Cultural Exchange and Hallyu in Northeast Asia”  
 후원: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 2006.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4권 2호 발간
- 2006.12.31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2007.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1호 발간
- 2007.08.24-25 제16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세계 속의 한국현대문학”  
 공동주최: 한국현대문학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7.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5권 2호 발간
2008. 6.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1호 발간
2008. 7. 1- 2 제17회 국제학술대회 (Burapha University, Thailand)  
 “Korean Studies throughout the World :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 2008.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6권 2호 발간
2009.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1호 발간
2009.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2호 발간
- 2009.10.30-31 제18회 학회 및 연구소 연합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와 디아스포라”  
 공동주최: 한국비평문학회, 현대문학이론학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후원: 동국대학교 BK21 인재양성사업단
- 2009.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7권 3호 발간
2010.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1호 발간
2010. 5.08 제19회 국내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이상과 모더니즘” (이상 탄생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2010. 8.19 제19차 국제비교문학대회 (ICLA)에 패널 구성 참가
2010.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2호 발간
- 2010.10.15-17 제20회 국내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10.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3호 발간
2011. 4.21 창립 20주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 USA)  
 “Colonial Modern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East Asia”  
 공동주최: Korean Studies Institute, USC, LA, USA, 후원: 대산문화재단,

USC East Asian Studies Center, USC Korean Studies Center, USC Korean Heritage Library, NEAC(North East Asian Council) in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11.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발간
2011. 6.11 창립 20주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서강대학교) “고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관: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2호 발간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 2011.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3호 발간
2012.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1호 발간
2012. 6.15~16 제23회 국내학술대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 속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2012.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2호 발간
- 2012.10.13 제24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현대 한국문화와 미국”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2012.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0권 3호 발간
2013. 4.23 제25회 국제학술대회 (Rutgers University,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Politics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후원: 한국문학번역원
2013.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1호 발간
2013. 6.15 제26회 국내학술대회(서강대학교)  
“미국한국학에 관한 질문과 모색: 문학, 영화, 번역의 문제”  
후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2호 발간
- 2013.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1권 3호 발간
2014.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1호 발간
2014. 6.21 제27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후원: 한국연구재단
2014.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2호 발간
2014. 9.19~20 제28회 국제학술대회 (일본 도시샤 대학교)  
“동아시아의 타자 인식과 담론의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도시사대학교 코리아센터  
후원: 대산문화재단

- 2014.12.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2권 3호 발간
2015. 3.28 제29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비교문학의 현황과 과제”
2015. 4.30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1호 발간
2015. 7. 4 제30회 국내학술대회 (연세대학교)  
“문학·문화 연구의 탈경계적 지평과 재구성”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8.31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2호 발간
- 2015.12.12 제31회 국내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폭력의 정동과 노모스”
- 2015.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3권 3호 발간
2016.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1호 발간
2016. 7. 2 제32회 국내학술대회 (상명대학교)  
“한국과 외국의 상호 문화수용과 쟁점”
2016.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2호 발간
- 2016.10.29 제33회 국내학술대회 (인하대학교)  
“인문주의와 인문교육의 현황 및 과제”  
(공동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 2016.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4권 3호 발간
2017.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1호 발간
2017. 7. 8 제34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  
“한국의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재성찰”
2017. 8.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2호 발간
- 2017.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5권 3호 발간
2018. 2. 3 제35회 국제학술대회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윤동주 문학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치”
2018.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1호 발간
2018. 7. 7 제36회 국내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문학의 정치사회학의 국제적 변화 양상 - 문학연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
- 2018.7.13-20 제37회 국제학술대회,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znan, Poland)  
“The 1st International Asian Congress –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공동주최: Adam Mickiewicz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Poznan

2018.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2호 발간
- 2018.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6권 3호 발간
2019. 4.20 제38회 국제학술대회(중국 산둥대학교)  
“한중 근대화 및 근대화 담론”  
(공동주최: 중국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한국학원))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1호 발간
2019.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2호 발간
- 2019.10.26 제 39회 국내학술대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사육)  
“한국에서의 외국문학연구, 그 역사와 전망”
- 2019.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7권 3호 발간
2019.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1호 발간
2020. 8.12 제 40회 국내학술대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김현 30주기 추모 학술대회 - 김현의 프랑스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비평”
2020.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2호 발간
- 2020.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8권 3호 발간
2021. 2. 6 제 41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페미니즘/젠더의 향방”
2021.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1호 발간
2021. 8.21 제 42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횡단하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2021. 8.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2호 발간
2021. 12.04 제 43회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팬데믹 시대의 비교한국학”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 2021.12.3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29권 3호 발간
2022. 4.30.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30권 1호 발간

## 국제비교한국학회 역대 회장 명단

제1대 1991-1992	고송무 1947-1993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범대학교 한국어 교수
제2대 1992-1993	Baasanjav Lakhva	국립몽골대학교 교수, 현재 몽고 올란토르대학교 한국학 교수
제3대 1993-1995	이여복 1936-2003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역사학 교수
제4대 1995-1997	김남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한국학 교수
제5대 1997-1999	현종민	Georgetown University 정치학 교수
제6대 1999-2001	김보희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7대 2001-2003	김성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제8대 2003-2005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대 2005-2007	최동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0대 2007-2009	손종호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1대 2009-2011	이소희	한양여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제12대 2011-2013	김승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3대 2013-2015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4대 2015-2017	이철의	상명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제15대 2017-2020	홍정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6대 2020-현재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제비교한국학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비교한국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arative Korean Studies)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실무를 관장하는 집행부가 있는 국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제적 협조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비교학적 측면에서 한국학의 독자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뉴스레터의 발간
2. 연 1회 국내/국제학술회의 개최 (격년으로 해외 개최)
3. 한국학 및 주변학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
4. 한국학에 공헌한 인사에 대한 포상 및 표창
5. 기 타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세계 각처에서 한국학 및 비교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회원) 본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7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기 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재무, 섭외, 출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특히 총무이사 와 함께 해외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제13조(이사의 업무)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3.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문적 발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재정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6. 출판이사는 학회지 배포 및 도서관 연계사업을 담당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제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와 15명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회 의

제16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17조(총회)

1.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회장 임기만료 1년전)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미리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변경
3. 예·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5.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9조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사항

## 제5장 재 정

제21조(수입)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및 후원비
  - (3) 기타수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은 개정된 직후부터 시행한다.
3. 2015년 12월 12일 개정



##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은 다른 출판물(단행본, 학술지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 한국학의 제분야 및 이와 관련된 비교학적, 학제적 연구 내용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게재는 회원당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마감은 학회지 발행 2개월 전인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4. 논문투고는 학회JAMS 홈페이지(<http://iacks.jams.or.kr>)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5.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서약과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하며 이를 포함한 국제비교한국학회 논문 투고 신청서를 학회 메일함(newiacks@empas.com)으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당해년도 연회비와 편당 6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원(평생회비: 300,000원)의 경우, 입회비, 연회비가 면제되며 심사료가 50% 감면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조판 25면 이내의 경우 게재료 (비전임) 100,000원/ (전임) 150,000원을 납부한다. 교내.교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게재료 300,000원을 납부한다. 조판 25면을 초과하는 경우, 1면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7.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영어 논문의 경우 6,000~8,000 단어 내외로 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의 경우, 이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한글이나 영어번역문(번역자는 투고자가아니어도 됨)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 논문 작성

8. 투고논문의체제는 ① 논문제목, ② 성명과 소속, 직위, ③ 한국어초록과 주제어,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서양어초록(서양어제목과저자명, 소속기관명포함)과 주제어의순서에

따르며 각 주제어(Key-Words)는 5개 이상으로 표기한다. 서양어 논문의 경우,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다른 외국어 논문도 서양어초록을 앞에, 한국어초록을 뒤에 작성한다.

9. 한글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200자 원고지 4매 내외로 하며 서양어 초록의 분량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10. 투고 논문의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11. 연구비 수혜사실은 투고 논문에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첨가한다.
12. 원고 작성 시 한글(HWP) 2002, MS Word 2003 또는 상위 버전을 사용한다.
13. 외국어 논문은 미국 현대어문협회(MLA)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필자를 위한 핸드북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에 제시된 규정을 따른다.
14. 한국어 논문의 경우 다음의 규정을 참조하되,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의 관행을 따른다. (자세한 논문 작성의 예는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① 본문의 제목 번호는 1 - (1) - ① - ㉠의 순서로 붙인다.
  - ② 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한글을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 ③ 논문, 작품은 「」로, 저서, 학술지, 잡지, 신문은 **책**으로, 인용문은 “ ”로, 강조할 때는 ‘ ’로 표시한다.
  - ④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항목들에 맞추어 작성한다.
    - ㉠ 저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 순으로 표시하며, 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 순으로 표시한다.
    - ㉢ 앞의 주석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쓰되 서양서의 경우 ‘저자명, op. cit., p.(pp.)’를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석이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위의 책/글, 쪽’의 형식으로, 서양서의 경우 ‘Ibid., p.(pp.)’의 형식으로 쓴다.
    - ㉣ 참고문헌은 한, 일, 중, 기타의 순서로 배열하며, 인용면을 밝힌다.
15.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특성상 특정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주 및 참고문헌의 형식에 따라야 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 투고 신청서

게재 희망	『비교한국학』 권 호	
투고자 정보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및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	우편번호: 주소:
논문 정보	제목(한글)	
	제목 (영문 혹은 기타 서양어)	
	연구비 지원 여부	(    ○    /    X    )
<p style="text-align: center;"><b>연구윤리서약</b></p> <p>1. 투고자(들)는 &lt;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규정&gt;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숙지하였습니다.</p> <p>2. 투고자(들)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 사용’ 등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p>		

서약합니다.

3. 투고자(들)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의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유사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본 논문을 수정·보완했음을 확인합니다.
4.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1. 투고자(들)는 본 논문이 『비교한국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국제비교한국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투고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2. 투고자(들)는 본 논문의 주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주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을 확인합니다.

##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및 활동계획 및 운영)에 의하여,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비교한국학회에서 발간하는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를 비롯한 학술 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기타 업무

### 제 3 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과 상임편집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1인, 편집위원 15인 내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한국학의 제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 학자들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요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4 조(회의소집 및 의결)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연장자 위원,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분기마다(연 3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  
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 제 5 조(위촉 및 임기)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상임이사과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상임이사,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6 조(편집 및 심사)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논문지는 학술지 발간 규정에 따라 발간하되,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상임편  
집이사,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  
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장 또는 상임편집이사의 제안으로, 위원회 재적위  
원 과반의 찬성 또는 학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7.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 기타 상세한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은 별도의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으로 규정한다.

### 제 7 조(게재 논문의 공개)

1. 본 학회 논문지는 도서 또는 전자책, 둘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발간한다.
2.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본 학회와 계  
약된 사이트 등에서 학회 회원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 8 조 (저작권)

1.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2.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

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도 있다.

#### **제 9 조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 따른다.

#### **부칙**

1. 본 위원회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21일부로 제정한다.

## 논문 심사 및 발간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회 차원에서 한국학 및 제 학문 간 비교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제2조 심사 대상

- 1) 학회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 특집 및 기획 등 학회의 의뢰에 의해 투고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제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주제와 관련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 3) 심사의뢰 시 심사자가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 제4조 심사

- 1) 심사 위원은 논문 심사서에 명시된 아래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이를 종합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 상세 의견을 기재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반려 이유가 포함된 학문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게재 여부 결정 및 조정

-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 2) 심사위원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 가’로,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이 1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2항의 차순위가 된다.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채택한다.

- 4)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이 3항의 차순위가 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택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새로운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판단한다.
- 5)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로,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재심하여 판단한다.
- 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 7)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서를 참조하여 수정을 이행하고, 이행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와 투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월 게재할 수 있다.
- 8)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으로 내려졌을 때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는데, 이 때 투고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 및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추가 통보한다.

## 제6조 이의 신청

- 1) 투고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게재 여부를 통고받는다.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진행한다.

## 제7조 교정 및 학회지 발간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을 위해 1회 교정쇄를 전달받는다. 이때 투고자는 출판에 필요한 교정 처리를 하는데, 원 논문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 할당된 지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
- 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은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 3) 논문은 외국어 작성 논문, 한국어 작성 논문의 순으로 게재하며, 전공별로는 언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전공의 순으로 한다. 외국어 간이나 기타 전공 간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동일 전공 안의 게재 순서는 필자 이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을 따른다.

- 4)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내 다른 학회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부칙**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제목				
심사 요지				
평가	게재 가능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p>심사구분: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게재(79~60점), 수정후재심(59~50점), 게재 불가(50점미만) * 심사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각 최종판정의 해당 범위와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p>			

소속 \_\_\_\_\_ 직급 \_\_\_\_\_ 심사위원 \_\_\_\_\_ ①  
입금은행(            은행) 계좌번호(            )

## 국제비교한국학회 연구 윤리 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의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 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과 자문에 응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조(소속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학회장이 위촉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
- ④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에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의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성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간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1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보 내용</li> <li>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li> <li>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li> </ol> |
|---|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판정)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및 국제비교한국학회(I.A.C.K.S)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 ① 부정행위
-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장 기 타

####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임원진 및 편집위원 명단

---

**회장**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부회장** 김양선(한림대/한국문학), 김정희(서울대/불문학), 류보선(군산대/한국문학), 민은경(서울대/영문학), 신수정(명지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진오(대구대/한국문학), 우림걸(산동대/한국문학), 유성호(한양대/한국문학), 윤상인(서울대/일문학), 이명호(경희대/영문학), 이육연(서강대/중국문화), 조성원(서울여대/영문학), 함정임(동아대/한국문학), Carolina Mera(Univ. of Buenos Aires/Sociology), Seiwoong Oh(Rider Univ/English Literature),

**총무이사겸재무이사** 최성민(경희대/한국문학), 윤인선(한밭대)

**편집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상임편집이사** 박성호 (경희대/한국문학)

**편집이사** 강용훈 (인천대/한국문학), 박호환(한국문학번역원),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예란(광운대/신문방송학), 김용희(평택대/한국문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혜경(UniversiteAix-Marseille/한국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서여명(남경대/중국학), 손유경(서울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성천(경희대/한국문학), 이승은(연세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순천향대/영미학과), 최영진(중앙대/영문학), 홍용희(경희대/한국문학), SoraPark(Univ of Canberra/Communication)

**연구이사** 권혁률(길림대/한국문학), 김서영(광운대/철학), 김석(건국대/철학), 김예림(연세대/한국문학), 노대원(제주대/한국문학), 문혜원(아주대/한국문학), 박동호(경희대/한국어학), 박수연(충남대/한국문학), 박주택(경희대/한국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양동국(상명대/비교문학), 엄성원(차의과대학/한국문학), 이윤종(서강대/영화학), 이채원(나사렛대/한국문학), 이형권(충남대/한국문학), 장철환(연세대/한국문학), 정끝별(이화여대/한국문학),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강석(연세대/한국문학), 최창록(남경대/한국문학), 여태천(동덕여대/한국문학)

**섭외이사** 서여명(남경대/한국문학)

**기획이사** 정은귀(외국어대/영문학)

**편집위원** 강용훈(인천대/한국문학), 김기봉(경기대/사학), 김동규(연세대/철학), 김태경(경희대/일문학), 김호영(한양대/영화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박성호(경희대/한국문학), 박인성(부산가톨릭대/한국문학), 윤혜준(연세대/영문학), 이경수(중앙대/한국문학), 이재복(한양대/한국문학), 장세진(한림대/한국문학), 정승훈(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정의진(상명대/불문학), 조만수(충북대/불문학, 연극), 조재룡(고려대/불문학), 진주영(순천향대/영미학과)

**윤리위원장** 오형엽 (고려대/한국문학)

**윤리위원** 김동식(인하대/한국문학), 도윤정(인하대/불문학), 심원섭(독협대(일본)/한국문학), 우찬제(서강대/한국문학), 이철의(상명대/불문학), 정명교(연세대/한국문학), 홍정선(인하대/한국문학)

**감사** 박형섭(부산대/불문학), 송명진(경기대/한국문학)

**총무간사** 양정현(서강대/한국문학)

**편집간사** 최지안(고려대/한국문학), 심다혜(고려대/한국문학)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ISSN 1226-2250

---

**발행일** 2022년 4월 30일

**발행인** 우찬제

**발행처** 국제비교한국학회

**편집인** 오형엽

---

우)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정하상관(J관) J1107호 우찬제 교수 연구실(신수동)

**Tel** 02)-705-8284

**E-mail** newiacks@empas.com 양정현(총무간사)

**학회계좌** (우리은행) 1002-561-787402

**예금주** 윤인선(국제비교한국학회)

**제작처** 한국학술정보(주) Tel. 031-940-1007

---

값 18,000원

\* 이 도서의 판권 및 저작권은 국제비교한국학회의 소유이므로 무단전재나 복사를 금합니다.